화(花)의 혈(血)

이 해 조

< 서 문 >

무릇 소설은 체재(體裁)[1]가 여러 가지라 한 가지 전례(前例)를 들어 말할 수 없으니, 혹 정치를 언론(言論)한 자도 있고, 혹 정탐(偵探)[2]을 기록한 자도 있고, 혹 사회를 비평한 자도 있고, 혹 가정을 경계한 자도 있으며, 기타 윤리, 과학, 교제(交際)[3] 등 인성의 천사만사 중 관계 아니 되는 자가 없느니, 상쾌하고 악착하고 슬프고 즐겁고 위태하고 우스운 것이 모두 다 좋은 재료가 되어 기자(記者)[4]의 붓끝을 따라 재미가 진진(津津)[5]한 소설이 되나, 그러나 그 재료가 매양 옛사람의 지나간 자취이나 가탁(假託)[6]의 형질 없는 것이 열이면 팔 구는 되되, 근일(近日)에 저술한 박정화(薄情花)[7], 화세계(花世界)[8], 월하가인(月下佳人)[9] 등 수삼종(數三種) 소설은 모두 현금(現今)[10]의 있는 사람의 실지(實地) 사적(事跡)[11]이라.

독자 제군(諸君)[12]의 신기히 여기는 고평(高評)을 이미 많이 얻었거니와, 이제 또 그와 같은 현금 사람의 실적으로 화의 혈(花의 血)이라 하는 소설을 새로 저술할 새, 허언(虛言) 낭설(浪說)은 한 구절도 기록지 아니하고 정녕(丁寧)히 있는 일동일정(一動一靜)[13]을 일호(一毫)[14] 차착(差錯)[15] 없이 편집하노니 기자의 재주가 민첩지 못함으로 문장의 광채는 황홀치 못할지언정, 사실은 적확(的確)하여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귀로 그 사정을 듣는 듯하여 선악간(善惡間) 족히 밝은 거울이 될 만할까 하노라.

1) 생기거나 이루어진 형식 또는 됨됨이.
2)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냄.
3) 남녀 사이에 가깝게 지내는 일.
4) 문서의 초안을 잡는 사람.
5) 재미 따위가 매우 많이 있음.
6) 거짓 핑계를 댐.
7) (대한민보, 1910.3.10.~5.31)
8) (동양서원, 1911.10)
9) (보급서관, 1911.12)
10) 바로 지금.
11) 실제로 있었던 일,
12) 여러분.
13) 하나하나의 동정.
14) 한 가닥의 털. 아주 작음.
15) 어그러져서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

제 일 회

천하에 보고 볼수록 어여쁜 것은 향기로운 꽃이라. 꽃이 한 번 피면 십 년, 백 년, 천 년 만 년을 이울지도[1]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고운 색채를 한결같이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년일도(一年一到)에 춘삼월이 돌아오면 낮이면은 볕을 쏘이고, 밤이면은 이슬을 받아 몇 밤 몇 날 만에 간신히 피인 그 꽃이라서 저 있을 기한(期限)을 온전히 있다가 이울고 떨어짐을 섭섭하고 원통하려던 뜻밖에, 사나운 바람과 모진 비에 못 견딘 바가 되어 열흘 있을 것을 이레나 여드레에 흔적이 없어지면 그 섭섭하고 원통함이 더구나 어떠하며, 바람과 비는 천지 자연(自然)한 이치로 되는 것이라.

누구를 원망할 수 없지마는 어째서 마침 경박한 아이가 와서 사재고 독한 손으로 아까운 줄을 모르고 제 욕심을 채우기만 위하여 한 번 뚝 꺾어 놓으니 슬프다. 그 꽃이 경각에 빛이 변하며 향기가 적막하여 지는 도다.

이 세상 사람 중 춘색(春色)을 아낄 줄 모르는 범상(凡常)한 무리는 그 꽃이 피어도 피었나 보다, 이울고 떨어져도 이울고 떨어졌나 보다, 누가 꺾어도 꺾나 보다 하여 심상(尋常)히[2] 보고 심상히 지나는데, 어떠한 여자 한 아이 꺾어진 그 꽃가지를 다정히 집어 들고 한없이 가엾이 여기며,

"에그, 아까워라. 어느 몹쓸 아이가 이런 못할 노릇을 했을까. 겨우내 풍설(風雪) 중에 천신만고(千辛萬苦)를 다 겪다가 봄철을 인제 만나 간신히 핀 너를 사정 없이 뚝 꺾었구나."

하며, 연한 눈에 조금만 더하면 눈물이 나올 듯하다가,

"속절없다."

소리를 구슬프게 하고 우두커니 앉았으니, 그 여자는 전라남도 장성군 최호방(戶房)[3]이 나이 사십이 되도록 자녀 간 한낱 혈육이 없어 매양 설워하더니, 그 고을 퇴기(退妓)[4] 춘홍을 작첩(作妾)[5]하여 천행으로 딸 형제를 낳았으니 큰딸의 이름은 선초요, 작은딸의 이름은 모란이라.

모란이는 유치(幼稚)[6]에 어린아이라 족히 의론(議論)할 바가 없거니와, 선초는 십 세가 넘어 점점 장성하여오니 꽃 같은 얼굴과 달 같은 태도가 한 곳도 범연(泛然)[7]한 데가 없는 일색(一色)[8]이러라.

자래(自來)로[9] 전해오는 말이 조선 십삼도 중 전라도 물색(物色)[10]이 제일이요, 전라남북도 중 장성군 물색이 또 제일인데, 그 고을 배판(排判)[11] 이후로 명기(名妓)가 나고 명기가 나도 둘도 못 되고 꼭꼭 하나씩이 연(連)해 계속해서 나서, 일세(一世)에 훤자(喧藉)[12]하던 터이라.

최호방이 선초의 인물을 속절없이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곳 풍속대로 십 삼세에 기안(妓案)[13]에다 넣었는데, 선초는 짝이 없이 총명 영리한 여자라. 한번 듣고 한 번 본 것을 능통치 못하는 것이 없어 글, 글씨, 가무(歌

1) 시들지도
2) 대수롭지 않고 예사로이.
3) 각 지방 관아의 호방(戶房)에 속하여 호전(戶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4) 기안(妓案)에서 물러난 기생.
5) 첩을 삼음.
6) 나이가 어림.
7) 차근차근한 맛이 없이 데면데면함.
8) 뛰어난 미인.
9) 자고이래로.
10) 자연의 경치.
11) 벌려 차려짐. 생겨남.
12) 뭇사람의 입으로 퍼져서 왁자하게 됨.
13) 관아에서 기생의 이름을 기록하여 두던 책.

舞), 음률(音律)[1]이 교방(敎坊)[2] 분대(粉黛)[3] 제일 으뜸이 되니, 그 이름이 원근에 전파하여 어느 남자가 선초 한 번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없고, 한 번 보기 곧 하면 꽃다운 인연을 생각지 않는 자가 없더라.

선초가 하나라도 적어서는 동무를 따라 이런지 저런지 모르고 어느 배반(杯盤)[4]이나 어느 놀음에서 부르는 대로 좋아서 가더니, 어언간 십오 세가 됨에 거울같이 맑은 천성으로 온갖 물정을 모두 짐작하는 터이라.

한 번은 어떠한 연회에를 갔다가 호탕한 무리가 설만(褻慢)히[5] 구는 양을 보고 슬며시 분원(忿怨)[6]한 생각이 들어서 한탄하기를,

"나도 사람인데 부모의 혈육을 타고나서 어쩌다 이같이 천한 구덩이에 몸이 떨어졌나? 그는 이곳 풍속이 괴악(怪惡)[7]해서 자식 나서 기생에 박는 것을 전례로 여기는 터이니, 부모의 원망할 것도 없고 내가 한 눈, 한 팔 병신으로 생기지 못한 것만 절통(切痛)하지.

그러나 철(鐵) 중에도 쟁쟁(錚錚)[8]이라고 아무리 기생이라도 제 행실 제 가질 탓이지, 기생이라고 다 개 짐승의 행실을 할까. 광대 타령의 말마따나 옛날 춘향이는 남원 기생으로 허탄(虛誕)히[9] 몸을 버리지 아니하고 연기(年紀)[10]와 재질이 적당한 이 도령을 만나 일부종사(一夫從事)[11]를 하였으므로 그 아름다운 이름이 몇백 년을 썩지 아니하였는데, 나 역시 팔자가 기박(奇薄)[12]하여 천한 몸은 비록 되었으나 절행(節行)[13]이야 남만 못할 것 있나."

하고 그날부터 속에는 남복(男服)을 입고, 겉에는 여복(女服)을 하여 불의(不意)에 창피한 일을 방비하고, 관찰(觀察)[14], 군수(郡守) 이하로 아무리 흠모(欽慕)하여 수청(守廳)[15]을 드리고자 해도 죽기로써 맹세하고 청종(聽從)[16]치 아니하니, 그 관찰, 군수가 적이 지각이 있는 자들 같으면 제 뜻이 가상해서라도 아무쪼록 찬성을 하여 지조를 온전히 지키게 할 터이거늘, 한 달이 멀다 하고 펄쩍 갈아오는 그 관찰, 그 군수가 모두 다 한 데 땅이라.

선초의 인물을 보고 제각기 침이 없이 욕심을 내어 만단개유(萬端改諭)[17]도 하고 백방위협도 하나, 선초의 작정은 연기도 자기와 같고 인물도 자기와 같고 총명도 자기와 같은 남자와 꽃다운 인연을 한 번 맺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난봉(鸞鳳)[18]의 깃들임같이 금실지락(琴瑟之樂)[19]을 누리리라 하여, 아무리 관직이 높은 자이나 기구(奇句)[20]가 좋은 자이나 의복을 사치한 자이라도 일체로 거절하노라니, 저간(這間)[21]에 당한 단련(鍛鍊)[22]이야 이로 어찌 다 측량하리오.

---

1) 소리와 음악의 가락.
2) 기생들을 가르치던 곳.
3) 화장한 미인.
4) 흥취 있게 노는 잔치.
5) 하는 짓이 거만하고 무례히.
6) 몹시 분하여 원망함.
7) 괴이하고 흉악함.
8) 옥이 부딪쳐 맑게 울리는 소리.
9) 거짓되고 미덥지 않게.
10) 대강의 나이.
11) 평생 한 남편만을 섬김.
12) 운수가 사납고 복이 없음.
13) 절개를 지키는 행실.
14) 관찰사(觀察使). 민정·군정·재정·형정 등을 지휘하고 감독하던 각 도의 으뜸인 종이품의 벼슬.
15) 기생이 높은 벼슬아치에게 몸을 바쳐 시중을 들던 일.
16) 이르는 대로 잘 들어 좇음.
17) 여러 말로 타이름.
18) 난조(鸞鳥)와 봉황을 아울러 이르는 말.
19) 부부간의 화목한 즐거움.
20) 기발한 글귀.
21) 그동안.
22) 귀찮거나 괴로운 일로 시달림.

어떤 자는,

"이 애. 선초야. 말 들어라. 네가 바로 기안에 이름이 없고, 규중(閨中)에 깊이 감추어 있는 터 같으면 모르겠다마는, 기왕(旣往) 화류장(花柳場)[1]에 발을 적신 이상에 순상(巡相)[2] 사또가 그처럼 하시고, 본관(本官)[3] 사또가 그처럼 하시는데 왜 말을 아니 듣고 고집을 하니. 너 같은 자격에 눈 끔쩍하고 한 번 만 응낙을 하였으면 이 도나 이 고을 일판[4]을 쥐었다 폈다 할 터이니 그 아니 좋으냐?"

어떤 자는,

"여보게, 선초씨. 자네 생각이 어떻게 들어 이렇게 고집을 하나. 왕후장상(王侯將相)[5]이 씨가 있다던가. 자네가 사또 수청 곧 들게 되면, 오늘 기생이 내일 마마님이 되어 호강도 한 번 늘어지게 하려니와, 자네 속에서 아들을 쑥쑥 낳으면 그 아들이 판서는 못 하겠나, 정승은 못 하겠나, 관찰사 군수 무엇은 못하겠나? 그때 가서는 정경부인(貞敬夫人)[6]이 되어 언제 기생 노릇을 하였더냐 할 터인데, 그것을 싫다고 말을 아니 듣는단 말인가?"

그중에 선초가 관찰 군수의 수청 아니 듣는 것을 해롭지 아니하게 여겨 슬며시 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는,

"허. 자네 잘 생각했네. 관찰, 군수 그네들은 뜬구름에 흰 매아지[7] 일제(一齊)[8]로 휙 지나가면 그만인데 당장에 자기 눈앞에 자네가 뵈이는가. 아직 소일이나 해보려고 어쩌니 어쩌니 별별 소리를 다 해가며 수청을 들이려고 한 것이지. 벼슬만 갈려서 훌쩍 가보게. 꿈에나 자네 생각을 할 터인가. 두말 말게. 내가 자네 구실[9]을 떼어줄 것이니 우리 둘이 같이 한 번 살아 보세."

하루도 몇 사람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감언이설(甘言利說)[10]로 꿀을 들어붓는데, 선초는 그리할수록 마음을 더 굳거니 가져, 혹 정색(正色)을 하여 거절도 하고 혹 좋은 말로 반대도 하니, 선초가 여염가(閭閻家)[11] 규수로 춘색(春色)을 누설치 아니한 터 같으면 무리한 말로 권할 사람도 없을 것이요, 권해서 말을 아니 듣더라도 말하던 제나 무안한지 이상히 여길 바가 아니로되, 제가 교방(敎坊) 출신으로 사람마다 가히 꺾을만한 노류장화(路柳墻花)[12]가 되어 그 모양으로 말살(抹殺)[13]스럽게 구니, 듣고 보는 자가 모두 큰 변괴(變怪)나 싶어 한 입 걸러 두 입 걸러 그 소문이 사면 각처에 아니 퍼진 데가 없는데, 말은 갈수록 보탠다고 전하는 자의 성미를 따아 점점 한마디씩을 보태어 나중에는 서울 성지(城地) 전파되기를,

"전라남도 장성군에 선초라는 천하일색 기생 한 아이 낳는데, 인물은 양귀비(楊貴妃), 서시(西施)[14]가 명함을 못 드리겠고, 재질은 반첩여(班婕妤)[15], 소소매(蘇小妹)[16]가 현신

1) 화류계.
2) 도(道) 안의 군무를 순찰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로 각 도의 관찰사가 겸임하였음.
3) 고을의 수령.
4) 어떤 지역의 전부.
5) 제왕·제후·장수·재상의 통칭.
6) 정일품·종일품의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
7) 비를 머금은 검은 조각구름.
8) 한꺼번에.
9)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 여기서는 자식으로서의 일.
10) 남의 비위에 맞게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11) 일반 백성의 집.
12)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창녀나 기생을 이름.
13) 뭉개어 없애 버림.
14) 중국 춘추 시대 월나라의 미인으로 오나라에 패한 월나라 왕 구천이 서시를 부차에게 보내어 부차가 그 용모에 빠져 있는 사이에 오나라를 멸망시켰음.
15) 중구 서한 시대의 후궁이자 문학가.

(現身)[1]도 못 하겠는데, 어찌 마음이 도고(道高)[2]한지 바로 찬물에 돌[3] 같아서 관찰 군수 이하로 그 경내 부자의 자식들이 어느 누가 침을 아니 삼킬 사람이 없으되, 차례로 퇴박[4]을 맞았다는 걸.

그런데 말을 들은즉 아무 때던지 두 질빵[5] 사이에 모가지 넣은 막벌이꾼이라도 제 눈에 드는 자만 만나면 백 년을 같이 살 작정으로 제집 들창문에 발을 들이고, 매일 몇백 명씩 지나가는 남자를 낱낱이 선보기로 종사(從事)[6]를 한다는 걸 아무라도 이목구비(耳目口鼻)나 똑똑이 쓰고 낳거든 자두지족(自頭至足)[7]을 훨씬 매만지고 일부러 한 번 내려가 선을 뵈어 볼만 하더라."

이 소문이 부인 사회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례(依例)히 둘이 모이나 셋이 모이나 남자 총중(叢中)[8]에서 이야기가 나는데, 물론 어떤 남자 총중이고 이야기 곧 나면,

"허어. 그것 무던하고 기생에도 그런 자격이 있더란 말인가. 그래야 하지. 사람이 되어 개도야지 모양으로 난잡(亂雜)히 행동을 하다가 남의 소년 자제를 수없이 버려주고 저까지 악한 병이나 얻어 신세를 마칠까 허이. 그것 기특하고."

난봉으로 막된 위인들은

"실없는 년. 제가 아니 꼽게 절행(節行)이라는 것이 다 무엇인고. 그럴 터이면 기생 노릇은 왜 해.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마는 제 얼굴이 응당 반주그레[9]하기에 이 사람 저 사람이 회가 동하여[10] 날치는[11] 것이니, 이놈도 좇아 저놈도 좇아 하여 세상 보내는 것이 상책(上策)이지, 되지 못하게 제가 그러면 무엇을 해. 무정세월에 덧없이 늙어만 지면 어떤 시러베아들[12] 놈이 찾아갈 터인가?"

그중에 우악(愚惡)[13]한 자는

"주제넘은 년. 제 어미도 기생으로 매일 열지(熱志)[14]하던 것이라는데, 가장 제가 젠체하고 그러면 제집 대문에 정문(旌門)[15]을 세워볼 줄 아나. 그런 년이 욕심은 더 앙큼하게 있어서 외양으로 가장 고결한 체하고 은근히 별별일이 다 많은 법이지.

관찰, 군수로 있는 분네들이 모두 다 똥물에 튀한[16] 인물들이기에 그렇지. 적이 손아귀가 딱딱하고 보면 제까짓 년이 어디 가서 그런 버르장이를 할꼬? 당장 혼뜨검[17]을 하여 다시 그런 버르장이를 못 하게 하였으면 다른 기생에게까지 본보기가 되지."

그런 말을 아무라도 한때 웃음거리로 듣고 말 터인데, 그중에 나이 사십이나 되고 얼굴이 검푸르고 수염이 많도 적도 않고 키는 중길은 되는 사람 하나가 눈을 깜작깜작하고 가(可)커니 부(不)커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들으며 손에 든 합죽선을 폈다 접었다 하다가 가장 범연(泛然)스러운 체하고,

"에이, 사람들. 상스러운 소리 그만두게. 점

---

16) 중국 송나라의 대문호 소동파의 여동생.
1) 지체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뵘.
2) 스스로 도덕이 높은 체하여 뽐냄.
3) 지조가 맑고 굳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4)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물리치거나 거절함.
5) 짐을 걸어서 메는 데 쓰는 줄.
6)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7)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뜻으로 '온몸'을 이르는 말
8) 떼를 지은 뭇사람 가운데.
9) 생김새가 겉으로 보기에 반반하다.
10) 구미가 당기거나 욕심이 생기어
11) 자기 세상인 것처럼 날뛰며 기세를 올리는.
12) 실없는 사람.
13) 미련하고 불량함.
14) 열중.
15)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고자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16) 새나 짐승을 잡아 뜨거운 물에 잠깐 넣었다가 꺼내어 털을 뽑음.
17) 단단히 혼남.

잖은 사랑에서 외하방(外下方)[1] 기생년의 이야기는 응 창피스러워.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으며, 설혹 잘났기로 무엇을 그리 떠든단 말인고."

좌석에 마침 전라남도 친구가 앉았다가,

"노형(老兄)[2]. 말씀이 당연하기는 하오마는, 나도 금년 이월에 장성읍에를 갔다가 선초를 얼핏 보니까 과연 생기기는 썩 도저(到底)[3]하게 생겼어요. 처음에야 선초의 소문만 들었지 자세 알았소마는, 제 집이 바로 삼문(三門)[4] 앞인 고로, 하루도 몇 번씩 드나드는 것을 보고 짐작하였지요."

대범한 체하던 자는, 리도사(都使)[5]라 하는 자인데, 평일(平日)[6] 역사(歷史)를 대강 말하자면, 속담에 망석중[7]이 일반(一般)이라. 선비 때부터 양반은 자기 하나뿐인 체, 언변도 자기 하나뿐인 체, 지혜도 자기 하나뿐인 체, 그중에 엉큼한 욕심은 들어앉아서 어느 산림(山林)[8]에게 집지(執贄)[9]를 하여 학행(學行)[10]도 자기 하나뿐인 체, 부모덕에 글자는 배워서 문장도 자기 하나뿐인 체하다가 서울로 쑥 올라와서 은근히 세력이 있는 재상의 집에를 출입하여 처음에 재랑(齋郞)[11] 초사(初仕)[12]로, 나중에 도사(都使) 출륙(出六)[13]을 한 분네인데, 선천품부(先天稟賦)[14]를 순양(純陽)덩이[15]로 타고나서 호색(好色)[16]은 한 바리[17]에 실을 사람이 없음으로, 남모르게는 별별 기괴 망측한 행동을 모두 하면서, 외식(外飾)[18]으로는 세상에 정남(貞男)[19]은 역시 자기 하나뿐인 체하여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 거짓말 보태어 십 리씩은 피해가고, 좌상에서 계집의 언론이 나면 능청스럽게 거리책지(據理責之)[20]를 일수 잘하더니, 급기 선초의 선성(先聲)을 들은 후로 며칠 밤을 잠을 잘 못자며 스스로 궁리하기를,

"선초가 참 일색인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한 번 볼꼬? 보기야 내일이라도 장성만 내려갔으면 어렵지 아니하지마는, 행색을 그 모양으로 초솔(草率)[21]하게 내려가면 관찰 군수의 수청도 아니 든다는 계집이 내 말 들을 리가 정녕 없을뿐더러, 평일에 내 행세를 그렇게 낫게 한 터가 아닌데, 남들이 비소(鼻笑)[22]하기가 첩경(捷徑) 쉬울 터이니, 무슨 방법을 하였으면 내 행세도 손상치 아니하고 한번 처결을 하여 볼꼬?

응. 못생긴 자식들. 그곳 관찰사 군수로 있어서야 당장 기생으로 있는 것을 일호령(一號令)에 수청을 못 들이고 무류(無謬)히[23] 물러앉아. 응. 못생긴 것. 내가 그 처지로 있게 되면 시각을 넘기지 않고 제가 자원하여 수청 들게 못할까? 그러나 그는 다 쓸데없는

1) 서울 이외의 지방.
2) 처음 만났거나 그다지 가깝지 않은 남자 어른들 사이에서, 상대편을 대접하여 부르는 말.
3)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음.
4) 대궐·관청 등의 앞에 있는 세 개의 문
5) 각 관아에서 심부름을하던 사령의 우두머리.
6) 평상시.
7) 남이 부추기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8) 학식과 덕이 높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서 지내는 선비.
9) 제자가 스승을 처음 뵐 때, 예폐(禮幣)를 가지고 가서 경의를 표하던 일.
10) 학문과 덕행.
11) 묘(廟)·사(社)·전(殿)·궁(宮)·능(陵)·원(園) 따위의 참봉 등을 이르던 말.
12) 처음으로 벼슬을 함.
13) 참하(參下)에서 육품으로 승급하던 일.
14) 부모에게 이어받은 건강한 몸.
15)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아니한 제대로 온전한 양기(陽氣).
16) 여색을 매우 좋아함.
17)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
18) 겉으로는
19) 숫총각.
20) 사리를 따져 잘못을 꾸짖음.
21) 거칠고 엉성하여 볼품이 없음.
22) 코웃음.
23) 부끄럽고 열없이.

말이고, 어떻게 하면 묘리(妙理)[1] 있게 내 소원 성취를 하여 볼꼬?"

이처럼 전전반측(輾轉反側)[2]하다가 한 가지 무슨 생각을 하고 혼잣말로,

"꼭 그렇게 했으면 영락없이 되겠구먼. 무슨 빙자(憑藉)[3]할 말이 있어야지."

그리자 어떠한 손님이 문밖에 와 찾으니까 분주히 나가보더니 반가이 인사를 하며,

"자네 언제 올라왔나? 대소(大小) 택내(宅內)가 다 일안(日安)[4]들 하신가?"

그 손이 한숨을 휘이 쉬며

(손) "시생(侍生)[5]의 집은 이 동안 아주 결단을 당했습니다."

(리) "그게 무슨 말인가 어찌하다가. 응."

(손) "근일에 충청남북도는 동학으로 해서 아주 말이 아닌 중, 목천은 더욱 우심(尤甚)[6]하여 시생의 대소가(大小家)가 모두 폭화(暴火)를 당했습니다."

(리) "대소가라니? 자네 삼종(三從)[7]씨 댁도 그 풍파(風波)를 당하셨단 말인가?"

(손) "풍파를 당할 여부가 있습니까? 시생은 이렇게 도망이나 하여 서울로 나왔습니다마는 삼종씨께서는 그자들에게 잡혀가셨는데 어찌 되었는지 하회(下回)[8]를 알 수 없습니다."

(리) "허허, 그것 말되었나. 자네 삼종씨는 장정이니까 잡혀갔더라도 여간 고생은 좀 하겠지마는,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마는 자네 재종숙모께서 팔십 당년에 오죽 놀라셨겠나?"

리도사가 그 사람을 작별하여 보내고 남은 난리를 만나 대소가가 결단이 나서 황황망조(遑遑罔措)[9]히 지내는데, 자기는 무엇이 그리 좋은 일이 생겼는지 얼굴에 희색(喜色)을 가득히 띠고 혼자 빙글빙글 웃으며 분분히 웃옷을 내어 입고 남문 안 창골 근처로 쏜살같이 가더니, 몇 시간 후에 다시 낙동 등지로 분분히 가더라.

그날부터 창골, 낙동을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10] 활동을 하더니, 삼남(三南)[11] 시찰사(視察使)[12] 하나가 새로 났는데 그 관보(官報)[13]가 돌아다니니까 이 사랑 저 사랑에서 공론(公論)들이 분운(紛紜)[14]하다

"어이. 시찰이 새로 났네. 으응. 시찰이 났어. 누가 했단 말인가. 오늘 관보를 보니까 리도사가 하였습디다. 허허. 그야말로 만장공도(萬丈公道)[15]로구만. 그 사람이 학행(學行)[16]이 있고 무식하지 않은 터이니까 시찰을 매우 잘할 걸. 그는 필경 평일 명예로 공천(公薦)이 되었겠지. 아무렴 그렇지. 점잖은 터에 그가 자구(自求)[17]야 했겠소. 고지식하니까 가기나 할는지 알 수도 없소."

한 사람이 그 곁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이 사람들 자지도 않으며 잠꼬대를 하고 앉았나? 그 사람이 시찰을 왜 아니 가. 아니

1) 오묘한 이치.
2)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함.
3) 말막음을 위하여 핑계로 내세움.
4) 날마다 편안함.
5) 말하는 사람이 웃어른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6) 더욱 심함.
7) 팔촌.
8) 일의 결과
9) 마음이 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함.
10) '풀방구리'는 풀을 베어 담아 놓는, 동이 모양의 작은 질그릇. 쥐 드나듯 한다는 것은 매우 자주 드나드는 모양
11) 충청도·전라도·경상도
12) 두루 돌아다니며 실지(實地)의 사정을 살피는 임시직.
13) 정부가 법령·고시(告示) 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간행물.
14)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음.
15)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이 매우 공평한 일.
16) 학문과 덕행.
17) 스스로 구(求)함.

갈 사람이 목에 침이 말라 돌아다니며 벌었을까."

먼저 말하던 사람들이 일시에,

"이 사람 남을 그렇게 할경[1]하여 말을 말게. 그가 열 번 죽기로 벼슬 벌러 다녔겠나?"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며,

"이 사람들 내가 억하심정(抑何心情)[2]으로 남의 없는 말을 할까. 자네네 알다시피 나는 가빈친로(家貧親老)[3]하여 구사(求仕)[4]를 하는 터이기로, 매일 남북촌 모모 재상의 집을 한 차례씩은 의례히 돌아다니는데, 그가 신씨와는 계분(契分)[5]이 대단하더군. 신대신(大臣), 신장신(將臣)[6] 두 집에서는 어느 날 못 볼 날이 없는데, 이번 시찰 운동하느라고 애를 무진 쓰던데 그래."

그 사람의 말이 일호(一毫)도 허언이 아니라 리도사의 좋은 구변(口辯)으로 신대신, 신장신을 북 나들듯 가보고[7], 그 회(會)를 보아가며 시찰을 그치는데 썩 의사(疑事)[8]도 스럽고 간교(奸巧)도 하더라.

신대신에 가 보고

(리) "대감께옵서 묘당(廟堂)[9]에 계신 터에 어련하시겠습니까마는, 요사이 지방 소문을 들으니까 하루바삐 진정 아니하오면 인민이 무여지(無餘地)하게[10] 어육(魚肉)[11]이 되겠습니다."

(신대신) "글쎄. 삼남(三南)에는 소위 동학당의 횡행(橫行)이 대단하다는 걸. 그렇지마는 그까짓 오합지졸(烏合之卒)을 무슨 심려(心慮)할 것이 있나. 진위대(鎭衛隊)[12] 몇 초(哨)[13]만 풀어 보냈으면 며칠 아니 가서 다 소멸할 것일세."

리도사가 꽁차려는 보라매[14] 모양으로 두 어깨를 바싹 모으고, 신 대신 앞으로 가까이 다가앉으며

(리) "대감 이게 무슨 망령의 말씀이오니까? 그 백성이 무슨 죄가 있길래 병정을 풀어 무찌르러 드십니까?"

(신) "그 백성이 죄가 없다니, 총구에서 물이 나느니, 도사리고 앉아 공중에를 올라가느니 하는 허탄(虛誕)[15]한 말을 주출(做出)[16]하여 사면 돌아다니며, 누도(累度)[17] 도식(盜食)이고 빗바지 굴총(掘塚)[18]하기, 심지어 부녀 재산을 함부로 탈취한다는데 어찌해서 무죄하다고 하오?"

(리) "허허. 대감께서 그렇게 통촉하시기가 용혹무괴(容或無怪)[19]올시다마는, 그 백성 그 지경된 원인을 말씀하고 보면, 저희들은 아무 죄도 없다고 해도 과한 말씀이 아니올시다."

(신) "어찌해서 그렇단 말이오?"

(리) "자고이래(自古以來)[20]로 백성은 물과 일반이라. 동으로 터놓으면 동으로 흐르고, 서로 터놓으면 서로 흐르고, 막히면 격동(激動)하고, 순하면 내려가는 것이온데, 근일에 각도 지방관을 택차(擇差)[21]를 못한 탓으로

1) 상대에게 말로써 경멸의 뜻을 나타냄.
2)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그 마음을 모르겠음..
3)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늙었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은 벼슬자리라도 얻어서 어버이를 봉양해야 한다는 말.
4) 벼슬을 구함.
5) 친한 벗 사이의 두터운 정분(情分).
6) 대장.
7) 부리나케 자주 드나드는 모양을 비유한 말.
8) 의심스러운 일.
9) 종묘와 명당(明堂)으로 정치를 하던 조정.
10) 다시 더 할 여지가 없게.
11) 짓밟고 으깨어 아주 결딴 낸 상태.
12) 대한 제국 때에, 지방의 각 진(鎭)에 둔 군대.
13) 약 백 명을 단위로 하던 군대의 편제.
14) 꿩 잡으려는 매.
15) 거짓되고 미덥지 않다.
16)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
17) 여러 차례.
18) 남의 무덤을 파냄.
19)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괴이할 것이 없음
20) 예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

적자(赤子)[1] 같은 백성을 사랑할 줄은 모르고 기름과 피를 긁음에, 일반 인민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참다 못하여 악이 나서 이리해도 죽고 저리해도 죽기는 일반이라 하고, 범죄를 한 것이오니 그 아니 불쌍한 무리오니까?"

(신) "그 폐단도 없지는 아니하겠지마는 설마 지방관들이 모두 불치(不治)[2]야 되리까?"

(리) "아무렴 그렇지요. 닭에 무리에도 학이 있다 하옵는데, 불치들 하는 중에도 이따금 선치(善治)가 있기는 하겠지오마는, 큰집 쓰러지는데 한 나무로 버티지 못함(大廈將傾非一木可支)은 확연한 이치가 아니오니까?"

(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리) "시생의 천견(淺見)[3]에는 공직(公直)[4]하고 무식지 않고 민정을 알만한 자격을 택차하여, 삼남도 시찰을 내어 암행(暗行)으로 각 군에를 순회하며 지방관의 치적의 선부(善否)를 낱낱이 시찰한 후, 선치자(善治者)는 포장(褒奬)[5]을 하고, 불치자(不治者)는 징계를 하며, 일변으로 백성을 안무(按撫)[6]하여 귀순 안도케 하오면, 불과 얼마 아니 되어 삼남 각처에 격양가(擊壤歌)[7]가 일어날 줄로 꼭 믿습니다."

신대신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연구하더니 리도사의 말을 십분 유리하게 듣고,

(신) "노형은 가위(可謂)[8] 경세지재(經世之才)[9]시오. 그 말이 꼭 그러하겠소. 내일이라도 시찰 보낼 일을 탑전(榻前)[10]에 아뢰면 처분을 물을 듯 하오마는, 그 소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얼핏 어디 있어야 아니 하오?"

(리) "만사구비에 지흠동남풍(萬事具備 只欠東南風)[11]으로 제일 사람이 없으니 그 일이 어려올 듯합니다."

신대신이 리도사를 물끄러미 건너다보더니,

(신) "불필타구(不必他求)[12]이요 구려. 노형이 그 사무를 담당하여 보면 어떠하겠소."

(리) "천만의외 말씀이올시다. 시생이 자격도 부족하옵고, 여러 가지 충절이 있어 못되겠습니다."

(신) "자격은 족부족(足不足) 간에 나의 짐작이 다 있으니까 다시 겸사(謙辭)[13]할 것도 없소마는, 충절은 무엇이 그리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오? 여보, 노형이 독선기신(獨善其身)[14]만 하면 소용이 무엇이오. 이런 때를 당하여 나랏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려."

(리) "대감께서 이처럼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제 몸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종래 고집을 하오리까마는, 물러가 제 역시 형편을 생각하여 보옵고, 내일 다시 났자와 좌우간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신) "그리하시오. 아무쪼록 나랏일을 한번 해봅시다."

리도사가 그 길로 신장신을 가 보고, 신대신과 하던 말과 일반으로 수작을 한참하여 자기를 천거하여 내세우려고 하도록 한 후, 여전히 재삼 사양하다가 내일 또 와 고(告)

---

21) 인재를 골라 벼슬을 시킴.
1) 갓난아이
2)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음.
3) 얕은 견문이나 견해. 자기 소견의 겸칭.
4) 공평하고 정직하다.
5) 칭찬하고 장려함.
6) 백성의 사정을 살펴 어루만져 위로함.
7)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기려 불렀다는 노래.
8) 과연.
9)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재목.
10) 임금의 자리 앞.
11) 만사(萬事)를 두루 갖추었는데 다만 동풍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중요한 핵심 조건을 구비하지 못함.
12) 다른 데에서 구할 필요가 없음.
13) 겸손하게 사양함.
14) 남은 돌보지 않고 자기 한 몸의 처신만을 온전히 하는 일.

하마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 이튿날 다시 신대신 신장사를 차례로 가보고 청산유수(靑山流水)같이 좋은 구변으로 자기 일을 칠월에 굳은 박 모양으로 단단히 굳힌다.

(신) "그래 밤 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보았소?"

(리)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신대신이 좌우 손이나 잃은 듯이

(신) "그게 무슨 말이오? 되지 못할 말을 하시오. 내가 그 이유를 들어보아서 웬만 곧하면 변통을 해서 되도록 해보겠소."

(리) "대감께서 시생으로 시찰을 임명하시려기는 지방행정의 선악을 포장하며 혹 징집하여 인민의 마음을 편안하도록 하시는 일이 아니오니까?"

(신) "아무렴 그렇지."

(리) "그러하오면 시생에게 대감의 위엄을 빌리시고 권한을 어디까지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신) "모두 다 상의(上意)[1]에 있는 바인즉 내가 미리 말하기는 어렵소마는 중대한 사무를 쓸어 맡기는 이상에 권한을 주지 아니하며 나 역시 모르는 체하리까. 그러나 권한이라는 것은 한량(限量)이 없는즉 어떻게 하였으면 넉넉히 사무를 진행할까요?"

(리) "권한이 별것이오니까? 단순하게 시찰만 보내오면 너무 초솔(草率)[2]할 뿐 아니오라 시생의 혼자 힘으로 위엄이 서지 못할 터이오니, 대감께서는 안렴사(按廉使)[3] 되시고 낙동 대감은 순무사(巡撫使)[4]가 되시고, 시생은 시찰을 시키시면 두 대감의 명령을 받들어 힘껏 일을 하여 보오리다."

(신) "허허, 낙동 대감은 순무사 자격이 되시지마는, 내야 안렴사 자격이 되나. 그것은 어찌 되었던지 그 외에는 다른 말씀할 것은 없소? 생각한 바가 있거든 아주 지금 설명을 하오."

(리) "그 외에 말씀하올 것은 이왕 암행어사 일반으로 마패를 내리셔 선참후계(先斬後啓)[5]하는 권한을 사용케 하여 주셔야 치적이 있는 수령은 당장 포계(捕繫)[6]를 하고 탐관오리는 모조리 봉고(封庫)[7]를 하여 일반 민심이 상쾌하도록 하여야, 적년(積年)[8] 쌓여 오던 원기(怨忌)[9]가 풀어질 터이올시다."

(신) "글쎄……. 일은 그러하오마는 용이(容易)할 듯 싶지 아니하오. 그러나 모사는 재인(謀事在人)[10]이라니 운동을 하여 보기나 합시다."

---

1) 임금의 마음
2) 거칠고 엉성하여 볼품이 없다.
3) 조선 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
4) 조선 때, 전시의 군무(軍務)를 맡아보던 임시 벼슬.
5)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6) 각 도의 관찰사나 어사가 고을 원의 선정(善政)을 임금에게 아뢰던 일.
7) 어사나 감사가 부정을 저지른 한 고을의 원을 파면시키고 관가의 창고를 봉해 잠그던 일.
8) 여러 해.
9)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10)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

제 이 회

두 신씨의 굉장한 운동으로 리도사 욕심껏 성사(成事)가 되어 관보에 성명이 게재되니, 즉시 치행(治行)을 하여 삼남으로 내려가는데, 그 행색을 언론(言論)하면 중도 아니요, 속한(俗漢)[1]이도 아니러라.

마패를 가졌으니 옛날 어사 일반이라. 아무쪼록 폐포파립(敝袍破笠)[2]으로 여항(閭巷)[3]에 암행하여 민정(民情) 감고(甘苦)[4]를 탐문하여야 할 터인데, 신교(薪橋)[5] 바탕도 못 타보던 위인이, 별안간에 그다지 귀해졌는지 좋은 사인교(四人轎)에 두세 패를 지르고, 건장한 구종(驅從)[6]을 앞뒤에다 나란히 세웠으며, 자릿보, 요강, 퇴침(退枕)[7], 타구(唾口)와 모든 기구를 썩 굉장케 차려 가지고

"시찰 내려간다."

노문(路文)[8]을 놓다시피 뒤떠들며 내려가니, 이 고을 저 고을 수령들이 각기 리시찰의 선성(先聲)[9]을 듣고 다투어 영접하여 칙사(勅使)[10] 대접이나 다름없더라.

리시찰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바로 전라남도로 내려갈 터이요, 전라남도로 내려가도 바로 장성읍으로 갈 터이지마는, 가만히 생각하여 본즉,

"이번 시찰을 벌어 내려가기는 소관이 하사(所關何事)[11]리오마는 아무 일도 한 것 없이 기생 작첩(作妾)부터 했다면 청문(聽聞)[12]이 사나워 명예에 관계가 되겠고, 또는 세상일이 내 실속부터 하는 것이 가한즉 돈부터 넉넉히 벌어놓고 보겠다."

하고 먼저 충청도로 내려섰는데, 각읍 선치(善治) 수령은 아무리 자기를 냉대(冷待)하여 당장 결딴내고 싶으나 무엇이라 트집 잡을 거리가 없고, 불치(不治) 수령은 다투어 은근히 무릎을 괴어주며 가진 첨(諂)[13]을 다 하니까 사세 부득이 눈을 감아 도처(到處)마다 포계(褒啓)[14]를 하여 주니, 그 시찰 보낸 것이 효험만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민심이 더욱 불울(怫鬱)[15]하여 폭도가 사면에서 불일어나듯 하는지라.

리시찰이 요량(饒良)[16]에,

"내가 신대신 신장신 앞에서는 폭도(暴徒)의 치성(熾盛)[17]하는 것이 전혀 지방의 죄라 하고 시찰을 시켜주도록 하였지마는, 군수들은 염치(廉恥) 소재(所在)에 하나 파직 장계할 사람이 없고, 폭도는 저 모양으로 점점 더 치성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아무 성적 없는 소문이 서울에 올라가기 곧 하면 오직 나를 미타(未妥)[18]히 여길라고. 모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갔으면 그만이라고 아무렇게 하던지 폭도만 없앴으면 그만이지 다른 일이야 누가 알 시러배아들 놈 있느냐?"

하고, 신대신 내려오기를 기다려 비밀히 의견 진술하는 말이,

"하관(下官)[19]이 이번 길에 위로 성상(聖

1) 성품이 저속한 사람.
2) 해진 옷과 부서진 갓. 초라한 차림새의 비유.
3) 여염.
4) 괴로움과 즐거움.
5) 섶다리.
6) 관원을 모시고 다니던 하인.
7) 서랍이 있는 목침.
8) 벼슬아치가 공무로 지방을 여행할 때, 관리가 이를 곳에 날짜를 미리 알리던 공문.
9) 미리 알리는 소식.
10) 칙명을 전달하는 특사.
11) 관계되는 일이 있음.
12) 퍼져 돌아다니는 소문.
13)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림.
14) 각 도의 관찰사나 어사가 고을 원의 선정(善政)을 임금에게 아뢰던 일.
15) 불만이나 불평이 있어 화가 치밀고 답답함.
16) 앞일을 잘 생각하여 헤아림. 또는 그런 생각.
17) 불길같이 성하게 일어남.
18) 온당하지 않음.

上) 홍덕(弘德)[1]과 그 다음 두 분 대감 위엄을 받들어 도처마다 진심껏 설유(說諭)[2]하온즉, 일체 수령들이 모두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를 쇄신(刷新)하올 뿐 아니라, 본래 양민으로 위협을 못 이기어 폭도에 참여하였던 무리는 차례로 귀순하는 중이올시다."

(신) "허허, 나라에 만행(萬幸)한 일이오. 아무려나 노형이 큰 훈로(勳勞)[3]를 세우셨소."

(리) "망령의 말씀도 하십니다. 하관도 신민(臣民) 한 분자가 되어서 저 할 도리 저 하옵는 것이지 훈로(勳勞)가 다 무엇이오니까? 그러하오나 풀을 베면 뿌리를 없애라는 일체로 협종(脅從)[4] 등은 귀화케 하옵기가 여반장(如反掌)[5]이오나 한 가지 큰 화근이 있습니다."

신 대신의 둥그런 눈이 더 둥그레지며

(신) "화근이라니 무슨 화근이 있단 말이오?"

(리) "화근이 별것이 아니오라 하관이 서울서 요량(饒良)하옵기는 아무던지 모조리 귀화케 하여 한 명도 참혹히 죽임이 없도록 하리라 하였삽더니, 급하게 내려와 목격하온즉 본래 부랑(浮浪) 패류(悖類)[6]로 업(業)을 잃고 도당(盜黨)을 소취(嘯聚)[7]하여 여항(閭巷)[8]에 돌아다니며 강도질로 생활하던 무리가, 동학 일어나는 것을 좋은 기회로 이용을 하여 폭행이 더욱 심하여 불러도 오지 않고 쫓아도 헤어지지를 아니하오니, 그 무리는 가위 화외(化外)[9]의 물건이라.

설혹 오늘 간정[10]되어 지방이 안온(安穩)[11]할지라도 몇 날이 못 가서 그 무리가 필경 또 양민을 선동하여 지방을 여전히 소란케 할 터이온즉, 시생의 소견에는 악착하기는 하오나 지방대(地方隊)[12] 몇 초(哨)를 풀어 그 무리를 일망타진(一網打盡)하여 종처(腫處)[13]에 축농(蓄膿)[14]을 베어 버려 성한 살에 전염치 못하게 하듯 하였사오면, 깊은 후려(後慮)[15]가 없을 듯하오이다."

(신) "그는 노형이 형편을 보아가며 자단(自斷)[16]하여 할 일이지 나에게 물어볼 것이 무엇 있단 말이오?"

신 대신의 말이 그 모양으로 떨어지니, 리 시찰이 즉시 각 진위대(鎭衛隊)[17]에 통첩(通牒)[18]하여 병정을 다수(多數)이 풀어 원범(原犯)[19] 협종(脅從)[20]을 물론하고, 동학에 관련곧 있다 하면 다시 조사할 여부없이 모조리 잡아 죽이는데, 열이면 아홉이나 여덟은 애매(曖昧)히 참혹한 지경을 당하니, 그 원억(冤抑)[21]한 기운이 구소(舊巢)[22]에 사무치는 중, 제일 악착하고 말살(抹殺)스럽기는 목천 임

19) 직위가 낮은 벼슬아치가 상관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1) 임금의 넓은 덕.
2) 말로 타이름.
3) 훈공.
4) 남의 위협에 눌리어 복종함.
5)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매우 쉬움.
6) 말이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고 거칠며 염치없는 무리.
7) 불러 모음.
8) 백성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
9) 부처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
10) 소란스럽던 일이나 병이 가라앉아 진정됨.
11) 조용하고 편안함.
12) 지방의 각 진(鎭)에 있던 군대.
13) 부스럼이 난 자리.
14) 몸속의 공간에 고름이 괴는 병
15) 뒷날의 우려.
16) 스스로 딱 잘라 결정함.
17) 대한제국 시기에 지방의 질서 유지와 변경 수비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근대적 지방 군대.
18) 관청이나 단체 따위에서 문서로 통지함.
19) 형법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20) 남의 위협에 못 이겨 복종함.
21) 누명을 써서 원통하고 답답함.
22) 보금자리.

씨의 집 일이라.

임씨라 하는 사람은 본래 리시찰과 한 동리에서 죽마고우(竹馬故友)[1]로 자라나서 여형약제(如兄若弟)[2]하게 정의가 두터울 뿐 아니라, 임씨의 집은 적이 조수족(措手足)[3]을 할 만하고, 리시찰의 집은 극히 빈한한 탓으로 임씨의 어머니가 리시찰을 자기 소생(所生)[4] 아들이나 다름없이 배가 고파하면 음식도 걷어 먹이고, 헐벗어 추워하면 의복도 주어 입히니, 어린아이는 괴이는 곳으로 간다고 리시찰이 자기 집은 남의 집 보듯 하여도 임씨의 집은 자기 집보다 더 여겨 머리도 종종 임씨 어머니 손에 빗고 잠도 임씨 어머니 품에서 자며 자라는 터이라. 철 모를 때에는 순연(純然)[5]한 천진(天眞)[6]이라. 조금도 식사(飾詐)[7] 없이 임씨 어머니에게 대하여 매양 하는 말이,

"제가 자라서 이 다음에 잘 되게 되면 아무 걱정 없이 부자로 잘 살게 해 드릴 터이어요."

임씨 어머니가 어린아이 말이마나 기특하여,

"오냐. 여북 좋으랴. 나야 잘살게 하던지 말던지, 네나 아무쪼록 귀히만 되어라."

그때에는 그 말을 일시 웃음거리로 지내고 말하였더니, 리시찰이 서울 올라가 벼슬을 한다 하니까, 임씨 어머니는 자기 자질(子姪)[8]이 공명(功名)하는 이에서 조금도 못지않게 기껍게 여겨서 그 아들에게,

"이 애. 아무가 벼슬했다는구나. 너무나 고맙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못살게 되니 아니 날 생각이 없구나. 아무가 어릴 때에 항상 말하기를 제가 잘 되면 우리를 도와주겠다 하였으니 설마 아주 모르는 체할 리가 있겠느냐?"

이 모양으로 리시찰 잘되는 것을 주야(晝夜) 옹망(顒望)[9]하던 터인데, 그리하자 동학이 각처에서 별 일어나듯 하여 무죄 양민을 모조리 잡아다가 입도(入道)[10]를 시키는 통에, 임씨도 불행히 잡혀가 위협을 못 이기어 입도(入道)하였는데, 진위대가 각 방면으로 습격하는 통에 임씨가 요행으로 도망하였다가 풍편(風便)에 소문을 들은즉 자기와 같이 자라던 리 아무가 이번에 시찰로 내려왔다 하는지라.

혼자 생각에,

"아무가 설마 내야 놓아주지. 죽일 리가 있으랴. 진작 내가 자현(自現)[11]하여 죄를 떼어 버리고 말겠다."

하고 즉시 시찰 있는 처소로 가서 자현하였더니, 리시찰이 아는지 모르는지 포박된 여러 죄인과 한 곳에 엄가(嚴苛)[12] 뇌수(牢囚)[13]하는지라.

임씨가 그중에 생각하기를,

"죄인은 일반인데 중인(衆人) 소시(少時)[14]에 유표(有表)[15]하게 나 하나만 백방(白放)[16]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두어 두었다가 밤중 아무도 모르는 승시(乘時)[17]하여 슬며시

1)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며 친하게 지내 온 벗.
2) 친하기가 형제와 같음.
3) 손발을 움직임. 제힘으로 겨우 살아갈 만함.
4) 자기가 낳은 자식.
5)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아니하고 제대로 온전함.
6)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순진하고 자연 그대로의 참됨.
7) 거짓으로 꾸밈없이.
8) 아들과 조카.
9) 우러러 크게 바람.
10) 종교에 들어감.
11) 자수
12) 엄하고 모짊.
13) 죄수를 단단히 가둠.
14) 젊었을 때.
15) 여럿 중에 특히 두드러진 특징이 있음.
16) 죄가 없음이 밝혀져 놓아 줌.

나를 내어놓으려나 보다. 아니, 그러고 보면 내가 도주한 모양이 되어 죄를 종시 못 벗어지겠으니까 아마 며칠 후에 대동(大同)[1] 발락(發落)[2]하게 무죄함을 발포(發布)[3]한 후 방송(放送)[4]하여 다시 후환이 없도록 하려나 보다."

이 모양으로 태산같이 믿고 있더니, 하루는 호령이 천둥같이 나며 죄인을 모조리 청어 두름 엮듯하여 벌판에다 내어 앉히고 첫머리에서부터 차례로 포살(砲殺)[5]하는데, 임씨도 그중에 같이 여겨 미구(未久)[6]에 그 총을 맞을 지경이러라.

임씨 어머니 팔십 노인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놀랐던지 기색(氣塞)[7]을 수없이 하며 대성통곡을 하니, 동리 늙은 부인네들이 그 경상이 불쌍하여 하나둘 모여와서 임씨 어머니께 권하는 말이라.

"여보시오. 이러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셔서 일 주선(周旋)을 하여 보십시오. 리시찰이 필경 노인 자제를 몰라보았기에 그렇지 않고서야 이왕 자기 자랄 때에 노인께서 귀히 여기시던 은공을 생각하기로 자제를 살려주지 아니할 리가 있습니까? 두 말 말으시고 근력을 차리셔서 리시찰 앞에 가 원정(原情)[8]을 해 보십시오."

임씨 어머니가 그 말이 근리(近理)[9]하여 경황없이 지팡이를 짚고 엎들어지며 자빠지며 울며불며 읍내를 들어가 원정 여부없이 리시찰 좌기(坐起)[10]하고 있는 앞으로 한달음에 이르러 땅에 가 엎드려 두 손으로 빌며,

"살려주옵소서. 이 늙은이의 자식을 살려주옵소서. 제 죄가 천 번 만 번 죽이고도 남사와도 이 늙은이를 보옵서 제발 덕분에 살려주옵시오. 저는 기실(其實)[11] 죄도 없습니다. 그 몹쓸 놈들이 잡아다가 위협을 하니 죽지 못하여 따라다닌 일밖에 없습니다. 살려줍시오. 그것 하나만 죽으면 이 늙은이 고부(姑婦)[12]도 속절없이 죽어 세 식구가 함몰할 지경이올시다. 영감 통촉하시다시피 그 자식이 삼대독자올시다. 살려줍시사 하해(河海)같은 덕을 입어지이다."

리시찰이 소리 한 번을 버럭 지르며

"어이, 요망스러운지고. 웬 계집이 겁이 없이 횡설수설. 어이 괴악한지고. 이리 오너라. 역졸 거기 있느냐? 네 이 계집이 실성한 것인가 보다. 멀찍이 끌어내 물리고 이 근처에 현형(現形)[13]을 못하게 하여라. 만일 이놈들 사정 보고 지체하였다는 너의 놈부터 죽고 남지 못하렷다."

무지하고 우악(愚惡)한 역졸들이 벌에 살같이 달려들어 팔십 넘어 구십이 불원(不遠)[14]한 임씨 어머니의 손목을 와락 끌어 사정없이 몰아내는 통에 정신을 잃고 어느 길 밑에 가 쓰러졌는데, 얼마 만에 누가 붙들어 일으키며,

"일어나서셔 댁으로 가십시오."

노인이 그제야 눈을 뜨고 항구(恒久)히[15] 쳐다보더니 비죽비죽 울며,

"에구. 예가 어디요? 우리 아들이 죽었나

17) 적당한 때를 타거나 기회를 얻음.
1) 비슷비슷함.
2) 결정하여 끝냄.
3) 법령·정강(政綱) 따위를 세상에 널리 펴서 알림.
4) 석방함.
5) 총포로 쏘아 죽임.
6) 얼마 오래지 않음.
7) 심한 충격이나 흥분으로 숨이 일시적으로 멎음.
8) 사정을 하소연함.
9) 이치에 거의 맞음.
10) 관아의 우두머리가 출근하여 일을 봄.
11) 사실상으로.
12) 시어머니와 며느리.
13) 모습을 드러냄.
14) 멀지 않은.
15) 오래도록.

요? 놓여 나갔나요?"

그 사람이 그 경상(景狀)[1]을 보고 눈물을 금치 못하며

"예. 자제가 백성 되어 댁으로 갔습니다. 어서 댁으로 가십시오."

임씨 어머니가 그 말을 참말로만 여기고 반갑고도 좋아서 더듬더듬 기엄기엄 자기 집으로 가더라.

그 때 리시찰이 임씨 어머니를 불호령을 하여 물리친 후에 몇 사람 다음에 처치할 임씨를 억하심정(抑何心情)이던지 그 중 먼저 포살을 하였는데, 그 총소리가 땅하고 한번 나자 임씨 원통한 귀신이 반공중(半空中)으로 불끈 솟아 리시찰의 머리 위로 빙빙 돌아다니는데, 리시찰이 고요한 밤에 홀로 자노라면 마음에 공연히 그 귀신 우는 소리가 두 귀에 들리는 듯, 들리는 듯하기를,

"이놈. 리시찰 말 들어라. 은인이 원수 된다더니 네게 두고 이른 말이로구나. 네가 내 집 단 것 쓴 것이 아니면 잔뼈가 굵지를 못하였을 터인데 그 은공을 생각하기는 고사하고 무죄한 나를 왜 죽였느냐? 이놈 리시찰아. 나 하나 죽는 날 우리 집 식구가 함몰(陷沒)을 하였다. 우리 집 세 식구가 어디까지든지 너를 쫓아다니면서 그 앙화(殃禍)[2] 받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

그 후로는 밤마다 공연히 마음이 수란(愁亂)[3]하여 낮같이 등촉을 밝히고, 상직(上直)[4]하는 사람을 몇 십 명씩 모아 경야(經夜)[5]를 하여 가며 대강대강 사무를 처리하고, 그 지경을 떠나 타도로 가더라.

임씨 어머니가 집으로 아들을 반가이 보려고 허둥지둥 돌아오니 그 며느리가 땅을 두드리며 우는 양을 보고 그제야 자기 아들이 죽은 줄을 알고서 그 자리에서 몇 번 몸부림에 인해 세상을 버리니 그 며느리도 그날 밤에 간수를 퍼 먹고 그 남편의 영혼을 따라 갔는데, 그 동리 사람으로부터 일경 어느 누가 임씨의 집 일을 참혹히 여겨 말 한마디씩이라도 리시찰을 욕 아니하는 자가 없더라.

"에이, 저 기른 개가 발뒤꿈치를 문다는 말이 꼭 옳더라. 세상 사람이 모두 리시찰 같아서야 남의 자식 구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꼬. 아니 되지 아니 되어. 남의 은공을 그렇게 모르고 그 앙화 받을 날이 없을까. 아직은 조각(組閣)[6] 세력을 얻어 시찰인지 몽둥이인지 다니며 못된 짓을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지마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십 년 가는 세도가 없다고, 그 시찰을 며칠이나 다니고, 시찰만 못 다니고 아무 일 곧 없으면 이번 길에 날불한당 질을 하여 끌어간 돈만 가져도 처자를 데리고 족히 평생을 할 터이지마는, 그리고 보면 복선화음(福善禍淫)[7]의 이치가 아주 없게 리시찰의 후분(後分)[8]을 우리 눈으로 보면 다 알 것일세."

리시찰이 경상남북도로 돌아다니며 동학을 박멸한다 빙자하고, 인명을 파리 죽이듯하여 가며 재물을 어떻게 끌어 들어드렸던지 백척간두(百尺竿頭)[9]의 형세로 여지없이 지내던 터이러니, 졸연(猝然)히[10] 부자가 되어 일용범백(日用凡百)[11]에 아무것도 구차한 바가 없으니까 슬며시 흉측한 생각이 나던지, 즉시

1) 좋지 못한 몰골.
2) 어떤 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난.
3) 시름이 많아 정신이 어지러움.
4) 숙직.
5) 밤을 지새움.
6) 내각을 조직함.
7)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옴,
8) 늘그막의 운수나 처지.
9)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
10) 갑자기.
11) 날마다 쓰는 온갖 물건.

전라남도로 노문(路文)을 놓고 가다가, 갈재 고개를 올라서 남으로 장성군을 내려다보니, 반갑고 기꺼운 마음이 부지 중에 나서 한걸음에 갔으면 좋을 듯이 연해 길을 재촉하며 혼자 하는 말이라.

"저기 뵈이는 산밑이 장성읍이로구나. 인제야 나의 소원을 성취하겠다. 그러나 어서 가서 외양부터 보아 과연 듣던 말과 같은지 만일 내 눈에 벗어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짓을 하기로, 저 하나야 내 마음대로 못 처치할까."

장성군에를 도착하여 여간 사무를 대강대강 처리한 후에 불현듯이 선초를 불러보고 싶지마는 체면 소재에 그리하는 수는 없고, 은근히 심복지인(心腹之人)을 시켜 본관에게 어떻게 귀를 울렸던지 본관이 그 이튿날 연회를 떡 벌어지게 열고, 리시찰을 대접하는데 이름이 시찰이지 직권은 암행어사이라.

수령의 치적 선불선을 정탐하는 터에 본관이 차린 연회를 아무리 청한대도 갈 필요도 없겠고, 기왕 갔으면 약간 다과나 먹은 후에 정치에 관계 있는 문답이나 하다 올 것이거늘, 리시찰은 그 연회를 자기가 극력 운동하기는 따로 목적 한 가지가 있는 터이라.

오라는 시간을 칠년 대한(大旱)[1]에 비 기다리듯 하여 허둥지둥 가서 겨우 인사 몇 마디 후에, 다만 기생의 가무(歌舞)만 정신이 빠지게 보는 모양이거늘, 눈치 빠른 본관이 리시찰의 호색(好色)하는 양을 벌써 짐작하고 나중사는 어찌 되었던지 제일 일색 기생을 구경시키어 그 인정(人情)을 얼마쯤 사고 보리라 하고, 그 길로 관노(官奴)를 최호방집에 보내어 선초를 성화같이 불러 왔더라.

선초가 차마 귀(貴)치 않건마는 기생의 몸으로 관령(官令)[2]을 거역하기 어려워서 마지못하여 관노를 따라 연회에를 갔더라.

리시찰이 선초의 자두지족(自頭至足)[3]과 행동 범절을 보니 자연 정신이 취하여지고 사지에 맥이 없어 중인(衆人) 소시(所視)[4] 곧 아니면 한아름에 덥썩 안아가지고 자기 침소로 가고 싶지마는 차마 그리할 수는 없고, 가장 체면을 차려서 본체만체 앉았는데, 눈초리는 간좌곤향(艮坐坤向)[5]이 되었고 가슴에는 천병만마(千兵萬馬)가 뛰놀아서 도저히 진정하기가 어렵던지 펴들었던 부채를 주루룩 접어 거꾸로 들고 선초 앉은 편을 가리키며,

"저 기생 이리 오너라."

선초가 천연한 태도로 리시찰 앞에 가 공순(恭順)히 앉으니,

(리) "허허. 그것 절묘(絶妙)하거든, 네 이름이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야?"

(선) "이름은 선초이옵고 나이는 열일곱이올시다."

(리) "기생은 몇 살부터 되었으며, 가무는 무엇 무엇을 배웠노?"

선초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본관이 입에 침이 없이 선초의 칭찬을 늘어놓는다.

"그 애가 외양도 저렇게 기묘하거니와, 재주가 비상하여 춤도 못 출 춤이 없고 노래도 못 부를 노래가 없는 중, 문필로 말한대도 제 앞가림은 할 만하고 음률(音律)도 말한 대로 매우 도저(到底)[6]합니다. 그뿐 아니오라 제 절행이 이상 하나이라. 아무도 상종(相從)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습니다."

리시찰이 바른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1) 큰 가뭄.

2) 관청의 명령.
3) 머리부터 발끝. 온몸.
4) 남이 보는 바.
5) 묏자리·집터 따위가 간방을 등지고 곤방(坤方)을 향한 방향. 또는 그렇게 앉은 자리.
6) 학식이나 생각 등이 매우 깊음.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너털웃음을 내어놓는다.

"허허, 허허허. 그것 참 기특하다. 사람이 그러해야 쓰지. 허허. 저 자격 저 재화(才華)[1]에 교방(敎坊)에 몸이 매어 있기는 아까운 걸. 허허. 이곳 풍속은 어찌해서 자식을 저만치 절묘히 낳거던 아무쪼록 그 재주를 채워서 공부를 잘 시켜 여자 사회에 고명한 인물이 되게 할 것이지. 응, 응. 지금도 관계치 아니하다. 자고이래(自古以來)로 창기 출신에도 충, 효, 렬 세 가지 행실로 유방백세[2](遺芳百世)한 인물이 하나둘뿐이 아닌즉 너는 그네만 못할 것이 있느냐? 오오. 네가 문필이 똑똑하다니 나와 글 이야기나 좀 해 보려느냐? 연회 파한 뒤에 내 처소로 오너라. 응, 응."

본관이 아무쪼록 리시찰의 보비위(補脾胃)[3]를 하느라고 선초를 돌아보며,

"선초가 오늘이야 수의사또[4] 전에 좋은 학문을 배우겠다. 이 애. 너, 네 집으로 나갈 것도 없다. 바로 예서 수의사또를 뫼시고 가거라."

선초가 리시찰의 용모를 보건대 점잖은 학자 같고, 언론을 듣건대 유리(有理)한 격언(格言)이라. 속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저 양반이 저만치 유식한 터에 나를 자기 딸이나 손녀 일반으로 귀해서 저리 하는 것이지, 설마 경박(輕薄)하고 음흉한 자들 모양으로 괴악한 뜻을 두고야 부를라고. 세상 일이 연비(聯臂)[5] 없이는 아니 되는데 저런 양반이 나의 집심(執心)[6]한 바를 알고 상당한 일로 인도하여 줄는지 알 수 있나."

하고, 한마디 사양 없이 리시찰 뒤를 따라 그 처소로 갔더라.

리시찰이 선초를 앞에 앉히고 창해(滄海)에 늙은 용이 여의주나 얻은 듯이 어르다가,

"이 애. 선초야. 너 부르기는 다른 일이 아닌즉, 너 내 청을 들어라."

하겠지마는, 지조 있는 선초를 보통 다른 기생 다루듯 할 수 없어 얼핏 바로 말을 못하고 가장 선초를 위로하는 듯이 수작을 에둘러 한다.

"허허. 참 다시 보아도 절등(絶等)[7]하거든. 이 애. 편히 앉아라. 어이. 게가 차겠다. 이요 위로 올라오너라."

선초가 두 무릎을 접어 붙인 듯이 한편 구석에 가 쪼그리고 앉아서,

"예도 관계치 아니합니다."

리시찰이 선초의 손목을 잡아 자기 앞으로 끌어다 앉히려다가 생각한즉 그리하다가 노색(怒色)을 먹으면 공연히 일도 못 되고 덧들이기만[8] 할까 염려하여 내밀었던 손을 도로 움츠러들이며

(리) "오냐. 너 편할 대로 아무 데나 앉거라. 그래 기생 노롯 한 지가 몇 해야?"

(선) "열세 살부터 시사(時仕)[9]를 하였사오니까,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햇수로는 다섯 해나 되었습니다."

(리) "기생 노릇을 할 만치도 하였구나. 이 애. 아까 본 군수에게 들으니까 네 골 군수로 내려오는 등내(等內)[10]마다 너를 의례히 수청들이려 한다는데, 일체로 거절을 한다 하니 그게 무슨 고집이냐? 기왕 기생이 되었으니 송구영신(送舊迎新)[11]하는 것이 본색(本色)이

1) 빛나는 재주
2)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함.
3) 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 줌.
4) 어사또.
5) 연줄.
6)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먹은 마음.
7)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남.
8) 남을 건드려서 언짢게 하기만.
9) 이속(吏屬)이나 기생이 그 매인 관아에서 맡은 일을 함.
10) 벼슬아치가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

요, 아무 양반에게든지 진작 몸을 허락하여 전정(前程)[1]을 도모할 것이거늘, 차일 피일 금년 명년하다가 무정한 세월에 어느덧 손을 넘기면[2] 그 아니 딱하냐?"

(선) "……."

(리) "오오. 내가 네 말을 들어보자는 것인데 네가 옳게 생각을 하였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소위 근일 지방에 다니는 사람들 외양으로 보면 군수이니 관찰사이니 지위도 높아 뵈고 기구(器具)[3]도 있어 뵈지마는, 그 속을 파 보게 되면 모두 다 청보(靑褓)[4]에 개똥 싼 모양이라. 가령 공도(公道)[5]로 왔다는 자는 대가(大家) 후예로 부형의 덕이나 인아(姻婭)[6]의 연비(聯臂)로 그 벼슬을 얻어 했지, 자격은 누구누구 할 거 없이 무식하거나 못생긴 것들이요, 납뢰(納賂)[7]를 하고 온 무리는 더구나 자격을 의론할 여지가 없이 깡그리 도적놈들이요, 그나마 서울사네 하고 수중에 풋 돈 냥을 가지고 요량(料量) 없이 덤벙이는 것들은 부랑(浮浪) 탕자(蕩子)에 지나지 못하니, 바로 지각없이 남의 등골이나 빼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정히 먹어 백 연을 의탁할 사람을 구하려면 대단히 어려우니라."

(선) "……."

(리) "선초야, 나는 힘들여 말을 하는데 너는 왜 대답을 한마디도 아니 하느냐? 이 애. 연분이라 하는 것은 인력으로 못할 것인가 보더라. 그리기에 노인에 소첩(少妾)이 있지 아니하냐. 그 계집들이 열이면 열 다, 스물이면 스물 다 꽃다운 연기(年紀)가 서로 알맞은 남편을 만나 백 년을 하루같이 즐기고 싶지마는, 벌써 거적자리에 뚝 떨어질 때에 월로(月老)[8]의 붉은 실로 발목을 매어 인연을 맺어 놓은 이상에 다시 변통하는 도리가 없는 까닭으로 신랑 신부가 피차에 마음에 있고도 무슨 탈이 나던지 그 혼인이 기어이 못되기도 하고 연치(年齒)[9]가 비록 상적(相敵)[10]지 못하고 간혼(間婚)[11]이 빗발같이 들어온대도 어떻게 하던지 그 혼인이 기어이 되고 마는 법인 즉, 이 애. 너도 너무 고집 말고 웬만하거든 몸을 허락하여라.

세상에 별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옛날이야기 하나를 할 것이니 너 좀 들어보아라. 옛날에도 너같이 어여쁘게 잘생긴 처녀 하나가 있던가 보더라. 연기가 당혼(當婚)[12]하여 신랑 하나를 고르고 골났구나. 그때 그 처녀 심중에는 저 신랑과 재미있게 살아 자녀를 층층이 기르며 백 년을 해로하리라 하였더니, 급기야 성례(成禮)[13] 날 신랑이 전안청(奠雁廳)[14]에 당도하여 졸지에 낭기마(郎騎馬)[15]가 놀라 뛰며 신랑이 여러 길 되는 언덕에 가 떨어져 목이 부러져 세상을 버리니 신부의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성례도 아니한 터에 자기 딸을 청상과부로 늙힐 이유가 없는지라. 그 딸에게 사리를 타이르니 그 처녀 역시 그러이 여겨 저의 아버지의 주장하는 언론을 순종하는지라.

---

11)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1) 앞길.
2) 제 시기를 넘기면.
3)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수단이 되는 세력.
4) 푸른 보자기.
5) 공평하고 바른 도리.
6) 사위 쪽의 사돈 및 동서 쪽의 사돈
7) 뇌물을 바침.
8) 월하노인.
9) 나이.
10) 양편의 실력이나 처지가 서로 비슷함.
11) 남의 혼인을 이간질함.
12) 혼인한 나이가 됨.
13) 혼인의 예식을 지냄.
14) 혼례 때, 전안지례(신랑이 기러기를 갖고 신부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를 치르기 위하여 차려놓은 자리.
15) 혼인 때, 신랑이 신부 집에 타고 가는 말.

신부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나아가 여러 손을 향하여 공포하기를, '여러분 중 누구시던지 상처(喪妻)[1]하신 양반이 있거든 내 딸과 성례를 하십시다.' 그때에 만좌(滿座)[2]가 다 황당히 앉았는데, 그 중 목생원이라 하는 자가 나이 칠십여 세인데 자기가 속현(續絃)[3]을 하겠노라 자청하는지라. 신부의 아버지가 그 늙은 양을 보고 얼른 응답을 아니 하였구나.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자기 마누라를 향하여 의논을 하는데 신부가 곁에 앉았다가 부끄럼이 조금 없이 '이 일이 벌써 천정연분이오니 늙었기로 관계할 것 있습니까.' 하거늘 하릴없이 그 신부를 목생원에게로 시집보냈는데 그 신부가 시집가던 해부터 태기가 있어 한 삼줄[4]에 여룡여호(如龍女虎)[5]한 아들 삼 형제를 나아서 며느리 손자를 차례로 보고 오십이 되도록 해로하다가, 목생원 일백오세 되던 해에 내외 구몰(俱沒)[6]한 일이 있으니 그 일 한 가지로만 미뤄 보아도 혼인이라는 것은 꼭 연분이 있는 줄 안다.

네가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다마는 너의 연기가 당혼(當婚)[7]을 하여 외양과 재질이 뛰어난 까닭으로 그 여러 사람이 모두 욕심을 내되 차례로 거절하였은즉, 필경은 나같은 늙은이와 천정연분(天定緣分)[8]이 있어 마음이 그렇게 들었던 것인지 역시 알 수 있느냐?"

(선) "……."

(리) "허허, 허허허. 내 수염이 희뜩희뜩 세기는 하였다마는 근력(筋力)이던지 마음은 여간 젊은 놈이 못 당할 만하다. 이 애. 이리 좀 가까이 앉아라."

선초가 마음대로 하면 잡아당기는 손을 뿌리치고 거리책지(據理責之)[9]라도 하고 싶으나 몸이 창가(娼家)에 있으니 아무리 정당한 말로 거절하여도 듣지 아니할 터이오. 연회에서 바로 집으로 갔다면 좋을 것을 리시찰 흉중(胸中)을 곧 정인군자(正人君子)[10]로만 여기고 따라온 이상에 독불장군으로 아무래도 아니 되었는지라. 마지 못하여 그 곁에 가 잠시 앉았다가 원산(遠山) 마미(馬尾)[11]를 부챗살 접은 듯이 찌푸리고 바른 손으로 아랫배를 움켜잡고,

"애고, 배야. 아까 국수 조금 먹은 것이 체했나. 왜 이렇게 배가 아픈가."

리시찰이 자기 친환(親患)[12]에 그렇게 놀랐으면 대문에다 붉은 문을 세웠으련마는,[13] 내간(內艱) 외간(外艱)[14]을 당할 제는 남의 말을 과히 할 것 없지마는, 동리 늙은이 초상난 이에서 조금 다를 것 없이 시들스럽게 여기던 위인이라서, 선초의 배야 소리 한마디를 듣더니 두 눈을 경풍(驚風)[15]하는 이 모양으로 둥그렇게 뜨면서,

"응 배가 아파? 저를 어찌하잔 말이냐."

부스럭부스럭 염낭[16]을 끄르고 소합원(蘇合元)[17] 서너 개를 내어주며

---

1) 아내의 죽음을 당함.
2) 여러 사람이 늘어앉은 자리.
3) 거문고와 비파의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다는 뜻으로, 아내를 여읜 뒤 새 아내를 맞는 일의 비유.
4) 탯줄.
5) 용 같고 호랑이 같음.
6)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남.
7) 혼인할 나이가 됨.
8) 하늘이 정하여 준 연분.
9) 사리를 따져 잘못을 꾸짖음.
10) 마음씨가 바르며 학식과 덕행이 높고 어진 사람.
11)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
12) 부모의 병환.
13) 큰 효자가 됨.
14) '내간'은 어머니나 할머니의 상사(喪事). '외간'은 아버지나 할어버지의 상사.
15) 경련을 일으키는 병.
16) 두루주머니.
17) 사향이나 주사 따위를 갈아서 빚어 만든 환약.

"이 애. 이것을 먹어라."

선초가 소합원을 받아 한입에 툭 떨어뜨리고 질경질경 씹어 먹으며

"에그, 저를 집으로 가게 하여 주시오."

리시찰이 선초의 간다는 소리에 기가 막혀서,

(리) "너의 집에를 가면 별수 있느냐? 아무데서나 약치료를 하여 보자꾸나."

(선) "아니에요. 예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급자기 낫지를 못합니다. 제가 본래 속병이 있어 조금만 무엇이 체하기 곧 하면 속병이 치밀며 쥐어뜯어 며칠씩은 의례히 고생을 하더니, 이 근래에는 발작을 아니 하기에 아마 그 병이 없어졌나 보다 하였는데. 에그. 오늘 말고 있다가 또 이러합니다 그려. 제가 나가서 수일 조리를 하여 적이 낫거던 다시 들어와 뵈옵겠습니다."

(리) "응, 옹이에 마디[1]로다. 불선불후(不先不後)[2]에 하필 오늘 병이 났단 말이냐. 오냐 그리해라. 보내주마."

선초가 그 방문을 나서니 상말[3]로 시황[4]이나 난 듯이 시원 상쾌하여 집으로 온 뒤에 리시찰이 조석 문병을 하며 다시 한번 보려고 애를 무진히 쓰나, 선초는 줄곧 거절을 하여 낙락난합(落落難合)[5]이 된 지라.

리시찰 생각에 처음에는 제 몸이 편치 못하니까 수접(酬接)[6]하기가 귀치 않아 저리하거니 하였다가, 여러 날이 되도록 일향(一向)[7]한 모양으로 아니 보이니, 그제는 의심이 없지 못하여 슬며시 사람을 놓아 선초의 병세 유무를 탐지해 보니, 그동안 어떻게 앓았니, 어디가 아프니 하던 것이 모두 다 딴소리라.

그제는 분심(憤心)이 탱중(撐中)[8]하여 당장 역졸을 풀어 최호방의 집 식구를 모조리 잡아다가 물보낌[9]으로 치도곤(治盜棍)[10]을 퍽퍽 때리고 선초를 반짝 들어오고 싶으나, 그는 명예 관계에 하는 수 없고, 그대로 두고 제 마음만 기다리자 하니 쇠 불알 절로 떨어지면 구워 먹기라.

곰곰 궁리를 하다가,

"옳지 되었다……. 했으면 며칠 아니 되어 제가 절로 쏠쏠 기어 들어오고 말지. 오늘은 기위[11] 저물었으니 내일은 첫 새벽에 거조(擧措)[12]를 하여 보리라."

하고 일심 정력(精力)이 선초에게 가 있어 누웠다 앉았다 한잠도 자지를 못하고 있는데, 창밖에 사람의 자취가 급히 나더니, 어떤 자가 들어와 리시찰 귀에다 입을 대고 무어라 무어라 몇 마디를 하니까 리시찰이 별안간에 사지를 벌벌 떨며

(리) "이 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자) "잠시 피신을 하실밖에 다른 상책이 없습니다."

(리) "네 말이 옳기는 하다마는 저간에 낭패되는 일이 있구나."

(그자) "무슨 일이온지는 알 길 없사오나 이 다음에 다시 행차하옵서는 못하십니까?"

(리) "그도 그렇다."

하더니, 신도 못 신고 버선발로 뒷문으로 나서서 뒷산 초로(草路)길로 발톱 부러지는

위장을 맑게 하고 정신을 상쾌하게 함.

1) 어려운 일이 공교롭게 계속됨.
2) 공교롭게도 좋지 못한 때를 당함.
3) 점잖지 못하고 상스러운 말.
4) 시왕(?). 시왕(十王)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하는 열 명의 대왕.
5) 여기저기 흩어져 모이기가 어려움.
6) 손님을 맞아 대접함.
7) 한결같이.
8) 화나 욕심 따위가 가슴속에 가득하다.
9) 여러 사람을 모조리 매질함.
10) 곤장의 하나.
11) 이미
12) 말이나 행동의 태도

것을 알아볼 겨를이 없다 하고 얼마쯤 달아났더라.

와서 귀에 말하던 자는 별사람 아니라, 서울서부터 중방(中房)[1]으로 데리고 내려간 사람인데, 충청 경상도 동학 여당(餘黨)[2]이 복보수(復報讐)[3]를 하려고 수천 명이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가지고 리시찰을 찾아 장성군에를 그 밤내로 들어온다는 풍설(風說)을 어디서 얻어듣고 겁결[4]에 자세 탐지해 볼 여부 없이 한달음에 리시찰 처소로 와서, 어떻게 풍을 쳐 놓았던지, 리시찰이 자기의 지은 죄가 있은 즉 자겁(自怯)[5]이 아니날 수 없어 그 모양으로 도망한 것이라.

장성 지방을 그 밤 새기 전에 지나 영광 담양으로 북도를 넘어서서 순창 고부 흥덕 등지를 개미 쳇바퀴 돌듯하며 아무리 동학당의 소식을 탐지하여도 진적(陳迹)[6]한 동정을 알 수 없는지라.

혼잣말로,

"이 말이 필경 헛소동이기에 그렇지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일 같으면 저의가 한둘이 하는 일 아니고 이렇게 비밀할 수가 있나. 내가 어림없이 속고 소영사(所營事)[7]만 낭패를 하였지. 응. 낭패될 것은 무엇 있나. 상쾌(중방의 이름) 말마따나 아직도 늦지 아니하였는데,"

하고 불현듯이 장성군으로 도로 가려다가 다시 무슨 생각으로 정지하기를 누차(屢次)[8] 하였는데, 나중은 확실한 허언(虛言)인 줄 자세히 알고, 그제는 새로 깨어진 독 서슬[9]같이 위풍(威風)을 피우며 길을 떠나더라.

1) 지방 수령을 따라다니며 시중들던 사람.
2) 잔당.
3)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4)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참.
5) 제풀에 겁을 냄.
6) 지난날의 묵은 자취.
7) 업으로 경영하는 일.
8) 여러 차례.
9) 사람됨이 사납고 독살스러워 가까이할 수 없음.

제 삼 회

이때 최호방이 자기 딸의 정한 뜻을 억제키 어려워서 저 하자는 대로 내어 버려두었으나, 시골 사람이라는 것은 서울 양반 무서워하기를 호랑이 만난 이보다 한층 더한 중, 리시찰의 선성(先聲)[1]이 높고 최호방의 조심이 심하여 일자(日字)[2] 선초의 병탈(病頉)[3]하고 온 이후로, 울에 앉은 새 몸같이 조마조마하던 차에 리시찰이 모야(暮夜)[4] 무지간(無知間)에 부지(不知) 거처(居處)로 갔다니까, 일변 이상도 하고 일변 시원도 하더니, 하루는 문밖에서 누가 와서 찾거늘, 신지무의(信之無疑)[5]하고 나아갔는데 졸지에 무지한 역졸배(驛卒輩)가 우르르 달려들어 최호방의 멱살을 치켜 잡고 이 뺨 저 뺨 사정없이 치며, 꽁문이에서 빨랫줄 같은 삼 시위 노오리[6]를 쑥 빼어 최호방의 두 손목을 끊어지거라 하고 잔뜩 졸라매더니, 덜미를 턱턱 집어 앞세우고 가는지라.

그 지경이 되니까 온 집안이 난가(亂家)가 되어 어쩐 곡절인지 모르고 황황망조(遑遑罔措)[7]하는데 선초는 저의 아버지 잡혀가는 것을 물끄러미 보며 혼잣말이,

"에그 저를 어찌하면 좋은가. 아버지께서 다년 이역(吏役)[8]을 다니셨지마는 엽전 한 푼 범포(犯逋)[9]한 적도 없고, 성품이 번거(飜擧)함을 싫어하사 내 일 아니면 상관 아니하시기로 유명하신 터인데, 저놈들이 무슨 곡절로 큰 죄인인 일발(一髮)[10]으로 저렇게 잡아를 가나."

남부끄러운 줄 모르고 버선발로 쫓아가며 눈물이 더벅더벅 울다가 문득 생각이 들기를,

"옳지. 이 일이 까닭이 있는 일이로구나. 좀 있다 소문을 들으면 알겠지마는 필경 리시찰의 소위(所爲)[11]가 십중팔구(十中八九)인 즉, 내가 이 모양으로 나서는 것이 만만불가(萬萬不可)[12]하지. 그도 설마 사람이지 백성 보호하라는 정부 관리가 되어 무죄한 사람을 억지로 어찌 할라고."

하며 집으로 도로 들어와 사람을 늘어놓아 하회(下回)[13] 형편을 탐지하더라.

최호방은 자다가 꿈결같이 불의지변(不意之變)[14]을 만나 발길이 땅에 닿을 새 없이 잡혀가 관가 뜰 아래에 꿇어 엎드려 있노라니 당상(堂上)에서 천둥 같은 호령이 나오는데,

"네 죄를 네가 모를까."

최호방이 고개를 조아리며 곁눈으로 힐끗 쳐다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리시찰이 노기를 등등이 띠고 앉았는지라.

(최) "장하(杖下)[15]에 죽사와도 죄명을 깨닫지 못하겠나이다."

(리) "정녕히……. 흉악하고 간특(奸慝)[16]한 놈."

(최) "제가 무엇이 그다지 흉악하고 간특하오니까. 죽을 때 죽사와도 죄명이나 알아지이다."

(리) "이놈. 관정(官庭)[17] 발악한다. 네 죄명을 네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것이지, 누

1) 전부터 알려져 있는 명성.
2) 어느 날.
3) 병을 핑계 삼음.
4) 어느 날 밤.
5) 꼭 믿어 의심하지 않음.
6) 노끈의 동강.
7) 마음이 급하여 허둥지둥하며 어찌할 줄을 모름.
8) 이속(吏屬)의 임무.
9) 국고(國庫)에 바칠 돈이나 곡식을 써 버림.
10) 아주 긴박한 상황.
11) 하는 짓.
12) 전혀 옳지 아니함.
13) 어떤 일의 결과나 상황.
14) 뜻밖에 당한 변고.
15) 장형(杖刑)을 행하는 그 자리.
16) 간사하고 사함.
17) 관가의 앞뜰.

구에게 생심(生心)[1]코 물어."

(최) "저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알 길 없사오니 일러 주옵소서."

(리) "그러면 동학당은 어느 놈이 비밀히 불러 나를 해하려고 했던고."

(최) "하늘 내려다 보십니다. 제가 생심 그런 뜻이나 둘 가망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말을 들으신 곳으로 다시 채근(採根)[2]을 자세해 보옵시면 저의 무죄함을 자연 통촉하실 터이올시다."

(리) "이놈. 무슨 잔소리야. 무죄하면 네 집 하인이 고부읍에서 작란(作亂)[3]하던 최순팔의 집에는 무엇하러 갔다 왔어?"

(최) "제집 하인을 전답 매매에 상관되는 일이 있사와 고부 땅에 보냈던 일은 있사와도 최순팔은 어떤 자인지 평생에 얼굴도 알지 못하옵나이다."

(리) "무슨 잔소리고. 내가 번연히 알고 말하는데 종래 바로 토설(吐說)[4]을 아니하려고. 네 몸이 아파도 이리할까. 이놈 음흉한 놈."

최호방이 어이가 없어 이를 깨물고 다시는 말을 아니하고 엎드려 있노라니, 좌우에서 연해 주장(朱杖)질[5]을 하며 바로 아뢰라고 무한 조련(操鍊)[6]하다가, 그대로 항쇄족쇄(項鎖足鎖)[7]하여 옥 속에 끌어다 넣고, 하도감(下都監)[8] 자물쇠로 옥문을 굳게 잠갔더라.

이때 선초가 리시찰의 문초(問招)[9]하던 소문을 들으니 백옥무하(白玉無瑕)[10] 같은 자기 아버지에게 적지 아니한 죄명을 억울히 씌워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는지 측량치 못할지라.

황망한 말소리로,

"어머니 저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씀이오. 우리 지금 승문고(升聞鼓)[11]라도 쳐서 아버지 무죄하신 발명(發明)[12]을 하여 보십시다."

자식이라 하는 것은 열이면 아홉은 외탁[13]을 으레 하는 법이라. 선초 같은 딸을 낳은 최호방의 마누라 춘홍인들 범연한 자격이리오. 자기 남편의 변란(變亂) 당한 것을 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산산조각이 날만치 애를 쓰는 차에, 선초의 하는 말을 듣고 두 손으로 한편 무릎에 깍지를 느지막이 끼고 우두커니 앉아 궁리를 하다가,

(춘) "이 애. 승문고도 소용없다. 이 일이 본관이나 관찰사가 관계하는 바가 아니요, 리시찰이 우리를 미워서 너의 아버지에게 죄를 씌우는 일인데 아무 짓을 하기로 효험이 있겠느냐?"

(선) "에그.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소문을 들으니까 동학 죄인은 잡는 대로 포살을 한다는데 아버지를 동학 관련으로 몬다 하니 뒤끝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있나요."

(춘) "리시찰이 너 까닭에 함혐(含嫌)[14]을 하고 그러는 모양인가 보다마는 아무렇던지 무죄한 사람을 생으로 죽이겠느냐?"

하더니 그 말이 점점 극도에 달하여 확확 함부로 물 퍼붓듯 나온다.

"오냐. 열 치가 한 치가 되더래도 너의 아

---

1)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2) 어떤 일을 따지어 독촉함.
3) 난리를 일으킴.
4) 숨겼던 사실을 비로소 밝혀 말함.
5) 주장으로 매질하던 일.
6) 못되게 굴어 남을 몹시 괴롭힘.
7)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발에 채우는 차꼬를 아울러 이르던 말
8) 훈련도감에 속한 분영(分營).
9) 죄나 잘못을 따져 묻거나 심문함.
10) 흰 옥에 티나 흠이 없다는 뜻으로, 아무 흠이나 결점이 없음.
11) 백성들이 원통한 일을 당하여 그것을 해당하는 관아에 알리고자 할 때에 치게 한 북.
12)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힘.
13) 생김새나 성질 따위가 외가(外家) 쪽을 닮음.
14)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음.

버지만 옥구멍에서 살아만 나오래라. 이 복보수할 날이 설마 있지, 사람이 죽으면 아주 죽으랴. 수염이 희뜩희뜩한 것이 제 막내딸 같은 네게다 흉측한 마음을 두고 그따위 행실을 해. 그래도 아니꼽게 제가 가장 점잖은 체하고 의젓을 빼내더라지. 에그. 조정에는 사람도 귀하지. 그런 음흉한 것을 시찰사로 내려보냈으니 제가 그 꼴에 시찰은 무슨 일을 시찰할 터인고. 내가 남에 악담이 아니라 남의 못할 노릇을 하고 제게 앉히지 아니하는 법이 없느니라."

(선) "에그. 어머니. 아무 말씀도 말으시오. 공연히 이런 소문이 나면 아버지 몸에만 해롭게 됩니다."

(춘) "이 계집애 듣기 싫다. 오늘날 너의 아버지 저 고생하는 것이 모두 다 뉘 탓이냐. 기왕 팔자가 사오나와, 기생인지 비생인지 되었으면 유난스럽게 굴지 말고, 남과 같이 추월춘풍(秋月春風)으로 지나거나, 또 한마음 한뜻을 먹었거든, 연회 파한 뒤에 진작 집으로 나올 것이지 무엇을 하러 어슬렁어슬렁 따라갔다가 집안을 이 지경이 되게 하였느냐?"

한참 이 모양으로 모녀가 말을 하는데, 다년(多年) 자기 집 하인이나 다름없이 다니는 관비가 분주히 들어오더니

"아씨 안녕하십소. 에그 작은 아씨께서 어디가 편치 않으십니까. 왜 얼굴이 이렇게 못하셨어요?"

선초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처소로 들어가고, 선초 어머니는,

(춘) "응 자네 왔나. 왜 여러 날을 아니 왔던가?"

(관) "자연 그리했습니다. 에그 댁에서야 여북[1]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나으리께서 저 지경이 되셔서."

(춘) "……."

(관) "제가 댁을 상전댁 같이 바라고 다니는데, 나으리 소문을 듣삽고 어찌 놀라운지 한달음에 뛰어가 김선달을 보았습니다."

(선) "김선달이라니 누구 말인가."

(관) "아따 수의사또 중방으로 따라온 김선달 말씀이올시다."

(춘) "김선달은 어찌해서 찾아갔던가."

(관) "그가 제 아우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있삽는데 아우의 말씀을 들은즉 김선달이 수의사또께 아주 단벌[2]로 긴(緊)하다고 하옵길래, 댁 나으리께서 무슨 죄로 잡히셨는지 큰 형벌이나 아니 당하시고 수이 놓이실는지 제 아우에게 김선달께 슬몃슬몃 물어보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춘) "김선달이 아무리 자네 아우의 집에 주인은 정하고 있기로 그런 말을 함부로 이야기 할라고. 그리했나."

(관) "제 아우가 묻는데 김선달이 아는 일까지는 이야기 아니하지 못할 만한 눈치를 알았습니다. 제 아우가 좀 똑똑이 생겼습니까? 아마 김선달이 주인 정하고 있는 후로 무슨 관계가 착실히 있는 것이어요."

(춘) "그래 김선달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던가?"

(관) "에그 어찌하나. 이런 말씀을 여쭈면 너무 놀라실 터인데 그렇다고 아니 여쭐 수는 없고."

하더니, 무슨 소리를 두어 마디쯤 하니까 선초 어머니가 주먹으로 땅바닥을 땅땅 치며,

"에구. 하나님 마옵소서. 생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관계치 않은가. 왜 죽여, 왜 죽여. 무슨 죄를 범했길래 죽이러 들어."

하며, 방성대곡(放聲大哭)을 하니, 선초가

1) 오죽.

2) 오직 하나뿐

마주 울며,

"어머니 그만 진정하십시오. 저 어멈이 무슨 말을 여쭈었길래 이러십니까. 여보게 어멈. 무엇이라고 말씀을 여쭈었나?"

이 모양으로 성화같이 묻는데 관비는 머뭇머뭇하고 대답을 못하는데, 선초 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질러,

"너의 아버지를 내일모레 죽인단다. 시원히 알았느냐?"

선초가 처음에는 어쩐 영문인지 몰랐다가, 저의 어머니의 하는 말을 들으니 어떻게 기가 막힌 지 얼굴빛이 노래지고 두 눈이 꼿꼿하여 아무 말도 못 하고 앉았다가 저의 어머니 앞에 가 떡 엎드러지며

"에그 어머니. 저부터 죽어요."

선초 어머니가 그 딸 죽겠다는 말을 울면서도 귓결에 들었던지 치맛자락을 집어 눈물을 이리 씻고 저리 씻으며

"오냐. 아니 울마. 걱정 말아. 죽기는 왜 죽으려느냐? 우리 모녀가 아무쪼록 기를 쓰고 살아서 너의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어림없이 죽어."

이때 관비는 열없이 말 한마디를 불쑥해 놓고 도리어 무료히 있다가,

"아씨. 진정합시오. 말이 그렇지 설마 어떠하리까. 제가 댁에를 별로 가까이 아니 다니는 체하고 김선달에게 다시 물어보아 만약 풍설(風說)이게 되면 다시 말씀할 거 없이 좋삽고 그렇지 못하옵거던 즉시 와 여쭐 것이니 힘자라는 대로 주선하여 보십시오."

(춘) "에그 이 지경에 누가 이렇게 와서 고맙게 말을 하겠나. 어렵지마는 어서 좀 알아다 주게."

그 관비가 하직하고 간 지 두어 식경(食頃)[1]이나 지나 분분히 다시 오거늘, 선초 어머니도 궁금하려니와 제일 선초가 갑갑해서 마루 끝으로 마주 나오며

"간난 어멈. 그래 댁 나으리 마님 일을 자세 알아보고 왔나."

관비가 선초에게는,

"예, 예. 다 알아보았습니다. 아씨께 자세 여쭐 것이니 천천히 들으십시오."

하며, 다시는 다른 말이 없이 자기 어머니 처소로 들어가더니 가만가만히 무엇이라고 한참 말을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눈물만 뚝뚝 떨어트리고 듣다가 입맛을 쩍쩍 다시며,

"아무리 내 속에서 난 자식이기로 이런 일이야 억지로 권할 수가 있나."

이때, 선초가 관비 들어오는 양을 보고 일건 간난 어멈을 부르며 말을 물어보았더니 천천히 들으라고 맛없이 대답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은근히 전하는 양을 보고 심중에 이상히 여겨 미닫이 틈으로 엿보며 듣다가, 급기 자기 어머니가 울며 하는 말을 들으니 심히 이상스러워서 방문을 가만히 열고 곁에 가 날아 갈듯이 앉으며

(선)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어요? 왜 아버지께서 참말 놓여나오시지 못하게 되셨나요?"

(춘) "놓여나오는 것이 다 무엇이냐. 닷새 후면은 홍문 밖 삼거리에다 내어다 앉히고 총으로 놓아 죽인단다. 에그 남은 열 자식을 두어도 아무 탈 없더구먼, 우리는 변변치 못한 딸 형제를 두었는데 딸에 효도 보기는 바라도 아니하지마는 너로 인하여 생떼 같은 아비가 폭도에 죄명을 쓰고 총을 맞아 죽게 되었지."

(선) "그게 웬 말씀이어요. 리시찰이 저를 미워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올시다 그려. 정 그러할 터이면 그만두십시오. 제가 지금 떠나 주야배도(晝夜倍道)[2]하여 서울로 올라가 남

1) 한 끼의 밥을 먹을 만한 잠깐 동안.

산에 봉화를 들어 리시찰의 죄상을 들어내고 아버지 무죄함을 발명하겠습니다."

관비가 대경질색(大驚窒塞)[1]을 하여 선초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으며,

(관) "작은 아씨 남의 말은 채 들으시도 아니하시고 왜 이리 떠드십시오? 곧 큰일 나겠네. 수의사또가 언제 펼쳐 내놓고 작은 아씨 때문에 그리합니까. 공연히 이렇게 왁자지껄하시면 화만 더 재촉하시는 일이올시다. 설령 작은 아씨가 서울을 가시기로 어느 겨를에 일 주선을 하실 터이오니까? 분하다고 이러시면 나으리께 조금도 이롭지 못합니다."

선초가 냅뜨던[2] 기운을 억지로 참고

(선) "그러면 어찌 자세히 들어보세. 말을 다 하게"

(관) "지금 가서 제 아우를 시켜 김선달에게 다시 알아도, 며칠 후면 댁 나으리 일이 차마 입으로 옮기지 못할 지경이라 하기에, 제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나올 구멍이 있다는데 어떻게 일례(一例)[3]일 도리가 없겠느냐?' 물은즉, 김선달도 아무리 수의사또의 심복일지라도 나으리 무죄히 그 지경 되시는 것이 마음에 딱하던지 한없이 한탄을 하다가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무사타첩(無事妥帖)[4] 하자면 똑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만일 의향만 있고 보면 그 주선은 내가 다 하겠다.' 하는데 그 말이 별말이 아니라 작은 아씨 말씀입디다."

(선) "……내 말을 무엇이라고 하더란 말인가?"

(관) "'수의사또가 아씨를 한없이 사모하시는 터에 눈 끔쩍하고 그 말을 들었으면 베개 위 공사가 없다고 분명히 백방(百方)이 될 듯하지마는, 원래 그의 지조가 견확(堅確)[5] 하니까 누가 무안이나 보자고 권해보겠나. 속절없이 최호방만 죽을 터이지.' 하는 말을 듣고 저 되어서 댁에 와 여쭙지, 아니할 가망이 있습니까?"

선초가 그다음 말은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뒷문을 열어놓고 문지방에다 한편 팔꿈치를 세우고 비스듬히 기대앉아서 무엇을 유심히 내다보며 한숨만 치 쉬고 내리 쉬더라.

천지 권능(權能)[6]을 홀로 차지한 듯한 것은 춘삼월 동풍이라. 그 바람 지나는 곳마다 마르고 쇠(衰)[7]한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일년일도(一年一到)[8]에 영화로운 기상을 그려내는 중, 최호방의 집 후원 화초가 당시에 제일인 듯싶게 난만(爛漫)[9]한데, 몸은 약하고 날개는 부드러운 옥색 나비 하나가 바람을 못 이기어 간신이 날아다니다가 심술궂고 욕심 많은 거미가 요해처(要害處)[10]마다 꼭꼭 질러 팔만금[11] 사진(沙塵)[12]치듯 한 줄에 가서 불행히 턱 걸려 오도가도 못하고 무한 신고(辛苦)를 하다가 근력이 탈진하여 두 날개를 접어 붙이고 다시 꼼짝도 못하는지라.

선초가,

"에그. 저 나비 보게. 내와 같이 불쌍히도 되었지."

하고 방구석에 세워 있는 전반(剪板)[13]을 얼핏 집어 들고 버선발로 가만가만 내려가

---

2) 밤낮으로 빨리 달려감.
1) 몹시 놀라서 얼굴빛을 잃음
2) 관계도 없는 일에 불쑥 참견하여 나섬.
3) 하나의 방법.
4) 일을 탈 없이 순조롭게 끝냄.
5) 견고하고 확실함.
6) 권세와 능력.
7) 힘이나 세력이 점점 줄어서 약해짐.
8) 일 년에 한 번 돌아옴,
9) 꽃이 활짝 피어 화려함.
10) 적에게 불리하고 자기편에는 유리한 지점.
11) 팔만 지옥
12) 흙먼지.
13) 종이를 오려낼 때 쓰는 얇고 긴 나뭇조각.

거미줄 한복판을 탁 걸어 잡아 다려 나비 전신에 휘휘친친 감긴 거미줄을 차례차례 뜯어 주며 혼자 한탄하는 말이,

"에그 이 나비는 천행으로 나를 만나 몹쓸 거미의 핍박함을 면하고 저렇게 마음대로 훨훨 날아가는구먼. 나는 어느 누가 제를 하여 우리 아버지를 옥중에서 뫼셔 내오고 아무 침책(侵責)[1]없이 시원한 세상을 보고 살아 볼꼬. 휘이여, 저 까마귀가 왜 저렇게 야단스럽게 와서 우나. 까마귀는 영물이라 사람이 죽으려면 미리 알고 저렇게 운다는데 아마 내가 분에 못 이기어 정녕 죽으려나 보다.

죽는 것은 섧지 아니하지마는, 아버지 놓여 나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뼈에 사무치지 아니한가. 에그 까마귀는 미물이라도 제 어미에게 효성이 있는 고로, 만고에 효조(孝鳥)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는데 사람이 되고 부모에게 불효가 되면 미물만도 못하지……."

하며 끌로 파고 박은 듯이 한 곳에 가 우두커니 서서 곰곰 생각을 하다가,

"에라 하릴없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찌 있겠니? 내 몸 하나 버려 아버지만 살아나셨으면 오늘 죽어도 내 도리는 다 차렸지."

하고 낯빛을 화평히 가지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관비를 대하여

"여보게. 댁 나으리 무죄 백방(白放)[2]되시고 못 되시는 것은 간난 어멈 주선만 믿으니 아무쪼록 힘을 잘 써 보게."

간난 어미는 최호방 집을 위하여 그 모양으로 입에 침이 없이 애를 쓰는 일이 순전 아니라, 기실은 리시찰의 돈전이나 준다는 전후 농락에 춤을 추고 다니는 것이라.

처음에 선초의 냉락(冷落)[3]히 구는 양을 보고 얼마쯤 마음에 낭패로 여겼더니 선초의 좋은 낯으로 다시 와서 말하는 양을 보니 한없이 기꺼워서,

(관) "작은 아씨. 그건 아무 걱정 말으시고 한마디 말씀만 쾌히 하시면 내일이라도 댁 나으리께서 나오시도록 힘을 써 보오리다."

(선) "아무려나 고마운 사람일세. 나에게는 더 말할 것 없이 수의사또의 말씀을 들어보아서 내게 향하여 일시 풍정(風情)[4]으로 그러한다 하면 간난 어멈도 내게 다시 올 것이 없고, 아무리 그가 내게 연기가 상적(相敵)[5]지 아니하나 백 년을 기약하겠다 하거든 즉시 와서 알게만 하게."

관비가 그 길로 김선달을 가보고 선초에 말을 일일이 전하니 김선달이 큰 성공이나 한 듯이 리시찰에게 고하였더니, 리시찰이 입이 귀밑까지 떡 벌어지며,

(리) "그러면 그렇지. 제가 될 말인가. 어려울 것 없지. 제 소원대로 다 하여 줄 것이니 오늘 밤이라도 들어오라고 말하여라."

(김)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서너 걸음쯤 나가는데 리시찰이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김선달을 급히 부른다.

"이 애. 가만히 있거라. 이리 좀 오너라. 일이 그렇지 아니하다. 아무 일 없을 때 같으면 내가 기생년 좀 불러 상관하기가 불시 예사지마는 지금 최가를 내일 죽이리 모레 죽이리 하면서, 그 딸을 불러다 가까이했다 하면 남 듣기에 그 모양이 사오나오니 쥐도 개도 모르게 밤 들기를 기대려 은근히 데려오너라."

김선달이 대답을 하고 제 주인으로 와서 관비에게 그 사연을 전하여 선초에게 통지케

1)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함.
2) 죄가 없음이 밝혀져 놓아 줌.
3) 서로의 사이가 멀어져서 쌀쌀함.
4) 풍치가 있는 정회(情懷).
5) 양편의 실력이나 처지가 서로 비슷함.

하였더라. 선초가 관비의 하는 말을 듣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선) "여보게. 간난 어멈. 그렇지 않은 일 한 가지가 있으니 어려워도 또 한 번 걸음을 하여 주게."

(관) "왜요. 작은 아씨 심부름이야 열 번 백 번인들 못해드리오리까. 말씀만 하십시오."

(선) "일이 되는 이상에 은근하나 왁자하나 아무 관계 없거니와, 만일 댁 나으리께서 어느 때던지 놓여나오신 뒤라야 내가 가든지 그 양반이 오시든지 하는 것이, 그 양반 정체(正體)에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내 도리도 당연하려니와, 싸고 싼 향내도 난다고 아무리 비밀해도 소문이 절로 날 터인데 실범(實犯)[1]이 있던지 없던지 옥중에 갇혀 있는 죄인의 딸을 가까이했다 하면, 그 양반은 무슨 모양이며 부모는 내일 죽게 되네 모레 죽게 되네 하는데 소위 자식이라고 수의사또와 어쩌니 어쩌니 했다 하면 나는 무슨 꼴이겠나.

두말 말고 수의사또에게 오늘이라도 댁 나으리만 무죄 백방만 하시라게. 내가 한 번 허락한 이상에 위반할 리가 만무하고 또는 그 양반과 서로 만날 지경이면 어제도 말하였거니와 그 양반의 분명한 약조를 내 귀로 들어야 하겠네."

(관) "들으실 약조는 또 무엇이오니까. 아주 지금 다 시원하게 일러 주십시오. 좌우간 이번 가서 수의사또의 의향을 알고 오겠습니다. 에구. 댁일이 아니면 옷이 납니까, 밥이 납니까? 이 애를 쓰고 다니게요."

(선) "아무렴 그렇지. 약조는 별것이 아니라 어제 말과 같이 나를 한 번 가까이하는 이상에 노류장화(路柳墻花)로 여기지 아니하고 백년해로(百年偕老)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듣기 전에는 내 몸을 천 조각 만 조각에다 낸대도 청종(聽從)치 못하겠다 하더라고 그 양반께 말을 하여 주게."

(관) "이 말씀은 왜 또 하십니까. 어제도 아씨 말씀대로 다 고하였는데, 아무 반대의 대답이 없으실 제는 모를 것 무엇 있습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말 일반인데 아무려나 시키시는 대로 하오리다."

선초가 관비를 대하여 이처럼 말하기는 리시찰의 신의를 암만해도 알 수 없는 즉, 자기 몸을 경선(輕先)[2]히 허락하였다가 첫째는 자기 부친을 백방할는지도 꼭 알 수 없고, 둘째는 자기를 일시 색정(色情)으로 그리하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괄시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다심(多心)[3]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재지삼(至再至三)[4] 신용 없는 자에게 어음 다지듯 한 것이러라.

리시찰이 선초의 하는 말을 관비와 김선달의 소개로 다 듣더니 당장 욕심이 불같이 치밀어 이 다음 일은 반푼어치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하지. 어려울 것 없다."

하더니, 일변 최호방을 잡아 올려 어름어름 신문을 하는 체한 후, 가장 체통이 정대한 듯이 일장 설유(說諭)를 한다.

"너. 말 듣거라. 네 죄상으로 말하면 열 번 죽여 싸다마는 십분 생각하는 바가 있어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니, 자금(自今) 이후로는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아무쪼록 다시 죄를 범치 말지어다. 만일 이 다음 또 무슨 일이 있고 보면 그때 가서는 죽기를 면치 못하렷다."

최호방이 잡혀올 때도 꿈 밖에요, 놓여 나

1) 실제로 죄를 저지른 사람.

2) 경솔하게 앞질러 하는 성질이 있음.

3)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걱정이 많음.

4) 두 번 세 번. 곧, 여러 차례

가기도 꿈 밖에라. 잡기는 무슨 마음이요, 놓기는 무슨 마음이냐고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지마는 벌써 보와도 위인이 족히 데리고 오르니 그르니 수작할 거리가 못 되던지 다만,

"예 지당합시외다. 어디가 다시야 죄를 지을 가망이 있습니까."

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관비가 왕래하며 수작된 일을 듣고서 반자[1]가 얕다고 열길 스무 길은 뛰면서,

"그게 무슨 소리니 자식을 팔아 내 목숨을 이어. 어이. 망측한지고.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 열 번이라도 죽이는 것을 당할 것이요, 죄만 아니 범하였으면 당당히 놓여나올 터인데 그게 무슨 소리니 어이. 망측한지고. 이 년, 관비 년부터 버르장이를 단단히 가르쳐야 하겠다."

하고 두 눈귀가 쭉 찢어질 듯이 부릅뜨고 벌떡 일어서 나가니 ,선초가 와락 달려들어 저의 아버지 소맷자락을 검쳐[2] 붙잡으며,

(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좀 참으십시오. 이래도 제 팔자요, 저래도 제 팔자올시다. 어떠하던지 아버지께서 살아나신 것만 좋지 남의 탓하시면 무엇합니까."

(최) "에라. 왜 요리 방정을 떠느냐? 나 살자고 자식을 팔아먹어."

하며 선초를 뿌리치는데 선초 어머니가 우두커니 앉아 보다가,

"여보. 저게 웬 망령이시오. 업은 애기 말도 귀담아 들으랬다오. 저도 다 생각하는 일이 있어 그리하는 것을 공연히 분만 내셔 이러시오."

하며 달려들어 자기 남편의 허리도리를 안아 안방으로 들이끌더니 아무쪼록 분심이 풀리도록 좋은 말로만 해석을 하는데, 아무리 지금은 마음을 잡고 들어앉아 여염 살림을 할지언정 본래 대인 수접(酬接)[3]하던 말솜씨야 어디 갔으리오. 어떻게 이승(理乘)[4]스럽게 첩첩 이구(利口)[5]로 명기(銘記)[6] 불연(不然)[7]한 말을 하여 놓았던지 그 고지식하고 결단성 있는 최호방이 슬며시 들어 누웠더라.

당장 이 광경을 보면 속 모르는 사람은 아무라도,

"저게 무슨 소린가. 자식을 팔아 목숨을 잇다니 아마 그 딸 선초를 뉘게다 팔아서 그 돈을 리시찰에게 바치고 백방으로 놓여나왔나 보다."

할 터이요, 그러함을 대강 짐작할 만한 사람은,

"저럴 만도 하지. 그 딸을 어떻게 알던 딸인가. 비록 제 팔자 탓으로 기생 노릇은 시킬지라도 원래 씨가 있는 자식이라 제 지조가 아홉 방 유부녀보다 더하던 터인데, 저의 아버지를 살려내 노라고 필경 몸을 버린 모양이니 아무라도 저렇게 할 터이야."

이런 말은 그때 근경의 이야기거니와 비위가 노래기를 생으로 회쳐 먹을 만한 리시찰은 최호방을 그 모양으로 백방하고, 해지기를 기다려 김선달을 조용히 부르며,

"이 애. 너 최호방의 집 소식을 들었느냐? 필경 웬 집 아니 좋아들 하겠지."

김선달이 두 손을 마주 잡고 허리를 굽실하며,

"좋아할 뿐이오니까. 저의 집에서는 큰 경사가 난 듯이 기뻐하며 사또 송덕(頌德)을

---

1)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천장.
2) 모서리를 중심으로 두 면에 걸치도록 하여 접거나 휘어 붙임.
3) 손님을 맞아 대접함.
4) 모두 이치에 맞음.
5) 말을 재치 있고 그럴듯하게 잘함.
6) 마음에 새기어 기억하여 둠.
7) 그렇지 않음.

만세불망(萬世不忘)[1]으로 한다 합니다."

리시찰이 껄껄 웃으며

(리) "실없는 것들이로구나. 송덕은 무슨 송덕. 제가 실범(實犯)[2]이 없으니 그렇지. 실범이 있어도 놓였을까. 이 애. 그러나 선초가 오늘 밤에 정녕히 오기는 하겠지."

(김) "그다 뿐이오니까. 제가 어느 존전(尊前)이라고 거짓 말씀을 여쭈었겠습니까?"

(리) "이 애. 짧은소리로 긴 밤 새겠느냐? 밤들기 전에 어서 오라고 가 일러라."

(김) "예. 그리하오리다"

하고 제 주인으로 나와 간난 어미를 족불리지(足不離地)[3]로 최호방 집에를 곧 보내었더라. 간난 어미가 무슨 상급(賞給)[4]이나 탈 듯이 최호방의 집으로 가서 먼저 최호방을 보고 공순히

"나으리, 마님. 문안 어떠시오. 그동안 경과하옵신 일은 하정(下情)[5]에 무에라고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최호방이 관비를 보니 분이 도로 왈칵 나서 당장,

"이 년. 괘씸한 년. 무엇이 어쩌고 어쩌해. 저런 년을 없애 버려야지 그대로 두었다는 무슨 짓을 할는지 모르겠다."

하고 본보기를 착실히 내놓으려다가 다시 돌려 생각하기를

"에이. 견문발검(見蚊拔劍)[6]이지. 제까짓 것을 갈아서 무엇하며, 역시 내 집 운수니라."

하더니 눈살을 훨쩍 펴면서

"오. 너 왔느냐? 근래에는 네가 중매를 잘한다는구나."

간난 어미가 최호방의 말 나오는 것을 듣고 가슴이 울렁울렁하여 얼핏 대답을 못하고 섰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최호방이 평일에 성품이 어찌 강경한지 말 한마디 일 한가지 자기 소료(所料)[7]에 벗어나면 조금도 용서성 없이 당장 마른 벼락을 내리는 터이라.

그동안 제가 왕래하며 소개하던 일을 미타(未妥)[8]히 여겨 무슨 거조(擧措)를 하려고 저렇게 문제를 내거니 함이러니 생각 밖에 최호방이 껄껄 한 번 웃으며,

"왜 대답을 아니하느냐? 응."

간난 어미가 그제야 숨이 휘이 나가서,

(관) "소인네가 무슨 재주로 남의 중매를 합니까. 요사이 댁에 몇 차례 오옵기는 소인네 소견에는 댁일이 하도 가이없어 심부름은 더러 다녔습니다."

(최) "허허 내가 웃음의 소리다. 내가 대강 들었다마는 네 말을 좀 자세히 듣자."

(관) "……. 저야 무엇을 아옵니까. 수의사또 따라온 김선달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할 따름이올시다."

(최) "김선달의 말인즉 수의사또의 말인 김선달 제가 허전장령(虛傳將令)[9]을 하였겠느냐? 그래 김선달이 무엇이라고 하더냐. 한마디도 빼지 말고 자세히 이야기를 하여라."

(관) "이왕 물으시는데 죄를 주시나 상을 주시나 어디가 기망(欺罔)[10]을 하겠습니까. 김선달의 말이 수의사또께서 댁 작은 아씨의 한마디 허락만 들으시면 댁일을 극력 두호(斗護)[11]해 주실 의향이시라고 하옵기에 소인

1) 영원히 은덕을 잊지 아니함.
2) 실제로 죄를 저지른 사람.
3)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뜻으로, 몹시 급하게 달아나거나 걸어감을 이르는 말.
4) 상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5) '자기의 심정'의 겸칭.
6)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하찮은 일에 너무 크게 성내어 덤빔.
7) 생각한 바.
8) 온당하지 않음.
9) 장수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함.
10) 속임.
11) 남을 두둔하여 보호함.

네는 댁을 위하여 마음에 좋아서 와서 여쭈어 보온즉, 천행으로 작은 아씨께서 허락을 하옵시기에 그대로 김선달에게 회답하였삽더니, 지금 김선달이 소인네를 또 불러셔 수의사또께서 기다리실 터이니, 오늘 밤으로 작은 아씨를 뫼시고 오라 하옵기, 나으리 문안도 하올 겸 작은 아씨께 이런 말씀도 여쭐 겸 왔습니다."

(최) "그리면 댁 작은 아씨에게 같이 가자고? 아니 될 말이지. 바로 수의사또가 내 집으로 오시면 모르거니와 작은 아씨가 갈 수는 없지."

(관) "에그. 그리면 그대로 가서 말씀을 하옵지요."

선초가 창(窓)을 격(隔)하여 그 말을 듣다가 저의 아버지 곁에 와 서며,

(선) "그렇지 않은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 "무엇이란 말이냐?"

(선) "제가 가는 일이 불가함은 더 말씀할 것 없삽거니와 그 양반에게 경솔히 오시라 할 수도 없습니다."

(최) "네가 잘잘못 간에 이미 허락을 한 이상에 가지도 아니하고 오지도 말라 하면 점잖은 이 대접도 아니요, 네 모양은 무엇이냐?"

(선) "아니올시다. 저는 세상없어도 갈 수도 없삽고 그 양반에게 오시라 할 터이면 그 양반 친필로 단단히 약조서(約條書)[1]를 받은 후라야 오시라고 청할 터이어요."

최호방이 벌떡 일어나 사랑으로 나아가며

"오냐. 네 생각대로 하여라. 나는 이것저것 도무지 모르겠다."

1) 각서.

제 사 회

선초가 저의 아버지 나아간 뒤에 간난 어멈을 대하여

(선) "여보게 그렇지 아니한가. 이 일이 남 보기에는 시들하여도 내게는 평생 큰 관계가 여간이 아닐세. 여보게 자네 말이 그 양반께서 이미 내 말에 대하여 허락까지 하셨다 하니, 어련할 바는 아니로되, 내가 그리하더라고 김선달을 가보고 말씀을 여쭈어보라고 하게."

(관) "무에라고 말씀을 여쭈라 하와요?"

(선) "별말이 있겠나. 아까 나 하는 말을 자네도 들었거니와 육례(六禮)[1] 갖추는 혼인 아닌 바에 혼서지(婚書紙)[2] 여부는 없지마는, 다만 글 한 자라도 이다음 증거될 만한 것을 하여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여쭈어, 무엇이라 하던지 내게 곧 와서 알게 하여 주게."

간난 어미가 그리하겠다 대답하고 즉시 가더니 거미구에[3] 도로 와서

"작은 아씨. 김선달이 그 말씀을 여쭈니까 수의사또께서 웃으시며 도리어 작은 아씨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며, 그는 어렵지 아니한즉 구태여 사람을 간접으로 무엇을 써서 주고 말고 할 것 없이 서로 대면하여 앉아서 어디까지 마음에 충분하도록 의론하여 증거물을 써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래요."

선초가 한참 무슨 생각을 하여 보다가,

"에그. 점잖은 처지에 설마 거짓 말씀하시겠나. 그러면 오늘 밤에 내 집으로 행차하시라고 여쭈라게."

간난 어멈을 보내어 자기 어머니에게 당부하여, 일변 주안(酒案)을 먹을 만하게 정결히 차려놓고 리시찰 오기를 기다리는데, 얼핏 말하면 과년(瓜年)[4]한 여자가 첫날 신방을 당하였으니 남 보기에 한없이 부끄럽기도 할 터이오, 내심으로 은근히 기쁘기도 할 터이지마는 이는 여염가 보통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지, 일찍이 교방(敎坊)에 몸이 매어 날마다 시마다 남자의 노리개로 파겁(破怯)[5]을 여지없이 한 선초로 말하면 부끄러울 것은 의례 없으려니와 반점도 기쁘지도 아니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일정한 뜻이 연기라던지 인물이라던지 운치가 리시찰 같은 자를 꿈에도 원하고 기다리던 터가 아니거늘, 사세에 박부득이(迫不得已)[6]하여 그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심사가 편안하리오.

섬섬옥수(纖纖玉手)로 턱을 나지막이 괴이고 시름없이 홀로 앉아 긴 한숨 짧은 한숨 쉴 새 없이 쉬는데, 윗목에 놓인 등잔 불은 등화(燈火)가 절로 앉아 끔벅끔벅할 따름이러라.

그러자 문밖에서 사람의 소리가 두런두런 나며 뜰 앞에서 자던 삽살동경개가 컹컹 짓고 마주 나가니 선초의 가슴이 무단히 덜컥 내려앉으며 사지에 맥이 하나도 없어 검다 쓰다 말을 못 하고 그대로 앉아 혼자 하는 생각이라.

"에구. 내 팔자야. 어찌하면 좋은가. 이 일이 부모를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지 내 마음 글러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의 희뜩희뜩한 모발을 보건대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이 더 많은 모양이던데 차마 부끄럽고 무서

1)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 곧,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폐(納幣)·청기(請期)·친영(親迎).
2) 혼서를 쓰는 종이. '혼서'는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예단(禮緞)에 붙여 신부 집으로 보내는 편지.
3) 시간상으로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4) 여자가 혼기에 이른 나이.
5) 익숙해져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짐.
6) 일이 썩 급하여 어찌할 수 없이.

워서 어떻게 남편이라고 얼굴을 마주 대하나…….

에라. 기왕 이리된 일을 다시 말하면 쓸 데 있느냐? 그가 들어 오거던 계약이나 단단히 받아 내 신세 결단이나 아니 나도록 하는 것이 옳지……. 그의 하는 거조는 비록 족히 의론할 여지가 없지마는 그도 사람이지 나이 그만치 지긋하니까 한 번 약조 곧 하여 놓으면 남의 적악(積惡)[1]이야 설마 할라고……."

굿 들은 무당과 재 들은 중과 일반인 리시찰은 선초가 오라 하는 기별을 듣고 어찌 좋은지 어깨춤이 저절로 나서 그 시각을 머물지 아니하고, 춘향이 찾아가는 이도령과 같이 선초의 집을 찾아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김선달에게

(리) "이 애. 내가 가기는 한다마는 창피스럽지 아니하냐?"

(김) "그러하올시다. 제만 기생으로서 사또께서 부르시는데 의례히 등대(等待)를 하여야 도리에 가하올 터이온데, 방자스럽게 제집에 까딱 아니하고 앉아서 어느 존전이라고 오시라고 한단 말씀이오니까? 소인의 미련한 생각에는 이렇게 행차하실 것이 없이 도로 들어가옵서서 냉큼 대령하라고 엄분부(嚴分付)[2]를 내리셨으면 좋을 듯하오이다."

(리) "허허. 네 말이 그럴듯하다마는 내가 점잖으니 철모르는 저를 가래어[3] 무엇하겠느냐? 또 이왕 나선 길에 도로 들어가면 더구나 모양이 되었느냐? 그리고 기생이면 다 기생이냐. 제가 이때까지 지조를 지키고 있는 것이 가상해도 내가 한 번 질 수밖에 없고, 또는 제 아비가 그 고초를 겪다가 방장(方將)[4] 놓여나왔는데 자식된 도리에 모르는 체하고 나올 수가 있느냐? 내가 저를 가까이 아니하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바에 내가 가서 저도 볼 겸 제 아비 일을 위문도 하는 것이 관계치 아니할 듯하다. 남의 덕으로 제 생계를 삼는 무리는 예나 지금이나 매사에 자유는 반점(半點)[5]도 없고, 가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6]으로 비위 맞추기로만 주장을 하는 법이라."

김선달이 리시찰의 말을 들으니 지남석(指南石)[7] 맞는 바늘 모양으로 전신이 모두 선초의 집으로 끌려가며 외면치레만 어쩌니 어쩌니 하는 모양이라. 그 입맛이 썩 나도록 대답을 연해 한다.

(김) "예. 지당합소이다. 점잖으신 좌지(座地)[8]로 저와 각승(角勝)[9]을 하오실 수가 있사오며, 과연 말씀이지 죽을 제 아비가 사또 덕택에 살아 나왔으니, 하정(下情)에 감사한 품으로 말씀하오면 한달음에 뛰어라도 와서 사또 앞에 백배사례를 하겠지오마는, 지금 분부하신 말씀과 같이 고생 겪던 제 아비를 만나 차마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마는 저의 일편단심은 사또를 향하여 감격한 뜻이 필경 어디까지 간절할 터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리시찰이 다시 말이 없이 윗논에 물 실어 놓은 듯이[10] 든든한 마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선초에 집에를 거진 당도하였는데, 간난 어미가 마주 나아와 기다리다가 쪼르르 먼저 들어가는 양을 보고 속마음으로,

"저 계집이 저렇게 들어가 통기(通奇)[11]를 하면 아마 최호방이라도 마중을 나오렷다. 최

1) 못된 짓을 많이 함.
2) 엄한 분부.
3) 맞서서 옳고 그름을 따짐.
4) 이제 곧
5) 매우 작은 것.
6)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7) 자석.
8) 높은 자리.
9) 승부를 겨룸.
10) 아무런 걱정이 없이.
11) 통지.

호방이라는 자가 우매한 사람이 아니라 경우조리가 매우 똑똑한 모양이던데 초면 수작을 무엇이라고 해야 내 모양이 창피치 아니할꼬. 으응. 지금 세상은 아무리 실수한 일이 있더라도 내 기운을 축지지[1] 말고 언론이 씩씩해야 좀체 남이 넘 보이지를 못하느니라."

이렇듯 마음을 도슬러[2] 먹고 그 집 문전까지 이르러도 어리친 개새끼[3]도 내다보지를 아니하는지라. 슬며시 가통(可痛)[4]한 생각이 들어 자기에 평소 객기대로 하면 불호령이 천둥같이 나오지마는, 꿀떡꿀떡 억지로 참기는 선초 하나의 관계라.

스스로 돌려 생각하기를,

'소경된 내 탓하지, 개천 나무라 무엇하리. 내가 오늘 여기 오기는 소관이 하사(所關何事)라고 좀 참으면 그만 될 것을 공연히 행실을 냈다가 다 쑨 죽에 코를 빠뜨려 무엇하리. 그러나 놈의 소위가 괘씸키는 아닌 바가 아닌즉, 이다음에 어느 모퉁이에서든지 만날 날이 있을 터이지.'

하고 문 앞에서 왔다갔다 하며 동정을 기다리는데 안으로서 등불 빛이 번뜻 비취며 신발 소리가 들리더니 오매불망(寤寐不忘)[5]하던 선초가 간난 어미를 앞세우고 마주 나오며,

"사또 안녕히 행차하겠시오니까?"

리시찰이 그 인사 한마디를 들으니 분하든 마음이 봄눈 스러지듯 하며 웃음이 걷잡을 새 없이 절로 나온다.

"허허허, 허허허. 너 잘 있더냐?"

선초가 앞서 인도를 하여 후원 별당으로 들어가 아랫목 비단 보료 우에다 앉히더니, 그 앞에 가 날아갈 듯이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다소곳하고 공손한 말로,

"황송하올시다. 사또께서 이렇게 행차를 하옵시는데 인사로 하옵던지, 도리로 하옵던지 제 아비가 진시(趁時)[6] 나아와 문안을 하였으련마는……. 어쩐 일인지 요사이 우연히 신병이 나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리시찰이 자기의 한 짓이 부끄러워 그렇던지 얼굴이 술 취한 것 같이 취해지며,

(리) "내 어쩐지 너의 어른의 동정을 못 보겠더라. 그것 아니 되었구나. 증세가 중하지나 아니하냐? 약이나 진시 써보지."

(선) "약도 약간 썼답니다 만은 동정이 없습니다."

(리) "오냐 사람이 병나기도 혹 예사이지 설마 어떠하겠느냐? 이리 가까이 오너라. 밤낮 보고 싶던 얼굴을 자세히 좀 보게."

(선) "……."

그리자 방문이 열리며 주안상이 들어오는데, 썩 성비(盛備)[7]는 아니하였으되 아담하고 정결하기는 다시 할 말 없더라. 아무리 술 못 먹는 자라도 반가운 일이 있거나 생각하던 사람을 만나면 한 잔 두 잔 취하는 줄 모르고 먹는 법인데 이날 리시찰로 말하면 주량이 썩 크든 못해도 순배(巡杯)[8] 차례에는 빠지지 아니할 만한 중, 반가운 일 생각하던 사람을 만난 좌석이라.

어깨가 절로 으쓱으쓱 흥취(興趣)가 어찌 나던지 부어라, 먹자, 먹겠다. 부어라, 얼큰하게 취한 판에 선초의 손목을 잡아 앞으로 끌려 하니 선초가 정색을 하며, 뒤로 물러앉더니,

"이게 웬 망령이오니까? 점잖은 처지에."

---

1) 사람의 가치가 떨어짐.
2) 무슨 일을 하려고 별러서 마음을 다잡아 가져.
3) 아무도 얼씬하지 않음.
4) 통탄.
5) 자나 깨나 잊지 못함.
6) 진작.
7) 잔치 따위를 성대하게 베풂.
8) 술자리에서 술잔을 차례로 돌림.

리시찰이 지재지삼(至再至三)[1] 선초를 지그럭대다가[2] 골이 버럭 나서 술상을 드윽 밀어 놓으며

(리) "이 애. 선초야. 네가 이리할 터이면 나에게 오라기는 무슨 버르장인고. 이 술 한 잔 주려고 불렀던가. 내가 술에 팔려 다닐 터가 아니거늘, 어 참. 맹랑하다."

(선) "잠시 진정을 하옵시고 제 말씀을 들어 봅시오."

(리) "말이 무슨 말이냐. 기다랗게 장황 수작할 것이 없다. 먼젓번에도 내가 어림없이 네 꾀병하는데 속은 일이 지금까지 가통(可痛)[3]하거던 또 무슨 얕은꾀로 속여넘기려고."

(선) "왕사(往事)[4]는 말씀하실 것이 없는 것이 그때에는 제가 아무쪼록 사또의 말씀을 아니 들으려니까 부득이 하여 꾀병을 하였삽거니와, 오늘이야 어디가 일호(一毫)[5]기로 기정(欺情)[6]을 하여 말씀하올 리가 있습니까?"

리시찰이 선초의 냉락(冷落)[7]함을 보고 열화를 불끈 내다가 기정 아니하겠노라는 소리에 금방 풀어져서,

"허허, 허허. 못생긴 자식이로고. 할 말이 있으면 얼핏할 것이지 무엇을 그리 벼르고만 있단 말이냐?"

선초가 얼굴빛을 정대(正大)히[8] 가지고 치맛자락을 바삭바삭 여미며

(선) "이번에 제 아비를 살려주신 은덕은 태산(泰山)이 가벼웁고, 하해(河海)가 얕사오니, 자식된 도리에 사또 분부하시는데 대하여 도탕부화(蹈湯赴火)[9]라도 감히 사양하오니까마는 급기 내외(內外)[10]되는 일에 당하여는 인륜의 으뜸되는 바이온즉, 확실히 믿사올 만한 증거가 없이는 당장 장하(杖下)에 죽사와도 봉행(奉行)[11]할 길이 만무하옵고, 그 지경에 당하여도 하늘 같은 사또 은덕은 이 몸이 죽사와서라도 풀을 맺어 갚을 터이올시다."

(리) "허허허. 그 대단한 일을 가지고 말하기를 어려워하였느냐? 그리하여라. 어떻게 하였으면 증거가 확실히 되겠느냐?"

(선) "사또께옵서는 경성 존귀하옵신 양반이시오, 저는 하방 일개 천기가 아니오니까? 소일 삼아 그리시던가 장난삼아 그리시던가 담 위에 꽃 가지 같이 실없이 꺾어 보시려는 것이 본시(本是) 예사이올시다 마는, 제가 비록 팔자가 기구하여 기안(妓案)[12]에 이름은 있사오나 일편단심이 시속(時俗)[13] 천한 무리와 일반으로 행실을 음란히 가지지 아니하고, 물론 누구에게던지 한 번 허신(許身)[14]을 하는 지경이면 백 년을 의탁하자는 작정이온즉, 오늘 밤이라도 사또께옵서 제 몸을 누추히 여기지 아니하옵실 터이오면, 사또 필적으로 백 년 맹세를 써 주옵시면 즉시 명령대로 복종하오리이다."

(리) "이 애. 그러면 혼서지 일체(一體)로구나. 어렵지 않지. 지필(紙筆) 가져오너라. 네 소원대로 써줄 것이니."

선초가 머리맡에 있는 연상(硯床)[15]을 닦아 놓고 섬섬옥수로 먹을 쓱쓱 갈더니 주지(周

1) 두 번 세 번.
2) 옥신각신하다가.
3) 통탄할 만함.
4) 지나간 일.
5) 한 가닥의 털.
6) 겉으로만 꾸미고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음.
7) 쌀쌀하다.
8) 바르고 옳아서 말이나 행동 따위가 당당히.
9) 끓는 물을 밟고 타는 불속에 들어간다는 뜻. 어렵고 위험한 것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 나가는 것.
10) 부부.
11) 웃어른이 시키는 대로 좇아 행함.
12) 관아에서 기생의 이름을 기록하여 두던 책.
13) 그 당시의 풍속.
14)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 몸을 허락함.
15) 문방제구를 벌여 놓아두는 작은 책상

紙)[1]와 붓을 리시찰 앞에 놓으니, 리시찰이 종이를 집어 두어 뼘은 둘둘 펴셔 서판(書板)[2] 한편에다 걸쳐 접어 쥐고 쓰윽 잡아당기더니 다시 서판에다 받쳐 들고 붓에 먹을 흠썩 묻혀 이리저리 재면서

(리) "이 애. 한문으로 쓰랴, 언문으로 쓰랴?"

(선) "한문이고 언문이고 처분대로 하십시오."

(리) "이 애. 사연은?"

(선) "사연도 처분대로 쓰십시오."

리시찰이 그날 밤에는 웃음이 보로 터졌는지 검푸른 입술이 귀밑까지 찢어지며 붓에 먹을 다시 묻히어 순식간에 써놓는데 문필이라는 것은 부정을 아니 타는 법이라. 그 자격에 글 글씨는 무식지 아니하여 별로 생각지 아니한 사연과 힘도 아니 들인 자획이 능란(能爛) 휘황(輝煌)하더라.

"이 애. 이것 보아라. 이만하면 증거가 되겠느냐?"

선초가 받아들고 두세 차례를 보더니 척척 접어 싸고 싸서 의장(衣欌)[3] 속에다 깊이깊이 간수를 한 후, 리시찰의 소원을 성취케 하였더라.

촌닭이 새벽을 재촉하노라고 쉴 새 없이 자지러지게 우는데, 뜰 앞에서 자던 개가 인적에 놀라 깨여 지붕이 울리게 짖는 통에 리시찰이 일어나 두 손으로 두 눈을 썩썩 비비며 의복을 부스럭부스럭 입더니 선초를 흔들흔들하며

"이 애. 자느냐? 응."

리시찰은 평생 목적을 달하였으니 마음이 푸근하여 잠을 잤거니와, 선초야 처음 뜻을 지키지 못한 일이 통분도 하고 이다음 일행(日行)해 갈 것이 심려도 되어 눈가가 반반해지며 잠이 천 리 만 리 달아는 났으니 짐짓 눈을 감고 자는 체하여 경선(徑先)히 굴지 아니하다가, 리시찰의 깨우는 바람에 사뿐 일어나 앉으며,

(선) "왜 이렇게 일찌감치 기침을 하십니까? 더 주무시고 있다가 해나 훨쩍 펴지거던 천천히 일어나셔서 변변치 못하나마 조반이나 잡수시고 가시지오."

(리) "구태여 남을 알게 늦게 갈 것 무엇 있니? 일찌감치 슬며시 가는 것이 옳지."

(선) "이 지경 된 이상에 남이 알기로 무슨 관계가 있사와 슬며시 가신다고 하셔요."

(리) "네가 그런 이유를 어찌 다 알겠느냐?"

하고, 옷을 다 입고 일어나며

(리) "섭섭히 여기지 말고 잘 있거라. 내가 공사(公事)를 인하여 오늘 다른 고을로 가면 아마 사오 일 지체가 될 모양이다. 그때 오면 다시 만나 우리 장차 지낼 살림할 배포(排布)[4]도 의논을 하자."

선초 마음에 섭섭한 대로 하면 며칠 만류라도 하고 싶지마는 공사로 어디를 간다 하니까, 사세부득(事勢不得)[5]이 전송을 하며 계약한 일을 다시 제출하여 단단히 뒤를 다져놓으려고 당장 말을 하려 하는데, 리시찰이 무엇을 잊었다 깨달은 모양으로,

(리) "아차, 하마 하더면 그대로 갈 뻔하였군. 이 애. 그 계약서를 이리 꺼내 오너라."

(선) "그것은 왜 내오라고 하셔요."

(리) "약증서(約證書)를 아니 하였으면 모르거니와, 기왕 한 이상에 도장을 쳐야 확실

1) 두루마기
2) 글씨를 쓸 때, 종이 밑에 받치는 널조각.
3) 옷장.
4) 머리를 써서 일을 조리 있게 계획함.
5)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

증거가 될 터인데, 마침 도장을 아니 넣고 왔구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서 도장을 쳐서 곧 내보내 주마."

선초가 아무리 총명하고 지각이 있는 터이라도 종시 경험없는 여자이라. 리시찰의 말을 순연한 천진으로 나오는 것으로만 믿고 일호 의심 없이 꺼내어 주며, 인사에 당연하게 말 한마디를 한다.

(선) "영감 인제는 제가 댁사람이 되었사온데, 제 모(母)가 엊저녁에라도 나와서 뵈었으련마는 늙을 바탕에 무엇이 그리 부끄러운지 못 와 뵈옵고 제 어른은 신병으로 하여 호정(戶庭)[1] 출입을 못하는 탓으로 역시 나와서 뵈옵지를 못하오니, 영감 좌지(坐地)[2]로 하나 딸자식에 관계로 하나 못 와 뵈옵는 제 부모의 정황이 어떻다 하오리까 마는, 저 되어서는 영감 얼굴 대할 낯이 없사오니, 이런 사정을 용서하십시오."

(리) "별말을 다 하는구나. 지금은 총총(悤悤)[3]하다. 이 다음에 서로 설파(說破)[4]하기로 늦을 것 있느냐? 자아. 나는 간다. 잘 있거라. 얼마 아니 되면 볼 것이니 내 생각을 너무 과도히나 말아라. 무얼 내 생각을 꿈에나 할라고."

(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며, 리시찰을 대문 밖까지 전송하는데 리시찰은 왜 그리 급한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횡행(橫行)[5]히 가더라.

최호방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그날 밤에 시집가는 날 밤인즉 마음에 경사스러워라도 전후 범백(凡百) 거행을 연해 신칙(申飭)[6]하여 힘자라는 대로 기구(器具)[7]를 붙여볼 것이요, 사위 되는 자가 사랑하여서라도 방문이 닳도록 나들며 정답게 수접(酬接)을 하였을 것인데, 늙은 위인이라서 음침한 뜻을 두고 자기에 딸을 겁박하려다가 제 마음대로 아니 되니까 자기에게 불측(不測)한 죄명을 억륵(抑勒)[8]으로 씌워 죽이려 하던 일도 마음에 얼마쯤 통탄하거든, 하물며 자기를 무죄 방송하는 것으로 어린 것의 마음을 유인하여 기어이 충욕(充慾)[9]하는 일이 절치부심(切齒腐心)[10]이 되어서, 자기 마누라까지 단속하여 저의 자락(恣樂)[11]대로 내버려 두고 오거니 가거니 도무지 내다보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때 리시찰은 자기 사처(私處)로 돌아오며 심중에 스스로 하는 말이라.

"흥, 유지면 사경성(有志事竟成)[12] 이란 말이 꼭 옳다. 제가 가장 결심이나 있는 체하고 어쩌니 어쩌니 하더니, 이제도 그따위 수작을 남을 대하여 지껄일까. 어이. 시러베 딸년 내가 서울서부터 저를 한 번 결연(結緣)하자고 마음 둔 일이 있던 터이오. 또는 제 인물과 재주가 하룻밤 소일거리가 착실하기에 작란(作亂)을 실없이 한 일이지.

저하고 살기는 내가 계집이 없어서? 시골집에는 마누라가 눈이 시퍼렇게 있고, 서울집에는 꽃같이 젊은 첩이 있는데 무에 나빠서 저를 또 두어. 그나 자손이 없는 터이면 일점혈육(一點血肉)[13]이라도 보려고 어린 계집을 얻는 것이 혹 예사지마는, 나야 아들딸이 삼 남매나 되고 손자가 그득한데 무엇을

1) 집안의 뜰.
2) 어느 계급보다 높은 자리.
3) 급하고 바쁜 모양.
4) 사물의 내용을 밝혀서 말함.
5) 제멋대로.
6) 단단히 타일러서 조심함.
7) 세간살이
8) 이치나 조건에 맞지 아니하게 강제함.
9) 욕심을 채움.
10)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11) 마음대로 즐김.
12) 뜻이 있으면 반듯이 이루어짐.
13) 자기가 낳은 단 하나의 자녀.

하자고 저를 얻어. 어이. 우스운 일 다 보겠고. 제 아비 놈으로 말하면 당장 내 수중에 죽는 놈인즉, 무죄 백방(白放)으로 하여준 은덕으로 한 데도 내가 왔다면 유공불급(唯恐不及)[1]하여 나와볼 터이거늘, 언연(偃然)[2]히 제 방에 떡 자빠져 있고, 제 어미년으로 말하면 불과시(不過是)[3] 퇴기(退妓)로 뭇놈을 다 보던 것이 아니꼽게. 나와야 옳지. 제 딸 하나 내놓는 것이 큰 배부른 흥성(興盛)[4]이나 하는 것처럼 응.

제 딸이 무엇인데 내가 마음에 없었으면 모르거니와 이 고을 기생년 하나 임의로 처치하지 못할까. 너의 연놈의 소위가 괘씸해도 선초는 아니 데리고 살 것이다. 오냐. 계약서에 도장 찍어 보내기를 잘 기다려 보아라. 하늘에 있는 별 따기보다 좀 더 어려울라."

하고, 그 이튿날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기별 없이 전라북도로 향해 갔더라.

1) 오직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함.
2) 거드름을 피우며 거만함.
3) 기껏해서 이 정도로.
4) 매우 왕성하게 일어남.

제 오 회

순진한 천진(天眞)으로 사람을 자기 마음 믿듯 하는 선초는 리시찰 돌아간 뒤로 이때나 계약서를 보낼까 눈이 감도록 기다리는데, 어언간(於焉間)[1] 해가 지도록 소식이 없으니 심중에 심히 의아하던지, 저의 부모를 향하여 소경력(所經歷)[2] 사정을 고하며,

(선) "이 양반이 어찌해서 아무 기별이 없을까요? 그 양반이 연부역강(年富力强)[3]하지 않으신 터에 밤에 잠을 편히 못 주무시고, 아마 신병(身病)이 나셨나 보오.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인을 보내마고 금석(金石)같이 말씀을 하였는데, 어찌 어때서 이때까지 기별이 없으니 갑갑한데 간난 어멈을 불러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최) "믿기를 꼭 잘 믿는다. 그가 사람인 줄로 믿었더냐. 그 흉계를 몰랐지. 잠깐 너를 속이노라고 능청스럽게 무엇을 써 주고, 급히 갈 때에 도로 빼앗을 계교(計巧)로 도장인지 막걸린지 찍어 주마고 가져간 것인데, 네 생각에는 도로 보낼 줄로 알고 기다리는 모양이냐? 이번에 너 욕 당한 일 곧 생각하면 이에 신물이 절로 난다. 이 애. 기왕 욕 당한 일은 팔자 탓으로 여기고 그따위 인물을 생각도 말아라. 설혹 그 위인이 약조를 지키기로 소용이 무엇이냐."

선초가 자기 부친 말에 대하여 무엇이라 명기(銘記)[4] 불연(不然)[5]하여 대답을 하려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에그 아무 말도 말아야 하겠다. 아버지께서 분정지두(憤情之頭)[6]에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앞일을 지내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가장(家長)된 분을 저다지 단처(短處)[7]를 들어 말씀하실라고. 그래로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분김에 말씀을 더 심하게 하시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영감 귀에 혹 들어가면 열흘길을 하루도 못가서 내게 향하는 영감의 마음도 섭섭하여질 터이지."

하고 자기 부친에 입을 손바닥으로 막으며,

"글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왕 일은 어찌 되었던지 인제는 그 영감이 아버지 사위가 아니오니까. 사위에 말을 장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심하게 하시면 딸에 꼬락서니는 무엇이 됩니까. 분하셔도 참으시고 간난 어미에게 좀 알아나 보아 주십시오."

(최) "저 자식이 약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아직 용렬(庸劣)[8]하구나. 영감은 난장 맞을 무슨 영감이고, 알아보기는 무엇을 알아보아. 아비에 말이 꼭 옳으니 가당치 않게 생각을 말고 진작 잊어버려라. 한 일 미루어 열 일을 아는 법인 즉, 두고 볼 것 없이 네게도 결단코 못할 노릇할 위인이니라."

(선) "에그, 아버지. 그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올시다. 그가 어떠한 자격이던지 기왕 한 번 몸을 허락하였사온 즉, 제가 죽어도 리씨댁 사람이온대 어찌 달면 삼키고 쓰면 배앝아 금수(禽獸)에 행위를 한단 말씀이오니까."

최호방이 리시찰 위인을 명약관화(明若觀火)[9]로 알고 선초에게 아무쪼록 다시 뜻을 두지 말고 진즉 달리 변통하라고 정색하여 얼마쯤 꾸짖다가, 제가 결심을 하도 단단히 하고 일향(一向)[10] 듣지 아니하는 양을 본즉,

1)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
2) 겪어 지내 온 일.
3) 나이가 젊고 기운이 왕성함.
4) 마음에 새기어 기억하여 둠.
5) 그렇지 않음.
6) 분한 마음이 왈칵 일어난 바람.
7)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점.
8)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함.
9) 불을 보듯 분명함.
10) 꾸준히

아무래도 하릴없는지라. 부득이하여,

"응. 자식도 한번 쥐면 다시 펼 줄은 도무지 모르지. 할 수 없다. 네 팔자소관이다."

하더니, 하인을 간난 어미에게로 보내어 리시찰의 동정을 탐지하여 본즉, 리시찰이 조반을 재촉하여 먹고 즉시 떠나서 전라북도로 갔다 하는지라.

최호방이 혀를 툭툭 차며,

(최) "자아, 보아라. 내가 무엇이라더냐. 벌써 전라북도로 달아났단다.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잘 찍어 보내었느냐?"

(선) "아마 총망(悤忙)[1] 중에 잊고 그대로 가신 게지요. 소양(素養)[2] 배양(培養)[3]한 젊은 사람 아니고 설마 배약(背約)[4]하오리까? 하회(下回)를 기다려 보면 알 것이오니 너무 과도히 말씀을 마십시오."

(최) "나인들 너만치 생각을 못하겠느냐? 그가 늙었으나 젊었으나 사위 되기는 일반인즉, 너를 위하여 아무쪼록 그 허물을 뒤덮여 가겠지마는 관기모자면 인언수재(觀其眸子人焉瘦諸)[5]라고, 그 목자(目子)[6]가 천하에 간교하기가 짝이 없고, 음성이 괴상해서 후분(後分)[7] 신세는 말이 못 될라.

내가 상서(尙書)[8] 공부는 못하였다만은, 다년 관부(官府)[9] 출입을 하며 열인(閱人)[10]을 많이 한 탓으로 여합부절(如合符節)[11] 알겠더라. 그런즉 내 생각에는 열에 아홉은 그가 너를 당장 속여 넘긴 것 같고, 또는 설혹 속이지를 아니하고 신(信)을 지킨 대도 나중에 필경 좋지 못할 것이니 아까 말한 대로 진작 단념하는 편히 가하니라."

(선) "에그, 아버지. 저는 죽사와도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 영감께서 금석같은 언약을 저버리는 지경이면 저는……. 또 후분 좋지 못한 것이야 어찌 앞을 내다보는 수도 없고 설사 그럴 줄 알기로 기왕 몸을 허락한 이상에 후회하면 쓸 데가 있습니까?"

최호방은 선초의 고집하는 양을 보고 화가 더럭 나서,

"에이. 누가 아느냐? 네 자락(恣樂)대로 하여라. 잘 되어도 네 팔자요, 못 되어도 네 팔자니라."

하며, 바깥으로 나간 뒤에 선초 어머니가 쥐죽은 듯이 있어 동정만 보다가 곰곰 생각하기를,

"자기 남편 말대로 리시찰의 자격이 깊이 믿지 못할 위인 같으면 자기 딸의 집심(執心)은 맺고 끊은 듯하여 다시 변통을 못할 모양이라. 딸자식일지언정 제 자격이 남에 밑에 아니 들만 하니까, 아무쪼록 저와 같은 짝을 얻어 한이 없이 재미를 보자 했더니 꿈결인지 잠결인지 천만뜻밖에 굽도 젖도 못할 경우[12]를 당하였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며, 담뱃대를 톡톡 털어 한 대를 피어 물고, 후정(後庭) 화원으로 넋이 없이 한 걸음 두 걸음 돌아가는데 머리가 다북다북하고[13], 키가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각색 풀잎을 뜯어 치마 앞에다 싸 들고 강동강동 뛰어오며,

"어머니, 저기 언니가 뒷마루에 혼자 앉아

1) 매우 급하고 바쁘다.
2) 평소에 닦아 놓은 교양.
3) 인격·역량 따위가 발전하도록 가르치고 키움.
4) 약속을 어김.
5) 그 사람의 눈동자를 살펴보면 사람이 어찌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있겠는가?
6) 눈.
7) 사람의 일생을 셋으로 나눈 것의 마지막 부분. 늘그막의 운수나 처지.
8) 서경(書經)
9) 관아.
10) 여러 사람을 겪어 봄.
11) 부절(符節)을 맞추듯 사물이 꼭 들어맞음.
12)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13) 부드럽고 탐스러움.

서 자꾸 울기만 하며 내가 가니까 저리 가라고 핀잔만 주어요. 나 미워하는 그놈의 언니 진작 죽기나 했으면 좋겠지."

선초 어머니가 가뜩이나 심란한데 아무리 철모르는 어린 것이라도 제 형에게 향하여 막마침[1] 가는 말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분이 와락 나서,

"이년 무엇이야. 형에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법이 어디 있더냐? 그렇지 아니해도 심사가 좋지 못하여 울기만 하는 형에게 죽으라고 이년 보기 싫다. 저리 가거라."

그 아이는 저의 어머니가 그리할수록 팔에 가 매달려 응석을 하며,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나를 자꾸 쫓기에 무엇을 혼자 처먹으려나 하고 가만가만히 가 숨어 보니까 언니가 왜 그러는지 의장(衣欌)을 열고 의복을 차례로 내어 이것도 입어 보고 한숨 쉬고 저것도 입어 보고 한숨을 쉬여요."

선초 어머니가 그 아이 대강이[2]를 툭 쥐어 박으며,

"에라, 이년. 저리 가거라. 듣기 싫다."

하여, 쫓아 보낸 뒤에 선초의 처소로 슬슬 돌아가니, 선초가 자기 어머니 오는 양을 보고 흐르던 눈물을 얼핏 씻어 버리고 천연한 모양으로 내려 맞으며

(선) "어머니 왜 무슨 일에 역정이 나셨습니까? 기색이 좋지 못하시니."

(모) "에그. 역정인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기른 딸이냐? 남보다 뛰어나게 잘 되지는 못한들 천하에 몹쓸 양반을 만나서 네가 저 모양으로 속을 상하고 울기만 하니, 내 마음이 어찌 좋겠느냐? 이애. 어미가 애쓰고 공들여 길러서 태산같이 믿고 바라는 뜻을 생각하여서라도 어제 아버지 하시던 말씀과 같이 팔자 탓으로 보쌈 겪은 셈치고 그 양반은 잊어버려라.

네 말마따나 그 양반이 총망 중에 잊었다 할지라도 벌써 그 양반 떠나간 지가 며칠이냐. 처음에 너를 만나지 못하여 서둘던 품으로 하면 잊어버릴 리도 만무하고, 이때까지 이렇다 아무 기별이 없단 말이냐?"

(선) "어머니 아무 걱정을 말으십시오. 리시찰 영감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사로 그이튿날 급히 떠나시면 오륙 일 후에 다시 오셔서 범백사(凡百事)[3]를 구처(區處)[4]하시마 하셨으니, 하회를 기다려 보아 어떻게 하던지 좌우간 귀정(歸正)[5]을 할 터이오니, 아무 염려 말으십시오. 제가 울기는 언제 울었다고 이리하셔요."

(모) "네 얼굴을 보다 운 것을 모르며, 모란이가 보고 와서 이르던데 아니 울었다고 말을 해. 오냐. 울지 말라. 너 그러는 양을 보면 내 속이 푹푹 상한다. 너의 아버지 말씀이 야속해서 그리했네."

(선) "아니어요. 공연히 마음이 수란(愁亂)해서 그리했어요. 다시는 울지 아니할 터이니 아무 걱정 말으십시오."

선초가 저의 어머니 앞에 좋은 말로 대답은 하였으나 은근히 삼촌 간장이 바짝바짝 조이여 낮이면 해가 지도록, 밤이면 동이 트도록 리시찰의 소식을 고대하는데, 사오 일이 훌쩍 지나 육칠 일이 지나도록 아무 동정이 없는지라. 궁금하고 기막힌 사정을 발표하여 말하자니 부모의 책망이 두렵고, 다만 자기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지로 참으며 신음하는 말이라.

---

1) 죽음.
2)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3) 갖가지의 모든 일.
4) 변통하여 처리함.
5) 그릇되었던 일이 바른길로 돌아옴.

"에그.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내가 벌써 몇 차례를 자처(自處)[1]하여 이 세상을 버리고 싶건마는 그 양반도 사람인 즉 조만간 무슨 기별이 있을 터이지. 설마 모발이 희뜩희뜩한 좌지(坐知)로 나 같은 어린 사람을 속일 리가 없을 듯도 하고 또 내가 죽기 곧 하면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 드리는 것인데, 하회도 아직 모르고 경솔히 죽었다는 불효만 될 터이라 하여 오늘까지 실낱같은 목숨이 부지하였더니…….

에구, 인제 난 내가 이 목숨을 끊을 때가 되었나 보다. 내가 처음 작정한 대로 못하고, 리시찰에게 몸을 허락하기는 부모를 위하여 사세부득이(事勢不得已)[2] 한 일이거늘, 더구나 종래 신의를 저버려 이렇다 말이 없으니 사람에 탈을 쓰고 그 대우를 받고서 잠시간인들 어찌 살아 있을꼬."

하며 눈물이 하염없이 비 오듯 하는데, 간난 어멈이 불러댄 듯이 들어오더니 검봉(檢封)한[3] 편지 한 장을 허리춤에서 내어주며,

"작은 아씨 얼마나 궁금하시게 지내셨습니까. 수의사또께서 인제야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어서 떼어 보십시오. 저는 작은 아씨를 위하여 어찌 답답하던지 하루도 몇 차례씩을 길청[4]에 가서 수의사또 문안을 물어도, 어디가 계신지 도무지 모른다고 하기에 인제 말씀이지, 수의사또를 향하여 에그 양반님네는 이렇게 경우가 없나.

이럴 줄 알았다면 나를 육포[5]를 켜도 심부름을 아니 하였을 걸. 설마 점잖은 터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리가 있으리 하였더니, 상말로 똥 누러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는 일체로, 한 번 가시더니 이 모양으로 아무 기별을 아니하시는 경우도 있나 하는 황송한 말씀도 한 두 번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사또께서 그러하실 리가 있습니까. 어서 편지를 떼어 보십시오. 인제는 작은 아씨가 좋으시겠습니다."

선초가 그 편지를 얼핏 받아 피봉(皮封)[6]을 떼어 들고 차차 나리 보는데 편지 속에서 지폐 몇 장이 우르르 쏟아지는지라.

"에그. 이것이 웬 것이야."

간난 어미가 주섬주섬 집어 세어 보더니, 선초 무릎 위에다 놓으며,

"에그 양반도 찬찬[7]도 하시지. 아마 아씨에게 요용소치(要用所致)[8]로 우선 아쉬운 데 쓰시라고 아는 듯 모르는 듯 이것을 편지 속에다 넣어 보내신 것인가 보오이다."

선초가 그 말은 들은 체도 아니하고 보던 편지를 마저 보다가 얼굴빛이 붉으락 푸르락 하다가 점점 노래지며 손에 들어떤 편지가 서리 맞은 나뭇잎이 바람을 조차 떨어지듯 힘이 반점도 없이 슬며시 무릎 위에 가 떨어지는데 뒤미처 선초의 입에서,

"에구."

한숨 한마디가 나오더니 그 편지는 박박 찢어버리고 지폐 십 원은 백지로 싸서 간난 어미를 주며,

"여보게 이것 그 양반에게로 도로 전하여 주게."

간난 어미는 선초의 광경을 보고 무식한 것이 가상 의사스럽게 내심으로 추측하기를,

"에그 저 아씨 보게. 그런 줄 몰랐더니 보장(保障)[9]이 어지간히 않게 큰걸. 돈 십 원이면 우리는 한 밑천을 삼을 것인데 저렇게

1) 자결.
2) 일의 형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
3) 편지의 내용을 검사하여 그 봉투의 부리를 붙임.
4) 군아(郡衙)에서 구실아치가 일을 보던 곳.
5) 권총.
6) 겉봉.
7) 성질이 경솔하지 않고 꼼꼼하며 침착함.
8) 긴히 쓸 곳이 있어서
9)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증하거나 보호함.

도로 보낼 제는 소들하고[1] 투정하는 것이 아닌가. 어찌 나중 끝이나 구경할 겸 도로 갔다가 보내 보겠다."

하고, 돈 넣은 봉지를 받으며,

(간) "이것은 왜 도로 보내십니까? 사또께서 일껏 아씨에게 쓰시라고 보내신 것인데요."

(선) "여러 말 말고 갖다 두게."

간난 어미가 다시 말을 못 하고 그 돈을 도로 갖다가 김선달을 주었더라.

사람이 매운 뜻을 한 번 먹으면 세상만사에 원통한 것도 없고 고기(顧忌)[2]할 것 아까울 것이 모두 없는 것이라. 만리 전정에 꽃 같은 연기(年紀)도 아깝지 아니하고 양친 부모의 슬하를 떠나는 것도 고기(顧忌)치 아니하고, 밝은 세상을 영결하는 것도 원통치 아니하여 평탄한 낯빛으로 부모의 침소에를 다녀서 자기 방으로 돌아와 앞뒷문을 천천히 닫고, 시험하여 입어 보던 새 의복을 내어 정결하게 입은 후에, 아편은 어느 틈에 준비하여 두었던지 밤톨만한 것을 한입에 툭 떨어트리고 물을 마셨더라.

천륜이 심상치 아닌 것이라 그렇던지, 최호방 내외가 모란이를 앞에다 누이고 한잠을 들라 말라 하여 공연히 마음이 수란(愁亂)하여 선초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지라.

(춘) "영감 잠드셨소. 내 마음이 무단히 어수선 산란하며 잠이 아니 오구려."

(최) "글쎄 내 말이야. 나도 잠을 벗어 놓았는걸."

(춘) "왜 그런지 선초가 별안간에 보고 싶소. 가서 불러올까?"

(최) "글쎄 내 마음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만두지. 그 애가 웬 망한 자로 해서 요사이 시시로 울기만 하고 잠을 못 자더니, 오늘은 아마 곤하던지 초저녁부터 문을 닫고 아무 소리 없는 것을 공연히 깨웠다가 찔끔찔끔 울기나 하면 성가스러운데 그만 내버려 두지."

최호방 내외가 그 모양으로 수작을 하고 그 딸의 일로 한 걱정을 하는데 앞에서 자던 모란이가 별안간에 벌떡 일어나서 주먹으로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며,

"에구, 아버지. 에구, 어머니. 나는 속절없이 세상을 버렸소. 내가 이 원수를 갚지 못하면 어느 때까지든지 살이 썩지 못할 터이오. 생전에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 효성을 다하여 봉양하려던 마음과 문필 가무 등 각종 재질은 모두 모란이를 전하여 주었사오니, 저의 죽은 것을 슬퍼 말으시고 모란이에게 자미를 보옵시소서."

최호방 내외가 대경소괴(大驚小怪)[3]하여 달려들어 모란의 손발을 꼭 붙잡고 흔들흔들하며,

(최) "이년, 모란아. 정신 차려라. 이게 무슨 소리냐."

(춘) "모란아, 모란아. 나 좀 보아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할수록 모란이는 더 울며,

"아버지. 저는 이 길로 저의 못할 노릇한 리시찰의 원수를 갚으러 가오니, 소문을 들어 보셔서 리시찰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거든 제 소위(所爲)인 줄로 여기십시오. 리시찰 제가 남에게 그 모양으로 적악을 하고 아무려면 무사할라구요. 자기가 내려올 제는 기구를 한껏 차리고 어깻바람으로 왔지마는, 올라갈 때에는 아마 복장을 쾅쾅 짓지를 터이올시다."

최호방이 우두커니 듣다가 어이없어서 마

1) 분량이 생각보다 적어서 마음에 덜 차고.
2) 뒷일을 염려하고 꺼림.
3) 몹시 놀라서 좀 이상하게 여김.

누라에게,

"여보게 이 애가 웬 곡절인가? 자다가 말고 실성을 했으니 문갑을 열고 청심환을 내어 오게. 어서 먹여보세."

선초 어머니가 청심환을 황망히 꺼내다가 백비탕(白沸湯)[1]에 풀어 모란의 입에 퍼넣으며 애를 무한 쓰는데, 모란은 여전히 그 모양으로 횡설수설하더니 날이 점점 밝아오니까 정신을 모르고 혼곤(昏困)히 늘어지는지라.

최호방 내외가 그제야 마음을 놓고 역시 잠이 혼곤히 들었다가 해가 한나절은 되어 깨어보니 모란이는 여상(如常)[2]히 뛰어다니며 작란을 하는데 선초의 동정이 도무지 없는지라 심중에 심히 의심이 나서 내외 서로 의론하기를,

(최) "여보게. 선초가 그저 아니 일어났나?"

(춘) "글쎄요. 어쩐 일인지 이때까지 볼 수가 없소 구려."

(최) "제 방으로 좀 가보지 필경 또 울고 있나 보구먼. 그렇지 아니하면 효성이 유명(有名)히 있는 것이 해가 낮이 되도록 어미 아비를 아니 와 볼 리가 있나?"

(춘) "내가 가보고 오리다. 저것이 또 울고 있으면 보기 슬퍼 어떻게 한단 말이오?"

하며, 선초의 처소로 가보니 방문이 그저 첩첩이 닫혀 있는지라. 선초 어머니가 손 장가락을 꾸부려 젖혀 들고 문설주를 툭툭 울리며,

"아가, 아가. 그저 자니? 해가 한나절이 지났다. 그만 일어나 아침밥을 먹어라. 에그 이 애가 이렇게 곤히 잠이 들었나. 이 애. 아가. 그만 일어나거라."

이같이 처음에는 나직나직이 깨우다가 나중에는 문을 와락와락 잡아당기며 소리를 높이여 크게 불러도 종래 아무 동정이 없는지라.

(춘) "에구, 영감. 이게 웬일이오? 잠귀 발기로 유명한 아이가 이렇게 깨워도 대답이 없으니 그 아니 심상치 아니하오."

(최) "글쎄. 웬 곡절이란 말인고?"

하며 역시 음성을 크게 하여,

"선초야, 선초야."

선초 어머니가 손가락에다 침질을 하여 문 바른 종이를 배비작 배비작 뚫으더니, 한편 눈을 들이대고 한참 보다가 뒤로 펄쩍 주저앉으며,

"에구머니 저게 웬일인가."

최호방이 눈이 둥그래져서,

(최) "응, 왜 그러나. 무슨 일이 있나?"

(춘) "필경 저것이 죽었나 보오."

하며 두 발길로 방문을 박차는데, 그 문을 예사 날림으로 짠 것이 아닌즉 평시 같으면 여간 여편네 발길 한두 번에는 아니할 터이지마는, 물론 급한 지경을 당하면 딴 기운이 한층 더 나는 법이라. 문짝이 선초의 어머니 발길을 따라 우르르 덜컥 바빠지며 완자(卍字) 미닫이가 그 바람에 걷묻어[3] 열파(裂破)[4]가 되는지라.

두 내외가 한달음에 뛰어 들어가니 선초가 벌써 어느 때 그 지경이 되었는지, 사지가 뻣뻣하게 굳고 전신이 백지장에 물을 축이어 싸놓은 듯한지라.

어떻게 기가 막히던지 피차에 말 한마디 못하고 물끄러미 들여다보기만 하다가, 한편에서 울음주머니가 툭 터지며 마주 몸부림을 땅땅하고 방성대곡(放聲大哭)을 하는데, 그 집안 상하 노소(老少)와 이웃집 남녀 친지가

1) 맹탕으로 끓인 물.
2) 보통 때와 같이.
3) 사이 없이 무엇에 덧붙어.
4) 찢어져 결딴남.

모두 모여 와서 그 광경을 보고 흑흑 느껴가며 눈물 아니 내는 사람이 없는 중, 기중(其中) 친근한 사람들은 최호방 내외를 붙들어 만류한다.

"여보십시오. 그만두시오. 암만 울면 쓸 데 있습니까. 기왕 이 지경을 당하신 터에 정신을 차리어 제 몸 감장(藍葬)[1]이나 유한 없이 하여 주시는 일이 옳습니다. 에그, 기막힌 일도 있지. 꽃 같은 나이에 병이 들어 천명으로 이 지경이 되었어도 부모 되신 터에 기가 막히실 터인데, 제일 인물과 재질이 아깝지. 여보십시오. 어서 그치시고 초종(初終)[2] 치를 일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최호방이 한숨을 휘이 쉬고 일어나 가만히 생각한즉, 자기 딸이 자처(自處)하기는 리시찰로 인연한 것인 줄은 분명 알겠으나,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는지라.

제 손그릇 등속(等屬)과 방구석 사면을 두로 살펴보노라니 아무것도 증거가 없고, 다만 윗목에 찢어버린 휴지밖에 없는지라. 주섬주섬 집어 낱낱이 펴 가지고 이리 조각보 모으듯 맞춰보니, 이 곧 리시찰의 편지인데 그 사연에,

"긴 사연 후리치고, 피차에 아름다운 인연을 맺기는 백 년을 해로코저 함이러니, 다시 생각한즉 연기(年紀)도 너무 차등이 지고, 나의 형편으로 말한 대로 도저히 될 수가 없기로, 계약서는 보내지 아니하며 돈 십 원을 보내니 변변치 않으나, 분(粉)과 기름[3]이나 사서 쓰기 믿으며, 이 사람은 공무(公務)나 분망(奔忙)[4]치 아니하면 수이 일차(一次) 가서 옥안(玉顔)을 다시 대할 듯 대강 그치노라."

하였는지라.

최호방이 보기를 다하고 도로 썩썩 비비어 집어 던지고 두 눈이 붉은 뒤집히어 이를 북북 갈고 북편을 바라보며,

"으응. 세(勢) 좋은 사람은 남의 적악을 이렇게 하고도 무사할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어찌 좀 두고 볼걸. 여보게 마누라 울지 말게. 그까짓 소견 없는 년 뒤어진데 무엇이 설워 운단 말인가. 그 위인이 믿지 못할 자격이니 기다리지도 말고 진작 단념하라니까 말을 아니 듣고 고집하더니 필경 제 몸을 이 모양으로 버려서, 아비 어미 눈에서 피가 나오게 해."

선초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불쌍하고 원통하여 자조 기절을 하여 가며 울더라.

선초가 변변치 못한 자격이라도 그 모양으로 죽었으면 소문이 원근에 낭자(狼藉)하려던, 하물며 인물도 남다르고 재질도 남다르고 지조도 남다른 중 죽기까지 남다르게 한 선초리오.

지여부지간(知與不知間)[5] 그 소문을 듣고 다 한마디씩은 말을 하는데, 열이면 열 다 리시찰 욕하는 소리뿐인데, 그중에 언론이 두 가지로 나오기는 본군(本郡)과 인읍(隣邑)의 기생들이라.

기생 노릇을 해도 제 마음에는 죽기보다 싫은 것을, 사세에 꼼짝하지 못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계집은 선초의 고결한 것을 흠모하여,

"에그.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맺고 끊은 듯한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 때 죽던지 죽기는 일반인데 무엇이 아까워서 이 들어온 일을 하며 살아 있노. 아무도 아니 들으니 말이지 리시찰인지 누구인지 그것도 양반인가? 무식한 상사람과 달라서 의리도 있고 체통도 있을 터인데, 제

1) 장사 지내는 일을 보살핌.
2) 초종장사(初終葬事)
3) 화장품.
4) 매우 바쁨.
5) 알고 모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식이라도 막내딸뻘이나 되는 사람에게 그 모양으로 적악을 해서 생목숨을 끊게 한담."

시집살이하기가 싫거나 서방을 나몰라 하고 제 버릇 개 못 주어 모야무지(暮夜無知)[1]에 뛰어나와 기생을 자원한 것들은 선초의 고집을 비소(鼻笑)하여,

"어이, 아니꼬운 년. 제가 저 모양으로 죽으면 대문에 주토(朱土)[2]칠 할 줄 알고 죽은 저만 속절없지. 인생이 일장춘몽(一場春夢)[3]인데 아니 놀고 무엇할꼬. 흥,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걱정이야. 왜 얼렁얼렁해 그 비위를 살살 맞춰가며 움푹이 빨아 먹지를 못하고 되지 못하게 고집을 하다가 제 몸까지 버릴 곡절이 무엇이람. 에그, 우스워라."

서울 시골 물론하고 기생 곧 죽으면 전후(前後) 건달이 모두 모여 꽃 평량자(平涼子)[4]에 징, 장고, 호적(胡笛)[5], 소고로 쿵, 쾡, 니나노 하면서 줄무지[6]로 신체(身體)[7]를 내가는 것이 오백 년 유래지 고풍(古風)이 되었는데, 더구나 선초야 원통히도 죽었으려니와 원래 유소문(有所聞) 한 터이라 그 신체 나가는데 누가 구경을 아니 가리오.

읍 촌 여부없이 노소 남녀가 바쁜 일을 제쳐 놓고, 인사 겸 구경 겸 구름같이 모여들었는데, 최호방이 그 딸에 향하여 불쌍하기도 한이 없으니려니와 문견(聞見)[8]도 없는 처지가 아닌 고로, 수의(壽衣)[9], 관곽(棺槨)[10] 상여 등을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한없이 치레를 하고 술과 밥을 흔전흔전히[11] 장만하여 기구를 부릴 대로 부렸더라.

생베[12] 두건을 눈썹까지 꾹꾹 눌러 쓴 상여꾼이 구정닻줄[13]을 갈라 메고, 요령(鐃鈴)[14] 소리 몇 마디에 원통한 신체가 집을 하직하고 떠나간다.

사람이 칠십이고 팔십이고 저 살 나이를 다 살다가 한 명(命)에 병이 들어 죽더라도 영결종천(永訣終天)[15] 떠나가는 길에서 더 설운 것이 없다는데, 나이 청춘이요 세상을 원통히 버린 선초의 상행(喪行)[16]이야 다시 일러 무엇하리오.

상두[17] 수번(首番)[18]이 요령을 뗑겅뗑겅 치며

"워호, 워호."

소리를 주니까 여러 상두꾼이 발을 밀어 일어서며,

"워호, 워호."

신산(新山)[19]잡은 대로 워호 소리를 주고받으며 가서, 양지바른 자좌오향(子坐午向)[20]판에다 깊숙이 장사를 지내고, 봉분을 덩그렇게 모아 놓은 뒤에 사람은 다 헤어져 가고 오직 빈 산이 적적한데 달이 황혼이더라.

선초 어머니가 새로 입힌 잔디를 두 손으로 부드등 부드등 뜯으며,

---

1) 한밤중이어서 아는 이가 없음.
2) 붉은 칠. 열녀문을 받음,.
3)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榮華)나 덧없는 일.
4) 패랭이.
5) 태평소.
6) 기생이나 장난꾼의 행상(行喪). 가까운 친구끼리 풍악을 울리고 춤추며 상여를 메고 나감.
7) 갓 죽은 송장을 이르는 말.
8) 듣고 보아 얻은 지식.
9) 염습할 때 시체에 입히는 옷.
10) 시체를 넣는 속 널과 겉 널.
11) 모자람이 없이 지냄.
12) 누이지 않은 베
13) 상여를 운반하는 데에 쓰는 장강틀 가로장의 양쪽에 건 넓은 줄.
14) 놋쇠로 만든 종 모양의 큰 방울.
15) 죽어서 영원히 이별함.
16) 상여를 따르는 행렬.
17) 상여.
18) 상여꾼의 선도자.
19) 새로 쓴 산소.
20)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함.

"에구, 선초야. 왜 집을 버리고 예 와 있느냐? 세상에 내가 모질기도 하지. 이것을 예다 버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영감 나는 차마 이것을 버리고 집으로 못 가겠으니 여기다 아주 묻어를 주고 가오. 혼이 남아 모녀가 서로 의지를 하게."

최호방은 대범한 남자라 좀체 일에 눈물을 아니내던 터이더니, 비죽비죽 마주 울며,

"여보게 객스러운[1] 말 말고 내려가세. 세상에 자식따라 죽는 부모가 어디 있던가. 제가 이렇게 죽은 것이 이 탓 저 탓할 것 없이 첫째는 제 팔자이요, 둘째는 우리 팔자이니, 그만 울고 집으로 내려가세."

1) 쓸데없고 실없는 데가 있음.

제 륙 회

최호방 내외가 앞을 가리는 눈물을 간신히 억제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온갖 것이 모두다 눈에 밟혀 못살 지경이라.

자박자박 자취가 나는 듯, 나직나직 음성이 들리는 듯, 연상(硯床) 혈합(穴盒)[1]에는 제필적으로 쓴 편지 쪽이 데굴데굴, 바느질 그릇에는 침선(針線)[2] 배울 제 시험하던 골무 괴불이[3], 대굴대굴 탁자 위 만권 서책에는 먼지가 켜로 앉았는데 이 갈피 저 갈피 질러 둔 표지는 저 읽던 흔적이 완연한 그중에 제일 간장이 슬슬 녹고 정신이 아주 없어지며, 가슴이 답답해질 일은 문갑 위에 놓여있는 양금(洋琴)[4]이 밤중만 되면 줄이 절로 죄이며 똥땅 하는 소리라. 평시 같으면 그 소리가 일기가 음음(陰陰)[5]한 탓으로 복판이 늘며 줄이 튀는 것이라 하여 심상히 들었으련마는 수심이 겨워 잠을 못 이루고 고생고생하는 선초 어머니는 그 소리 날 제마다,

"에구. 저 소리가 또 나는구나. 저것도 심상치 아니해서 임자를 찾노라고 저렇게 시시로 우나 보오. 영감. 나는 진정이지 저 소리 듣기 싫소. 집어다 아궁이에는 틀어넣으시오."

모란이가 옆에 앉았다가 와락 뛰어들며,

(모란) "에그, 어머니. 그것은 왜. 내가 가질 걸."

(모) "에. 이년. 네가 그것은 해서 무엇하게?"

(모란) "에그. 요전에는 언니가 음률(音律)할 제마다 그리 가르쳐 주어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겠더니, 어쩐 일인지 요새는 음률 소리가 귀에 지잉하여 높고 얕고 되고 느린 가락을 모두 짐작하겠는데요."

(모) "에라 듣기 싫다. 저리 가거라. 또 이년 뉘 가슴에다 못을 박으려고 음률을 배우려고."

(모란) "어머니께서는 공연히 저리시네. 음률만 배워 나도 언니처럼 기생 노릇을 해야 할 터인데."

(모) "기생, 비생이 어떠냐. 이년 다시 그런 아가리를 벌려 보아라."

조선 천지에 제힘 아니 들이고 남 속여 먹기로 생애를 삼는 것들은 소위 무당 판수[6]라. 무당 판수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대(正大)[7]하고 당하는 일마다 광명하면 하나도 속여먹지 못하고 자고송(自枯松)[8] 모양으로 굶어 죽은 지가 이구(已久)[9]하겠지마는 사람들도 보통 어리석고 일도 매양 의심나는 중 연때가 맞으려면 천지도 야릇한 법이라.

선초 죽던 그달부터 비 한 점 아니오고 내리 가무는데 논배미 밭두렁에 성냥만 득 그어대면 홀홀 탈만치 오곡 잎이 다 말라 들어가니, 가뭄이 너무 심하면 노약(老弱)들이 서독(暑毒)[10]에 병들기가 십상팔구(十常八九)거늘, 무식한 부녀들이 무당에게도 묻고 판수에게도 물으니, 묻는 데마다 소지(所志)에 우근진(右謹陳)[11]으로 의례히 말하기를,

'원통히 죽은 선초의 혼이 옥황상제께 호소하여 날도 가물게 하고 병도 다니게 한다.'

하는, 허탄(虛誕) 무거(無據)[12]한 말이 한

1) 서랍.
2) 바느질.
3) 괴불주머니. 어린아이의 노리개.
4) 사다리꼴로 된 넓적한 상자 모양의 통 위에 놋쇠의 현이 열네 줄 있는 현악기.
5) 분위기 따위가 흐리고 어두움.
6) 점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 맹인.
7) 바르고 옳아서 말이나 행동 따위가 당당함.
8) 저절로 말라 죽은 소나무.
9) 이미 오래됨.
10) 더위의 독기(毒氣).
11) '소지'는 관청에 청원하는 문서. '우근진'은 옛일을 상고하던데의 뜻으로 상투적으로 쓰는 말임. 곧 '소지에 우근진'은 의례적으로의 뜻.

입 걸러 두 입 걸러 이 사람 저 사람 큰 소일거리 삼아 지껄이는 중, 농군의 집에서 더욱 악머구리[1] 끌 듯하여 필경 대동[2](大洞)이 추렴[3]을 놓아 각색(各色) 과실에 큰 소를 잡아 선초의 무덤에 가 제사를 정성껏 지내어 그 혼을 안유(安諭)[4]코자 하더라.

택일(擇日)한 제일(祭日)을 당하여 수백 명 남녀가 구름같이 모여 술잔을 다투어 부어 놓고 제각기 소원을 속으로 암축(暗祝)[5] 하는데 어떤 자는,

"선초씨여. 이 술을 달게 받고 아무쪼록 오늘 밤 내로 비가 앞내에 시위나도록[6] 퍼부어 우리 논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어떤 자는,

"선초씨여. 이 술을 받은 후에 잡귀 잡신을 모두 제쳐 주어 우리 집 우환이 구름 걷히듯 퇴송(退送)하게 하여 주소서."

이때, 리시찰은 거절하는 편지에 돈 십 원을 넣어 보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마 내 편지를 보면 제 생각에 어이가 없으렷다. 기실은 어이없을 것도 없지. 나를 대하여서는 가장 지조가 있는 듯이 계약서니 해로를 하느니, 하였지마는 그게 다 남자 후리는 제 행태이지. 무얼 진심으로야 어린 것이 나 같은 늙은이와 같이 살려고 하려고.

참말 살기 곧 하면 제가 아니 제 꼭지에 물러갈까. 모르면 모르되 편지를 본 뒤에 필경 돈 십 원 보낸 것만 대견하여 얼마쯤 좋아할 걸."

거무하(居無何)[7]에 김선달이 그 돈 십 원을 도로 가지고 와 주며, 선초가 받지를 아니하고 도로 싸 보내더라 하는지라.

리시찰이 아니꼬운 양반의 마음이 불끈 치밀어서 발을 땅땅 구르며,

"어이. 버르장이 없는 년. 제 년쯤이 다과(多寡)[8]간에 내가 보낸 것을 외람히 받지를 아니하고 도로 보내. 양반이 괴악한 년. 한 번 상관(相關)[9]하고 큰 욕을 보았군."

김가는 아무쪼록 리시찰의 비위를 맞추노라고,

"진노(震怒)하옵실 일이 아니올시다. 소인의 미련한 생각에는 선초가 본시 욕심 많은 것으로 사또께서 가까이 하옵셨으니까, 그 돈 주신 것이 제 마음에 약소(弱小)히 여겨 도로 바치면 전천(錢千)[10]이나 더 처분하실 줄 알고 소견 없이 그리했나 보이다."

리시찰이 그 돈을 전장에 나갔던 아들 살아온 것만치나 대견히 알아서 한 번을 척 접어 가방에다 넣으며,

"오냐. 그만두어라. 내가 두고 쓰지. 저 싫다는 것을 애를 써줄 것 무엇 있니. 더 주어서 더 줄 돈이 있으면 내가 땅을 다만 한 마지기라도 더 사서 전지자손(傳之子孫)[11]하겠다."

김선달 물러간 뒤에 자기 마음에 무엇이 그리 충연유득(充然有得)[12]하던지 바른손으로 배를 쓱쓱 문지르며 초헌(軺軒)다리[13]를 하고 누어서 풍월귀를 읊더니 잠이 스르르 들어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다가 이마 전에 땀을

---

12) 근거가 없음.
1) 청개구리.
2) 한 동네의 전부.
3) 모임이나 놀이 따위의 비용 등으로 각자가 금품을 얼마씩 내어 거둠.
4) 안심이 되도록 위로하고 타이름.
5) 신에게 마음속으로 기원함.
6)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흘러 육지 위로 침범함.
7) 있은 지 얼마 안 됨.
8) 수효의 많음과 적음.
9) 남녀가 육체관계를 맺음.
10) 돈천.
11) 자손에게 물려줌.
12)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 흐뭇함.
13) 초헌이나 의자에 앉는 자세의 다리 모양.

줄줄 흘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입맛을 쩍쩍 다시며,

"응 꿈도 이상하다."

하고 연상에 붓을 집어 먹을 찍더니 머리맡 벽에다 두 줄을 가로,

'야몽극흉(夜夢極凶) 서벽대길(書壁大吉)'(밤꿈 극히 흉한즉 벽에 글을 쓰노니 크게 길하라.)이라 쓴 뒤에 다시 들어눕더니 얼마 아니 되어 또 여전히 땀을 물독에서 빼낸 듯이 흘리며 일어나 혼자 중얼중얼 꿈 이야기를 한다.

"어이. 이게 무슨 꿈인가. 속담에 맘이 있어야 꿈에 뵌다는데 내가 장난삼아 저를 한 번 상종한 일이지. 바늘끝 만치나 못 잊어 생각을 하기에 펄쩍 뵈이나. 어이. 요망스러운 것. 꿈에 뵈일 터이면 좋은 낯으로 반갑게 뵈이지를 왜 아니하고, 내가 제게 무슨 못할 노릇을 했길래 머리 풀어 산발을 하고, 이를 아등아등 갈며 요악(妖惡)한 소리로, '내게 이렇게 적악을 하고 네 신세가 평안할 줄 아느냐? 내 혼이 네 머리 위로 주야장천(晝夜長川)[1] 돌아다니며 네 가슴을 쾅쾅 짓찌며 한탄하는 양을 보고야 말겠다.' 하고 발악발악 울며 덤비어 보이노. 응. 요망스러운지고."

리시찰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입찬소리[2]로 장담은 하였지마는 일자 이후로 공연히 심신이 산란하여지며 머리끝이 쭈뼛쭈뼛한지라. 다시 잠을 자지 못하고 애꿎은 담배만 펄쩍 먹는데 그렁저렁 날이 밝았더라.

김선달이 숨이 턱에 닿게 오더니 황망한 말로,

(김) "사또. 간밤에 선초가 자처(自處)를 하였답니다."

(리) "무엇이야? 자처를 하다니. 제가 무슨 곡절로 자처를 했단 말이냐? 네가 분명히 들었느냐?"

(김) "듣다 뿐이오니까. 관비가 가서 보기까지 하고 왔답니다."

(리) "이 애. 듣기 싫다. 관비년은 너 어찌 그리 꼭 믿느냐? 그년이 역시 그년이니라. 죽었다고 으름장을 하면 내가 왼눈이나 깜작할 줄 알고. 실없는 것들이로고."

(김) "아니올시다. 제가 자처를 했는지는 확실히 믿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살(煞)[3]을 맞았는지 관격(關格)[4]을 하였는지 죽기는 정녕히 죽었길래 염습 제구를 장만한다 관곽을 짠다 하옵지오."

(리) "참말 죽었을 터이면 네 말마따나, 필경 살을 맞았거나 관적(關格)이 되어 죽은 것이오 또는 만손[5] 자처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 손으로 저 죽은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모양으로 김선달을 대하여서는 말을 하여 놓고, 은근히 마음에는 일상 꺼림하던 차에 장성읍 인민들이 가뭄과 유행병을 인하여 선초의 무덤에 제를 풍비(豐備)[6]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염치 좋게 몰각(沒却)[7]하기를,

"내가 제게 적원(積怨)[8]한 것은 없지마는, 제 마음에는 얼마쯤 섭섭히는 여겼던 것이야. 그리기에 종종 내게 현몽(現夢)[9]하는 것이니 제 귀신을 위로할 겸 제(祭) 지내는 구경도

1)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잇따라.
2) 자기의 지위나 능력을 믿고 지나치게 장담하는 말.
3)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독하고 모진 기운.
4) 먹은 음식이 갑자기 체하여 가슴이 막혀 토하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보는 위급한 병.
5)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6) 풍부하게 갖춤.
7) 무시해 버림.
8) 오래 쌓인 원한.
9) 죽은 사람이나 신령이 꿈에 나타남.

할 겸 내가 좀 가보겠다."

하고, 대동(大洞)이 택일한 제삿날을 당하여 리시찰이 선초의 무덤으로 뱃심 좋게 가서 남녀노소의 축원하는 양을 차례로 구경하고, 모두다 헤어져 간 뒤에, 자기 역시 술 한 잔을 따뜻하게 부어 놓고 글 한 구를 지어 고성대독(高聲大讀)하는데,

추풍(秋風)에 내백발(來白髮)하여,
　　가을바람에 백발이 와서
낙일(落日)에 곡청산(哭靑山),
　　떨어지는 날에 청산에서 울다

가장 선초의 혼이 자기의 술을 달게 흠향(歆饗)[1]이나 한듯싶어 희색(喜色)이 만면하여 돌아왔더라.

그날 밤 삼경이 못되어 별안간에 남풍이 슬슬 불며 사면에서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서 탄탄대로에 기초(騎哨)[2] 달리듯 하더니, 번개는 번쩍번쩍 천둥은 우루루 우루루 주먹같은 빗방울이 우두두 떨어지다가, 거미기(去未幾)[3]에 눈을 못뜨게 삼대같이 퍼부어 오니 읍하(邑下)의 우매(愚昧)[4]한 부녀들은 모두 좋아 춤을 추며 제각기 한마디씩을 다지껄이기를,

"세상에 영검[5]도 해라. 무당 판수라 하는 것이 헛것은 아닌 게야. 점괘 나는 대로 선초 혼을 위로하였더니 당일 내로 비가 이렇게 오지. 이번 일만 보아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선초같이 연하고 싹싹한 사람을 나이는 몇 살 아니 되었서도 처음 보는 걸.

만일 이번에 인간들이 몽매(蒙昧)하여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느 때까지 가무는지 모를 뻔하였지. 인제 비는 더 바랄 것 없이 흡족하니 내 집 남의 집을 물론하고 우환이나 마저 없어졌으면 그 아니 좋을까."

리시찰이 적이 신학문에 유의(有意)한 터 같으면 그런 소리를 듣더래도 비 오는 이치를 풀어서,

"허허. 무식한 것들이라 할 수 없고 비가 제(祭) 지냈다고 왔을까. 사람이 근 천 명이 모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먼지가 공중으로 올라가 수증기를 매개(媒介)하여 비가 온 것이라."

설명을 하였으련마는, 이 눈썹만 빼도 똥이 나올 분네는 요량(饒良)하기를,

"흥, 어림없는 것들이로고. 선초의 귀신이 비를 오게 했을 터이면 저의들 정성에 비가 왔을까. 내가 와서 술을 부어 놓고 글을 지었던 즉 거기 감동하여 비를 오게 하였을 터이지."

그날 밤에 아무 기탄(忌憚)없이[6] 잠을 자려 하는데, 눈만 감으면 선초가 여전히 와서 머리 위로 돌아다니며 울고 부르짖는지라. 하릴없이 일어나 등촉을 밝히고 밤새기를 기다리는데, 동이 트랴 말랴 하여 창밖에서 난데없는 기침 소리가,

"에헴, 에헴."

나거늘 리시찰은 휘휘하고 적적하던 차에 든든한 마음이 나던지 대단히 반가워하며

"거기 누구 왔느냐?"

기침 소리가 그치며

"예, 영문(營門)[7]에서 서간이 있어 왔습니다."

리시찰이 갈려간 관찰(觀察)[8]과는 서로 성

1) 신령이 제물을 받음.
2) 말탄 병사.
3) 멀지 않은 동안.
4)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움.
5) 영험.
6)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데 어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없이.
7) 감영(監營).
8) 관찰사.

기(聲氣)[1]가 통하여 결전(結錢)[2] 상관(相關)에 별별 조화를 다 부렸더니, 새로 내려온 관찰과는 아직 낙락난합(落落難合)[3]하여 어찌하면 계제(階梯)[4]를 얻어 또 한번 수단을 피워 볼꼬 하던 판이라.

영문에서 서간이 왔다는 말을 듣고 한없이 반가워서, 의복도 채 입지를 못하고 이불을 두른 체 일어 앉으며, 윗간에서 자는 상노놈을 깨워서 문을 열고 편지를 받아들이라 하였더라.

상노(床奴)[5]가 눈을 비비고 부스스 일어나 문을 막 열고 편지를 받으려 할 즈음에 갖두루마기 한 사람이 마루 위로 우적우적 올라서며 이 문 저 문 턱턱 가로막아 서더니 큼직한 봉투 하나를 주며

"법부(法部)[6] 조회(照會)[7]로 영감 잡히셨습니다."

리시찰이 자기의 전후한 일은 있고 잡혔다는 말을 듣더니, 수각(手脚)이 황망(慌忙)[8]한 중, 삼십육계(三十六計)[9]를 쓰고 싶으나, 문마다 막혀서 움치고[10] 뛸 수가 없는지라. 어찌하는 수 없어 그 봉투를 받아 속폭[11]을 뽑아보며 우두커니 앉았다가,

"잡혔으면 가지. 내 죄 없으니까 아무 겁날 것 없다."

하고, 상노놈에게 세수를 놓으라 하여 소세를 한 후, 아침밥도 못 먹고 그자들에게 끄들려 영문으로 올라가 그길로 평리원(平理院)[12]으로 압상(押上)[13]이 되었더라.

리시찰 잡혀온 죄는 막중 국세(國勢)[14]를 중간 환롱(幻弄)[15]한 죄라.

감옥서(監獄署)[16]에다 엄밀히 뇌수(牢囚)[17]하여 두고 삼 년 동안을 재판하는데, 세상 사람이 지옥지옥 해도 지옥이 별것이 아니라, 이생에 있는 감옥서가 곧 지옥이라. 그런고로 죄를 범하고 그 속에를 한 번 들어만 가면 살아나올 제 나온 대도 죽은 목숨과 조금 다를 것이 없는 법이라.

리시찰이 처음에는 가장 쇠가 산 체하고 큰 소리를 철장(鐵杖)[18]같이 뽑아낸다.

"양반이 감옥 맛을 아니 보면 못쓰느니라. 감옥 말고 감옥에서 더한 데를 들어왔더라도 내 죄 없으면 그만이지. 겁을 손톱만치라도 낼 내가 아니다."

하면서도, 뒤는 나던지 은근히 자기 상전 두 신씨에게 고급(告急)[19]을 하여 일을 무사타찹(無事妥帖)[20]하게 주선하여 달라고 애걸한 후에, 눈이 감도록 반가운 소식 듣기를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지나 점점 여러 달이 되도록 시원한 소식은 도무지 없고 사람은 못 당할 경우가 날로 생긴다.

그렇게 가물던 일기가 유월을 접어들며 무슨 비가 그렇게 그칠 새 없이 오던지, 정결한 처소에도 습기가 자연 생겨서 의복은 눅눅하

---

1) 마음과 뜻
2)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3) 여기저기 흩어져 모이기가 어려움.
4)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5) 밥상 나르는 일이나 잔심부름을 하던 아이.
6) 구한말에, 사법 행정·사면·복권 따위의 일과 각 재판소를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7) 어떤 사람의 인적 사항을 관계되는 기관에 알아보는 일.
8) 손발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으로, 뜻밖의 일에 놀라고 당황하여 쩔쩔맴을 이르는 말.
9) 뺑소니.
10) 움츠리고.
11) 봉투 속에 들어 있는 물건.
12) 대한 제국 때, 재판을 맡아보던 관아.
13) 죄인을 체포하여 상급 관청으로 넘겨 보냄.
14) 나라의 형편과 세력.
15) 교묘하고 못된 꾀로 남을 속여 농락함.
16) 형벌의 집행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17) 죄수를 단단히 가둠.
18) 쇠지팡이.
19) 급한 상황을 알림.
20)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남.

고 기명(器皿)[1]은 곰팡이가 나는데, 더구나 양기(陽氣)[2]를 받아보지 못하는 감옥 속이리오. 침침 칠야(漆夜)[3]에 빗소리는 주루룩 주루룩 모기, 빈대, 벼룩 등물은 먹을 판이나 생긴 줄 알고 들이덤비는데, 앉아도 편치를 아니한 중, 눈 곧 감으면 선초가 여전히 옥문 밖에 와 돌아다니며 원통한 사설을 하여 가며 우는 소리가 두 귀에 완연히 들리니 오려던 잠이 천리만리 달아나며 신세타령이 부지중 나온다.

"에구. 내 신세가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죄가 있거든 죽이던지, 귀양을 보내던지 얼핏 처판(處辦)[4]을 하여 주거나 밤낮 재판은 하여도 끝은 아니 내어주고, 이 모양으로 옥구멍에다 넣어두니, 사람이 살이 슬슬 내려 절로 죽겠지.

이 지경 될 줄 알았다면 남과 혐의나 아니 지었다면 좋을 것을 큰 훈공이나 세울 줄 알고 잡아 압상한 동학당 수백 명을 진작 죽여 없애지를 않고 그대로 가두어 두어서, 이놈들이 나를 못 먹겠다고 별의 살 덤비듯 하며 주먹질 발길질 입에 못 담을 욕설 악담이 물 퍼붓듯 하는 중, 조석 때를 당하여 먹을 것을 좀 해 들여 오면 이놈도 빼앗서 가고 저놈도 빼앗아 가서, 정작 나는 다만 몇 술을 먹어보는 수 없으니, 당장 들피[5]가 나서 꼭 죽을 지경이요.

그뿐 아니라 밤이 되어 잠을 좀 자려 하면 고 방정맞은 선초 귀신의 우는 소리에 실로 송구해서 견딜 수가 없지. 내가 외입(外入)[6]은 많이 못 했지마는 그 모양으로 소견 없는 것은 듣고 보느니 처음이야 제가 규중에 감추어 있던 터가 아니오. 계집 상종하는 사람이 여간 거짓말로 속이기가 불시 예사거늘 벌써 제가 그만 살 팔자라. 자처를 하고서 왜 내게 와서 성화를 바치누.

내가 지금은 횡액(橫厄)으로 옥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할 수 없지. 조만간 나가기 곧 하여 보아라. 금부(禁府)[7] 부장님 몇 명만 불러다가 옥추경(玉樞經)[8]을 이레만 읽어 영영 세상 구경을 못하게 가두워 버릴 터이다. 그러나 이네들이 내일 범연히 주선을 할 리가 만무한데."

하며, 가슴이 부집게[9] 죄이듯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차에, 자기 집으로 무슨 편지가 급히 왔는지라. 좋은 기별이나 있는가 하여 얼핏 받아 떼어보니, 자기 큰아들이 급한 관격(關格)으로 위태하다는 병보(病報)라. 앓기가 예사지 설마 어떠하랴 하였더니, 비몽사몽(非夢似夢)간에 선초가 앞서고 동학에 몰려 죽은 임씨 모자가 뒤를 서서 오더니, 소상(昭詳)[10] 분명히 이르는 말이,

"네가 우리와 무슨 불공대천(不共戴天)[11]지원수를 졌길래 생목숨을 끊게 하였느냐? 일인 즉 너를 잡아다가 살을 점점이 저며 간을 내어 씹고 싶다마는, 그러고 보면 네가 생전에 앙화(殃禍)를 못다 받을 터이기로 네 집 식구만 차례로 잡아가고, 네 몸 하나만 남겨두어 각색 고초를 당할 제마다 지은 죄를 구비구비 생각하게 할 터이다."

리시찰이 깜짝 놀라 두 손으로 눈을 이리저리 씻고 정신을 가다듬어도 뼈에 사무치는

1) 살림살이에 쓰는 온갖 그릇.
2) 따듯한 기운.
3) 아주 캄캄한 밤.
4) 사무를 분간하여 처리함.
5) 굶주려 몸이 여위고 쇠약해지는 일.
6) 남자가 아내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
7) 의금부.
8) 맹인이 외는 도가(道家) 경문(經文)의 하나.
9) 불덩이·숯불·석탄 덩이 따위를 집는 집게.
10) 분명하고 자세함.
11)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큰 원한을 가짐.

그 소리가 두 귀에 소상 분명히 들리는 것 같더라. 거미기에 곽란으로 앓던 맏아들의 부음(訃音)이 오더니, 겉묻어[1]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부음으로 손자 손녀의 변상(變喪)[2] 기별이 연속 부절(不絶)하여 들어오는지라.

처음에는 원통한 마음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한숨이 걷잡을 새 없이 나오더니, 참척(慘慽)[3]도 여러 번 보니까 졸업생이 되었던지, 서러우니 원통하던 마음이 다 어디로 도망을 하고 부음 들을 때마다 탄평(坦平)[4] 무사하여,

"제 명이 짧으니까. 제가 죽었는데 생각해서 소용이 무엇이냐. 젊은 처첩이 있으니 또 나으면 자식이지."

하는 독하고 무정하고 매몰(埋沒)한 뜻을 가슴속에다 품고서 여상(如常)[5]히 지내다가, 급기 자기 마누라가 여러 번 독척(獨慽)[6]을 보고 상심이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또 버렸다는 기별을 듣더니, 그제는 몸부림을 땅땅하며 기가 컥컥 막히게 울다가 옥사장이에게 구박을 자심(滋甚)하게 당하더라.

사람이 궁극한 지경을 당하면 뉘우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법이라. 리시찰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지경을 당하였으니 맑은 낮 고요한 밤에 자기 외 전후의 지은 죄를 차례로 생각 곧 하면 뉘우치는 마음이 나서,

"에구. 내가 이 앙화를 받아 싸지. 수원수구(誰怨誰咎)[7]를 할까마는 차라리 죄지은 내나 진작 죽여 주었으면 백번 사양을 못하려니와 애꿎은 처자(妻子)야 무슨 죄가 있나."

하여, 자기 하나 잘못한 죄로 처자식의 불쌍히 세상을 버린 일을 생각하면 머리를 기둥에라도 부딪혀서 따라 죽을 터인데, 그런 회심(悔心)을 하기는 고사하고 종래 흰소리로 자기 조상 탓부터 한다.

"어허.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몸만 해롭지. 아니 되겠고 우리 산소가 잘못 들었거나 선세(先世)에 지은 죄가 있는 탓으로 자식들이 모두 애물(愛物)[8]로 생겼다가 눈아래 깜찍스러운 경상을 뵈였는 것을 아무 지식 없는 마누라는 공연히 마음을 상하여서 천금 같은 몸까지 버렸지. 오냐. 칠십에 생남자도 한다는데 아직도 내가 연부력강(年富力强)한즉, 어느 때던지 이 재판 끝만 나거든 복성스러운 규수에게 후취(後娶)[9]도 하려니와 애낳이[10]하는 작은 마누라가 있으니, 설마 또 날 터인즉, 이다음 소생(所生) 아들을 학교에나 보내어 개화 공부를 시켜 먹을 벌이를 하게 하겠다."

리시찰이 당한 일은 어느 관찰사와 공전(公錢)[11] 건몰(乾沒)[12]한 상황으로 재판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고생을 더하려고 그렇던지 재판할 때마다 제출할 증거와 변론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급기 재판정에를 나가면 선초와 임씨 모자가 눈앞에 와서 울며 폭백(暴白)[13]하는 소리에 정신이 수란(愁亂)하여지며 한 가지 기억을 못하고, 횡설수설 주착없이 말이 나오는 탓으로 그 재판 끝을 진시(趁時)[14] 못 내고 장근(將近)[15] 삼 년을 내끌었더라.

---

1) 남이 하는 김에 덩달아 따름.
2)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
3)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가 앞서 죽음.
4) 근심·걱정이 없이 마음이 편하다.
5) 보통 때와 같다.
6) 홀로 근심함.
7)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8) 사랑하여 소중히 여기는 물건.
9) 두 번째 장가감.
10)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
11)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돈.
12) 법에 어긋난 물건을 관가에서 빼앗음.
13) 성을 내며 변명함.
14) 진작.
15) 거의.

그때에 리시찰을 지어 부지간(不知間)에 모두 다 고소해서 한마디씩이라도

"에. 잘코사니[1] 제가 상전 잘 맛난 탓으로 그만치 부릇되었으니[2] 어디까지 매사를 극력 조심하여도 실수하기가 십상팔구어든, 본래 주제넘고 아니꼬운 위인이 그같이 소무기탄(小無忌憚)[3]하고 남에 적악을 하였으니 천도(天道)가 어찌 무심할 리가 있나. 그 죄벌을 당해 싸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반(一般) 공론(公論)이라 과격하다 할 수 없거니와, 적거니 크거니 험의(嫌疑)[4]가 좀 있는 사람들은,

"흥, 그까짓 것. 제가 제 벌을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지. 아무에 전재(錢財)[5] 빼앗은 것과 아무의 전답 빼앗은 것이라던지, 누구누구를 모함한 것만 해도 저만치는 고생을 하고도 남을 터이요, 그네 일과 우리의 소조(所遭)[6]는 다 그만두고 남의 일이라도 말을 하자면 이가 절로 갈리기는 제 동향(同鄕)에 있는 임씨의 집에 대하여 배은망덕으로 멸망을 시켰으니 그 원귀(冤鬼)들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그는 차치(且置)물론[7]한데도 장성읍 기생 선초의 일로 말하면, 리시찰 자기 소위 학문가의 출신으로 철모르는 계집아이가 목전에 노는 풍정(風情)만 탐하여 행실을 부정히 가질지라도, 아무쪼록 좋은 도리로 권고(勸告)를 간절히 하여 개과천선(改過遷善)하도록 하는 것이 가(可)하거늘, 제 자격이 절등(絶等)[8]하고 지조가 비상한 선초를 어디까지 포장(包藏)은 못 해주나마 제 부형의 없는 죄를 억지로 씌워서 당장 죽일 듯이 위풍을 부리고, 뒤로 은근히 소개를 하여 백발이 허연 자가 막내딸 같은 것을 간통하고, 그나마 약조(約條)를 저버려 생선 같은 것이 철천지한(徹天之恨)[9]을 품고 죽게 하였으니 앙화를 받지 않고 무엇을 할꼬."

하더라.

그런데, 선초와 임씨 모자가 리시찰 눈에 뵈인 일로 말하면, 아무라도 참말 그 귀신이 있어 원수를 갚으려고 그리한 것이라 할 터이지마는, 기실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 죽은 귀신이 있어 원수를 갚을 것 같으면 지금 누구이니 누구이니 하는 소위 재상들이 하나도 와석종신(臥席終身)[10]을 못하고 참혹히 벌써 이 세상을 하직한 지가 오랬을 터이지마는 유명(幽冥)[11]이 한 번 달라 놓은 이상에 그렇게 역력할 수 없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러나 도적이 발이 저리다는 일체(一體)로 리시찰이 자기 생각에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공연히 겁이 나며 중정(中情)[12]이 허해져서 선초로도 뵈이고 임씨 모자로도 뵈이는 중, 선악(善惡)간 사람의 뇌라 하는 것은 극히 영통(靈通)하여 아직 오지 아니 한 앞일을 미리 깨닫는 일이 이따금 있는고로, 자기의 참경(慘景)[13]을 본 일부터 상처하는 일까지 벌써 마음에 켕겨서 그 모양으로 선초 귀신 임씨 모자 귀신이 눈에 현연(現然)[14]히 뵈이며 하는 말이 귀에 소상하였던 것이러라.

최호방이 선초의 참경을 본 이후로 한가지 고집이 생겼는데 이 고집은 별것이 아니라,

"딸자식이라는 것은 반절(反切)[15]이나 깨쳐

1) 미운 사람이 당한 불행한 일이 고소하게 여겨짐.
2) 일이 잘 되어 피어나다
3) 조금도 거리낌이 없음.
4) 어떤 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5) 재물로서의 돈.
6) 치욕이나 고난을 당함.
7)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아니함.
8) 두드러지게 뛰어남.
9) 하늘에 사무치는 크나큰 원한.
10) 제명을 다하고 편안히 자리에 누워서 죽음.
11) 저승과 이승.
12) 가슴속에 맺힌 감정이나 생각.
13)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
14) 눈앞에 똑똑히 드러나 있음.

서 가간(家間) 통정(通情)[1]이나 하면 넉넉하고, 밥이나 짓고 의복이나 꿰어 매면 그만이지, 한문(漢文) 자는 한 자도 가르칠 일이 아니요, 또 기생으로 말한대도 음률 가무가 변변치 못하나 이들은 열이면 열이 다 후분(後分)이 좋아도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면 재승덕박(才勝德薄)[2]하여 그런지 개개이 팔자가 기구하더라.

더할 말 없이 우리 선초로 보아도 제가 인물이라던지 음률 가무가 변변치 못하였다면 리시찰이 그 모양으로 욕심을 내어 의리부동(義理不同)[3]한 행위를 했을 리가 없었을 것이요, 또 제가 글자를 아니 배워 무식한 것 같으면 의리인지 지조인지 어찌 알아서 제 목숨을 끊을 지경까지 하였을 리도 없으니, 에이, 우리 모란이 년은 당초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하여, 일절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하게 하것마는 모란이는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들어가며 틈틈이 저의 일가집에 가서 동냥글을 배워서 문필이 저의 형만 못지 아니하고, 음률은 최호방 출입한 동안이면 제 형 공부하던 율보(律譜)[4]를 보아가며 사습(私習)[5]을 은근히 하여 어느 배반(杯盤)이던지 막힐 것이 없는 중, 형제의 얼굴이 방불(彷彿)[6]한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 제 나이 점점 차 갈수록 달덩이 같이 어여뻐 제 형의 얼굴에서 쪼개어낸 듯하더라.

그렇지 아니해도 모란이가 천륜이 감동해서 제 형의 넋두리하던 소문 들은 사람마다 모란이는 선초가 다시 왔다고 지목을 하였는데, 더구나 인물 재질이 제 형과 방불하니 호사자(好事者)[7]들이 오죽 말을 만들어 하리오.

"에이. 세상에 희한한 일도 있더라. 장성읍에는 대대로 명기(名妓)한 아식(兒息)[8]이 의례히 생기어서 당연(當年)에 유명하던 명주(明珠) 보패(寶貝)[9]가 차례로 죽고, 그 뒤를 이어 선초가 생겨나서 장성 일군을 흔들흔들하다가 몹쓸 바람에 떨어진 꽃모양으로 하룻밤 사이에 흔적이 없어지고, 적막히 비인 가지에 석양이 비낀 모양이 되었으니 아무래도 생각하기를 인제는 산천도 변하여져서 장성읍에 명기가 끊어지려나 보다 하였는데, 죽은 선초는 참 희한한 일이야. 요사이에 도로 살아났다는 걸."

모란이 성식(盛飾)[10]을 자세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옳지. 모란이가 제 형 선초의 계적(繼蹟)[11]을 했으니까 저렇게 말하기도 용혹무괴(容或無怪) [12]이지."

하여 다시 묻지도 아니할 터이지마는,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을 처음 듣는 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다는 말에 대경소괴(大驚小怪)[13]하여

"으응, 그게 무슨 말이야. 선초가 살아났다니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나. 그러면 선초가 리시찰을 속이노라고 거짓 죽었던 것이로구먼. 어떻든지 계집의 꾀라는 것이 기가 막히더라. 리시찰은 커녕 우리도 그 소문을 듣고

15) 한글.
1) 세상 일반의 인정이나 사정.
2) 재주는 있으나 덕이 적음.
3) 의리에 맞지 아니함.
4) 악보,
5) 혼자 스스로 배워 익힘.
6) 거의 비슷함.
7) 남의 일에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8) 아이.
9) 구슬과 보배.
10) 잘 차려입음.
11) 조상의 훌륭한 업적이나 행적을 본받아 이음.
12) 혹시 그럴 수도 있으므로 괴이할 것이 없음.
13) 몹시 놀라서 좀 이상하게 여김.

꼭 속았는 걸."

그때 말 전하던 사람도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선초의 자초지종을 알고 말한 자는 선초가 리시찰을 속였나보다 하는 의심에 대하여 정색을 하여 가며 기어이 변명을 하여 주려니와, 자기도 남의 전하는 것만 듣고 절인지 중인지 알지도 못하며 입이 가볍게 짓거리던 자는 어디까지 자기의 주견을 세우노라고 엇구수[1]하게 얼마쯤 말을 보태려 하더라.

1) 말이나 이야기가 그럴듯한 데가 있음.

제 칠 회

지극히 어지신 하나님께서는 호생지덕(好生之德)[1]을 주장하시는 터이라. 삼 년 동안을 옥구멍 속에서 사람은 못 당할 고생을 다 겪던 리시찰을 놓여 나와 세상 구경을 다시 하게 하신지라. 그물을 벗어난 새와 일반으로 리시찰이 옥문을 나오니 그때에는 애연(哀然)[2]한 양심(良心)이 잠깐 생기어서 스스로 자복하는 말이라.

"에구. 내가 이번에 고초 겪은 일이 모두다 내 잘못이지. 수원수구(誰怨誰咎)할 수 있나. 임씨집 일로 말하면 내가 그 노인의 사랑하던 은혜를 태산같이 지고 만분의 일이라도 갚지는 못할지언정, 내 요공(要功)[3]을 하자고 죄도 변변치 않은 그 아들을 사정없이 포살하였으니 어찌하니 원통치 아니하며, 선초로 말하면 제가 그처럼 고집을 하니 내 욕심을 참았다면 나도 생목숨을 끊을 때에 다시 없는 원혼을 품었을 것이니 일부함원에 오월비상(一婦含冤五月飛霜)[4]이라는데 내가 결단이 어찌 나지 아니하였을꼬."

하여, 가장 회개한 듯이 일절 여색은 가까이 아니하고 점잖은 행태를 이왕(已往) 학자문하에 다니던 때와 일반으로 하니, 이는 자기 마음에 또 한 번 속여볼 작정이러라.

속담에 더 먹자면 거친 계라더니, 리시찰이 부조(父祖) 유업(遺業)[5]만 해도 자기 식구는 굶지 않고 넉넉히 지내었을 것을, 아무쪼록 불한당 질을 하여 장안에 손꼽아 가는 거부(巨富) 장자가 되어 보자는 작정 겸, 일색 미인을 한 번 상종하자는 계교로 천신만고하여 삼남 시찰을 벌어 내려가서 일색도 상관하였으려니와, 재물은 어떻게 휩쓸어 몰아 올려왔던지, 만일 그 재물을 굳게 지키기 곧 하면 충청도 내에 큰 자본가가 되었을 터인데, 거칠게 들어온 재산이 나갈 제도, 거친 것은 당연한 이치라.

리시찰이 자기 집에를 와서 그 재물을 한 푼 써 보도 못하고 전라 감영에서 바로 서울로 압상이 되어 삼 년 재판하는 중에, 집안에 사람도 씨가 없어지고 재물도 본래 있던 것까지 보태어 탕진(蕩盡)을 하였으니, 리시찰이 옥에서 나온 후로 본 집이라고는 쑥밭뿐이요, 발을 내디디어 향할 곳 없으니까 할 일 없이 이왕 소박하여 버렸던 첩의 곁방살이하고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가서 비진(備盡)[6] 사정을 하여 몸을 의지하고 있으며, 간능(幹能)[7]스럽게 틈틈이 교제를 잘하여 전백(錢百)[8]전관(錢貫)[9]의 구걸로 근근이 호구(糊口)[10]를 하니, 자기 마음에는 사력(事力)[11]이 훨씬 펴진 줄 여겼던지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가서 이왕 행태가 도로 나와서 돈냥 곧 보면 소치(召致)[12]나 대단한 체하여 친구도 모아 술도 먹고 계집도 불러 소일도 하더니, 하루는 어떤 친구의 연회에를 갔더니 그 좌석에 아무 판서 아무 대신이 하루 협판(協辦)[13], 참서(參書)[14], 국장(局長), 주사(主

1) 사형에 처할 죄인을 특사하여 살려 주는 제왕의 덕.
2) 슬픈 듯하다
3) 자기의 공을 스스로 드러내어 남이 칭찬해 주기를 바람.
4)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오월에도 서리가 날림,
5) 선대(先代)로부터 물려받은 사업.
6) 마음과 힘을 다 씀.
7) 일을 잘하는 재간과 능력.
8) 백으로 헤아릴 정도(程度)의 적지 아니한 돈.
9) 엽전으로 한 관 안팎의 액수.
10) 입에 풀칠을 한다는 뜻으로, 겨우 먹고 삶을 이르는 말.
11) 일이 되어가는 형편.
12) 불러서 오게 함.
13) 대한 제국 때 궁내부와 각 부(部)에 둔 차관.
14) 대한 제국 때에, 여러 관청에 둔 주임 벼슬.

事)[1]가 다수히 회집(會集)하여 반(半) 조정(朝廷)이 더 되고 겸하여, 각국 공영사(公領使)[2] 내외국 상민(商民)도 적지 아니 모였는지라.

행여나 실수를 할까 하여 극히 조심조심하노라고 먹고 싶은 주육(酒肉)도 못 먹고 하고 싶은 수작도 못하며, 한 변 구석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얌전스럽게 앉았노라니, 마침 여흥으로 기생의 가무를 보는데 그중 기생 하나가 자기의 얼굴을 눈이 뚫어지게 여겨 보거늘, 자기 역시 유심히 본 즉 분명히 알 수는 없어도 어디서 이왕 많이 보던 인물같은지라.

의젓이,

"이 애. 저 기생 이리 오너라. 네 이름이 무엇이고. 나는 몇 살이며 시골은 어디냐?"

한마디 물어보고 싶지마는, 여러 귀중한 좌객(座客)[3]들이 어떻게 여기는지도 알 수 없고, 곁에 친구를 연비(聯臂)[4]하여 그 성명 거주를 탐지하고 싶으나, 그 사람 못 보는 대는 무슨 행세를 하였던지, 제법 정대(正大)한 체, 동인(同仁)[5] 체 하던 터에 기생의 이름을 자세히 무르면 역시 무엇이라고 흉을 볼는지 알 길이 없어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앉아서 그 기생만 쏘아보며,

"그것 다시 볼수록 절묘(絶妙)한 걸. 어떻게 하면 한 번 조용히 불러볼꼬."

하며 한입에 꼴딱 집어삼키고 싶은 마음이 나서 은근히 좌불안석(坐不安席)[6]을 하는데, 그 기생이 추던 춤을 중간에 그치고 리시찰 앉았는 앞으로 쪼르르 와서 우뚝 섰더니 물끄러미 한동안 마주 보는지라.

리시찰 생각에는,

"자기의 풍채가 두목지(杜牧之)[7] 존장칠[8]만 하여 그 기생이 저렇게 와서 보거니."

싶어 한없이 좋은 중, 도리어 면구(面灸)[9]해서 고개를 돌려 딴 데를 보는 체하는데, 그 기생이 신 내리는 무당 모양으로 소리 한마디를 버럭 지르더니 리시찰을 향하여 전후 수죄(數罪)[10]를 다한다.

"여보. 너무 마오. 남의 적악을 너무 마오. 점잖은 처지로 학자 문하에 출입을 하였다면서……. 여보 나잇값이나 좀 하시오. 귀밑에 털이 히뜩히뜩한 터에 나같이 어린아이에게 이다지 원통히 하여야 가할까요? 조정에서 불차탁용(不次擢用)[11]으로 시찰을 보내실 제는 아무쪼록 적악하여 풍속을 괴란(壞亂)[12]케 하는 자는 징치(懲治)[13]하고, 정직하여 사회에 모범될 만한 자는 포장하라는 뜻인데, 왜 나와 무슨 불공지수(不共之讎)[14]가 있길래 무죄한 우리 아버지를 동학에 관련이 있다 모함을 하여 옥중에다 뇌수(牢囚)하고, 내일 포살 하네 각색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천연스럽게 계약서까지 하여 주고, 급기 강제로 욕을 뵈인 뒤에는 도장 찍어 주마고 그 계약서를 도로 달래 가더니, 인해 배약(背約)[15]을 하여 내가 철천지한(徹天之恨)을 품고 이렇게 죽게 하였으니, 당신 마음에 얼마나 상쾌

1) 조선 후기에, 여러 관아에 둔 판임 벼슬.
2) 공사와 영사.
3) 자리에 앉은 손님.
4) 서로 이리저리 알게 됨.
5)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는 일.
6) 앉아 있어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음.
7) 당나라 말기의 제일가는 시인.
8) 뺨 칠만.
9) 남을 대면하기가 부끄러움.
10) 범죄 행위를 하나하나 들추어냄.
11) 계급의 차례를 밟지 않고 특별히 벼슬에 등용함.
12) 풍속 따위를 무너뜨리어 어지럽게 함.
13) 징계하여 다스림.
14) 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讎). 함께 하늘을 이지 않는 원수.
15) 약속을 저버림.

하시오.

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가 될지라도 내 원혼은 그대로 있어 당신 후분(後分)이 얼마나 잘 되나 보고야 말 터이오. 여보, 무슨 정이 그리 떳떳해서 내 무덤에 와서 술을 부어 놓고 글을 지었습더이까? 가을바람에 백발이 왔다 하니, 나 살아서 거절한 양반이 죽은 뒤에 무엇하려 왔으며, 떨어지는 날에 청산에서 운다 하였으니, 울기는 무엇이 답답해서 울었습더이까?

오늘 내가 이 좌석에를 불원천리(不遠千里)[1]하고 올라오기는 다름 아니라 당신이 시찰로 내려와 그 탐음무도(貪淫無道)[2]한 행실을 하고도 필경 명찰(明察)[3]하게 직분을 다한 모양으로 세상 이목을 속였을 터이기에, 이렇게 만당(滿堂) 귀객이 모이신 데에서 죄상을 공포하려는 것이오.

댁집에 변상(變喪)이 수없이 나고 재산을 탕패(蕩敗)한 것이 무심한 일인 줄로 여겼습더이까? 내 혼이 당신 간 곳마다 쫓아가서 후분이 얼마나 잘 되나 보고야 말 터이오."

하며, 무죄 양반을 비돌아[4] 모함하여 재물 빼앗던 일을 역력히 들어 수죄(數罪)하는 중, 임씨 부인의 양육한 은혜를 저버리고 죽마고우로 자라난 그 아들을 죄없이 포살을 하여 그 집 고부가 일시에 원통이 세상을 버린 일까지 모조리 공포하니, 그때 그 좌석에 참예(參預)[5]한 귀객(貴客) 중 언어를 직접으로 통치 못하는 외국 사람은 당장에는 아무런 줄 모르고 다만 당황히 여길 뿐이로되, 기타 모 대신 모 협판 이하로 평시에 리시찰을 상없이[6] 않게 여기던 여러 분네들이 그 기생의 하는 거동을 보고 심히 괴상하여 처음에는,

"저것이 풍병(風病)[7]이 있거나 광증(狂症)[8]이 들었나 보다."

하였더니, 차차 그 말을 들으니 무슨 묘맥(苗脈)[9]이 착실히 있는 일이라. 각기 연비를 하여 그 기생의 내력을 물은즉 이름은 모란이요, 시골은 장성인데 당시 명기로 세상에 이름이 회자하던 최호방의 딸 선초의 아우 모란이라.

선초가 비록 하방의 있는 처지나 그 품행과 재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이 썩 유명하였던 탓으로 자세한 곡절은 몰라도 자처하였다는 소문은 다 듣고 모두 가석(可惜)[10]히 여기던 터이더니, 급기 모란의 일장(一場)[11]하는 말을 듣고 선초의 불행이 된 이유를 정확히 알겠는 동시에 리시찰의 죄상까지 일일이 알겠으나, 한갓 모란의 거동에 대하여 의심될 문제 한 가지가 되었는데,

"죽은 선초가 살아나서 모란이 모습을 쓰고 왔단 말인가? 산 모란에게 죽은 선초의 여기(疹氣)[12] 들었단 말인가. 외양은 보면 모란이 대로 있고 수작을 들으면 선초가 왔으니 그 아니 이상한 일인가?"

이때 리시찰은 어찌 기가 막힌 지 아무말도 못하고 앉아 듣기만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한즉, 묵묵히 발명(發明)[13]없이 있다가는 자기 과실이 모두 발각되어 일자반급(一資半級)[14]이라도 다시 얻어 해 볼까 하고 일껀 행세를 적공(積功)들여 한 것이 속절없을 지경

1) 천 리 길도 멀다고 여기지 않음.
2) 지나치게 여색을 탐해서 도리에 어긋나서 막됨.
3) 사물을 똑똑히 살핌.
4) 겉돌아.
5) 참여.
6) 막되고 상스럽게.
7) 신경의 탈로 생기는 온갖 병.
8) 정신 이상으로 일어나는 미친 증세.
9) 일이 나타날 실마리.
10) 애틋하게 아깝다.
11) 한바탕.
12) 요사하고 독한 기운.
13) 변명.
14) 보잘것없는 작은 벼슬.

이라. 무슨 효험이나 볼 줄 알고 어버버하던 본의(本意) 없이 정색을 하여 모란을 보며,

"이년. 이 미친년. 이 좌석이 어떤 좌석으로 알고 얼토당토않은 광언망설(狂言妄說)을 이렇게 하느냐? 번연히[1] 살아서 지껄이는 년이 나에게 죽였으니 마니. 응.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괴악한 년의 수작을 다 듣는다."

하고, 좌상에 자기와 친절한 재상을 쳐다보며,

"시생(侍生)은 오늘 이런 소조(所遭)[2]가 없습니다. 이런 미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윤척(倫脊)[3]이 없는 말을 함부로 지껄여 조좌중에 창피케 하오니 역일(曆日)[4] 변괴올시다.

소매(素昧)[5] 평생에 눈도 코도 못 보던 것이 어서 와서 저를 죽였느니 살렸느니 못할 험담이 없이하는 모양을 보온 즉, 저것이 미친년 곧 아니면 필경 동학 여당(餘黨)으로 시생에게 형벌 당한 무엇이 회개는 할 줄 모르고 도리어 함혐을 하여 저것을 꾀이어 이 거조를 하도록 한 것이오니, 대감께옵서 경무사(警務使)[6] 대감께 말씀하오셔 근인(根因)[7]을 사문(査問)[8]하여 기어이 득정(得情)[9]을 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뚝 떨어지자, 모란이가 또 소리를 질러 수죄하는 말이,

"여보. 간사도 하오. 그래도 나를 몰라본다고 해. 그만치 고생을 하고도 옛 버릇이 그저 남았구려. 누구를 잡아 가두고 사문(査問)을 하여 달라고. 이왕에는 세상을 속이고 명예를 도적질한 탓으로 사면(赦免) 대우도 받고 여간 벼슬도 얻어 했거니와, 내가 이 모양으로 설원(雪冤)[10]하는 것을 목도(目睹)[11]하시고야 어느 양반이 당신의 말을 옳게 여겨 나에게 무엇이라 할 줄로 알고, 내가 유명이 다른 탓으로 직접으로 말을 하는 도리가 없어서 내 아우 모란의 입을 빌어 당신의 죄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미친년이니 광언망설이니 하오. 궁흉(窮凶)[12] 극악한 댁과 더 말할 것이 없으니 나는 가오."

하더니 모란이가 뒤로 벌떡 자빠져 인해 기색(氣色)을 하였는지라. 리시찰과 깊은 관계없는 자들은 일변 모란의 거동을 괴상히 여기고, 일변 리시찰의 본색을 깨달아 검다 쓰다 일언 반사(反射)를 아니 하는데, 기중 리시찰을 사자 어금니 아끼듯 하던 신대신은 멋없는 호령을 내심에 잔뜩 준비하기를,

"어이. 요망한 년. 사불범정(邪不犯正)[13]이거든 어디서 이까짓 버르장이를 하노라고. 어이. 암만해도 그대로 두지 못하겠고."

하여, 그 자리에서 순검(巡檢)[14]을 불러 모란이를 내어 주려 하다가 신대신은 본래 천성이 근신(謹愼)[15]한 터이라. 둥그런 눈을 꿈적꿈적하며 다시 생각하기를,

"대범(大凡)[16] 물건이라는 것이 불평하면 우느니, 저것이 맑은 정신의 말이라 할 수는 없으나, 제 딴은 무슨 원통한 일은 있기에 저

1) 훤하게 들여다보이듯이 분명히.
2) 치욕이나 고난을 당함.
3) 되는대로 지껄이거나 갈겨 말이나 글에 순서와 조리가 없음.
4) 책력에 의하여 정해진 하루하루의 날짜.
5) 견문이 좁고 사리에 어두움.
6) 대한제국 때, 내무아문에 속한 경무청의 으뜸 벼슬.
7) 근본이 되는 원인.
8) 조사하여 캐물음.
9) 죄를 저지른 실정(實情)을 알아냄.
10) 원통함을 풂.
11) 목격.
12) 성정(性情)이 매우 음침하고 흉악함.
13)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감히 범하지 못함.
14) 조선 후기에, 경무청에 속해 있던 경리(警吏).
15)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감.
16) 무릇.

모양으로 울며 사설을 하는 것이니 아무렇던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동정(動靜)을 더 보리라."

하고 가만히 앉아 모란의 폭백(暴白)[1]하는 말을 역력히 듣더니, 모란이가 하던 말을 다 마치고 그 자리에 가 쓰러지며 넋을 잃는 양을 보고 그날 연회가 살풍경(殺風景)[2]이 되어 내빈이 흘림흘림 다 헤어져 가는 통에 리시찰은 무안(無顔)에 취하여 제일 먼저 삼십육계(三十六計) 중상책을 하였더라.

당초에 모란이가 저의 형 죽은 후로 꿈마다 저의 형이 와서 울며 부탁하기를,

"이 애. 모란아 네가 아무쪼록 시서(詩書), 가무(歌舞), 음률(音律), 침재(針才)를 나만치 배워가지고 교방에 일등이 되어 네 형의 맺어 먹었던 소원대로 성취도 하고, 네 형의 뼈에 사무친 설원도 하여다고."

하니, 한 나이라도 적어서는 아무 의사도 못 내다가 십오 세가 되어 온갖 지각이 날 말하니까, 자기 형이 원억(冤抑)[3]히 세상을 버린 일이 점점 유한(遺恨)[4]이 되어 무슨 능력으로 설분(雪憤)[5]을 상쾌히 하여 주는 도리가 없는지라.

주사야탁(晝思夜度)[6]으로 골몰이 궁리를 하다가 한가지 계책을 내어 서울서 다년 기부(妓夫)[7]로 영업하던 박별감이 데리고 외입을 하던 기생은 돌려보내고, 새로 기생을 구할 차로 내려온 것을 알고 사람을 소개하여 청해다가 가기를 자원하며 약속하는 말이라.

"당신이 기왕 기생을 구하러 오셨다 하니 불필타구(不必他求)[8]로 나를 데려가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간 데도 춤이라던지 노래라던지 지어 각색 음률까지라도 새로 배울 것이 없는즉, 부비(浮費)[9] 한 푼 들 것 없고 다만 내 주인이 되어 바깥 도량(度量)만 하여 주면 내 목적 달하는 날까지 매창(賣唱)[10]은 사양치 아니하고 하려니와 결단코 매음(賣淫)[11]은 아니할 터이니 그리 알으시고 같이 가십시다."

박별감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여 본 즉

"날뜨기[12]를 돈 주고 사다가 생매[13] 길들이는 일체로, 이삼 년 동안을 불소(不少)[14]한 자본을 허비하여 가르치는 것보다, 모란을 돈 한 푼 아니 주고 데려다가 가무 등속을 수고스럽게 가르칠 여부없이 그날부터 벌어먹는 것이 해롭지 않고, 또는 기왕 기부 노릇을 하는 터에 저러한 명기를 한 번 데리고 지내는 것이 옳거니."

하여,

"소원대로 하게 하마."

다짐을 하고, 즉시 교마(轎馬)[15]를 차려 서울로 올라와 약방(藥房)에다 구실을 박았는데, 박별감이 비록 천한 업은 할지언정 과히 상없지는 아니한 자이라. 모란의 원치 아니하는 매음을 일절 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매창하는 놀음에만 보내는데, 기생이 인물만 똑똑해도 예서 오너라, 제서 오너라 하거든 하물며 가무가 갖고 음률까지 서화까지 능란한 모란이리오.

---

1) 성을 내며 변명함.
2) 살기를 띤 광경.
3) 원통한 누명을 써서 억울함.
4) 살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남은 한.
5) 분풀이.
6)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림.
7) 기둥서방.
8) 남에게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자기 것으로 넉넉함.
9) 일을 하는 데 써서 없어지는 돈.
10) 노래를 팖.
11) 매춘.
12) 아직 기생 교습을 받지 아니한 기녀.
13) 길을 들이지 아니한 매.
14) 적지 않음.
15) 가마와 가마를 끄는 말.

날마다 어찌 짜이는지 잠시도 집에 들어앉을 겨를이 없는데, 모란은 일편 정신이 어느 좌석에서던지 리시찰 곧 만나면 망신을 한 번 톡톡히 줄 작정인데 가량(假量)[1] 평교(平郊)[2]같으면 일부러라도 한 번 찾아가 리시찰을 보고 움파[3]같은 주먹으로 볼치[4]를 눈에서 불이 나게 훔쳐 치며,

"댁이 내 형을 왜 원통히 죽였음나? 법소(法所)[5]도 갈 것 없이 내 손에 당장 죽어보아라."

하련마는 남자도 아니오 여자요, 여자 중에도 천기(賤妓)라 그리하는 수는 없고, 다만 좌석에서 만나기만 기다리는데, 천행으로 그 날 연회에서 리시찰을 보고 직접으로 그 얼굴에다 침을 뱉어 가며 수죄를 하려다가 생각한즉, 그 좌석에 리시찰의 상련(相連)[6]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섣불리 하다는 망신만 하겠는 고로, 가장 자기 형의 여기(疹氣)나 씌운 듯이 일호(一毫) 고기(顧忌)[7]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였더라.

모란의 그 거조 한 번이 어찌 그다지 영독(獰毒)[8]한지, 리시찰이 일자(日子)[9] 이후로 간 곳마다 증거가 되어, 복직(復職)은 커녕 청편지(請片紙)[10] 한 장 얻어보는 도리가 없으니, 돈 한 푼 생길 곳은 없고 허구한 날 무엇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리오.

그중에 악종(惡種)[11]의 첩은 저의 남편이 벼슬을 다녀 돈을 벌어들일 제는 제 낭탁(囊橐)[12]을 좀 해볼 작정으로 입에 혀 노릇을 하며 가진 간특(奸慝)을 다 부리다가 감옥에서 삼 년에 가산을 여지없이 털어 마치고 다시는 벼슬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 들이니, 날마다 함박[13] 쪽박을 메여 부치며 포달[14]을 부리는 통에 잘 먹지도 못하지마는, 여간 먹는 것이 살로 한 점 못 가는지라.

배도 고프고 자기 첩의 바가지 긁는 것도 귀치않아서 낯 모르는 집으로 남이 알 세라 모를 세라 다니며, 소매 동냥을 하여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갈 제는 가장 누가 보내준 모양으로 그 첩을 속여 안유(安諭)하며 근근이 지내더니, 하루는 남문 안 어떤 골목에를 지나다가 대문이 큼직하고 용마루가 번지르르한 집을 보고 얼굴 아는 사람이나 아니보나 뒤를 흘금흘금 둘러보며 그 집으로 들어가 처량한 말로 산천초목이 쓰러질 만치 애원한 사정을 하며 다소간 구걸을 한다.

"예이. 쌀이 되나 돈이 되나 적선 좀 하십시오. 늙은 부모가 병이 들어 여러 달포째 위석(委席)[15]하였는데 가세가 말이 못되어 절화(絶火)[16]를 여러 때 하였사오니, 다소간 적선을 하시면 미음이라도 한 때를 끓여 봉양하겠습니다."

그 집이 공교(工巧)히 부엌문에서 중문이 마주 내다 뵈이는데 주인이 무엇을 하러 마침 부엌에를 내려 왔다가 중문 밖에 섰는 걸인을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혼자 웃고 안으로 들어오며,

---

1) 대강 헤아려 짐작함.
2) 들 밖.
3) 움 속에서 자란, 빛이 누런 파.
4) 볼따구니.
5) 법을 집행하는 기관.
6) 서로 잇닿은 사람들.
7) 뒷일을 염려하고 꺼림.
8) 모질고 독살스러움.
9) 그날.
10) 청질로 하는 편지.
11) 성질이 흉악한 사람.
12) 주머니
13) 함지박.
14) 암상이 나서 악을 쓰고 함부로 욕을 하며 대드는 일.
15) 몸져누워서 일어나지 못함.
16) 아궁이에 불이 끊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하여 밥을 짓지 못함을 이르는 말.

"천리(天理)가 무심치는 아니하다. 제가 필경 저 지경이 되었군. 우스워라. 늙은 부모가 병이 들었어. 저의 부모가 또 어찌 있던가. 양친이 구몰(俱沒)[1]하여 조고여생(早孤餘生)[2]으로 자라났다는데. 오냐. 입맛이 썩 붓게 두둑이 동냥을 주어 이 다음에 또 오는 양을 보겠다."

하더니 뒤주 문을 덜컥덜컥 열고 쓿고 쓿은쌀[3] 어백미(御白米)[4]를 푹푹 퍼서 붉은 도래[5] 함지로 수북하게 담아 아이 하인을 시켜 내어 보내더라.

그 집안 주인은 별 사람이 아니라 곧 연회 좌석에서 리시찰 수죄하던 장성 명기 모란이니, 그날 그 좌석에 의기(義氣)[6] 남자 하나가 있어 선초 모란 형제의 내력을 일일이 듣고 그 절조(節操)를 깊이 흠복(欽服)[7]하여 즉시 모란과 백 년을 뇌약(牢約)[8]하고 남문 안에다 살림을 불치불검(不侈不儉)[9]하게 썩 얌전히 차렸는데, 리시찰이 문전에 와서 구걸하는 양을 보고 두 눈이 쑥 쏟게 호령을 하여 내쫓으려다가 없는 부모 병들었단 말이 하도 우스워서 다시 생각하여 보고 쌀을 후히 주어 보낸 것이라.

리시찰이 그 쌀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며 혼자 생각이라.

"에이. 참 그 집이 부자도 부자려니와 인심도 매우 좋은걸. 그 집 한 집에서 얻은 것이 열 스무 집에서 얻은 것보다 썩 많지 않은가. 수일 후에 또 한 번 다시 가보겠다."

하고 며칠 후에 그 집을 전위(專爲)[10]하여 찾아가서 외마디 문자로 구걸을 하면 또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을 듯 싶어서 임시변통을 하여

"예이. 쌀말이나 적선하십시오. 세 살 먹은 어린 것이 시두[11]를 방장(方將)[12]하고 나서 온갖 먹을 것을 찾는데, 가세가 말이 못되어 죽 한 그릇도 끓여주지 못합니다. 후덕하신 댁에서 후히 보조를 하여 주십시오."

모란이가 그 다음부터는 구걸하는 사람이 밖에 와 소리 곧 지르면 백사(百事)를 제치고 내다보더니, 그날 리시찰이 또 와서 구걸하는 양을 보고 동냥은 아니 주고 하인을 시켜 안마당으로 들어오라 하니, 리시찰은 어쩐 곡절인지 알지 못하고 원래 후한 집이니까 의차(衣次)[13]로 피륙이나 양미(糧米)[14] 섬이나 두둑이 주려나 보다 하고 그 하인의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마루 위를 흘긋 쳐다보니 여화여월(如花如月)[15]한 젊은 부인이 뚜렷이 서 있는지라.

구걸을 하더래도 염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 황송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상벌간(賞罰間) 처분만 바랄 터인데, 이는 지각을 어떻게 타고났는지 그 중에도 부정당한 생각이 들기를,

"잠시간 보아도 저 여편네가 썩 잘 생겼는데. 나를 왜 이렇게 제 잡담하고 불러 들이노……. 거번(去番)[16]에 동냥을 한 함지나 줄 때부터 이상스럽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불러 들일 제는 필유곡절(必有曲折)[17]한 일이로군. 동냥만 주려면은 문밖에 세우고라도 넉넉히

1)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남.
2) 어려서 어버이를 여의고 자란 사람.
3) 쓿어서 희고 깨끗하게 만든 쌀.
4) 임금에게 바치던 흰쌀
5) 둥근 물건의 둘레.
6) 정의감에서 우러나오는 기개.
7) 진심으로 존경하여 따름.
8) 굳게 약속함.
9) 사치하지도 검소하지도 않고 수수함.
10)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위하여 함.
11) 수두.
12) 이제 곧.
13) 옷감.
14) 양식으로 쓰는 쌀.
15) 꽃 같고 달 같음.
16) 지난 번.
17)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음.

줄 터인데……. 옛날 이야기에도 나 모양으로 궁하게 돌아다니다가 장가 잘 들고 재물도 많이 얻은 일이 있다더니……. 아마 내가 인제는 생수(生數)[1]가 내려나 보다. 집에 있는 첩은 늙은 것이 악종만 시시(時時)로 부리고 아무 재미가 없것마는 그나마 버리게 되면 당장 몸 의탁할 곳이 없겠길래 마음대로 못하였더니……. 어찌 아무렇던지 제관하회(第觀下回)[2]를 하여 내게 닳도록 하여 보겠다."

하고 은근히 마음에 좋아하더니 마루 위에서 그 여인이 기침 한 번을 카악 하더니, 리시찰 얼굴이 모닥불 담아 부은 듯이 화끈화끈하여 지난 말이 나온다.

"여보소. 걸인. 보아하니 사지(四肢) 육체가 멀쩡한 터에 하다못해 인력거를 끌기로 못 살아서 남의 집으로 돌아다니며 없는 부모의 병이 있느니, 없는 자식이 시두를 했느니, 거짓말을 하여 가며 동냥을 하러 다녀. 초년에 죄를 지으면 말년에 죄를 받는 것은 떳떳한 이치거늘 저 지경이 되어서도 죄를 생각지 못할까. 눈을 들어 내가 누구인지 자세 쳐다 볼지어다."

리시찰이 그 말을 듣고 만단(萬端)[3] 의심이 나서 고개를 들어 쳐다 보고서 얼굴빛이 진당홍(唐紅[4])물 끼어얹은 듯하여지며 고개를 다시 푹 숙이고 한 걸음에 도주를 하더라.

기자 왈, 소설이라 하는 것은 매양 빙공착영(憑空捉影)[5]으로 인정에 맞도록 편집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警醒)[6]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 중, 그와 방불(彷彿)[7]한 사람과 방불한 사실이 있고 보면 애독하시는 열위(列位)[8] 부인, 신사의 진진한 재미가 일층 더 생길 것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실을 경계하는 좋은 영향도 없지 아니할지라.

고로 본 기자는 이 소설을 기록함에 스스로 그 재미와 그 영향이 있음을 바라고 또 바라노라.

1) 좋은 수.
2) 다시 보게 하여.
3) 온갖 수단이나 방법.
4) 중국산의 자줏빛을 약간 띤 붉은 물감.
5) 허공에 의지해 그림자를 잡음.
6)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침.
7) 거의 비슷함.
8) 여러분.

花(화)의 血(혈)

무릇 쇼셜은 톄지가 여러 가지라 한 가지 젼례를 들어 말홀 슈 업스니 혹 졍치를 언론흔 자도 잇고 혹 졍탐을 귀록흔 자도 잇고 혹 샤회를 비평흔 ᄌᆞ도 잇고 혹 가졍을 경계흔 자도 잇스며 기타 륜리 과학교졔 등 인셩의 쳔ᄉᆞ만ᄉᆞ 즁 관계 안이되는 자이 업ᄂᆞ니 샹쾌ᄒᆞ고 악착ᄒᆞ고 슯흐고 즐겁고 위틱ᄒᆞ고 우슌 것이 모도다 됴흔지료가 되야 긔자의 붓끗을 싸라 ᄌᆞ미가 진진흔 쇼셜이 되나 그러나 그 지료가 ᄆᆡ양 옛ᄉᆞ름의 지나간 자최어나 가탁의 형질 업는 것이 열이면 팔구는 되되 근일에 져슐흔 박졍화 화셰 계월하가인 등 슈삼죵 쇼셜은 모다 현금의 잇는 사름의 실지 샤젹이라 독자 졔군의 신긔히 넉히는 고평을 임의 만히 엇엇거니와 이졔 ᄯᅩ 그와 ᄀᆞᆺ튼 현금 사름의 실젹으로 화의 혈(花의 血)이라 ᄒᆞ는 쇼셜을 ᄉᆡ로 져슐홀 ᄉᆡ 허언 랑셜은 한 구졀도 긔록지 안이ᄒᆞ고 뎡녕히 잇는 일동 일졍을 일호차착 업시 편즙ᄒᆞ노니 긔자의 지됴가 민쳡지 못홈으로 문쟝의 광치는 황홀치 못홀지언졍 ᄉᆞ실은 젹확ᄒᆞ야 눈으로 그 사름을 보고 귀로 그 ᄉᆞ졍을 듯는 듯ᄒᆞ야 션악간 죡히 밝은 거울이 될만 홀가 ᄒᆞ노라

뎨일회

텬하에 보고 볼소록 어엽분 것은 향긔러온 ᄭᅩᆺ이라 ᄭᅩᆺ이 한 번 퓌면 십년 빅년 쳔년 만년을 니울지도 안코 ᄲᅥ러지지도 안코 고흔 ᄉᆡᆨ틱를 한결ᄀᆞᆺ치 씌우고 잇는 것이 안이라 일년 일도에 츈삼월이 도라오면 낫이며는 볏를 쏘이고 밤이며는 이슬을 밧아 몃 밤 몃 날만에 간신히 퓌인 그ᄭᅩᆺ이라셔 져 잇슬 긔한을 온젼히 잇다가 니울고 ᄲᅥ러짐도 셥셥ᄒᆞ고 원통ᄒᆞ려던 ᄯᅳᆺ밧긔 사나온 바름과 모진 비에 못견딘 바이 되여 열흘 잇슬 것을 일혜나 여들ᄋᆡ에 흔젹이 업셔지면 그 셥셥ᄒᆞ고 원통홈이 더구나 엇더ᄒᆞ며 바름과 비는 텬디 ᄌᆞ연흔 리치로 되는 것이라 누구를 원망홀 슈 업지마는 엇의셔 맛츰 경박흔 ᄋᆞ히가 와셔 ᄉᆞ지고 독흔 손으로 아ᄭᅡ온 쥴을 모르고 졔 욕심을 치오기만 위ᄒᆞ야 한 번 ᄭᅮᆨ 썩거 노으니 슯프다 그 ᄭᅩᆺ이 경각에 빗이 변ᄒᆞ며 향긔가 젹막ᄒᆞ야 지는도다 이 셰상 샤름 즁 츈ᄉᆡᆨ을 앗길쥴 모로는 범샹흔 무리는 그 ᄭᅩᆺ이 퓌여도 퓌엿나 보다 니울고 ᄲᅥ져도 이울고 ᄲᅥ러졋나 보다 누가 썩거도 썩나 보다 ᄒᆞ야 심샹히 보고 심샹히 지나는ᄃᆡ 엇더흔 녀ᄌᆞ 한 아이 썩거진 그 ᄭᅩᆺ가지를 다졍히 집어들고 한업시 가엽시 넉이이며

"에그 앗가워라 언의 몹슬 ᄋᆞ히가 이런 못홀 노릇을 힛슬가 겨우ᄂᆡ 풍셜 즁에 쳔신만고를 다 격다가 봄쳘을 인졔 만나 간신히 퓌힌 너를 ᄉᆞ졍 업시 ᄭᅮᆨ 썩씻구나"

ᄒᆞ며 연흔 눈에 조곰만 더ᄒᆞ면 눈물이 나올 듯 ᄒᆞ다가

"속졀업다"

소리를 구슯흐게 ᄒᆞ고 우두커니 안졋스니 그 녀ᄌᆞ는 젼라남도 쟝셩군 쵀호방이 나이 ᄉᆞ십이 되도록 ᄌᆞ녀간 한낫 혈육이 업셔 ᄆᆡ양 셜워ᄒᆞ더니 그 고을 퇴기츈홍을 작쳡ᄒᆞ야 텬힝으로 ᄯᆞᆯ 형졔를 나엇스니 큰 ᄯᆞᆯ의 일홈은 션초요 젹은 ᄯᆞᆯ의 일홈은 모란이라 모란이는 유치에 어린 ᄋᆞ히라 죡히 의론홀 바ㅣ 업거니와 션초는 십 셰가 넘어 졈졈 쟝셩ᄒᆞ야오니 ᄭᅩᆺ ᄀᆞᆺ흔 얼골과 달 ᄀᆞᆺ흔 ᄐᆡ도가 한 곳도 범연흔 ᄃᆡ가 업는 일ᄉᆡᆨ이러라 ᄌᆞ릭로 젼히오는 말이 죠션 십삼도 즁 젼라도 물ᄉᆡᆨ이 뎨일이오, 젼라남북도 즁 장셩군 물ᄉᆡᆨ이 ᄯᅩ 뎨일인ᄃᆡ 그 고을 ᄇᆡ판 이후로 명긔가 나고 명기가 나도 들도 못되고 ᄉᆞᆨᄉᆞᆨ 한 아식이 련히 계속히셔 나셔 일셰에 훤자ᄒᆞ던 터이라 쵀호방이 션초의 인물을 속졀 업시 버리기가 앗가워셔 그 곳 풍속ᄃᆡ로 십 삼셰에 기안에다 너엇는ᄃᆡ 션초는 ᄶᅡᆨ이 업시 총명령리흔 녀ᄌᆞ라 흔 번 듯고 한 번 본 것을 능통치 못ᄒᆞ는 것이 업셔 글 글시 가무 음률이 교방분ᄃᆡ 즁 뎨일 웃듬이 되니 그 일홈이 원근에 젼파ᄒᆞ

야 언늬 남ᄌᆞ가 션초 한 번 보기를 원ᄒᆞ지 안ᄂᆞᆫ 자ㅣ 업고 한 번 보기 곳ᄒᆞ면 꽃다온 인연을 ᄉᆡᆼ각지 안ᄂᆞᆫ 자ㅣ 업더라 션초가 한나라도 젹어셔ᄂᆞᆫ 동모를 ᄯᅡ라 이런지 뎌런지 모로고 언의 ᄇᆡ반이라 언의 노름에셔 부르ᄂᆞᆫ ᄃᆡ로 됴와셔 가더니 어언간 십 오셰가 됨ᄋᆡ 거울 ᄀᆞᆺ치 ᄆᆞᆰ은 텬셩으로 왼갓 물졍을 모도 짐작ᄒᆞᄂᆞᆫ 터이라 ᄒᆞᆫ 번은 엇더ᄒᆞᆫ 연회에를 갓다가 호탕ᄒᆞᆫ 무리가 셜만히 구ᄂᆞᆫ 양을 보고 슬멋이 분원ᄒᆞᆫ ᄉᆡᆼ각이 드러셔 ᄒᆞᆫ탄ᄒᆞ기를

"나도 사ᄅᆞᆷ인ᄃᆡ 부모의 혈육을 타고나셔 엇지타 이ᄀᆞᆺ치 쳔ᄒᆞᆫ 구덩이에 몸이 써러졋노 그ᄂᆞᆫ이 곳 풍속이 괴악히셔 ᄌᆞ식 나셔 기ᄉᆡᆼ에 박ᄂᆞᆫ 것을 젼례로 넉이ᄂᆞᆫ 터이니 부모의 원망ᄒᆞᆯ 것도 업고 내가 한눈 한팔 병신으로 ᄉᆡᆼ기지 못ᄒᆞᆫ 것만 졀통ᄒᆞ지 그러ᄂᆞ 텰 쥼에도 ᄌᆡᆼᄌᆡᆼ이라고 아모리 기ᄉᆡᆼ이라도 졔 힝실 뎌가질 탓이지 기ᄉᆡᆼ이라고 다 ᄀᆡ즘ᄉᆡᆼ의 힝실을 ᄒᆞᆯ가 광ᄃᆡ타령의 말맛다나 옛날 츈향이ᄂᆞᆫ 남원 기ᄉᆡᆼ으로 헛탄히 몸을 버리지 안이ᄒᆞ고 년긔와 ᄌᆡ질이 뎍당ᄒᆞᆫ 리도령을 맛ᄂᆞ 일부죵ᄉᆞ를 ᄒᆞ얏슴으로 그 아람다온 일홈이 몃 ᄇᆡᆨ년을 썩지 안이ᄒᆞ얏ᄂᆞᆫᄃᆡ 나 역시 팔ㅅᄌᆞ가 긔박ᄒᆞ야 쳔ᄒᆞᆫ 몸은 비록 되엿스나 졀힝이야 남만 못ᄒᆞᆯ 것 잇나"

ᄒᆞ고 그날부터 속에ᄂᆞᆫ 남복을 입고 것헤ᄂᆞᆫ 녀복을 ᄒᆞ야 불의에 창피ᄒᆞᆫ 일을 방비ᄒᆞ고 관찰 군슈이하로 아모리 흠모ᄒᆞ야 슈쳥을 드리고져 히도 쥭기로써 ᄆᆡᆼ셰ᄒᆞ고 텽종치 안이ᄒᆞ니 그 관찰 군슈가 젹이 지각이 잇ᄂᆞᆫ 자들 ᄀᆞᆺ흐면 졔 ᄯᅳᆺ이 가상히셔라도 아모조록 찬셩을 ᄒᆞ야 지조를 온젼히 직히게 ᄒᆞᆯ 터이어ᄂᆞᆯ ᄒᆞᆫ 들이 멀다ᄒᆞ고 펄쩍 갈아오ᄂᆞᆫ 그 관찰 그 군슈가 모도 다 한ᄆᆡ 쌍이라 션초의 인물을 보고 졔각기 침이 업시 욕심을 ᄂᆡ여 만단 ᄀᆡ유도 ᄒᆞ고 ᄇᆡᆨ방위협도 ᄒᆞ나 션초의 작졍은 년귀도 ᄌᆞ긔와 ᄀᆞᆺ고 인물도 ᄌᆞ긔와 ᄀᆞᆺ고 총명도 ᄌᆞ긔와 ᄀᆞᆺ흔 남ᄌᆞ와 꽃다온 인연을 한 번 ᄆᆡ져 검은머리 파ᄲᅮ리 되도록 란봉의 깃드림ᄀᆞᆺ치 금슬지락을 누릴 리라 ᄒᆞ야 아모리 관직이 놉흔 자이ᄂᆞ 긔구가 됴흔 자이ᄂᆞ 의복을 샤치ᄒᆞᆫ 자이라도 일톄로 거졀ᄒᆞ노라니 뎌간에 당ᄒᆞᆫ 단련이야 이로 엇치다 측량ᄒᆞ리오 엇던 ᄌᆞᄂᆞᆫ

"이 ᄋᆡ 션초야 말 드러라 네가 바로 기안에 일홈이 업고 규즁에 깁히 감초아 잇ᄂᆞᆫ터 ᄀᆞᆺ흐면 모로겟다마는 귀왕 화류장에 발을 젹신이샹에 슌샹ᄉᆞㅅ도가 그쳐럼 ᄒᆞ시고 본관ᄉᆞㅅ도가 그쳐럼 ᄒᆞ시는ᄃᆡ 웨 말을 안이 듯고 고집을 ᄒᆞ니 너 ᄀᆞᆺ흔 ᄌᆞ격에 눈 씀썩ᄒᆞ고 한 번만 응락을 ᄒᆞ얏스면 이 도나 이 고을 일판을 쥐엿다 펏다ᄒᆞᆯ 터이니 그 안이 됴흐냐"

엇던 자ᄂᆞᆫ

"여보게 션초씨 자네 ᄉᆡᆼ각이 엇더케 드러 이러케 고집을 ᄒᆞ나 왕후쟝샹(王侯將相)이 씨가 잇다던가 ᄌᆞ네가 ᄉᆞㅅ도 슈쳥 곳 들게 되면 오ᄂᆞᆯ 기ᄉᆡᆼ이 ᄅᆡ일 마마님이 되야 호강도 한 번 느려지게 ᄒᆞ려니와 ᄌᆞ네 속에셔 아ᄃᆞᆯ을 쑥쑥 나으면 그 아ᄃᆞᆯ이 판셔ᄂᆞᆫ 못ᄒᆞ겟ᄂᆞ 졍승은 못ᄒᆞ겟ᄂᆞ 관찰ᄉᆞ 군슈 무엇은 못ᄒᆞ겟ᄂᆞ 그ᄯᅴ 가셔ᄂᆞᆫ 졍경부인이 되야 언졔 기ᄉᆡᆼ 노릇을 ᄒᆞ얏더냐 ᄒᆞᆯ 터인ᄃᆡ 그것을 실타고 말을 안이 듯ᄂᆞᆫ단 말인가"

그 쥼에 션초가 관찰 군슈의 슈쳥 안이 듯ᄂᆞᆫ 것을 히롭지 안이케 넉여 슬멋이 졔 욕심을 치오고져 ᄒᆞᄂᆞᆫ 자ᄂᆞᆫ

"허ㅣ ᄌᆞ네 잘 ᄉᆡᆼ각힛네 관찰 군슈 그네들은 ᄲᅳᆫ구름에 흰ᄆᆡ아지 일톄로 휙 지ᄂᆞ가면 고만인ᄃᆡ 당장에 ᄌᆞ긔 눈 압헤 ᄌᆞ네가 뵈이닛가 아즉 쇼일이나 히보려고 엇져니 엇져니 별별 소리를 다 히가며 슈쳥을 드리려고 ᄒᆞ 것이지 벼슬만 갈녀셔 홀쩍 가보게 씀에나 ᄌᆞ네 ᄉᆡᆼ각을 ᄒᆞᆯ 터인가 두말 말게 내가 ᄌᆞ네 구실을 ᄲᅦ여줄 것이니 우리 둘이 ᄀᆞᆺ치 한 번 살아 보셰"

하로도 몃 샤ᄅᆞᆷ이 문턱이 달토록 드나들며 감언리셜로 ᄉᆞᆯ을 들어 붓ᄂᆞᆫᄃᆡ 션초ᄂᆞᆫ 그리ᄒᆞᆯᄉᆞ록 ᄆᆞᄋᆞᆷ을 더 굿거니 가져 혹 졍ᄉᆡᆨ을 ᄒᆞ야 거졀도 ᄒᆞ고 혹 됴흔 말로 반ᄃᆡ도 ᄒᆞ니 션초가 려염가 규슈로 츈ᄉᆡᆨ을 루셜치 안이ᄒᆞᆫ 터 ᄀᆞᆺ흐면 무리ᄒᆞᆫ 말로 권ᄒᆞᆯ 샤ᄅᆞᆷ도 업슬 것이오 권히

셔 말을 안이 듯더릭도 말ᄒᆞ던 졔나 무안ᄒᆞ지 이샹히 넉일바ㅣ 안이로ᄃᆡ 졔가 교방 츌신으로 사ᄅᆞᆷ마다 가허 썩글만ᄒᆞᆫ 로튜장화가 되야 그 모양으로 말살스럽게 구니 듯고보ᄂᆞᆫ 자ㅣ 모다 큰 변괴나 십어 한 입 걸너 두 입 걸너 그 쇼문이 ᄉᆞ면 각쳐에 안이퍼진 ᄃᆡ가 업ᄂᆞᆫᄃᆡ 말은 갈ᄉᆞ록 보틘다고 젼ᄒᆞᄂᆞᆫ 자의 셩미를 짜어 졈졈 한 마듸식을 보ᄐᆡ여 나죵에ᄂᆞᆫ 셔울셩지 젼파되기를

"젼라남도 쟝셩군에 션초라ᄂᆞᆫ 텬하 일식 기싱 한 아이 낫ᄂᆞᆫᄃᆡ 인물은 양귀비 셔시가 명함을 못드리겟고 ᄌᆡ질은 반쳡여 소소ᄆᆡ가 현신도 못ᄒᆞ겟ᄂᆞᆫᄃᆡ 엇지 ᄆᆞ음이 도고ᄒᆞᆫ지 바로 찬물에 둘 ᄀᆞ히셔 관찰 군슈 이하로 그 경ᄂᆡ 부ᄌᆞ의 ᄌᆞ식들이 언의 누가 침을 안이 숨킬 샤ᄅᆞᆷ이 업스되 ᄎᆞ례로 퇴박을 맛졋다ᄂᆞᆫ 걸 그런ᄃᆡ 말을 드른 즉 아무ᄶᅥ던지 두질방 ᄉᆞ이에 목아지 너은 막버리ㅅ군이라도 졔 눈에 드는 자만 맛나면 ᄇᆡᆨ 년을 ᄀᆞᆺ치 살 작뎡으로 졔집 들창문에 발을 드리고 ᄆᆡ일 몃 ᄇᆡᆨ명식 지나가ᄂᆞᆫ 남ᄌᆞ를 낫낫치 션보기로 죵ᄉᆞ를 ᄒᆞᆫ다ᄂᆞᆫ 걸 아모라도 이목구비나 쏙쏙이 쓰고 낫거던 ᄌᆞ두지족을 훨신 ᄆᆡ만지고 일부러 한 번 나려가 션을 뵈여볼 만 ᄒᆞ더라"

이 소문이 부인 샤회로 도라단니ᄂᆞᆫ 것이 안이라 의례히 둘이 뫼나 셋이 뫼나 남ᄌᆞ춍즁에셔 이약이가 나ᄂᆞᆫᄃᆡ 무론 엇던 남ᄌᆞ총즁이고 리약이 곳 나면

"허어 그것 무던ᄒᆞ고 기싱에도 그런 ᄌᆞ격이 잇더란 말인가 그ᄅᆡ야 ᄒᆞ지 샤ᄅᆞᆷ이 되야 개도야지 모양으로 란잡히 힝동을 ᄒᆞ다가 남의 쇼년 ᄌᆞ뎨를 슈업시 버려쥬고 져ᄉᆡ지 악ᄒᆞᆫ 병이나 엇어 신셰를 맛칠가 허어 그것 긔특ᄒᆞ고"

란봉으로 막된 위인들은

"실업슨 년 졔가 안이 쇱게 졀힝이라ᄂᆞᆫ 것이 다 무엇인고 그럴 터이면 기싱노릇은 웨 히 우리ᄂᆞᆫ 보지ᄂᆞᆫ 못힛지마는 졔 얼골이 응당 반쥬그러ᄒᆞ기에 이 사ᄅᆞᆷ 뎌 사ᄅᆞᆷ이 회가 동ᄒᆞ야 날치ᄂᆞᆫ 것이니 이 놈도 됴ᄎᆞ 뎌 놈도 됴ᄎᆞᄒᆞ야 셰샹 보ᄂᆡᄂᆞᆫ 것이 샹칙이지 되지 못ᄒᆞ게 졔가 그러면 무엇을 히 무졍 셰월에 덧업시 늙어만 지면 엇던 실업의 아ᄃᆞᆯ 놈이 ᄎᆞᄌᆞ갈 터인가"

그 즁에 우악ᄒᆞᆫ 자ᄂᆞᆫ

"쥬져넘은 년 졔 어미도 기싱으로 ᄆᆡ인 열지 ᄒᆞ던 것이라ᄂᆞᆫᄃᆡ ᄀᆞ쟝 졔가 졘체ᄒᆞ고 그리면 졔집 대문에 졍문을 셰워볼 줄 아ᄂᆞ 그런 년이 욕심은 더 앙큼ᄒᆞ게 잇셔셔 외양으로 ᄀᆞ쟝 고결ᄒᆞᆫ 톄 ᄒᆞ고 은근히 별별일이 다 만흔 법이지 관찰 군슈로 잇ᄂᆞᆫ 분네들이 모다 다 쏭물에 튀ᄒᆞᆫ 인물들이기에 그럿치 젹이 손아귀가 싹싹ᄒᆞ고 보면 졔ᄉᆡ진 년이 엇의 가셔 그런 버르장이를 홀쑤 당쟝 흔ᄊᆡ임을 ᄒᆞ야 다시 그런 버르장이를 못ᄒᆞ게ᄒᆞ얏스면 다른 기싱에게ᄉᆡ지 본모기가 되지"

그런 말을 아모라도 ᄒᆞᆫᄊᆡ 우슴거리로 듯고말 터인ᄃᆡ 그 즁에 나히 ᄉᆞ십이나 되고 얼굴이 검푸르고 슈염이 만토 젹도 안코 키ᄂᆞᆫ 즁ㅅ길은 되ᄂᆞᆫ 사ᄅᆞᆷ 한 아히 눈을깜작깜작ᄒᆞ고 가커니 부커니 아모말 업시 감안히 안져 드르며 손에 든 합쥭션을 펏다 졉엇다 ᄒᆞ다가 ᄀᆞ장 범연스러온 쳬 ᄒᆞ고

"에 이 사ᄅᆞᆷ들 샹스러온 소리 고만두게 졈자ᄂᆞᆫ 샤랑에셔 외하방 기싱년의 이약이ᄂᆞᆫ 응 창피스러워 졔가 잘나면 얼마나 잘낫겟스며 셜혹 잘낫기로 무엇을 그리 ᄊᆡ든단 말인구"

좌셕에 맛츰 젼라남도 친구가 안졋다가

"로형말슴이 당연ᄒᆞ기ᄂᆞᆫ ᄒᆞ오마는 나도 금년 이월에 쟝셩읍에를 갓다가 션초를 얼풋 보닛가 과연 싱기기ᄂᆞᆫ 쎡 도뎌ᄒᆞ게 싱겟셔요 쳐음에야 션초의 소문만 드럿지 자셰 알앗소마는 졔집이 바로 삼문 압인고로 하로도 몃 번식 드나드ᄂᆞᆫ 것을 보고 짐작ᄒᆞ얏지오"

ᄃᆡ범ᄒᆞᆫ 톄 ᄒᆞ던 자ᄂᆞᆫ 리도ᄉᆞ라 ᄒᆞᄂᆞᆫ 자인ᄃᆡ 평일 력ᄉᆞ를 ᄃᆡ강 말ᄒᆞ자면 속담에 만셕즁이 일반이라 션ᄇᆡ ᄊᆡ부터 량반은 ᄌᆞ긔 한아ᄲᅮᆫ인 쳬 언변도 ᄌᆞ긔 한아ᄲᅮᆫ인 톄 지혜도 ᄌᆞ긔 한아ᄲᅮᆫ인 쳬 그 즁에 엉큼ᄒᆞᆫ 욕심은 드러안져셔 언의 산림에게 집지를 ᄒᆞ야 학힝도 ᄌᆞ긔 한아ᄲᅮᆫ

인체 부모덕에 글ㅅ즈는 ᄇᆡ와셔 문쟝도 즈긔 한아ᄲᅮᆫ인체 ᄒᆞ다가 셔울로 쑥 을나와셔 은근히 셰력이 잇는 지샹의 집에를 츌입ᄒᆞ야 쳐음에 지랑초ᄉᆞ로 나죵에 도ᄉᆞ츌륙을 흔분네인ᄃᆡ 션쳔품부를 슌양덩이로 타고나셔 호ᄉᆡᆨ은 한바리에 실을 사ᄅᆞᆷ이 업슴으로 남모르게는 별별 긔괴망측ᄒᆞᆫ 힝동을 모다 ᄒᆞ면셔 외식으로는 셰샹에 졍남은 역시 즈긔 한아ᄲᅮᆫ인체 ᄒᆞ야 로샹에셔 지나가는 녀인을 보면 거짓말 보ᄐᆡ여 십리식은 피히 가고 좌샹에셔 계집의 언론이 나면 능청스럽게 기리 칙지를 일슈 잘 ᄒᆞ더니 급기 션초의 션셩을 드른 후로 몃칠 밤을 잠을 잘 못자며 스ᄉᆞ로 궁리ᄒᆞ기를

"션초가 참 일ᄉᆡᆨ인 모양인ᄃᆡ 엇더케 ᄒᆞ면 한번 볼구 보기야 ᄅᆡ일이라도 쟝셩만 나려 갓스면 어렵지 안이ᄒᆞ지마는 힝ᄉᆡᆨ을 그 모양으로 초솔ᄒᆞ게 나려가면 관찰 군슈의 슈쳥도 안이든다는 계집이 내 말 드를 리가 뎡녕업슬 ᄲᅮᆫ더러 평일에 내 힝셰를 그러케 낫게ᄒᆞᆫ 터가 안인ᄃᆡ 남들이 비쇼ᄒᆞ기가 쳡경 쉬울 터이니 무슨 방법을 ᄒᆞ얏스면 내 힝셰도 손샹치 안이ᄒᆞ고 한번 쳐결을 ᄒᆞ야불고 응 못싱긴 ᄌᆞ식들 그 곳 관찰ᄉᆞ 군슈로 잇셔셔야 당쟝 기싱으로 잇는 것을 일호령에 슈쳥을 못드리고 무류히 물너안져 응 못싱긴 것 내가 그쳐디로 잇게되면 시각을 넘기지 안코 졔가 ᄌᆞ원ᄒᆞ야 슈쳥 들게 못ᄒᆞᆯ가 그러ᄂᆞ 그는 다 쓸ᄃᆡ업는 말이고 엇더케 ᄒᆞ면 묘리잇게 내 소원셩취를 ᄒᆞ야볼구"

이쳐럼 젼젼반칙ᄒᆞ다가 한 가지 무슨 싱각을 ᄒᆞ고 흔ᄌᆞ말로

"쏙 그러케 힛스면 령락업시 되겟구면 무슨 빙ᄌᆞᄒᆞᆯ 말이 잇셔야지"

그리자 엇더ᄒᆞᆫ 손님이 문밧긔 와 ᄎᆞᄌᆞ닛가 분쥬히 나가보더니 반가히 인ᄉᆞ를 ᄒᆞ며

"ᄌᆞ네 언졔 올나왓나 ᄃᆡ쇼틱ᄂᆡ가 다 일안들 ᄒᆞ신가"

그손이 한숨을 휘ㅣ 쉬며

(손) "시싱의 집은 이동안 아조 결단을 당힛슴니다"

(리) "그게 무슨 말인가 엇지ᄒᆞ다가 응"

(손) "근일에 츙쳥남북도는 동학으로 히셔 아조 말안인즁 목쳔은 더욱 우심ᄒᆞ아 시싱의 ᄃᆡ쇼가가 모다 폭화를 당힛슴니다"

(리) "ᄃᆡ쇼가라니 ᄌᆞ네 삼죵씨ᄃᆡ도 그 풍파를 당ᄒᆞ셧단 말인가"

(손) "풍파를 당ᄒᆞᆯ 여부가 잇슴닛가 시싱은 이러케 도망이나 ᄒᆞ야 셔울로나 왓슴니다마는 산죵씨ᄭᅴ셔는 그쟈들에게 잡혀가셧는ᄃᆡ 엇지 되엿는지 하회를 알 슈 업슴니다"

(리) "허허 그것 말되엿ᄂᆞ 자네 삼죵씨는 장뎡이닛가 잡혀갓더ᄅᆡ도 여간 고싱은 좀 ᄒᆞ겟지마는 셜마 무슨 일이 이겟ᄂᆞ마는 ᄌᆞ네 지죵슉모ᄭᅴ셔 팔십당년에 오작 놀ᄂᆞ셧겟ᄂᆞ"

리도ᄉᆞ가 그 사ᄅᆞᆷ을 작별ᄒᆞ야 보ᄂᆡ고 남은 란리를 맛ᄂᆞ ᄃᆡ소가가 결단이 ᄂᆞ셔 황황망조히 지ᄂᆡ는ᄃᆡ 자긔는 무엇이 그리 됴흔 일이 싱겻는지 얼골에 희ᄉᆡᆨ을 가득이 ᄯᅴ고 혼ᄌᆞ 빙글빙글 우스며 분분히 웃옷을 ᄂᆡ여 닙고 남문안 창골근쳐로 쏜살ᄀᆞᆺ치 가더니 몃 시간 후에 다시 락동등디로 분분히 가더라 그날브터 창ㅅ골락동을 풀방구리에 쥐드나들 듯 활동을 ᄒᆞ더니 삼남시찰ᄉᆞ 한 아히 ᄉᆡ로 낫는ᄃᆡ 그 관보가 도라다니닛가 이사랑 져사랑에셔 공론들이 분운ᄒᆞ다

"어ㅣ시찰이 ᄉᆡ로 낫네 으응 시찰이 낫셔 누가 힛단 말인가 오날 관보를 보닛가 리도ᄉᆞ가 ᄒᆞ얏습듸다 허허 그야말로 만장공도로 구면 그ᄉᆞᄅᆞᆷ이 학힝이 잇고 무식지 안인 터이닛가 시찰을 ᄆᆡ오 잘 ᄒᆞᆯ 걸 그는 필경 평일 명여로 공쳔이 되엿겟지 아모렴 그럿치 졈잔는 터에 그가 ᄌᆞ구야 힛겟소 고지식ᄒᆞ닛가 가기나 ᄒᆞᆯ는지 알 슈도 업소"

한 ᄉᆞᄅᆞᆷ이 그겻헤 드러누어 잠을 자다가 별덕 니러 안즈며

"이 ᄉᆞᄅᆞᆷ들 자지도 안으며 잠고ᄃᆡ를 ᄒᆞ고 안졋ᄂᆞ 그 ᄉᆞᄅᆞᆷ이 시찰을 웨 안이가 안이갈 ᄉᆞᄅᆞᆷ이 목에 침이 말ᄂᆞ 도라단이며 버러슬가"

몬져 말ᄒᆞ던 ᄉᆞᄅᆞᆷ들이 일시에

"이 ᄉᆞ롬 남을 그러케 할경ᄒᆞ야 말을 말게 그가 열번쥭기로 벼살 벌너 단엿겟ᄂᆞ"

자다가 니러ᄂᆞᆫ ᄉᆞ롬이 화를 버럭 ᄂᆡ며

"이ᄉᆞ롬들 ᄂᆡ가 억하 심장으로 남의 업ᄂᆞᆫ 말을 홀가 ᄌᆞ네네 알다십히 나ᄂᆞᆫ 가빈친로(家貧親老)ᄒᆞ야 구ᄉᆞ를 ᄒᆞᄂᆞᆫ 터이기로 ᄆᆡ일 남북촌 모모 ᄌᆡ상의 집을 한 ᄎᆞ례식은 의례히 도라단이ᄂᆞᆫᄃᆡ 그가 신씨와ᄂᆞᆫ 계분이 ᄃᆡ단ᄒᆞ더군 신ᄃᆡ신 신장신 두집에셔ᄂᆞᆫ 엇의날 못볼 날이 업ᄂᆞᆫᄃᆡ 이번 시찰운동 ᄒᆞ노라고 ᄋᆡ를 무진 쓰던ᄃᆡ 그릭"

그 ᄉᆞ롬의 말이 일호도 허언이 안이라 리도ᄉᆞ의 됴흔 구변으로 신ᄃᆡ신 신장신을 북나들듯 가보고 그회를 보아가며 시찰을 긋치ᄂᆞᆫᄃᆡ 썩 의ᄉᆞ도스럽고 간교도 ᄒᆞ더라 신ᄃᆡ신을 가보고

(리) "ᄃᆡ감씌옵셔 묘당에 계신 터에 어련ᄒᆞ시겟슴닛가마는 요ᄉᆞ이 디방쇼문을 드르닛가 하로밧비 진졍 안이ᄒᆞ오면 인민이 무여디ᄒᆞ게 어륙이 되겟슴니다"

(신ᄃᆡ신) "글셰 삼남에ᄂᆞᆫ 소위 동학당의 횡힝이 ᄃᆡ단ᄒᆞ다ᄂᆞᆫ 걸 그러치마는 그ᄉᆡᆺ짓 오합지즁을 무슨 심려ᄒᆞᆯ 것이 잇나 진위ᄃᆡ 몃초만 풀어보닛스면 몃 칠 안이가셔 다 쇼멸ᄒᆞᆯ 것일셰"

리도ᄉᆞ가 ᄭᅩᆼᄎᆞ려ᄂᆞᆫ 보릭ᄆᆡ 모양으로 두 억ᄀᆡ를 밧삭 모고 신ᄃᆡ신 압흐로 갓가히 닥아 안즈며

(리) "ᄃᆡ감이게 무슨 망녕의 말슴이오닛가 그 빅셩이 무슨 죄가 잇길ᄂᆡ 병뎡을 풀어 뭇질느러 드심닛가"

(신) "그 빅셩이 죄가 업다니 총귀에셔 물이 나ᄂᆞ니 도ᄉᆞ리고 안져 공즁에를 올ᄂᆞ가ᄂᆞ니 ᄒᆞᄂᆞᆫ 혀탄ᄒᆞᆫ 말을 쥬출ᄒᆞ야 ᄉᆞ면 도라단이며 륵도 도식이고 빗바지 굴총ᄒᆞ기 심지어 부녀 ᄌᆡ산을 함부루 탈취ᄒᆞᆫ다ᄂᆞᆫᄃᆡ 엇지히셔 무죄ᄒᆞ다고 ᄒᆞ오"

(리) "허허 ᄃᆡ감씌셔 그러케 통쵹ᄒᆞ시기가 용흑무괴올시다마는 그 빅셩 그 디경된 원인을 말슴ᄒᆞ고 보면 뎌의들은 아모 죄도 업다고 히도 과ᄒᆞᆫ 말슴이 안이올시다"

(신) "엇지히셔 그럿탄 말이오"

(리) "자고 이릭로 빅셩은 물과 일반이라 동으로 터노으면 동으로 흐르고 셔으로 터노으면 셔으로 흐르고 막히면 격동ᄒᆞ고 슌ᄒᆞ면 나려가ᄂᆞᆫ 것이온ᄃᆡ 근일에 각도 디방관을 ᄐᆡᆨ차를 못ᄒᆞᆫ 탓으로 젹ᄌᆞ갓흔 빅셩을 ᄉᆞ랑ᄒᆞᆯ 줄은 모르고 기름과 피를 글금ᄋᆡ 일반 인민이 억울ᄒᆞ고 원통ᄒᆞᆷ을 참다못ᄒᆞ야 악이 ᄂᆞ셔 이리히도 죽고 뎌리히도 죽기ᄂᆞᆫ 일반이라 ᄒᆞ고 범죄를 ᄒᆞᆫ 것이오니 그 안이 불상ᄒᆞᆫ 무리오닛가"

(신) "그 폐단도 업지ᄂᆞᆫ 아니ᄒᆞ겟지마는 셜마 디방관들이 모다 불치야 되릿가"

(리) "아무렴 그럽지오 닭에 무리에도 학이 잇다ᄒᆞᄋᆞᆸᄂᆞᆫᄃᆡ 불치들ᄒᆞᄂᆞᆫ 즁에도 잇다금 션치가 잇기ᄂᆞᆫ ᄒᆞ겟지오마는 큰 집 쓰러지ᄂᆞᆫᄃᆡ 한 나무로 벗틔지 못ᄒᆞᆷ(大廈將傾非一木可支)은 확연ᄒᆞᆫ 리치가 아니오닛가"

(신) "그러면 엇터케 힛스면 됴켓소"

(리) "시싱의 쳔견에ᄂᆞᆫ 공직ᄒᆞ고 무식지 안코 민졍을 알만ᄒᆞᆫ ᄌᆞ격을 ᄐᆡᆨ차ᄒᆞ야 삼남도시찰을 ᄂᆡ여 암힝으로 각군에를 슌회ᄒᆞ며 디방관의 치젹의 션부를 낫낫치 시찰ᄒᆞᆫ 후 션치자ᄂᆞᆫ 포쟝을 ᄒᆞ고 불치자ᄂᆞᆫ 징계를 ᄒᆞ며 일변으로 빅셩을 안무ᄒᆞ야 귀슌안도케ᄒᆞ오면 불과 얼마 안이되야 삼남각쳐에 격양가가 니러ᄂᆞᆯ 줄로 ᄭᅩᆨ 밋슴니다"

신ᄃᆡ신이 그 말을 듯고 한참 연구ᄒᆞ더니 리도ᄉᆞ의 말을 십분 유리ᄒᆞ게 듯고

(신) "로형은 가위 경셰지ᄌᆡ(經世之才)시오 그 말이 ᄭᅩᆨ 그러ᄒᆞ겟소 릭일이라도 시찰 보ᄂᆡᆯ 일을 탑젼에 알외면 쳐분을 무를 듯 ᄒᆞ오마는 그 소임을 감당ᄒᆞᆯ 만ᄒᆞᆫ ᄌᆞ격이 얼픗 엇의 잇셔야 안이ᄒᆞ오"

(리) "만ᄉᆞ구비에 지흠동남풍(萬事具備 只欠東南風)으로 뎨일 ᄉᆞ롬이 업스니 그 일이 어려올 듯 흠니다"

신ᄃᆡ신이 리도ᄉᆞ를 물ㅅ그름히 건너다 보더니

(신) "불필타구ㅣ요구려 로형이 그 ᄉᆞ무를 담당ᄒᆞ야 보면 엇더ᄒᆞ겟소"

(리) "쳔만 의외 말ᄉᆞᆷ이올시다 시ᄉᆡᆼ이 ᄌᆞ격도 부죡ᄒᆞᄋᆞᆸ고 여러 가지 충졀이 잇셔 못되겟슴니다"

(신) "ᄌᆞ격은 족부족 간에 나의 짐작이 다 잇스닛가 다시 겸샤ᄒᆞᆯ 것도 업소마는 충졀은 무엇이 그리 여러 가지가 잇단 말이오 여보 로형이 독션기신(獨善其身)만 ᄒᆞ면 소용이 무엇이오 이런 ᄯᅴ를 당ᄒᆞ야 나라일을 한 번 히 봅시다 그려"

(리) "ᄃᆡ감ᄭᅴ셔 이쳐럼 루루히 말ᄉᆞᆷᄒᆞ시ᄂᆞᆫᄃᆡ 졔 몸이 무엇이 그리 ᄃᆡ단ᄒᆞ다고 죵ᄅᆡ 거집을 ᄒᆞ오릿가마는 물너가 졔 역시 형편을 ᄉᆡᆼ각ᄒᆞ야 보ᄋᆞᆸ고 ᄅᆡ일 다시 낫자와 좌우간 말ᄉᆞᆷ을 엿즙겟슴니다"

(신) "그리ᄒᆞ시오 아모조록 나라일을 한 번 히봅시다"

리도ᄉᆞ가 그 길로 신장신을 가보고 신ᄃᆡ신과 ᄒᆞ던 말과 일반으로 슈작을 한춤ᄒᆞ야 ᄌᆞ긔를 쳔거ᄒᆞ야 ᄂᆡ셰려고 ᄒᆞ도록 ᄒᆞᆫ 후 여젼히 ᄌᆡ심ᄉᆞ양ᄒᆞ다가 ᄅᆡ일 또 와 고ᄒᆞᆷ아 ᄒᆞ고 ᄌᆞ긔 집으로 도라왓다가 그 잇흔 날 다시 신ᄃᆡ신 신장ᄉᆡ을 ᄎᆞ례로 가보고 쳥산류슈ᄀᆞᆺ치 됴흔 구변으로 ᄌᆞ긔일을 칠월의 굿은 박모양으로 단단히 굿친다

(신) "그ᄅᆡ 밤동안에 연구를 만히 히보앗소"

(리) "아모리ᄉᆡᆼ각ᄒᆞ야 보아도 도뎌히 될 슈가 업슴니다"

신ᄃᆡ신이 좌우손이ᄂᆞ 일흔 듯이

(신) "그게 무슨 말이오 되지 못ᄒᆞᆯ 말을 ᄒᆞ시오 ᄂᆡ가 그 리유를 드려보아셔 웬만 곳ᄒᆞ면 변통을 히셔 되도록 히보겟소"

(리) "ᄃᆡ감ᄭᅴ셔 시ᄉᆡᆼ으로 시찰을 임명ᄒᆞ시려기ᄂᆞᆫ 디방힝뎡의 션악을 포장ᄒᆞ며 혹 징집ᄒᆞ야 인민의 마음을 편안ᄒᆞ도록 ᄒᆞ시ᄂᆞᆫ 일이 안이오닛가"

(신) "아모렴 그럿치"

(리) "그러ᄒᆞ오면 시ᄉᆡᆼ에게 ᄃᆡ감의 워엄을 빌니시고 권한을 엇의ᄉᆡ지 허락ᄒᆞ야 주시겟슴닛가"

(신) "모도다 샹의에 잇ᄂᆞᆫ바인즉 ᄂᆡ가 미리 말ᄒᆞ기ᄂᆞᆫ 어렵소마는 즁대ᄒᆞᆫ ᄉᆞ무를 쓰러맛기ᄂᆞᆫ 이상에 권한을 쥬지 안이ᄒᆞ며 나 역시 모로ᄂᆞᆫ 톄 ᄒᆞ릿가 그러나 권한이라ᄂᆞᆫ 것은 한량이 업슨즉 엇더케ᄒᆞ얏스면 넉넉히 ᄉᆞ무를 진힝ᄒᆞᆯ가요"

(리) "권한이 별것이오닛가 단슌ᄒᆞ게 시찰만 보ᄂᆡ오면 넘오 초솔ᄒᆞᆯ ᄲᅮᆫ안이오라 시ᄉᆡᆼ의 혼ᄌᆞ힘으로 위엄이 셔지 못ᄒᆞᆯ 터이오니 ᄃᆡ감ᄭᅴ셔ᄂᆞᆫ 안렴ㅅ마 되시고 락동ᄃᆡ감은 슌무ᄉᆞ가 되시고 시ᄉᆡᆼ은 시찰을 ᄉᆡ이시면 두 ᄃᆡ감의 명령을 밧드러 힘것 일을 ᄒᆞ야 보오리다"

(신) "허허 락동ᄃᆡ감은 슌무ᄉᆞ ᄌᆞ격이 되시지마는 ᄂᆡ야 안렴ᄉᆞ ᄌᆞ격이 되ᄂᆞ 그것은 엇지 되얏던지 그 외에ᄂᆞᆫ 다른 말ᄉᆞᆷᄒᆞᆯ 것은 업쇼 ᄉᆡᆼ각ᄒᆞᆫ 바이 잇거던 아조 지금 셜명을 ᄒᆞ오"

(리) "그외에 말ᄉᆞᆷᄒᆞ올 것은 이왕 암힝어ᄉᆞ 일반으로 마ᄑᆡ를 나리셔 션참후계ᄒᆞᄂᆞᆫ 권한을 ᄉᆞ용케 ᄒᆞ여 쥬셔야 치젹이잇ᄂᆞᆫ 슈령은 당장 포계를 ᄒᆞ고 탐관오리ᄂᆞᆫ 모조리 봉고를 ᄒᆞ야 일반 민심이 샹쾌ᄒᆞ도록 ᄒᆞ여야 젹년 싸여 오던 원긔가 풀어질 터이올시다"

(신) "글셰……일은 그러ᄒᆞ오마는 용이ᄒᆞᆯ 듯십지 안이ᄒᆞ오 그러ᄂᆞ 모ᄉᆞᄂᆞᆫ ᄌᆡ인(謀事在人)이라니 운동을 ᄒᆞ야보기ᄂᆞ 합시다"

뎨이회

두 신씨의 굉장ᄒᆞᆫ 운동으로 리도ᄉᆞ 욕심것 셩ᄉᆞ가 되야 관보에 셩명이 게ᄌᆡ되니 즉시 치힝을 ᄒᆞ야 삼남으로 나려가ᄂᆞᆫᄃᆡ 그 힝ᄉᆡᆨ을 언론ᄒᆞ면 즁도 안이오 속한이도 안이러라 마ᄑᆡ를 가졋스니 넷날 어ᄉᆞ 일반이라 아모조록 폐포파립으로 려항에 암힝ᄒᆞ야 민졍감고를 탐문ᄒᆞ여야 ᄒᆞᆯ 터인ᄃᆡ 신교바탕도 못타보던 위인이 별안간에 그다지 귀히졋ᄂᆞᆫ지 됴흔 ᄉᆞ인교에 두셰ᄑᆡ를 지르고 건장ᄒᆞᆫ 구죵을 압뒤에다 느런히 셰웟스며 자리ㅅ보 요강 퇴침타구와 모든 긔구를 썩 굉장케 찰여가지고

"시찰 나려간다"

로문을 놋타십히 뒤써들며 나려가니 이고을 뎌고을 슈령들이 각기 리시찰의 션셩을 듯고 닷호아 영졉ᄒᆞ야 칙ᄉᆞ딕졉이나 다름업더라 리시찰이 마음 ᄂᆡ키ᄂᆞᆫ ᄃᆡ로 ᄒᆞ면 바로 젼라남도로 나려갈 터이오 젼나남도로 나려가도 바로 장셩읍으로 갈 터이지마는 감안히 ᄉᆡᆼ각ᄒᆞ야본즉

"이번 시찰을 벌어 ᄂᆞ려가기ᄂᆞᆫ 소관이 ᄒᆞ사(所關何事)리오마는 아모일도 ᄒᆞᆫ 것 업시 기ᄉᆡᆼ작쳡부터 힛다면 텽문이 ᄉᆞᄂᆞ와 명여에 관계가 되겟고 또ᄂᆞᆫ 셰상일이 ᄂᆡ 실속부터 ᄒᆞᄂᆞᆫ 것이 가ᄒᆞᆫ 즉 돈부터 넉넉히 벌어노코 보겟다"

ᄒᆞ고 몬젼 츙쳥도로 ᄂᆞ려셧ᄂᆞᆫᄃᆡ 각읍 션치슈령은 아모리 ᄌᆞ긔를 ᄒᆡᆼᄃᆡᄒᆞ야 당장 결단ᄂᆡ고십으나 무엇이라 트집잡을 거리가 업고 불치슈령은 닷호아 은근히 무릅흘 괴여쥬며 가진 쳠을 다ᄒᆞ닛가.

ᄉᆞ셰 부득이 눈을 감아 도쳐마다 포계를 ᄒᆞ야쥬니 그 시찰 보ᄂᆡᆫ 것이 효험만 업슬 ᄲᅮᆫ 안이라 도로혀 민심이 더욱 불울ᄒᆞ야 폭도가 ᄉᆞ면에셔 불이러나듯 ᄒᆞᄂᆞᆫ지라.

"리시찰이 료량에 ᄂᆡ가 산ᄃᆡ신 신쟝신 압헤셔ᄂᆞᆫ 폭도의 치셩ᄒᆞᄂᆞᆫ 것이 젼혀 디방의 죄라 ᄒᆞ고 시찰을 식여쥬도록 ᄒᆞ엿지마는 군슈들은 렴치 소ᄌᆡ에 한아 파직장계ᄒᆞᆯ ᄉᆞ름이 업고 폭도ᄂᆞᆫ 뎌 모양으로 뎜뎜 더 치셩ᄒᆞ니 이 일을 엇지ᄒᆞ면 됴흔가. 아모 셩젹 업ᄂᆞᆫ 소문이 셔울에 올ᄂᆞ가기 곳ᄒᆞ면 오직 ᄂᆞ를 미타히 녁일ᄂᆞ구. 모로 가ᄂᆞ 바로 가ᄂᆞ 셔울만 갓스면 고만이라고 아모로케 ᄒᆞ던지 폭도만 업싯스면 고만이지 다른 일이야 누가 알 실업의 아ᄃᆞᆯ 놈 잇ᄂᆞ냐"

ᄒᆞ고 신ᄃᆡ신 ᄂᆞ려오기를 기ᄃᆡ려 비밀히 의견진슐ᄒᆞᄂᆞᆫ 말이

"하관이 이번 길에 우으로 셩샹홍덕과 그 다음 두분 ᄃᆡ감 위엄을 밧드와 도쳐마다 진심것 셜유ᄒᆞ온 즉 일톄 슈령들이 모다 졍신을 가다듬어 졍치를 쇄신ᄒᆞ올 ᄲᅮᆫ 안이라 본ᄅᆡ 량민으로 위협을 못니긔여 폭도에 참여ᄒᆞ엿던 무리ᄂᆞᆫ ᄎᆞ례로 귀슌ᄒᆞᄂᆞᆫ 즁이올시다."

(신) "허허 나라에 만힝ᄒᆞᆫ 일이오. 아모려ᄂᆞ 로형이 큰 훈로를 셰우셧소."

(리) "망녕의 말ᄉᆞᆷ도 ᄒᆞ심니다. 하관도 신민한 분ᄌᆞ가 되여서 져 ᄒᆞᆯ 도리 져 ᄒᆞᄋᆞᆸᄂᆞᆫ 것이지 훈로가 다 무엇이오닛가. 그러ᄒᆞ오ᄂᆞ 풀을 베면 ᄲᅮ리를 업ᄉᆡ라ᄂᆞᆫ 일톄로 협죵등은 귀화케 ᄒᆞᄋᆞᆸ기가 여반장이오ᄂᆞ 한 가지 큰 화근이 잇슴니다."

신ᄃᆡ신의 둥그런 눈이 더둥그ᄅᆡ 지며

(신) "화근이라니 무슨 화근이 잇단 말이오."

(리) "화근이 별것이 안이오라 하관이 셔울셔 료량ᄒᆞᄋᆞᆸ기ᄂᆞᆫ 아모던지 모조리 귀화케 ᄒᆞ야 한 명도 참혹히 쥭임이 업도록 ᄒᆞ리라 ᄒᆞ야습더니 급기 ᄂᆞ려와 목격ᄒᆞ온 즉 본ᄅᆡ 부랑픽류로 업을 일코 도당을 쇼취ᄒᆞ야 려항에 도라단이며 강도질로 ᄉᆡᆼ활ᄒᆞ던 무리가 동학 니러ᄂᆞᄂᆞᆫ 것을 됴흔 긔회로 리용을 ᄒᆞ야 폭힝이 더욱 심ᄒᆞ와 불너도 오지 안코 쏫ᄎᆞ도 혜여지지를 안이ᄒᆞ오니 그 무리ᄂᆞᆫ 가위 화외의 물건이라 셜혹 오날 간뎡되야 디방이 안온 ᄒᆞᆯ지라도 몃날이 못가셔 그 무리가 필경 또 량민을 션동ᄒᆞ야 디방을 여젼히 소란케ᄒᆞᆯ 터이온 즉 시ᄉᆡᆼ의 쇼견에ᄂᆞᆫ 악착ᄒᆞ기ᄂᆞᆫ ᄒᆞ오ᄂᆞ 디방ᄃᆡ 몃초를 풀어 그 무리를 일망타진ᄒᆞ야 죵쳐에 츄뇽을 배혀버려 셩ᄒᆞᆫ 살에 젼염치 못ᄒᆞ게 ᄒᆞ듯 ᄒᆞ얏사오면 깁흔 후려가 업슬 듯 ᄒᆞ오이다."

(신) "그ᄂᆞᆫ 로형이 형편을 보아가며 ᄌᆞ단ᄒᆞ야 ᄒᆞᆯ 일이지 ᄂᆞ다려 무러볼 것이 무엇 잇단 말이오."

신ᄃᆡ신의 말이 그 모양으로 써러지니 리시찰이 즉시 각진위ᄃᆡ에 통쳡ᄒᆞ야 병뎡을 다 슈히 풀어 원범협죵을 물론ᄒᆞ고 동학에 간련 곳 잇다ᄒᆞ면 다시 됴사ᄒᆞᆯ 여부업시 모조리 잡아 죽이ᄂᆞᆫᄃᆡ 열이면 아홉이나 여돏은 ᄋᆡᄆᆡ히 참혹ᄒᆞᆫ 디경을 당ᄒᆞ니 그 원억ᄒᆞᆫ 긔운이 구쇼에 ᄉᆞ모치ᄂᆞᆫ 즁 뎨일 악착ᄒᆞ고 말살시럽기ᄂᆞᆫ 목쳔 임씨의 집 일이라. 임씨라 ᄒᆞᄂᆞᆫ ᄉᆞ름은 본ᄅᆡ 리시찰과 한동리에셔 죽마고교로 자라ᄂᆞ셔 여형약

졔(如兄若弟)ᄒᆞ게 졍의가 두터올 ᄲᅮᆫ 안이라 임씨의 집은 젹이 조슈족을 홀만 ᄒᆞ고 리시찰의 집은 극히 빈한ᄒᆞᆫ 탓으로 임씨의 어머니가 리시찰을 자긔 쇼싱 아ᄃᆞᆯ이ᄂᆞ 다름 업시 ᄇᆡ가 곱하ᄒᆞ면 음식도 것어 먹이고 헐버셔 치워ᄒᆞ면 의복도 쥬어 닙히니 어린 아히ᄂᆞᆫ 괴이ᄂᆞᆫ 곳으로 간다고 리시찰이 자긔 집은 남의 집 보듯 ᄒᆞ야도 임씨의 집은 자긔 집보다 더 녁여 머리도 종종 임씨 어머니 손에 빗고 잠도 임씨 어머니 품에셔 자며 자라ᄂᆞᆫ 터이라 쳘 모ᄅᆞᆯ 쎡에ᄂᆞᆫ 순연ᄒᆞᆫ 텬진이라 조곰도 식사 업시 임씨 어머니에게 ᄃᆡᄒᆞ야 ᄆᆡ양ᄒᆞᄂᆞᆫ 말이

"졔가 쟈라셔 이 다음에 잘 되게 되면 아모 걱졍 업시 부ᄌᆞ로 잘 살게 히드릴 터이야요."

임씨 어머니가 어린 ᄋᆞ히 말이남아 긔특ᄒᆞ야

"오냐. 여북 됴흐랴. 나야 잘 살게 ᄒᆞ던지 말던지 네나 아모조록 귀히만 되여라."

그ᄯᅢ에ᄂᆞᆫ 그 말을 일시 우슴거리로 지내고 말ᄒᆞ얏더니 리시찰이 셔울 올나가 벼슬을 ᄒᆞᆫ다 ᄒᆞ닛가 임씨 어머니ᄂᆞᆫ ᄌᆞ긔 ᄌᆞ질이 공명ᄒᆞᄂᆞᆫ 이에셔 조곰도 못지 안케 깃겁게 넉여셔 그 아ᄃᆞᆯ다려

"이 ᄋᆡ 아모가 벼살 힛다ᄂᆞᆫ고나 넘오나 고맙다. 우리가 졈졈 이러케 못살게 되니 안이날 ᄉᆡᆼ각이 업고ᄂᆞ 아모가 어릴 쎡에 항상 말ᄒᆞ기를 졔가 잘 되면 우리를 도아쥬겟다 ᄒᆞ얏스니 셜마 아조 모로ᄂᆞᆫ 톄 홀라가 잇겟ᄂᆞ냐."

이 모양으로 리시찰 잘되ᄂᆞᆫ 것을 쥬야옹망ᄒᆞ던 터인ᄃᆡ 그리ᄒᆞ쟈 동학이 각쳐에셔 별니러나듯 ᄒᆞ야 무죄량민을 모조리 잡아다가 륵도를 식이ᄂᆞᆫ 통에 임씨도 불힝히 잡혀가 웨협을 못니긔여 입도ᄒᆞ얏ᄂᆞᆫᄃᆡ 진위ᄃᆡ가 각 방면으로 습격ᄒᆞᄂᆞᆫ 통에 임씨가 요힝으로 도망ᄒᆞ얏다가 풍편에 소문을 드른 즉 ᄌᆞ긔와 ᄀᆞᆺ치 자라던 리아모가 이번에 시찰로 나려왓다 ᄒᆞᄂᆞᆫ지라 혼ᄌᆞ ᄉᆡᆼ각에

"아모가 셜마 내야 노아쥬지. 쥭일리가 잇스랴. 진작 내가 ᄌᆞ현ᄒᆞ야 죄ᄅᆞᆯ 쎡여 버리고 말겟다."

ᄒᆞ고 즉시 시찰 잇ᄂᆞᆫ 쳐소로 가셔 ᄌᆞ현ᄒᆞ얏더니 리시찰이 아ᄂᆞᆫ지 모로ᄂᆞᆫ지 포박된 여러 죄인과 한 곳에 엄가 뢰슈ᄒᆞᄂᆞᆫ지라. 임씨가 그 즁에 ᄉᆡᆼ각ᄒᆞ기를

"죄인은 일반인ᄃᆡ 즁인 소시에 유표ᄒᆞ게 나 한아만 ᄇᆡᆨ방ᄒᆞᆯ 슈 업스닛가 이럿케 가두어 두엇다가 밤 즁 아모도 모로ᄂᆞᆫ 승시ᄒᆞ야 슬몃이 나를 내여노랴나 보다 안이 그리고 보면 내가 도쥬ᄒᆞᆫ 모양이 되야 죄를 죵시 못버셔 지겟스닛가 아마 몃칠 후에 대동발락ᄒᆞ게 무죄ᄒᆞᆷ을 발포ᄒᆞᆫ 후 방송ᄒᆞ야 다시 후환이 업도록 ᄒᆞ려나 보다."

이 모양으로 ᄐᆡ산ᄀᆞᆺ치 밋고 잇더니 하로ᄂᆞᆫ 호령이 텬통ᄀᆞᆺ치 나며 죄인을 모조리 쳥어두름 역듯 ᄒᆞ야 벌판에다 내여 안치고 쳣머리에셔부터 ᄎᆞ례로 포살ᄒᆞᄂᆞᆫᄃᆡ 임씨도 그 즁에 ᄀᆞᆺ치 역겨 미구에 그 총을 마질 지경이러라. 임씨 어머니 팔십 로인이 그 소문을 듯고 엇더케 놀낫던지 긔ᄉᆡᆨ을 슈업시 ᄒᆞ며 대셩통곡을 ᄒᆞ니 동리 늙은 부인네들이 그 경상이 불상ᄒᆞ야 한아 둘 모혀와셔 임씨 어머니ᄭᅴ 권ᄒᆞᄂᆞᆫ 말이라

"여보시오 이리지 말으시고 졍신을 찰히셔셔 일쥬션을 ᄒᆞ야 보십시오. 리시찰이 필경 로인ᄌᆞ 뎨를 몰나 보앗기에 그럿치 알고셔야 이왕 ᄌᆞ긔 자ᄅᆞᆯ 쎡에 로인ᄭᅴ셔 귀히 넉이시던 은공을 ᄉᆡᆼ각ᄒᆞ기로 ᄌᆞ뎨ᄅᆞᆯ 살녀쥬지 안이홀 리가 잇슴닛가. 두말 말으시고 근력을 찰이셔셔 리시찰 압혜가 원졍을 히보십시오."

임씨 어머니가 그 말이 근리ᄒᆞ야 경황 업시 집힝이를 집고 업드러지며 잡바지며 울며 불며 읍ᄂᆡ를 드러가 원졍여부 업시 리시찰 좌긔ᄒᆞ고 잇ᄂᆞᆫ 압으로 한다름에 니르러 ᄲᅡᆼ에가 업ᄃᆡ려 두 손으로 빌며

"살녀쥬옵소셔. 이 늙은이의 ᄌᆞ식을 살녀쥬옵소셔. 졔 죄가 쳔번 만번 쥭이고도 남ᄉᆞ와도 이 늙은이ᄅᆞᆯ 보옵셔 졔발 덕분에 살녀쥬옵시오. 져ᄂᆞᆫ 기실 죄도 업슴니다. 그 몹슬 놈들이 잡아다가 위협을 ᄒᆞ니 쥭지 못ᄒᆞ야 ᄯᅡ라단인 일밧긔 업슴니다. 살녀줍시오. 그것 한아만 쥭으면 이

늙은이 고부도 속졀업시 죽어 셰 식구가 함몰홀 지경이올시다. 령감 통촉ᄒᆞ시다십히 그 ᄌᆞ식이 삼ᄃᆡ독ᄌᆞ올시다. 살녀쥽시샤 하히ᄀᆞᆺ흔 덕을 닙어지이다."

리시츌이 소리 한 번을 버럭 질으며

"어ㅣ 요망스러온지구. 웬 계집이 겁이 업시 횡셜슈셜 어ㅣ 괴악ᄒᆞᆫ지구. 이리 오너라. 역졸거긔 잇ᄂᆞ냐. 네 이 계집이 실셩ᄒᆞᆫ 것인가 보다 멀즉이 쓸어 내물니고 이 근쳐에 현형을 못ᄒᆞ게 ᄒᆞ여라. 만일 이 놈들 ᄉᆞ졍 보고 지쳬ᄒᆞ얏다는 너의 놈부터 죽고 남지 못ᄒᆞ렷다."

무지ᄒᆞ고 우악ᄒᆞᆫ 역졸들이 벌에 살ᄀᆞᆺ치 달녀드러 팔십 넘어 구십이 불원ᄒᆞᆫ 임씨 어머니의 손목을 왈악 글어 ᄉᆞ졍업시 모라ᄂᆡ는 통에 졍신을 일코 언의 길 밋헤가 쓸어졋는ᄃᆡ 얼마만에 누가 붓드러 니르키며 니러나셔셔 ᄃᆡᆨ으로 가십시오. 로인이 그졔야 눈을 쓰고 한구히 쳐다보더니 비죽비죽 울며

"에구 예가 엇의오. 우리 아들이 쥭엇ᄂᆞ요 노여 나갓나요."

그 사름이 그 경샹을 보고 눈물을 금치 못ᄒᆞ며

"예 ᄌᆞ뎨가 ᄇᆡᆨ셩되야 ᄃᆡᆨ으로 갓슴니다. 어셔 ᄃᆡᆨ으로 가십시오."

임씨 어머니가 그 말을 참말로만 넉이고 반갑고도 됴와셔 더듬더듬 긔엄긔엄 ᄌᆞ긔 집으로 가더라. 그 ᄯᅴ 리시츌이 임씨 어머니를 불호령을 ᄒᆞ야 물니친 후에 몃 샤름 다음에 쳐치ᄒᆞᆯ 임씨를 억하심장이던지 그 즁 몬져 포살을 ᄒᆞ얏는ᄃᆡ 그 총소리가 쌍ᄒᆞ고 한번 나쟈 임씨 원통ᄒᆞᆫ 귀신이 반공 즁으로 불근 소사 리시츌의 머리 위로 빙빙 도라단이는ᄃᆡ 리시츌이 고요ᄒᆞᆫ 밤에 홀로 자노라면 ᄆᆞᄋᆞᆷ에 공연히 그 귀신 우는 소리가 두 귀에 들니는 듯 들리는 듯 ᄒᆞ기를

"이 놈 리시츌 말 드러라. 은인이 원슈 된다더니 네게 두고 닐은 말이로구나. 네가 내 집단 것 쓴 것이 안이면 잔쎄가 굵지를 못ᄒᆞ얏슬터인ᄃᆡ 그 은공을 싱각ᄒᆞ기는 고샤ᄒᆞ고 무죄ᄒᆞᆫ 나를 웨 쥭엿ᄂᆞ냐. 이 놈 리시츌아 나 한아 쥭는 날 우리집 식구가 함몰을 ᄒᆞ얏다. 우리집 셰 식구가 엇의ᄭᅡ지던지 너를 쏫ᄎᆞ단이면셔 그 앙화 밧는 것을 보고야 말겟다."

그 후로는 밤마다 공연히 ᄆᆞᄋᆞᆷ이 슈란ᄒᆞ야 낫ᄀᆞᆺ치 등촉을 밝히고 샹직ᄒᆞ는 사름을 몃 십명식 모아 경야를 ᄒᆞ여가며 ᄃᆡ강ᄃᆡ강 ᄉᆞ무를 쳐리ᄒᆞ고 그 지경을 써나 타도로 가더라. 임씨 어머니가 집으로 아들을 반가히 보려고 허둥지둥 도라오니 그 며ᄂᆞ리가 쌍을 두다리며 우는 양을 보고 그졔야 ᄌᆞ긔 아들이 죽은 줄을 알고셔 그 자리에셔 몃 번 몸부림에 인히 셰상을 버리니 그 며ᄂᆞ리도 그날 밤에 간슈를 퍼 먹고 그 남편의 영혼을 ᄯᅡ라 갓는ᄃᆡ 그 동리 ᄉᆞ름으로붓터 일경 언의 누가 임씨의 집일을 참혹히 넉여 말 한 마듸식이라도 리시찰을 욕 안이ᄒᆞ는 쟈가 업더라.

"에ㅣ 져 길은 ᄀᆡ가 발뒤ㅅ굼치를 문다는 말이 쏙 올터라. 셰샹 사름이 모다 리시츌 ᄀᆞᆺ히셔야 남의 ᄌᆞ식 구졔히 쥴 사름이 엇의 잇슬구. 안이되지 안이되야 남의 은공을 그러케 모로고 그 앙화 바들 날이 업슬가. 아즉은 조각 셰력을 엇어 시츌인지 몽동인지 단이며 못된 짓을 함부로 ᄒᆞ고 도라단이지마는 열흘 불근 쏫이 업고 십년가는 셰도가 업다고 그 시츌을 몃 칠이냐 단일구 시츌만 못단이고 아모일 곳 업스면 이번 길에 날불안당질을 ᄒᆞ야 그러간 돈만 가져도 쳐ᄌᆞ를 다리고 족하 평싱을 홀 터이지마는 그리고 보면 복션화음(福善禍음)의 리치가 아조 업게 리시츌의 후분을 우리 눈으로 보면 다 알것일셰"

리시츌이 경샹남북도로 도라단이며 동학을 박멸ᄒᆞᆫ다 빙자ᄒᆞ고 인명을 파리 쥭이듯 ᄒᆞ야가며 지물을 엇더케 글어 드렷던지 ᄇᆡᆨ쳔간두(百尺竿頭)의 형셰로 여지업시 지ᄂᆡ던 터이러니 졸연히 부ᄌᆞ가 되야 일용범졀에 아모것도 구챠ᄒᆞᆫ 바히 업스닛가 슬몃이 흉측ᄒᆞᆫ 싱각이 나던지 즉시 젼라남도로 로문을 노코 가다가 갈ㅅ지고ᄀᆡ를 올나셔 남으로 장셩군을 나려다

보니 반갑고 깃거온 ᄆᆞ음이 부지 즁에 나셔 한 거름에 갓스면 됴흘 듯이 련히 길을 ᄌᆡ촉ᄒᆞ며 혼ᄌᆞᄒᆞᄂᆞᆫ 말이라

"뎌긔 뵈이ᄂᆞᆫ 산밋이 쟝셩읍이로구나. 인졔야 나의 소원을 셩취ᄒᆞ겟다. 그러나 어셔 가셔 외양붓터 보아 과연 듯던말과 ᄀᆞᆺ흔지 만일 내 눈에 버셔나면 모로거니와 그러치 안으면 아모짓을 ᄒᆞ기로 뎌 한아야 내 ᄆᆞ음ᄃᆡ로 못쳐치 ᄒᆞᆯ가."

쟝셩군에ᄅᆞᆯ 도착ᄒᆞ야 여간 ᄉᆞ무ᄅᆞᆯ 대강대강 쳐리ᄒᆞᆫ 후에 불현듯이 션초를 불너보고 십지마는 테면소ᄌᆡ에 그리ᄒᆞᄂᆞᆫ 슈ᄂᆞᆫ 업고 은근히 심복지인을 식여 본관에게 엇더케 귀를 울녓던지 본관이 그 잇흔날 연회ᄅᆞᆯ 썩버러지게 열고 리시츌을 ᄃᆡ졉ᄒᆞᄂᆞᆫᄃᆡ 일홈이 시츌이지 직권은 암힝어ᄉᆞ이라. 슈령의 치젹 션불션을 뎡탐ᄒᆞᄂᆞᆫ 터에 본관이 ᄎᆞ린 연회를 아모리 쳥ᄒᆞᆫᄃᆡ도 갈 필요도 업겟고 긔왕 갓스면 약간 다과나 먹은 후에 졍치에 관계잇ᄂᆞᆫ 문답이나 ᄒᆞ다 올 것이어날 리시츌은 그 연회ᄅᆞᆯ ᄌᆞ긔가 극력운동ᄒᆞ기ᄂᆞᆫ 짜로 목뎍 한 가지가 잇ᄂᆞᆫ 터이라 오라ᄂᆞᆫ 시간을 칠년 ᄃᆡ한에 비 기ᄃᆡ리듯 ᄒᆞ야 허둥지둥 가셔 겨오 인ᄉᆞ 몃마듸 후에 다만 기싱의 가무만 졍신이 빠지게 보ᄂᆞᆫ 모양이어ᄂᆞᆯ 눈치 빠른 본관이 리시츌의 호ᄉᆡᆨᄒᆞᄂᆞᆫ 양을 발셔 짐작ᄒᆞ고 나죵 ᄉᆞᄂᆞᆫ 엇지 되얏던지 뎨일 일ᄉᆡᆨ 기싱을 구경식이여 그 인졍을 얼마즘 사고 보리라 ᄒᆞ고 그 길로 관로를 쵀호방집에 보ᄂᆡ여 션초를 셩화ᄀᆞᆺ치 불너 왓더라. 션초가 춤아 귀치 안컷마는 기싱의 몸으로 관령을 거역키 어려워셔 마지 못ᄒᆞ야 관노를 짜라 연회에를 갓더라. 리시츌이 션초의 ᄌᆞ두지족과 힝동범졀을 보니 ᄌᆞ연 졍신이 취ᄒᆞ야지고 ᄉᆞ지에 ᄆᆡᆨ이 업셔 즁인 소시곳 안이면 한아름에 덤셕 안아가지고 ᄌᆞ긔 침소로 가고 십지마는 참아 그리ᄒᆞᆯ 슈ᄂᆞᆫ 업고 ᄀᆞ쟝 테면을 출여셔 본체 만체 안졋ᄂᆞᆫᄃᆡ 눈초리ᄂᆞᆫ 간좌곤향(艮坐坤向)이 되얏고 가슴에ᄂᆞᆫ 쳔병만마(千兵萬馬)가 쒸놀아셔 도뎌히 진졍키가 어렵던지 펴드러던 부치를 쥬루룩 졉어 걱구로 들고 션초 안즌 편을 가라치며

"뎌 기싱 이리 오너라."

션초가 턴연ᄒᆞᆫ ᄐᆡ도로 리시츌 압헤가 공슌히 안즈니

(리) "허허 그것 졀묘ᄒᆞ거던 네 일홈이 무엇이며 나ᄂᆞᆫ 몃 살이야."

(션) "일홈은 션초옵고 나ᄂᆞᆫ 열 일곱이올시다."

(리) "기싱은 몃 살부터 되얏스며 가무ᄂᆞᆫ 무엇 무엇을 ᄇᆡ왓노."

션초가 밋쳐 ᄃᆡ답ᄒᆞ기 젼에 본관이 입에 침이 업시 션초의 칭찬을 느러 놋ᄂᆞᆫ다.

"그 ᄋᆡ가 외양도 뎌러케 긔묘ᄒᆞ거니와 직죠가 비샹ᄒᆞ야 춤도 못 출 춤이 업고 노ᄅᆡ도 못 부를 노ᄅᆡ가 업ᄂᆞᆫ 즁 문필로 말ᄒᆞᆫᄃᆡ도 졔 압가림은 ᄒᆞᆯ만 ᄒᆞ고 음률도 말ᄒᆞᆫᄃᆡ로 ᄆᆡ오 도뎌ᄒᆞᆷ니다. 그 ᄲᅮᆫ 아니오라 졔 졀힝이 이샹ᄒᆞᆫ ᄋᆞ희라 아모도 샹죵ᄒᆞᆫ 사ᄅᆞᆷ이 이 썩ᄉᆡᆨ지 업슴니다."

리시츌이 바른 손으로 슈염을 쓰다듬으며 고ᄀᆡ를 끄덱끄덱 ᄒᆞ며 너털우슴을 내여 놋ᄂᆞᆫ다.

"허허 허허허 그것 참 긔특ᄒᆞ다. 사ᄅᆞᆷ이 그러히야 쓰지. 허허 뎌 ᄌᆞ격 뎌 직화에 교방에 몸이 ᄆᆡ여 잇기ᄂᆞᆫ 앗가온걸. 허ㅣ 이곳 풍속은 엇지히셔 ᄌᆞ식을 뎌만치 졀묘히 낫거던 아모죠록 그 직죠를 치와셔 공부를 잘 식여 녀ᄌᆞ 샤회에 고명ᄒᆞᆫ 인물이 되게 ᄒᆞᆯ 것이지. 응 응 지금도 관계치 안이ᄒᆞ다. ᄌᆞ고 이ᄅᆡ로 챵긔 출신에도 츙, 효, 렬 세 가지 힝실로 유방ᄇᆡᆨ세(遺芳百世)ᄒᆞᆫ 인물이 한아 둘 ᄲᅮᆫ이 안인 즉 너ᄂᆞᆫ 그네만 못ᄒᆞᆯ 것이 잇ᄂᆞ냐. 오ㅣ 네가 문필이 똑똑ᄒᆞ다니 나와 글 리약이나 좀 히보려ᄂᆞ냐. 연회 파ᄒᆞᆫ 뒤에 내 쳐소로 오너라. 응 응 본관이 아모됴록 리시츌의 보비위ᄅᆞᆯ ᄒᆞ노라고 션초ᄅᆞᆯ 도라보며 션초가 오날이야 슈의ᄉᆞㅅ도 젼에 됴흔 학문을 ᄇᆡ호겟다 이 ᄋᆡ 너 네 집으로 나갈 것도 업다. 바로 예셔 슈의ᄉᆞㅅ도ᄅᆞᆯ 뫼시고 가거라."

션초가 리시츌의 용모를 보건ᄃᆡ 졈자는 학자ᄀᆞᆺ고 언론을 듯건ᄃᆡ 유리ᄒᆞᆫ 격언이라 속 ᄆᆞ음으로 ᄉᆡᆼ각ᄒᆞ기를

"뎌 량반이 뎌만치 유식ᄒᆞᆫ 터에 나를 ᄌᆞ긔 ᄯᆞᆯ이나 숀녀 일반으로 귀히셔 뎌리ᄒᆞᄂᆞᆫ 것이지 셜마 경박ᄒᆞ고 음흉ᄒᆞᆫ 자들 모양으로 괴악ᄒᆞᆫ ᄯᅳᆺ을 두고야 부를냐고 셰상 일이 런비업시ᄂᆞᆫ 안이 되ᄂᆞᆫᄃᆡ 뎌런 량반이 나의 집심ᄒᆞᆫ 바를 알고 샹당ᄒᆞᆫ 일로 인도ᄒᆞ야 쥴ᄂᆞᆫ지 알 슈 잇나."

ᄒᆞ고 한 마듸 ᄉᆞ양업시 리시출 뒤를 ᄯᅡ라 그 쳐소로 갓더라. 리시찰이 션초를 압헤 안치고 창히에 늙은 룡이 여의쥬ᄂᆞ 엇은 듯이 어루다가

"이 ᄋᆡ 션초야. 너 부르기ᄂᆞᆫ 다른 일이 안인즉 너 내 쳥을 드러라."

ᄒᆞ겟지마는 지죠 잇ᄂᆞᆫ 션초를 보통 다른 기ᄉᆡᆼ 다르듯 ᄒᆞᆯ 슈 업셔 얼픗 바로 말을 못ᄒᆞ고 ᄀᆞ쟝 션초를 위로ᄒᆞᄂᆞᆫ 듯이 슈작을 에둘너ᄒᆞᆫ다.

"허허 참 다시 보아도 졀등ᄒᆞ거던 이 ᄋᆡ 편히 안져라. 어ㅣ 게가 ᄎᆞ겟다. 이 요위로 올나 오너라."

션초가 두 무릅을 졉어 붓친 듯이 한편 구셕에 가 족쿠리고 안져셔

"예도 관계치 안이ᄒᆞᆷ니다."

리시찰이 션초의 손목을 잡아 ᄌᆞ긔 압으로 ᄉᆞᆯ어다 안치려다가 ᄉᆡᆼ각ᄒᆞᆫ 즉 그리ᄒᆞ다가 로ᄉᆡᆨ을 먹으면 공연히 일도 못되고 덧들니기만 ᄒᆞᆯ가 렴려ᄒᆞ야 내밀엇던 손을 도로 움치러드리며

(리) "오냐. 너 편ᄒᆞᆯᄃᆡ로 아모ᄃᆡ나 안거라. 그ᄅᆡ 기ᄉᆡᆼ 노롯 ᄒᆞᆫ지가 몃히야."

(션) "열 세살부터 시ᄉᆞ를 ᄒᆞ얏ᄉᆞ오닛가. 열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히ㅅ슈로ᄂᆞᆫ 다셧히나 되엿슴니다."

(리) "기ᄉᆡᆼ 노릇을 ᄒᆞᆯ만치도 ᄒᆞ얏구나. 이 ᄋᆡ 앗까 본 군슈에게 드르닛가 네 골 군슈로 나려오ᄂᆞᆫ 등ᄂᆡ마다 너를 의례히 슈쳥드리려 ᄒᆞᆫ다ᄂᆞᆫᄃᆡ 일톄로 거졀을 ᄒᆞᆫ다ᄒᆞ니 그게 무신 고집이냐. 긔왕 기ᄉᆡᆼ이 되얏스니 송구영신(送舊迎新)ᄒᆞᄂᆞᆫ 것이 본ᄉᆡᆨ이오 아모 량반에게던지 진작 몸을 허락ᄒᆞ야 젼정을 도모ᄒᆞᆯ 것이어ᄂᆞᆯ ᄎᆞ일 피일 금년 명년ᄒᆞ다가 무졍ᄒᆞᆫ 셰월에 언의듯 손을 넘기면 그안이 ᄶᅡᆨᄒᆞ냐."

(션) "……"

(리) "오ㅣ ᄂᆡ가 네 말을 드러보쟈ᄂᆞᆫ 것인ᄃᆡ 네가 올케 ᄉᆡᆼ각을 ᄒᆞ얏다. 사ᄅᆞᆷ이면 다 사ᄅᆞᆷ이냐. 소위 근일 지방에 단이ᄂᆞᆫ 사ᄅᆞᆷ들 외양으로 보면 군슈ㅣ니 관찰ᄉᆞㅣ니 디위도 놉파 뵈고 긔구도 잇셔 뵈지마는 그 속을 파 보게 되면 모도다 쳥보에 ᄀᆡ동 싼 모양이라 가량 공도로 왓다ᄂᆞᆫ 쟈ᄂᆞᆫ 대가 후예로 부형의 덕이나 인아의 연비로 그 벼슬을 어더 힛지 ᄌᆞ격은 누구 누구ᄒᆞᆯ 거 업시 무식ᄒᆞ거나 못ᄉᆡᆼ긴 것들이오 납뢰를 ᄒᆞ고 온 무리ᄂᆞᆫ 더구나 ᄌᆞ격을 의론ᄒᆞᆯ 여디가 업시 ᄲᅡᆼ그리 도적놈들이오. 그남아 셔울 삼네ᄒᆞ고 슈쥼에 풋돈량을 가지고 료량 업시 덤벙이ᄂᆞᆫ 것들은 부랑탕ᄌᆞ에 지나지 못ᄒᆞ니 바로 지각업시 남의 등ㅅ골이나 ᄲᅦ랴면 모로거니와 그러치 안이ᄒᆞ고 ᄆᆞ음을 단졍히 먹어 ᄇᆡᆨ년을 의탁ᄒᆞᆯ 사ᄅᆞᆷ을 구ᄒᆞ랴면 대단히 어려오니라."

(션) "션초야 나ᄂᆞᆫ 힘드려 말을 ᄒᆞᄂᆞᆫᄃᆡ 너는 웨 ᄃᆡ답을 한 마듸도 안이ᄒᆞᄂᆞ냐. 이 ᄋᆡ 연분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인력으로 못ᄒᆞᆯ 것인가 보더라. 그리기에 로인에 쇼쳡이 잇지 안이ᄒᆞ냐. 그 계집들이 열이면 열 다 스물이면 스물다 ᄉᆞᆺ다온 년긔가 셔로 알마즌 남편을 맛나 ᄇᆡᆨ년을 하로갓치 줄기고 십지마는 벌셔 거젹ᄌᆞ리에 쑥 ᄲᅥ러질 ᄯᅴ에 월로(姥月)의 불은 실로 발목을 ᄆᆡ여 인연을 ᄆᆡ져노은 이샹에 다시 변통ᄒᆞᄂᆞᆫ 도리가 업ᄂᆞᆫ ᄉᆡᆼ돐으로 신랑 신부가 피ᄎᆞ에 ᄆᆞ음에 잇고도 무슨 탈이 나던지 그 혼인이 긔이히 못되기도 ᄒᆞ고 년치가 비록 샹뎍지 못ᄒᆞ고 간혼이 비ㅅ발ᄀᆞᆺ치 드러온ᄃᆡ도 엇더케 ᄒᆞ던지 그 혼인이 긔어히 되고마는 법인 즉 이 ᄋᆡ 너도 넘오고집 말고 웬만ᄒᆞ거던 몸을 허락ᄒᆞ여라. 셰샹에 별사ᄅᆞᆷ이 잇ᄂᆞᆫ 쥴 아ᄂᆞ냐. 내가 넷날 리약이 한 아ᄅᆞᆯ ᄒᆞᆯ 것이니 너 좀 드러 보아라. 넷날에도 너ᄀᆞᆺ치 어엽부게 잘 ᄉᆡᆼ긴 쳐녀 한아이 잇던가 보더라. 년긔가 당혼ᄒᆞ야 신랑 한아를 골으고 골낫고나. 그ᄯᅢ 그 쳐녀 심쥼에ᄂᆞᆫ 뎌 신랑과 ᄌᆞ미잇게 살아 ᄌᆞ녀를 층층히 길느며 ᄇᆡᆨ년을 히

로ᄒᆞ리라 ᄒᆞ얏더니 급기 셩례ㅅ날 신랑이 뎐안청에 당도ᄒᆞ야 졸디에 랑긔마가 놀나 쒸며 신랑이 여러 길 되는 언덕에 가 써러져 목이 부러져 셰샹을 바리니 신부의 아바지가 싱각ᄒᆞ기를 셩례도 안이ᄒᆞᆫ 터에 ᄌᆞ긔 ᄯᅳᆯ을 쳥상과부로 늙힐 리유가 업ᄂᆞᆫ지라. 그 ᄯᅳᆯ다려 ᄉᆞ리를 타닐으니 그 쳐녀 역시 그러히 녁여 져의 아바지의 쥬쟝ᄒᆞᄂᆞᆫ 언론을 슌죵ᄒᆞᄂᆞᆫ지라. 신부의 아바지가 샥랑으로 나아가 여러 손을 향ᄒᆞ야 공포ᄒᆞ기를 여러분 즁 누구시던지 샹쳐ᄒᆞ신 량반이 잇거던 내 ᄯᅳᆯ과 셩례를 ᄒᆞ십시다. 그 ᄯᅴ에 만좌가 다 황당히 안졋ᄂᆞᆫᄃᆡ 그 즁 목싱원이라 ᄒᆞᄂᆞᆫ쟈가 나이 칠십여셰인ᄃᆡ ᄌᆞ긔가 쇽현을 ᄒᆞ겟노라 ᄌᆞ쳥ᄒᆞᄂᆞᆫ지라 신부의 아바지가 그 늙은 양을 보고 얼는 응답을 안이ᄒᆞ얏고나 그ᄅᆡ셔 안으로 드러가 ᄌᆞ긔 마누라를 향ᄒᆞ야 의론을 ᄒᆞᄂᆞᆫᄃᆡ 신부가 겻혜 안졋다가 붓그럼이 죠곰업시 이 일이 벌셔 텬뎡연분이오니 늙엇기로 관계ᄒᆞᆯ것 잇슴닛가 ᄒᆞ거ᄂᆞᆯ ᄒᆞᆯ일 업시 그 신부를 목싱원에게로 ᄉᆡ집보ᄂᆡᄂᆞᆫᄃᆡ 그 신부가 ᄉᆡ집가던 ᄒᆡ부터 ᄐᆡ긔가 잇셔 한삼쯀에 여룡여호ᄒᆞᆫ 아ᄃᆞᆯ삼형뎨를 나아셔 며ᄂᆞ리 손ᄌᆞ를 ᄎᆞ례로 보고 오십이 되도록 ᄒᆡ로ᄒᆞ다가 목싱원 일ᄇᆡᆨ 오셰되던 ᄒᆡ에 ᄂᆡ외구몰ᄒᆞᆫ 일이 잇스니 그 일 한 가지로만 밀어 보아도 혼인이라는 것은 ᄉᆞᆨ 연분이 잇ᄂᆞᆫ 쥴 안다. 네가 엇더케 드를지는 모로겟다마는 너의 년긔가 당혼을 ᄒᆞ야 외양과 ᄌᆡ질이 쒸여난 ᄉᆡᄃᆞᆰ으로 그 여러 사ᄅᆞᆷ이 모다 욕심을 내되 ᄎᆞ례로 거졀ᄒᆞ얏슨 즉 필경은 나ᄀᆞᆺᄒᆞᆫ 늙은이와 텬뎡연분이 잇셔 ᄆᆞ음이 그러케 드럿던 것인지 역시 알 슈 잇ᄂᆞ냐."

(션) "……."

(리) "허허 허허허 내 슈염이 희ㅅ득희득 셰기ᄂᆞᆫ ᄒᆞ얏다마는 근력이던지 ᄆᆞᄋᆞᆷ은 여간 졀문 놈이 못당ᄒᆞᆯ만 ᄒᆞ다. 이 ᄋᆡ 이리 좀 갓가히 안져라."

션초가 ᄆᆞᄋᆞᆷᄃᆡ로 ᄒᆞ면 잡아 다리ᄂᆞᆫ 손을 ᄲᅮ리치고 거리칙지라도 ᄒᆞ고 십흐나 몸이 챵가에 잇스니 아모리 졍당ᄒᆞᆫ 말로 거졀ᄒᆞ야도 듯지 아니ᄒᆞᆯ 터이오. 연회에셔 바로 집으로 갓더면 됴흘 것을 리시찰 흉즁을 곳 졍인군ᄌᆞ로만 넉이고 싸라온 이샹에 독불쟝군으로 아모려도 안이되엿ᄂᆞᆫ지라. 말지 못ᄒᆞ야 그 겻히가 잠시 안졋다가 원산마미를 붓치ㅅ살 졉은 듯이 찝흐리고 바른 손으로 아ᄅᆡㅅ ᄇᆡ를 움켜 잡고

"이구 ᄇᆡ야. 아까 국슈 조곰 먹은 것이 체힛나 웨 이러케 ᄇᆡ가 압흔가."

리시찰이 ᄌᆞ긔 친환에 그러케 놀낫스면 대문에다 붉은 문을 셰웟스렷마는 ᄂᆡ간 외간을 당ᄒᆞᆯ 졔ᄂᆞᆫ 남의 말을 과히 ᄒᆞᆯ 것 업지마는 동리 늙은이 초샹난이에셔 조곰 다를 것 업시 시들스럽게 넉이던 위인이라셔 션초의 ᄇᆡ야 소리 한 마듸를 듯더니 두 눈을 경풍ᄒᆞᆫ 아ᄒᆡ 모양으로 둥그러케 쓰면셔

"응 ᄇᆡ가 압혀. 뎌를 엇지ᄒᆞ잔 말이냐."

부스럭 부스럭 엽랑을 글으고 소합원 셔너 ᄀᆡ를 내여쥬며

"이 ᄋᆡ 이것을 먹어라."

션초가 소합원을 밧아 한 입에 툭 드릿드리고 질경질경 씹어 먹으며

"에그 져를 집으로 가게ᄒᆞ야 줍시오."

리시찰이 션초의 간다는 소리에 긔가 막혀셔

(리) "너의 집에를 가면 별슈 잇ᄂᆞ냐. 아모ᄃᆡ셔나 약치료를 ᄒᆞ야 보쟈꾸나."

(션) "안이야오. 예셔 아모리 됴흔 약을 먹어도 급작이 낫지를 못ᄒᆞᆷ니다. 졔가 본ᄅᆡ 속병이 잇셔 조곰만 무엇이 체ᄒᆞ기 곳ᄒᆞ면 속병이 치밀며 쥐어뜻어 몃 칠식은 의례히 고싱을 ᄒᆞ더니 이 근ᄅᆡ에ᄂᆞᆫ 발작을 안이ᄒᆞ기에 아마 그 병이 업셔졋나 보다 ᄒᆞ얏ᄂᆞᆫᄃᆡ 에그 오날 말고 잇다가 또 이러ᄒᆞᆷ이다 그려. 졔가 나가셔 슈일 됴리를 ᄒᆞ야 젹이 낫거던 다시 드러와 뵈옵겟슴니다."

(리) "응 옹이에 마듸로다. 불션불후에 하필 오ᄂᆞᆯ 병이 낫단 말이냐. 오냐 그리히라. 보내쥬마."

션초가 그 방문을 나셔니 샹말로 시황이나 난듯이 시완샹쾌ᄒᆞ야 집으로 온 뒤에 리시찰이

죠셕문병을 ᄒᆞ며 다시 한 번 보러고 ᄋᆡ를 무진히 쓰나 션초는 줄곳 거졀을 ᄒᆞ야 탁탁난합이 된지라. 리시찰 ᄉᆡᆼ각에 쳐음에는 졔 몸이 편치 못ᄒᆞ닛가 슈졉ᄒᆞ기가 귀치안아 뎌리 ᄒᆞ거니 ᄒᆞ얏다가 여러 날이 되도록 일향 한 모양으로 안이보니 그졔는 의심이 업지 못ᄒᆞ야 슬몃이 사ᄅᆞᆷ을 노아 션초의 병세 유무를 탐지히 보니 그 동안 엇더케 알ᄂᆞ니 엇의가 압흐니 ᄒᆞ던 것이 모도다 ᄯᅳᆫ 소리라. 그졔는 분심이 팅즁ᄒᆞ야 당쟝 역졸을 푸렁 쵀호방의 집 식구를 모조리 잡아다가 물벗김으로 치도곤을 퍽퍽 싸리고 션초를 반싹 들어오고 십으나 그는 명여관계에 ᄒᆞ는 슈 업고 그ᄃᆡ로 두고 졔 ᄆᆞ음만 기ᄃᆡ리쟈 ᄒᆞ니 쇠 불알 졀로 써러지면 구어먹기라.

곰곰 궁리리를 ᄒᆞ다가

"올치 되얏다…… 힛스면 몃 칠 안이되야 졔가 졀로 쓸쓸 긔여 드러오고 말지. 오날은 기위 졉으럿스니 ᄅᆡ일은 쳣 ᄉᆡ벽에 거조를 ᄒᆞ야 보리라."

ᄒᆞ고 일심 졍력이 션초에게 가 잇셔 누엇다 안졋다 한잠도 자지를 못ᄒᆞ고 잇는ᄃᆡ 챵밧긔 사ᄅᆞᆷ의 자최가 급히 나더니 엇던 쟈가 드러와 리시찰 귀에다 입을 ᄃᆡ고 무에라 무에라 몃 마ᄃᆡ를 ᄒᆞ닛가 리시찰이 별안간에 ᄉᆞ지를 벌벌 쓸며

(리) "이 ᄋᆡ 그러면 엇더케 ᄒᆞ면 됴흐냐."

(그쟈) "잠시 피신을 ᄒᆞ실 밧긔 다른 샹칙이 업슴이다."

(리) "네 말이 올키는 ᄒᆞ다마는 뎌간에 랑픽되는 일이 잇고나."

(그쟈) "무슨 일이온지는 알 길 업ᄉᆞ오나 이 다음에 다시 힝ᄎᆞᄒᆞᄋᆞᆸ셔는 못ᄒᆞ심닛가."

(리) "그도 그럿타."

ᄒᆞ더니 신도 못신고 보션발로 뒤ㅅ문으로 나셔셔 뒤ㅅ산초로ㅅ길로 발톱 불어지는 것을 알아볼 결을이 업다 ᄒᆞ고 얼마쯤 다러낫더라. 와셔 귀에 말ᄒᆞ던 쟈는 별사ᄅᆞᆷ 안이라 셔울셔부터 즁빙으로 다리고 나려간 사ᄅᆞᆷ인ᄃᆡ 츙쳥경상도 동학여당이 복보슈를 ᄒᆞ려고 슈 쳔 명이 작당ᄒᆞ야 병긔를 가지고 리시찰을 ᄎᆞᄌᆞ 쟝셩군에를 그 밤ᄂᆡ로 드러온다는 풍셜을 어셔 엇어 듯고 겁결에 ᄌᆞ셰탐지히 볼 여부 업시 한다름에 리시찰 쳐소로 와셔 엇더케 풍을 쳐노왓던지 리시찰이 ᄌᆞ긔의 지은 죄가 잇슨 즉 ᄌᆞ겁이 안이날 슈 업셔 그 모양으로 도망ᄒᆞᆫ 것이라. 쟝셩 디방을 그 밤 ᄉᆡ기 젼에 지나 영광 담양으로 북도를 넘어셔셔 슌창 고부 흥덕 등디를 깁이 쳬ㅅ박희 돌듯 ᄒᆞ며 아모리 동학당의 쇼식을 탐지ᄒᆞ야도 진뎍ᄒᆞᆫ 동졍을 알 수 업는지라 혼ᄌᆞ말로 이 말이 필경 헛소동이기에 그러치 조곰이라도 근디가 잇는 일 ᄀᆞᆺ흐면 져의가 한 둘이 ᄒᆞ는 일 안이고 이러케 비밀ᄒᆞᆯ 수가 잇나. 내가 어림업시 쇽고 소영ᄉᆞ만 랑픽를 ᄒᆞ얏지 응 랑픽될 것은 무엇 잇나.샹쾌(즁방의 일홈) 말ㅅ다나 아즉도 늣지 안이ᄒᆞ얏는ᄃᆡ ᄒᆞ고 불헌듯이 쟝셩군으로 도로 가랴다가 다시 무슨 ᄉᆡᆼ각으로 뎡지ᄒᆞ기를 루ᄎᆞᄒᆞ얏는ᄃᆡ 나죵은 확실ᄒᆞᆫ 허언인 쥴 ᄌᆞ셰히 알고 그졔는 ᄉᆡ로 ᄊᆡ여진 독셔슬ᄀᆞᆺ치 위풍을 픠이며 길을 써나더라.

뎨삼회

이 ᄯᅢ 쵀호방이 ᄌᆞ긔 ᄯᅳᆯ의 뎡ᄒᆞᆫ ᄯᅳᆺ을 억졔키 어려워셔 져 ᄒᆞ쟈는 ᄃᆡ로 ᄂᆡ여ᄇᆞ려 두엇스나 ᄉᆡ골 사ᄅᆞᆷ이라는 것은 셔울 량반 무셔워 ᄒᆞ기를 호랑이 맛난이보다 한층 더ᄒᆞᆫ 즁 리시찰의 션셩이 놉고 쵀호방의 조심이 심ᄒᆞ야 일ᄉᆞᄌᆞ 션조의 병탈ᄒᆞ고 온 이후로 울에 안즌 새 몸ᄀᆞᆺ치 솜아 솜아 ᄒᆞ던 ᄎᆞ에 리시찰이 모야 무지간에 부지 거쳐로 갓다닛가 일변 이샹도 ᄒᆞ고 일변 시원도 ᄒᆞ더니 하로는 문밧ᄭᅴ셔 누가 와셔 찻거ᄂᆞᆯ 신지무의ᄒᆞ고 나아갓는ᄃᆡ 졸디에 무지ᄒᆞᆫ 역졸ᄇᆡ가 우루루 달녀드러 쵀호방의 멱살을 치켜 잡고 이 쌈 져 쌈 ᄉᆞ졍 업시 치며 ᄭᅩᆼ문이에셔 ᄲᅩᆯᄂᆡ줄 ᄀᆞᆺ흔 삼시위 로오리를 쑥 ᄲᅦ여 쵀호방의 두 손목을 ᄭᅳᆫ어지거라 ᄒᆞ고 잔ᄯᅳᆨ 잘나ᄆᆡ더니 덜미를 턱턱 집허 압셰우고 가는지라. 그 디경이 되닛가 왼집안이 란가가 되야 엇진 곡졀인지 모르고 황황 망조ᄒᆞ는ᄃᆡ 션초는 져의 아바지 잡혀가는 것을 물그름이 보며 혼ᄌᆞ말이

"에그 뎌를 엇지ᄒᆞ면 됴흔가. 아바지ᄭᅴ셔 다년 리역을 단이셧지마는 엽젼 한 푼 범포한 젹도 업고 셩품이 번거ᄒᆞᆷ을 슬혀ᄒᆞ샤 내 일 안니면 샹관 안이ᄒᆞ시기로 유명ᄒᆞ신 터인ᄃᆡ 뎌 놈들이 무슨 곡졀로 큰 죄인인 일발으로 뎌러케 잡아ᄅᆞᆯ 가가."

남붓그러온 쥴 모로고 보션발로 ᄲᅩᆺᄎᆞ가며 눈물이 더벅더벅 울다가 문득 ᄉᆡᆼ각이 돌기를

"올치. 이 일이 ᄉᆡᆼᄃᆞᆶ이 잇는 일이로구나. 좀 잇다 셔문을 드르면 알겟지마는 필경 리시찰의 소위가 십샹팔구인 즉 내가 이 모양으로 나셧는 것이 만만 불가ᄒᆞ지 그도 셜마 사ᄅᆞᆷ이지 빅셩 보호ᄒᆞ라는 졍부관리가 되야 무죄ᄒᆞᆫ 사ᄅᆞᆷ을 억지로 엇지ᄒᆞᆯ나구."

ᄒᆞ며 집으로 도로 드러와 사ᄅᆞᆷ을 느러노아 하회형편을 탐지ᄒᆞ더라. 쵀호방은 자다가 ᄭᅮᆷᄉᆞ결ᄀᆞᆺ치 불의 지변을 맛나 발ᄉᆞ길이 쌍에 달ᄉᆡ 업시 잡혀가 관가 ᄲᅩᆯ 아ᄅᆡ에 ᄭᅮᆯ어 업ᄃᆡ려 잇노라니 당상에셔 텬동ᄀᆞᆺ흔 호령이 나오는ᄃᆡ

"네 죄ᄅᆞᆯ 네가 모를ᄭᅡ."

쵀호방이 고ᄀᆡ를 조으며 겻눈으로 힐ᄭᅳᆺ 쳐다보니 다른 사ᄅᆞᆷ이 안이라 곳 리시찰이 로긔를 등등히 ᄯᅴ고 안졋는지라.

(쵀) "쟝하에 죽ᄉᆞ와도 죄명을 ᄲᅵ닷지 못ᄒᆞ겟ᄂᆞ이다."

(리) "뎡녕히…… 흉악ᄒᆞ고 간특ᄒᆞᆫ 놈."

(쵀) "졔가 무엇이 그다지 흉악ᄒᆞ고 간특ᄒᆞ오닛가. 죽을 ᄲᅢ 죽ᄉᆞ와도 죄명이나 알아지이다."

(리) "이 놈. 관뎡 발악ᄒᆞᆫ다. 네 죄명을 네가 스ᄉᆞ로 ᄉᆡᆼ각히 보면 알 것이지 누구다려 ᄉᆡᆼ심코 무러."

(쵀) "져는 아모리 ᄉᆡᆼ각ᄒᆞ와도 알 길 업ᄉᆞ오니 닐너쥬ᄋᆞᆸ소셔."

(리) "그러면 동학당은 언의 놈이 비밀히 불너 나ᄅᆞᆯ ᄒᆡᄒᆞ려고 힛던구."

(쵀) "하ᄂᆞᆯ 나려다 보심니다. 졔가 ᄉᆡᆼ심 그런 ᄯᅳᆺᄂᆞ 둘ㅅ가망이 잇슴닛가. 지금이라도 그 말을 드르신 곳으로 다시 ᄎᆡ근을 ᄌᆞ셰히 보ᄋᆞᆸ시면 져의 무죄ᄒᆞᆷ을 ᄌᆞ연 통촉ᄒᆞ실 터 이올시다."

(리) "이 놈 무슨 잔소리야. 부죄ᄒᆞ면 네집 하인이 고부읍에셔 작란ᄒᆞ던 최슌팔의 집에는 무엇ᄒᆞ러 ᄀᆞ다 왓셔."

(쵀) "졔 집 하인을 젼답ᄆᆡᄆᆡ에 샹관되는 일이 잇ᄉᆞ와 고부짜에 보닛던 일은 잇ᄉᆞ와도 최슌팔은 엇던 쟈인지 평ᄉᆡᆼ에 얼골도 알지 못ᄒᆞᄋᆞᆸᄂᆞ이다."

(리) "무슨 잔소리구. 내가 번연히 알고 말ᄒᆞ는ᄃᆡ 죵ᄅᆡ 바로 토셜을 아니ᄒᆞ랴구. 네 몸이 압허도 이리ᄒᆞᆯ까. 이 놈 음흉ᄒᆞᆫ 놈."

쵀호방이 어미가 업셔 이를 ᄲᅵ물고 다시는 말을 안이하고 업ᄃᆡ려 잇노라니 좌우에셔 연히 쥬쟝질을 ᄒᆞ며 바로 알외라고 무한 죠련ᄒᆞ다가 그ᄃᆡ로 항ᄉᆡ죡ᄉᆡᄒᆞ야 옥 속에 ᄉᆞᆯ어다 넛고 하도 감잠을 쇠로 옥문을 굿게 잠갓더라. 이ᄶᅢ 션초가 리시찰의

문초ᄒᆞ던 소문을 드르니 ᄇᆡᆨ옥무하(白玉無瑕) ᄀᆞᆺ흔 ᄌᆞ긔 아바지에게 젹지 아니ᄒᆞᆫ 죄명을 억울히 씨워 쟝ᄎᆞ 언의 디경에 이ᄅᆞᆯ는지 측량치 못ᄒᆞᆯ지라. 황망ᄒᆞᆫ 말소ᄅᆡ로

"어머니 뎌 일을 엇지ᄒᆞ면 됴탄 말ᄉᆞᆷ이오. 우리 지금 승문고라도 쳐셔 아바지 무죄ᄒᆞ신 발명을 ᄒᆞ야 보십시다."

ᄌᆞ식이라 ᄒᆞ는 것은 열이면 아홉은 외탁을 의례 ᄒᆞ는 법이라. 션초ᄀᆞᆺ흔 ᄉᆞᆯ을 ᄂᆞ흔 쳬호방의 마누라 츈홍인들 범연흔 ᄌᆞ격이리오. ᄌᆞ긔 남편의 변린당흔 것을 보고 가ᄉᆞᆷ이 터질 것 ᄀᆞᆺ흐면 산산조각이 날만치 ᄋᆡ를 쓰는 ᄎᆞ에 션초의 ᄒᆞ는 말을 듯고 두 손으로 한편 무릅에 싹지를 느즈막히 씨고 우두컨이 안져 궁리를 ᄒᆞ다가

(츈) "이 ᄋᆡ 승문고도 쇼용업다. 이 일이 본관이ᄂᆞ 관찰ᄉᆞ가 관계ᄒᆞ는 바가 아니오. 리시찰이 우리를 미워셔 너의 아바지에게 죄를 씨우는 일인ᄃᆡ 아무 짓을 ᄒᆞ기로 효험이 잇겟ᄂᆞ냐."

(션) "에그 그러면 엇더케 ᄒᆞ나요. 쇼문을 드르닛가 동학 죄인은 잡는 ᄃᆡ로 포살을 ᄒᆞᆫ다는ᄃᆡ 아바지를 동학 간런으로 몬다ᄒᆞ니 뒤ᄭᅳᆺ치 엇더케 될는지 알 슈가 잇ᄂᆞ요."

(츈) "리시찰이 너 ᄉᆡ닭에 함혐을 ᄒᆞ고 그리는 모양인가 보다마는 아모럿턴지 무죄흔 사ᄅᆞᆷ을 ᄉᆡ으로 쥭이겟ᄂᆞ냐."

ᄒᆞ더니 그 말이 졈졈 극도에 달ᄒᆞ야 확확 함부루 물 퍼붓듯 ᄂᆞ온다.

"오냐 열 치가 한 치가 되더ᄅᆡ도 너의 아바지만 옥구멍에셔 살아만 ᄂᆞ오ᄅᆡ라. 이 복보슈흘 날이 셜마 잇지 사ᄅᆞᆷ이 쥭으면 아조 쥭으랴. 슈염이 희ㅅ득 희득흔 것이졔 막ᄅᆡ ᄉᆞᆯ ᄀᆞᆺ흔 네게다 흉측흔 ᄆᆞᄋᆞᆷ을 두고 그싸위 힝실을 히ㅣ 그ᄅᆡ도 안이쏩게 졔가 ᄀᆞ장 졈자는

톄 ᄒᆞ고 의졋을 ᄲᅦ내드라지 에그 죠졍에는 사ᄅᆞᆷ도 귀ᄒᆞ지. 그런 음흉흔 것을 시찰ᄉᆞ로 나려보냇스니 졔가 그 ᄉᆞᆯ에 시찰은 무슨 일을 시찰ᄒᆞᆯ 터인구. 내가 남에 악담이 아니라 남의 못ᄒᆞᆯ 노릇을 ᄒᆞ고 제게 안치지 안이ᄒᆞ는 법이 업ᄂᆞ니라.

(션)에그 어머니. 아모 말ᄉᆞᆷ도 말으시오. 공연히 이런 쇼문이 나면 아바지 몸에만 해롭게 됩니다.

(츈)이 계집ᄋᆡ 듯기 슬타. 오ᄂᆞᆯ날 너의 아바지 뎌 고싱ᄒᆞ는 것이 모도다 뉘 탓이냐. 긔왕 팔ᄌᆞ가 사오나와 기싱인지 비싱인지 되엿스면 유난스럽게 굴지 말고 남과 ᄀᆞᆺ치 츄월츈풍(秋月春風)으로 지나거나 또 한 ᄆᆞᄋᆞᆷ 한 ᄯᅳᆺ을 먹엇거던 연회파흔 뒤에 진즉 집으로 나올 것이지 무엇을 ᄒᆞ러 어슬넝 어슬넝 싸라갓다가 집안을 이 디경이 되게 ᄒᆞ얏ᄂᆞ냐."

한참 이 모양으로 모녀가 말을 ᄒᆞᄂᆞᆫᄃᆡ 다년 자긔집 하인이나 다름업시 단이는 관비가 분쥬히 드러오더니

"아씨 안녕ᄒᆞ십쇼. 에그 자근 아씨게셔 엇의가 편치 안느심닛가. 웨 얼골이 여러케 못ᄒᆞ셧셔요."

션쵸는 아모 말 업시 ᄌᆞ긔 쳐소로 드러가고 션초 어머니는

(츈) "응 ᄌᆞ네 왓나. 웨 여러 날을 아니 왓던가."

(관) "ᄌᆞ연 그리 힛슴니다. 에그 ᄃᆡ에셔야 여복 걱정이 되시겟슴닛가. 나으리쎄셔 뎌 디경이 되셔셔."

(츈) "……"

(관) "졔가 ᄃᆡ을 샹젼ᄃᆡ ᄀᆞᆺ치 바라고 단이는ᄃᆡ 나으리 쇼문을 듯ᄉᆞᆸ고 엇지 놀나온지 한 다름에 ᄲᅱ여가 김션달을 보앗슴니다."

(션) "김션달이라니 누구 말인가."

(관) "압다 슈의ᄉᆞㅅ도 즁방으로 싸라온 김션달 말ᄉᆞᆷ이올시다."

(츈) "김션달은 엇지히셔 ᄎᆞ져갓던가."

(관) "그가 졔 아오의 집에 쥬인을 뎡ᄒᆞ고 잇ᄉᆞᆸ는ᄃᆡ 아오의 말ᄉᆞᆷ을 드른 즉 김션달이 슈의ᄉᆞㅅ도ᄭᅴ 아조 단벌 로긴ᄒᆞ다고 ᄒᆞᄋᆞᆸ길ᄂᆡ ᄃᆡ나으리ᄭᅴ셔 무슨 죄로 잡히셧ᄂᆞᆫ지 큰 형벌이나 아니 당ᄒᆞ시고 슈히 노이실는지 졔 아오다려 김션달ᄭᅴ 슬멋슬멋 무러보아 달나고 ᄒᆞ얏ᄉᆞᆷ니다."

(츈) "김션달이 아모리 ᄌᆞ네 아오의 집에 쥬인은 뎡ᄒᆞ고 잇기로 그런 말을 함부루 리약이ᄒᆞᆯ나구. 그리힛나."

(관) "졔 아오가 뭇ᄂᆞᆫᄃᆡ 김션달이 아ᄂᆞᆫ 일ᄉᆡ지ᄂᆞᆫ 리약이 아니ᄒᆞ지 못ᄒᆞᆯ만ᄒᆞᆫ 눈치를 알앗슴니다. 졔 아오가 좀 똑똑이 싱겨슴닛가. 아마 김션달이 쥬인뎡ᄒᆞ도 잇슨 후로 무슨 관계가 착실히 잇ᄂᆞᆫ 것이야요."

(츈) "그릐 김션달이 무엇이라고 ᄒᆞ드라던가."

(관) "에그 엇지ᄒᆞ나. 이런 말슴을 엿쥬면 넘오 놀아실 터인ᄃᆡ 그러타고 아니 엿쥴 슈ᄂᆞᆫ 업고"

ᄒᆞ더니 무슨 소리를 두어 마듸쯤 ᄒᆞ닛가 션초 어머니가 줌억으로 쌍바닥을 쌍쌍치며

"에구 하ᄂᆞ님 마옵소셔. 싱 사ᄅᆞᆷ을 이러케 죽여도 관계치 안은가. 웨 죽여 웨 죽여. 무슨 죄를 범힛길내 죽이러드러."

ᄒᆞ며 방셩ᄃᆡ곡을 ᄒᆞ니 션초가 마조 울며

"어머니 고만 진졍ᄒᆞ십시오. 뎌 어멈이 무슨 말을 엿쥬엇길ᄂᆡ 이러심닛가. 여보게 어멈. 무엇이라고 말슴을 엿쥬엇나."

이 모양으로 셩화ᄀᆞᆺ치 뭇ᄂᆞᆫᄃᆡ 관비ᄂᆞᆫ 머뭇머뭇ᄒᆞ고 ᄃᆡ답을 못ᄒᆞᄂᆞᆫᄃᆡ 션초 어머니가 소릐를 버럭 질너

"너의 아버지를 ᄂᆡ일 모레 죽인단다. 시원히 알냐ᄂᆞ냐."

션초가 처음에ᄂᆞᆫ 엇진 영문인지 몰낫다가 져의 어머니의 ᄒᆞᄂᆞᆫ 말을 드르니 엇더케 긔가 막힌지 얼골빗이 노릐지고 두 눈이 ᄭᅩᆺᄭᅩᆺᄒᆞ야 아모 말도 못ᄒᆞ고 안졋다가 져의 어머니 압헤가 썩 업드러지며

"에그 어머니. 져부터 죽어요."

션초 어머니가 그 쏠 츅겟다ᄂᆞᆫ 말을 울면셔도 귀ㅅ결에 드럿던지 초마자락을 집어 눈물을 이리 씻고 뎌리 씨스며

"오냐 아니울마. 걱졍말아. 죽기ᄂᆞᆫ 웨 죽으랴 나냐. 우리 모녀가 아모조록 긔를 쓰고 살아셔 너의 아버지 원슈를 갑ᄒᆞ야 ᄒᆞᆯ 터인ᄃᆡ 그러케 어림업시 죽어"

이 ᄯᅢ 관비ᄂᆞᆫ 열업시 말 한 마듸를 불슉 히 노코 도로혀 무료히 잇다가

"아씨 진뎡ᄒᆞᆸ시오 말이 그럿치 셜마 엇더ᄒᆞ릿가. 졔가 ᄃᆡ에를 별로 갓가히 안이단이ᄂᆞᆫ 톄ᄒᆞ고 김션달에게 다시 무러보아 만약 풍셜이게 되면 다시 말슴ᄒᆞᆯ 거 업시 됴슴고 그러치 못ᄒᆞᄋᆞᆸ거던 즉시 와 엿쥴 것이니 힘자라ᄂᆞᆫ ᄃᆡ로 쥬션ᄒᆞ야 보십시오."

(츈) "에그 이 디경에 누가 이러케 와셔 곰압게 말을 ᄒᆞ겟나. 어렵지마는 어셔 좀 알아다 쥬게."

그 관비가 하직ᄒᆞ고 간지 두어 식경이나 지나 분분히 다시 오거ᄂᆞᆯ 션초 어머니도 궁금ᄒᆞ려니와 뎨일 션초가 갑갑히셔 마루ᄭᅳᆺ흐로 마조 나오며

"간난 어멈. 그릐 ᄃᆡ 나으리 마님 일을 ᄌᆞ셰 알아보고 왓나."

관비가 션초다려ᄂᆞᆫ

"예 예 다 아라보앗슴니다. 아씨게 ᄌᆞ셰 엿쥴 것이니 쳔쳔히 드르십시오."

ᄒᆞ며 다시ᄂᆞᆫ 다른 말이 업시 자긔 어머니 쳐소로 드러가더니 감안감안히 무엇이라고 한참 말을 ᄒᆞ닛가 ᄌᆞ긔 어머니가 눈물만 쑥쑥 써러트리고 듯다가 입맛을 썩썩 다시며

"아모리 내 속에셔 난 ᄌᆞ식이기로 이런 일이야 억졔로 권ᄒᆞᆯ 슈가 잇나."

이ᄯᅢ 션초가 관비 드러오ᄂᆞᆫ 양을 보고 일썬 간난 어멈을 브르며 말을 무러 보앗더니 쳔쳔히 드르라고 맛업시 ᄃᆡ답ᄒᆞ며 ᄌᆞ긔 어머니다려 무슨 말을 은근히 젼ᄒᆞᄂᆞᆫ 양을 보고 심즁에 이상히 넉여 미다지 틈으로 엿보며 듯다가 급기 ᄌᆞ긔 어머니가 울며 ᄒᆞᄂᆞᆫ 말을 드르니 심히 이샹스러워셔 방문을 가만이 열고 겻히가 날아갈 ᄲᅳᆺ이 안즈며

(션)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슴 말슴이야요. 웨 아바지씌셔 참말 노여나오시지 못ᄒᆞ게 되셧나요."

(츈) "노여나오ᄂᆞᆫ 것이 다 무엇이냐. 닷식 후며는 홍문밧 숨거리에다 내여다 안치고 총으로 노아 죽인단다. 에그 남은 열 ᄌᆞ식을 두어도 아모탈 업더구면 우리ᄂᆞᆫ 변변치 못ᄒᆞᆫ 쏠 형뎨를

두엇는ᄃᆡ 쏠에 효도 보기는 바라도 아니ᄒᆞ지마는 너로 인ᄒᆞ야 싱쎄갓흔 아비가 폭도에 죄명을 쓰고 총을 마져 쥭게 되엿지."

(션) "그게 웬 말슴이야요. 리시찰이 져를 뮈워셔 아바지를 쥭이는 것이 올시다 그려. 정 그러ᄒᆞᆯ 터이면 고만 두십시오. 졔가 지금 써나 쥬야빈도ᄒᆞ야 셔울로 올나가 남산에 봉화를 드러 리시찰의 죄샹을 들어ᄂᆡ고 아바지 무죄ᄒᆞᆷ을 발명ᄒᆞ겟슴니다."

관비가 대경질ᄉᆡᆨ을 ᄒᆞ야 션초의 입을 손바닥으로 트러막으며

(관) "자근 아씨 남의 말은 ᄎᆡ 드르시도 아니ᄒᆞ시고 웨 이리 써드십시오 곳 큰 일 나겟네. 슈의ᄉᆞᄉᆞ도가 언졔 펼쳐ᄂᆡ노코 작은 아씨 ᄶᅢ문에 그리ᄒᆞᆷ닛가. 공연히 이러케 왁자짓걸 ᄒᆞ시면 화만 더 ᄌᆡ촉ᄒᆞ시는 일이올시다. 셜영 작은 아씨가 셔울을 가시기로 언의 겨를에 일쥬션을 ᄒᆞ실 터이오닛가. 분ᄒᆞ다고 이리시면 나으리ᄭᅴ 조곰도 리롭지 못ᄒᆞᆷ니다."

션초가 ᄂᆡ드던 긔운을 억졔로 참ᄉᆞ고

(션) "그러면 엇의 자셰 드러보셰. 말을 다ᄒᆞ게"

(관) "지금 가셔 졔 아오를 식여 김션달에게 다시 알아도 몃 칠 후면 ᄃᆡᆨ 나으리 일이 춤아 입으로 옴기지 못ᄒᆞᆯ 지경이라 ᄒᆞ기에 졔 말로 하ᄂᆞᆯ이 문어져도 소사나올 구멍이 잇다는ᄃᆡ 엇더케 일폐일 도리가 업겟ᄂᆞ냐 무른 즉 김션달도 아모리 슈의ᄉᆞᄉᆞ도의 심복일지라도 나으리 무죄히 그 지경되시는 것이 ᄆᆞᄋᆞᆷ에 싹ᄒᆞ던지 한업시 한탄을 ᄒᆞ다가 말ᄒᆞ기를 지금이라도 무ᄉᆞ타쳡ᄒᆞᄌᆞ면 쏙 ᄒᆞᆫ 가지 일이 잇는ᄃᆡ 만일 의향만 잇고 보면 그 쥬션은 내가 다 ᄒᆞ겟다 ᄒᆞ는ᄃᆡ 그 말이 별말이 아니라 작은 아씨 말슴입듸다."

(션) "……내 말을 무엇이라고 ᄒᆞ더란 말인가."

(관) "슈의ᄉᆞᄉᆞ도가 아씨를 한업시 ᄉᆞ모ᄒᆞ시는 터에 눈씀젹ᄒᆞ고 그 말을 드럿스면 벼ᄀᆡ위 공사가 업다고 분명히 ᄇᆡᆨ방이 될 듯 ᄒᆞ지만은 원ᄅᆡ 그의 지조가 견확ᄒᆞ닛가. 누가 무안이나 보쟈고 권히보겟나. 쇽졀업시 쵀호방만 쥭을 터이지 ᄒᆞ는 말을 듯고 져 되야셔 ᄃᆡᆨ에 와 엿줍지 아니ᄒᆞᆯ 가망이 잇슴닛가."

션초가 그 다음 말은 듯지도 안이ᄒᆞ고 ᄌᆞ긔 방으로 드러가 뒤문을 여러노코 문ㅅ지방에다 한편 팔쑴치를 셰우고 비스듬이 기ᄃᆡ 안져셔 무엇을 유심히 ᄂᆡ다보며 한슘만 치쉬고 ᄂᆡ리 쉬더라. 텬디 권능을 홀노 ᄌᆞ지ᄒᆞᆫ 듯 ᄒᆞᆫ 것은 츈삼월 동풍이라. 그 바ᄅᆞᆷ 지나는 곳마다 말으고 쇠ᄒᆞᆫ 가지에 입이 나고 ᄭᅩᆺ이 퓌며 일년 일도에 영화로온 긔샹을 그려ᄂᆡ는 즁 쵀호방에 집 후원화초가 당시에 뎨일인 듯 십게 란만ᄒᆞᆫ ᄃᆡ 몸은 약ᄒᆞ고 날ᄀᆡ는 부드러온 옥ᄉᆡᆨ나뷔 하아이 바람을 못익의여 간신이 날어 단이다가 심슐 굿고 욕심 ᄆᆞᆫ흔 검의가 요히쳐마다 쏙쏙 질너 팔ᄆᆞᆫ금 ᄉᆞ진치듯 ᄒᆞᆫ 쥴에 가셔 불힝히 턱 걸녀 오도가도 못ᄒᆞ고 무한 신고를 ᄒᆞ다가 근력이 탈진ᄒᆞ야 두 날ᄀᆡ를 졉어 붓치고 다시 쏨짝도 못ᄒᆞ는지라. 션초가

"에그 뎌 나뷔보게. ᄂᆡ와 갓치 불샹히도 되엿지."

ᄒᆞ고 방ㅅ구셕에 셰워 잇는 젼반을 얼픅 집어 들고 버선발로 감안감안 ᄂᆡ려가 검의쥴 한 복판을 탁 걸어 잡아다려 나뷔 젼신에 휘휘친친 감긴 검의쥴을 차례차레 쯧어 쥬며 혼자 한탄ᄒᆞ는 말이

"에그 이 나뷔는 텬힝으로 나를 만나 몹슬 검의의 핍박ᄒᆞᆷ을 면ᄒᆞ고 뎌러케 ᄆᆞᄋᆞᆷᄃᆡ로 훨훨 날아가는 고면 나는 언의 누가 졔를 ᄒᆞ야 우리 아바지를 옥즁에셔 뫼셔 내오고 아모 침칙업시 시원ᄒᆞᆫ 셰샹을 보고 사라볼고 휘ㅣ여 뎌 깜아귀가 웬 져러케 야단스럽게 와셔 우나 깜아귀는 령물이라 사ᄅᆞᆷ이 쥭으랴면 미리 알고 뎌러케 운다는ᄃᆡ 아마 ᄂᆡ가 분에 못이긔여 뎡녕 쥭으려나 보다 쥭는 것은 슳지 안이ᄒᆞ지마는 아바지 노혀 나오시는 것을 보지 못ᄒᆞ는 일이 ᄲᅨ에 ᄉᆞ모치지 아니ᄒᆞᆫ가 에그 깜아귀는 미물이라도 졔 어미에게 효셩이 잇는고로 ᄆᆞᆫ고에 효됴

(孝鳥)라는 아람다온 일홈을 엇엇는ᄃᆡ ᄉᆞ름이 되고 부모에게 불효가 되면 미물만도 못ᄒᆞ지…… "

ᄒᆞ며 ᄉᆞᆯ로 파고 박은 듯이 한 곳에 가 우두ᄲᅥ니 셔셔 곰곰 ᄉᆡᆼ각을 ᄒᆞ다가

"에라 ᄒᆞᆯ 일 업다. 부모 업는 ᄌᆞ식이 엇의 잇겟늬. ᄂᆡ 몸 한아 버려 아바지만 살아나셧스면 오날 쥭어도 내 도리는 다 찰엿지ㅣ"

ᄒᆞ고 낫빗을 화평이 가지고 안방으로 다시 드러가 관비를 ᄃᆡᄒᆞ야

"여보게 ᄃᆡᆨ 나으리 무죄 ᄇᆡᆨ방되시고 못되시는 것은 갓난 어멈 쥬션만 밋으니 아모됴륵 힘을 잘 써 보게."

갓난 어미는 쵀호방집을 위ᄒᆞ야 그 모양으로 입에 침이 업시 ᄋᆡ를 쓰는 일이 슌젼 안이라 기실은 리시찰의 돈쳔이나 쥰다는 젼후 롱락에 츔을 츄고 단이난 것이라 쳐음에 션초의 ᄂᆡᆼ락히 구는 양을 보고 얼마쯤 ᄆᆞᄋᆞᆷ에 낭픽로 녁엿더니 션초의 됴흔 낫흐로 다시 와셔 말ᄒᆞ는 양을 보니 한업시 깃거워셔

(관) "자근 아씨 그난 아모 걱졍 말으시고 한마듸 말ᄉᆞᆷ만 쾌히 ᄒᆞ시면 ᄅᆡ일이라도 ᄃᆡᆨ 나으리씌셔 ᄂᆞ오시도록 힘을 써 보오리다."

(션) "아모려ᄂᆞ 곰아온 사ᄅᆞᆷ일셰. ᄂᆞ다려난 더 말ᄒᆞᆯ 것 업시 슈의ᄉᆞㅅ도의 말ᄉᆞᆷ을 드러보와셔 내게 향ᄒᆞ야 일시 풍졍으로 그리ᄒᆞᆫ다 ᄒᆞ면 갓난 어멈도 내게 다시 올 것이 업고 아모리 그가 ᄂᆡ게 년긔가 상젹지 안이ᄒᆞᄂᆞ ᄇᆡᆨ년을 긔약ᄒᆞ겟다 ᄒᆞ거던 즉시 와셔 알게만 ᄒᆞ게."

관비가 그 길노 김션달을 가보고 션초에 말를 일일히 젼ᄒᆞ니 김션달이 큰 셩공이ᄂᆞ ᄒᆞᆫ 듯이 리시찰에게 고ᄒᆞ얏더니 리시찰이 입이 귀밋ᄭᅵ지 썩 버러지며

(리) "그러면 그러치. 졔가 될 말인가 어려울 것 업지. 졔 소원ᄃᆡ로 다 ᄒᆞ야 줄 것이니 오날 ㅅ밤이라도 드러오라고 말ᄒᆞ여라."

(김) "예. 그리ᄒᆞ게슴니다."

ᄒᆞ고 셔너 거름쯤 ᄂᆞ가난ᄃᆡ 리시찰이 무슨 ᄉᆡᆼ각을 ᄒᆞ얏난지 김션달을 급히 부른다.

"이 ᄋᆡ 감안히 잇거라. 이리 좀 오너라. 일이 그러치 안이ᄒᆞ다. 아모일 업슬 ᄲᅢ 갓흐면 내가 기ᄉᆡᆼ년 좀 불너 샹관ᄒᆞ기가 불시 례ᄉᆞ지마는 지금 쵀가를 ᄅᆡ일 쥭이리 모레 쥭이리 ᄒᆞ면셔 그 ᄉᆞᆯ을 볼너다 갓가히 힛다 ᄒᆞ면 남 듯기에 ??? 모양이 사오나?? ???? ???? 쥐도 ᄀᆡ도 모르게 밤들기를 기ᄃᆡ려 은근히 다려오너라."

김션달이 ?? ᄃᆡ답을 ᄒᆞ고 졔 쥬인으로 와셔 관비에게 그 ᄉᆞ연을 젼ᄒᆞ야 션초에게 통ᄌᆡ케 ᄒᆞ얏더라. 션초가 관비의 ᄒᆞ는 말을 듯고 한참 ᄉᆡᆼ각을 ᄒᆞ다가

(션) "여보게. 갓난 어멈. 그러치 안인 일 한 가지가 잇스니 어려워도 또 한 번 거름을 ᄒᆞ야 쥬게."

(관) "웨요. 작은 아씨 심부름이야 열 번 ᄇᆡᆨ번인들 못히드리오릿가. 말ᄉᆞᆷ만 ᄒᆞ십시오."

(션) "일이 되는 이샹에 은근ᄒᆞ나 왁자ᄒᆞ나 아모 관계 업거니와 만일 ᄃᆡᆨ 나으리씌셔 언의 ᄲᅢ던지 노혀 나오신 뒤라야 내가 가던지 그 량반이 오시던지 ᄒᆞ는 것이 그 량반 졍톄에도 손샹되지 안이ᄒᆞ고 내 도리도 당연ᄒᆞ려니와 싸고 싼 향ᄂᆡ도 난다고 아모리 비밀히도 소문이 졀로 날 터인ᄃᆡ 실범이 잇던지 업던지 옥즁에 갓쳐잇는 죄인의 ᄉᆞᆯ을 갓가히 힛다 ᄒᆞ면 그 량반은 무슨 모양이며 부모는 ᄅᆡ일 쥭게 되네 모레 쥭게 되네 ᄒᆞ는ᄃᆡ 소위 ᄌᆞ식이라고 슈의ᄉᆞㅅ도와 엇져니 엇져니 힛다 ᄒᆞ면 나는 무슨 ᄉᆞᆯ이겟나. 두 말 말고 슈의ᄉᆞㅅ도다려 오ᄂᆞᆯ이라도 ᄃᆡᆨ 나으리만 무죄 ᄇᆡᆨ방만 ᄒᆞ시라게. 내가 한 번 허락ᄒᆞᆫ 이샹에 위반ᄒᆞᆯ 리가 만무ᄒᆞ고 또는 그 량반과 셔로 맛날 디경이면 어졔도 말ᄒᆞ얏거니와 그 량반의 분명ᄒᆞᆫ 약도를 내 귀로 드러야 ᄒᆞ깃네."

(관) "드르실 약됴는 또 무엇이오닛가. 아조 지금 다 시원ᄒᆞ게 닐너 주십시오. 좌우간 이번 가셔 슈의ᄉᆞㅅ의 의향을 알고 오겟슴니다. 에구 ᄃᆡᆨ일이 안이면 옷이 남닛가 . 밥이 남닛가 이 ᄋᆡ를 쓰고 단니게오."

(션) "아모렴 그러치. 약됴는 별 것이 안이라

어졔 말과 ᄀᆞᆺ치 나를 한 번 갓가히 ᄒᆞᄂᆞᆫ 이샹에 로류장화로 녁이지 안이ᄒᆞ고 ᄇᆡᆨ 년 히로 ᄒᆞ겟다ᄂᆞᆫ 말을 분명히 듯기 젼에ᄂᆞᆫ 내 몸을 쳔조각 만 조각에다 ᄂᆡᆫᄃᆡ도 쳥종치 못ᄒᆞ겟다 ᄒᆞ더라고 그 량반씌 말을 ᄒᆞ야 주게."

(관) "이 말ᄉᆞᆷ은 웨 또 ᄒᆞ심닛가. 어졔도 아씨 말ᄉᆞᆷᄃᆡ로 다 고ᄒᆞ얏ᄂᆞᆫᄃᆡ 아모 반ᄃᆡ의 ᄃᆡ답이 업스실 졔ᄂᆞᆫ 모를 것 무엇 잇슴닛가. 그ᄃᆡ로 ᄒᆞ겟다ᄂᆞᆫ 말 일반인ᄃᆡ 아모려나 식이시ᄂᆞᆫ ᄃᆡ로 ᄒᆞ오리다."

션초가 관비를 ᄃᆡᄒᆞ야 이쳐럼 말ᄒᆞ기ᄂᆞᆫ 리시찰의 신의를 암만히도 알 슈 업슨 즉 ᄌᆞ긔 몸을 경션히 허락ᄒᆞ얏다가 쳣ᄌᆡᄂᆞᆫ ᄌᆞ긔 부친을 ᄇᆡᆨ방홀ᄂᆞᆫ지도 쏙 알 슈 업고 둘ᄌᆡᄂᆞᆫ ᄌᆞ긔를 일시 ᄉᆡᆨ정으로 그리ᄒᆞ얏다가 나죵에ᄂᆞᆫ 엇더케 괄시를 ᄒᆞᄂᆞᆫ지 알 길이 업셔셔 다심홈을 도라보지 안이ᄒᆞ고 지ᄌᆡ지삼 신용업ᄂᆞᆫ 쟈에게 어음다지듯 ᄒᆞᆫ 것이러라. 리시찰이 션초의 ᄒᆞᄂᆞᆫ 말을 관비와 김션달의 소ᄀᆡ로 다 듯더니 당쟝 욕심이 불ᄀᆞᆺ치 치미러 이 다음 일은 반푼어치도 ᄉᆡᆼ각지 안이ᄒᆞ고

"그리ᄒᆞ지 어려올 것 업다."

ᄒᆞ더니 일변 쵀호방을 잡아올녀 어름어름 신문을 ᄒᆞᄂᆞᆫ 톄 ᄒᆞᆫ 후 가쟝 톄통이 졍ᄃᆡᄒᆞᆫ 듯이 일장 셜유를 ᄒᆞᆫ다.

"너 말 듯거라. 네 죄샹으로 말ᄒᆞ면 열 번 쥭여 싸다마는 십분 ᄉᆡᆼ각ᄒᆞᄂᆞᆫ 바가 잇셔 특별이 용셔ᄒᆞᄂᆞᆫ 것이니 ᄌᆞ금 이후로ᄂᆞᆫ ᄀᆡ과쳔션ᄒᆞ야 아모됴록 다시 죄를 범치 말지어다. 만일 이 다음 또 무슨 일이 잇고 보면 그ᄯᅢ 가셔ᄂᆞᆫ 쥭기를 면치 못ᄒᆞ렷다."

쵀호방이 잡혀올 ᄯᅢ도 ᄭᅮᆷ밧기오 뇌여 나가기도 ᄭᅮᆷ밧기라. 잡기ᄂᆞᆫ 무슨 ᄆᆞᄋᆞᆷ이오 놋키ᄂᆞᆫ 무슨 ᄆᆞᄋᆞᆷ이냐고 한 번 질눈을 ᄒᆞ고 십지마ᄂᆞᆫ 벌셔 보와도 위인이 족히 ᄃᆡ리고 오르니 그르니 슈작홀 거리가 못되던지 다만

"예 지당ᄒᆞᆸ시외다. 엇의가 다시야 죄를 지을 가망이 잇슴닛가."

ᄒᆞ고 집으로 도라와 그 동안 관비가 왕ᄅᆡᄒᆞ며 슈작된 일을 돗고셔 반ᄌᆞ가 얏다고 열 길 스무 길은 쒸면셔

"그게 무슨 소리니 ᄌᆞ식을 팔아 내 목슘을 이어 어ㅣ 망칙ᄒᆞᆫ지구. 닉가 죄를 범ᄒᆞ얏스면 열 번이라도 쥭이ᄂᆞᆫ 것을 당홀 것이오. 죄만 아니 범ᄒᆞ얏스면 당당히 노혀 나올 터인ᄃᆡ 그게 무슨 소리니 어ㅣ 망칙ᄒᆞᆫ지구. 이 년 관비년부터 버르장이를 단단히 ᄀᆞᄅᆞ쳐야 ᄒᆞ겟다."

ᄒᆞ고 두 눈ㅅ귀가 쓕 씨어질 듯이 부릅쓰고 벌썩 이러셔 나가니 션초가 와락 달녀드러 져의 아바지 소ᄆᆡ자락을 검쳐 붓잡으며

(션) "아바지 웨 이리심닛가. 좀 참으십시오. 이ᄅᆡ도 졔 팔ᄌᆞ오 뎌ᄅᆡ도 졔 팔ᄌᆞ올시다. 엇더ᄒᆞ던지 아바지씌셔 살아나신 것만 됴치 남의 탓ᄒᆞ시면 무엇홈닛가."

(쵀) "에라. 웨 요리 방졍을 쓰ᄂᆞ냐. 나 살ᄌᆞ고 ᄌᆞ식을 팔아먹어."

ᄒᆞ며 션초를 ᄲᅮ리치ᄂᆞᆫᄃᆡ 션초 어머니가 우두커니 안져 보다가

"여보 뎌게 웬 망녕이시오. 업은 ᄋᆡ기말도 귀넘어 드르릿다오. 져도 다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일이 잇셔 그리ᄒᆞᄂᆞᆫ 것을 공연히 분만 내셔 이리시오."

ᄒᆞ며 달녀드러 ᄌᆞ긔 남편의 허리ㅅ도리를 안아 안방으로 드리ᄭᅳᆯ더니 아모조록 분심이 풀니도록 됴흔 말로만 히셕을 ᄒᆞᄂᆞᆫᄃᆡ 아모리 지금은 마ᄋᆞᆷ을 잡고 드러안져 려염살님을 홀지언뎡 본ᄅᆡ ᄃᆡ인 슈졉ᄒᆞ던 말솜씨야 어ᄃᆡ 갓스리오. 엇더케 리승스럽게 쳡쳡 리구로 명기불연ᄒᆞᆫ

말을 ᄒᆞ야 노앗던지 그 고지식ᄒᆞ고 결단셩 잇ᄂᆞᆫ 쵀호방이 슬몃이 드러누엇더라. 당장 이 광경을 보면 속모로ᄂᆞᆫ ᄉᆞᄅᆞᆷ은 아모라도

"뎌게 무슨 소릴가. ᄌᆞ식을 팔아 목숨을 잇다니 아마 그 ᄉᆞᆯ 션초를 뉘게다 팔아셔 그 돈을 리시찰에게 밧치고 ᄇᆡᆨ방으로 노혀 나왓ᄂᆞ 보다."

홀 터이오 그리허를 대강 짐작홀 만 ᄒᆞᆫ ᄉᆞᄅᆞᆷ은

"뎌릴만도 ᄒᆞ지. 그 ᄉᆞᆯ을 엇더케 알던 ᄉᆞᆯ인가. 비록 졔 팔ᄌᆞ 탓으로 기ᄉᆡᆼ 노릇은 식일지라

도 원릭 씨가 잇는 ᄌᆞ식이라 졔 지조가 아홉방 유부녀보다 더ᄒᆞ던 터인ᄃᆡ 져의 아바지를 살녀 내노라고 필경 몸을 버린 모양이니 아모라도 져러케 홀 터이야."

이런 말은 그 ᄯᅴ 근경의 리약이어니와 비위가 노락이를 ᄉᆡᆼ으로 회쳐 먹을 만ᄒᆞᆫ 리시출은 쵀호방을 그 모양으로 ᄇᆡᆨ방ᄒᆞ고 히지기를 기다려 김션달을 종용히 부르며

"이 ᄋᆡ 너 쵀호방의 집 쇼식을 드럿ᄂᆞ냐. 필경 웬 집안이 됴화들 ᄒᆞ겟지."

김션달이 두 손을 마조잡고 호리를 굽슬ᄒᆞ며

"됴화홀 ᄲᅮᆫ이오닛가. 져의 집에셔는 큰 경ᄉᆞ가 난 듯이 깃버ᄒᆞ며 ᄉᆞᄉᆞ도 송덕을 만셰불망으로 ᄒᆞᆫ다 ᄒᆞᆷ니다."

리시출이 썰썰 우스며

(리) "시럽신 것들이로구나. 송덕은 무슨 송덕 졔가 실범이 업스니 그러치 실범이 잇셔도 노혓슬가. 이 ᄋᆡ 그러ᄂᆞ 션초가 오날밤에 뎡녕히 오기는 ᄒᆞ겟지."

(김) "그다 ᄲᅮᆫ이오닛가. 졔가 언의 존젼이라고 거즌 말ᄉᆞᆷ을 엿쥬엇겟슴닛가."

(리) "이 ᄋᆡ 졀은 소릭로 긴밤 ᄉᆡ겟ᄂᆞ냐. 밤들기 젼에 어셔 오라고 가 일너라."

(김) "예. 그리ᄒᆞ오리다"

ᄒᆞ고 졔 쥬인으로 나와 간난 어미를 족불이지로 쵀호방 집에를 곳 보내엿더라. 간난 어미가 무슨 상급이ᄂᆞ 탈 듯이 ᄎᆡ호방의 집으로 가셔 몬져 ᄎᆡ호방을 보고 공슌히

"ᄂᆞ으리 마님 문안 엇덥시오. 그동안 경과ᄒᆞ옵신 일은 하졍에 무에라고 엿줄 말ᄉᆞᆷ이 업슴니다."

ᄎᆡ호방이 관비를 보니 분이 도로 왈칵 ᄂᆞ셔 당장

"이 년 괘ㅅ심ᄒᆞᆫ 년. 무엇이 엇지고 엇지히. 져런 년을 업ᄉᆡ 버려야지 그ᄃᆡ로 두엇다는 무슨 짓을 홀는지 모로겟다."

ᄒᆞ고 본보기를 착실히 내노으려다가 다시 돌녀 ᄉᆡᆼ각ᄒᆞ기를

"에ㅣ 견문발검이지. 졔ᄉᆡᆼ짓 것을 갈ᄋᆡ셔 무엇ᄒᆞ며 역시 내 집 운슈니라"

ᄒᆞ더니 눈ㅅ살을 훨쩍 펴면셔

"오ㅣ 너 왓ᄂᆞ냐. 근릭에는 네가 즁ᄆᆡ를 잘 ᄒᆞᆫ다는구ᄂᆞ"

갓난 어미가 ᄎᆡ호방의 말 나오는 것을 듯고 가슴이 울넝울넝ᄒᆞ야 얼풋 ᄃᆡ답을 못ᄒᆞ고 셧스니 이는 다름 안이라 ᄎᆡ호방이 평일에 셩품이 엇지 강경ᄒᆞᆫ지 말 ᄒᆞᆫ 마ᄃᆡ 일 ᄒᆞᆫ 가지 ᄌᆞ긔 소료에 버셔ᄂᆞ면 조곰도 용셔ㅅ셩 업시 당장 마른 벼락을 ᄂᆞ리는 터이라 그동안 졔가 왕릭ᄒᆞ며 소ᄀᆡᄒᆞ던 일을 미타히 녁여 무슨 거조를 ᄒᆞ려고 뎌러케 문뎨를 ᄂᆡ거니 ᄒᆞᆷ이러니 ᄉᆡᆼ각밧긔 ᄎᆡ호방이 썰썰 한 번 우스며

"웨 ᄃᆡ답을 안이ᄒᆞᄂᆞ냐. 응."

ᄀᆞᆺ난 어미가 그졔야 숨이 휘ㅣ이 ᄂᆞ가셔

(관) "쇼인네가 무슨 ᄌᆡ됴로 남의 즁ᄆᆡ를 ᄒᆞᆷ닛가. 요ᄉᆞ이 ᄃᆡᆨ에 몃 ᄎᆞ례 오옵기는 쇼인네 쇼견에는 ᄃᆡᆨ일이 ᄒᆞ도 가이업셔 심부림은 더러 단엿슴니다."

(ᄎᆡ) "허허 내가 우슴의 쇼리다 내가 ᄃᆡ강 드럿다마는 네 말을 좀 ᄌᆞ셰히 듯자."

(관) "…… 졔야 무엇을 알음닛가. 슈의ᄉᆞᄉᆞㅅ도 싸라온 김션달이 ᄉᆡ이는 ᄃᆡ로 심부림만 홀 싸름이올시다."

(ᄎᆡ) "김션달의 말이 즉 슈의ᄉᆞᄉᆞㅅ도의 말인 김션달 졔가 허젼장령을 ᄒᆞ얏겟ᄂᆞ냐. 그릭 김션달이 무엇이라고 ᄒᆞ더냐. ᄒᆞᆫ 마ᄃᆡ도 ᄲᅦ지 말고 자셰히 이약이를 ᄒᆞ여라."

(관) "이왕 무르시는ᄃᆡ 죄를 쥬시ᄂᆞ 상을 쥬시ᄂᆞ 엇의가 긔망을 ᄒᆞ겟슴닛가. 김션달의 말이 슈의ᄉᆞᄉᆞㅅ도쎄셔 ᄃᆡᆨ 작은 아씨의 한 마ᄃᆡ 허락만 드르시면 ᄃᆡᆨ일을 극력 두호히 쥬실 의향이시라고 ᄒᆞ옵기에 쇼인네는 ᄃᆡᆨ을 위ᄒᆞ와 마음에 됴화셔 와셔 엿쥬어 보온 즉 텬힝으로 작은 아씨씌셔 허락을 ᄒᆞ옵시기에 그ᄃᆡ로 김션달에게 회답ᄒᆞ엿숩더니 지금 김션달이 쇼인네를 또 불너셔 슈의ᄉᆞᄉᆞㅅ도씌셔 기ᄃᆡ리실 터이니 오늘밤으로 작은 아씨를 뫼시고 오라ᄒᆞ옵기 ᄂᆞ으리 문안도 ᄒᆞ올 겸 작은 아씨씌 이런 말ᄉᆞᆷ도 엿줄

겸 왓슴니다."

(칙) "그리면 듹 작은 아씨다려 곳치 가자고 안이될 말이지. 바로 슈의ᄉᆞㅅ도가 내 집으로 오시면 모로거니와 작은 아씨가 갈 슈는 업지."

(관) "에그 그리면 그듸로 가셔 말ᄉᆞᆷ을 ᄒᆞᄋᆞᆸ지오."

션초가 창을 격ᄒᆞ야 그 말을 듯다가 져의 아바지 겻헤 와 셔며

(션) "그러치 안인 일 한 가지가 잇슴니다."

(칙) "무엇이란 말이냐."

(션) "졔가 가는 일이 불가ᄒᆞᆷ은 더 말ᄉᆞᆷᄒᆞᆯ 것 업습거니와 그 량반다려 경솔이 오시라 ᄒᆞᆯ 슈도 업슴니다."

(칙) "네가 잘잘못 간에 임의 허락을 ᄒᆞᆫ 이상에 가지도 안이ᄒᆞ고 오지도 말ᄂᆞᄒᆞ면 점잔은이 듸졉도 안이오 네 모양은 무엇이냐."

(션) "안이올시다. 져는 셰상 업셔도 갈 슈도 업습고 그 량반다려 오시라 ᄒᆞᆯ 터이면 그 량반 친필로 단단히 약됴셔를 밧은 후라야 오시라고 쳥ᄒᆞᆯ 터이야요."

칙호방이 벌쩍 니러ᄂᆞ 사랑으로 ᄂᆞ아가며

"오냐. 네 ᄉᆡᆼ각듸로 ᄒᆞ여라. ᄂᆞ는 이것뎌게도모지 모로겟다."

뎨 ᄉᆞ회

션초가 져의 아바지 ᄂᆞ아간 뒤에 갓난 어멈을 ᄃᆡ ᄒᆞ야

(션) "여보게 그러치 안이ᄒᆞᆫ가. 이 일이 남보기에ᄂᆞᆫ 시들ᄒᆞ야도 내게ᄂᆞᆫ 평싱 큰 관게가 여간이 안일셰. 여보게 자네 말이 그 량반씌셔 임의 ᄂᆡ 말에 ᄃᆡ ᄒᆞ야 허락ᄉᆡ지 ᄒᆞ셧다 ᄒᆞ니 어련ᄒᆞᆯ 바ㅣᄂᆞᆫ 안이로ᄃᆡ ᄂᆡ셔 그리ᄒᆞ더라고 김션달을 가보고 말ᄉᆞᆷ을 엿쥬어 보라고 ᄒᆞ게."

(관) "무에라고 말ᄉᆞᆷ을 엿쥬라 ᄒᆞ와요."

(션) "별 말이 잇겟ᄂᆞ. 아ᄭᅡ ᄂᆞᄒᆞᄂᆞᆫ 말을 자네도 드럿거니와 륙례갓초ᄂᆞᆫ 혼인 아닌 바에 혼셔지 여부ᄂᆞᆫ 업지마는 다만 글 ᄒᆞᆫ 자라도 이다음 증거될 만ᄒᆞᆫ 것을 ᄒᆞ야 보ᄂᆡ시기를 바란다고 엿쥬아 무엇이라 ᄒᆞ던지 ᄂᆡ게 곳 와셔 알게 ᄒᆞ야쥬게."

갓난 어미가 그리ᄒᆞ겟다 ᄃᆡ답ᄒᆞ고 즉시 가더니 거미구에 도로 와셔

"작은 아씨 김션달이 그 말ᄉᆞᆷ을 엿쥬닛가 슈의ᄉᆞᄉᆞ도씌셔 우스시며 도로혀 작은 아씨가 넘오 심ᄒᆞ게 말ᄉᆞᆷ을 ᄒᆞ신다고 ᄒᆞ시며 그ᄂᆞᆫ 어렵지 아니ᄒᆞᆫ 즉 귀타여 ᄉᆞᄅᆞᆷ을 간졉으로 무엇을 ᄊᆞᆨ셔 쥬고 말고 ᄒᆞᆯ 것 업시 셔로 ᄃᆡ면ᄒᆞ야 안져셔 엇의ᄉᆡ지 마음에 츙분ᄒᆞ도록 의론ᄒᆞ야 증거물을 ᄊᆞᆨ줄 것이니 걱졍말ᄂᆞ고 ᄒᆞ시드릭요."

션초가 한참 무슨 ᄉᆡ각을 ᄒᆞ야 보다가

"에그 졈자는 쳐디에 셜마 거즛말ᄉᆞᆷ 하시겟ᄂᆞ. 그러면 오ᄂᆞᆯ밤에 ᄂᆡ 집으로 힝ᄎᆞᄒᆞ시라고 엿쥬라게."

갓난 어멈을 보ᄂᆡ여 자긔 어머니에게 당부ᄒᆞ야 일변 쥬안을 먹을만 ᄒᆞ게 졍결히 ᄎᆞ려노코 리시츌 오기를 기ᄃᆡ리ᄂᆞᆫᄃᆡ 얼풋 말ᄒᆞ면 과년ᄒᆞᆫ 녀ᄌᆞ가 쳣날 신방을 당ᄒᆞ얏스니 남 보기에 한업시 붓그럽기도 ᄒᆞᆯ 터이오 ᄂᆡ심으로 은근히 깃부기도 ᄒᆞᆯ 터이지마는 이ᄂᆞᆫ 려염가 보통 녀ᄌᆞ를 두고 ᄒᆞᄂᆞᆫ 말이지 일즉이 교방에 몸이 ᄆᆡ여 날마다 시마다 남ᄌᆞ의 노리ᄀᆡ로 파겁을 여디업시ᄒᆞᆫ 션초로 말ᄒᆞ면 붓그러올 것은 의례업스려니와 반졈도 깃부지도 안이ᄒᆞ니 이ᄂᆞᆫ 다름이 안이라 ᄌᆞ긔의 일뎡ᄒᆞᆫ ᄯᅳᆺ이 넌긔라던지 인물이라던지 운치가 리시츌 ᄀᆞᆺ흔 자를 ᄭᅮᆷ에도 원ᄒᆞ고 기ᄃᆡ리던 터이 안이어ᄂᆞᆯ ᄉᆞ셰에 박부득이 ᄒᆞ야 그 디경이 되엿스니 엇지 심ᄉᆞ가 편안ᄒᆞ리오. 셤셤옥슈로 턱을 ᄂᆞᄌᆞ막히 괴이고 시름업시 홀노 안져 긴 한숨 져른 한숨 쉴 ᄉᆡ 업시 쉬ᄂᆞᆫᄃᆡ 웃묵에 노인 등잔볼은 등화가 졀로 안져 ᄭᅳᆷ벅ᄭᅳᆷ벅 ᄒᆞᆯ 짜름이러라. 그리자 문밧긔셔 ᄉᆞᄅᆞᆷ의 소리가 두런두런 ᄂᆞ며 ᄯᅳᆯ 압헤셔 자던 삽살동경ᄀᆡ가 컹컹 짓고 마죠 ᄂᆞ가니 션초의 가슴이 무단히 덜컥 ᄂᆞ려 안즈며 ᄉᆞ지에 ᄆᆡᆨ이 한아도 업셔 검다 쓰다 말을 못ᄒᆞ고 그ᄃᆡ로 안져 혼ᄌᆞᄒᆞᄂᆞᆫ ᄉᆡ각이라.

"에구 내 팔ᄌᆞ야. 엇지ᄒᆞ면 됴흔가. 이 일이 부모ᄅᆞᆯ 위ᄒᆞ야 이러케 된 것이지 ᄂᆡ 마음 글너셔 그런 것은 안이지마는…… 그의 희ㅅ득 희득ᄒᆞᆫ 모발을 보건ᄃᆡ 우리 아바지보다도 나이 더 만흔 모양이던데 참아 붓그럽고 무셔워셔 엇더케 남편이라고 얼골을 마죠 ᄃᆡᄒᆞᄂᆞ…… 에라 긔왕 이리된 일을 다시 말ᄒᆞ면 쓸ᄃᆡ 잇ᄂᆞ냐. 그가 드러오거던 계약이나 단단히 밧아 ᄂᆡ신셰 결단이ᄂᆞ 안이ᄂᆡ도록 ᄒᆞᄂᆞᆫ 것이 올치…… 그의 ᄒᆞᄂᆞᆫ 거죠ᄂᆞᆫ 비록 죡히 의론ᄒᆞᆯ 여디가 업지마는 그도 ᄉᆞᄅᆞᆷ이지 ᄂᆞ이 그만치 지긋ᄒᆞ닛가 한 번 약조 곳 ᄒᆞ여 노으면 남의 젹악이야 셜마 ᄒᆞᆯᄂᆞ구……"

굿드른 무당과 ᄌᆡ드른 즁과 일반인 리시츌은 션초가 오라ᄒᆞᄂᆞᆫ 긔별을 듯고 엇지 죠흔지 억ᄀᆡ츔이 져졀노 ᄂᆞ셔 그 시각을 머물지 안이ᄒᆞ고 츈향이 ᄎᆞᄌᆞ가ᄂᆞᆫ 리도령과 ᄀᆞᆺ치 션초의 집을 ᄎᆞᄌᆞ가ᄂᆞᆫᄃᆡ 뒤에 ᄯᅡ라오ᄂᆞᆫ 김션ᄃᆞᆯ다려

(리) "이 ᄋᆡ 내가 가기ᄂᆞᆫ ᄒᆞᆫ다마는 창피스럽지 안이ᄒᆞ냐."

(김) "그러ᄒᆞ올시다. 졔만 기싱으로셔 ᄉᆞㅅ도게셔 브르시ᄂᆞᆫᄃᆡ 의례히 등ᄃᆡᄅᆞᆯ ᄒᆞ여야 도리에 가ᄒᆞ올 터이온ᄃᆡ 방ᄌᆞ스럽게 졔 집에 ᄭᅡᄃᆡᆨ 안이ᄒᆞ고 안져셔 언의 죤젼이라고 오시라고 ᄒᆞᆫ단 말ᄉᆞᆷ이오닛ᄀᆞ. 쇼인의 미련ᄒᆞᆫ ᄉᆡ각에ᄂᆞᆫ 이러케 힝ᄎᆞᄒᆞ실 것이 업시 도로 드러ᄀᆞ옵서셔. ᄂᆡ큼

ᄃᆡ령ᄒᆞ라고 엄분부를 나리셧스면 됴흘 듯 ᄒᆞ오이다."

(리) "허허 네 말이 그럴 듯 ᄒᆞ다마는 ᄂᆡᄀᆞ 졈ᄌᆞ느니 쳘모르는 뎌를 갈ᄋᆡ여 무엇ᄒᆞ겟나냐. 쏘 이왕 나션 길에 도로 드러ᄀᆞ면 더구나 모양이 되얏ᄂᆞ냐. 그리고 기ᄉᆡᆼ이면 다 기ᄉᆡᆼ이냐. 졔ᄀᆞ 이ᄶᅢᄉᆡ지 지죠를 직희고 잇는 것이 ᄀᆞ샹히도 ᄂᆡ가 한 번 질 슈밧긔 업고 쏘는 졔 아비ᄀᆞ 그 고초를 격다ᄀᆞ 방장 노혀 나왓는ᄃᆡ ᄌᆞ식된 도리에 모로는 톄 ᄒᆞ고 나올 슈ᄀᆞ 잇ᄂᆞ냐. ᄂᆡᄀᆞ 져를 갓ᄀᆞ히 안이ᄒᆞ랴면 모로거니와 그러치 안인 바에 ᄂᆡᄀᆞ ᄀᆞ셔 뎌도 볼겸 졔 아비 일을 위문도 ᄒᆞ는 것이 관계치 안이홀 듯 ᄒᆞ다. 남의 덕으로 졔 ᄉᆡᆼ계를 숨는 무리는 예나 지금이나 ᄆᆡᄉᆞ에 ᄌᆞ유는 반뎜도 업고 ᄀᆞ위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비위 맛초기로만 쥬장을 ᄒᆞ는 법이라 김션ᄃᆞᆯ이 리시찰의 말을 드르니 지남셕 맛는 바늘모양으로 젼신이 모다 션초의 집으로 쓸녀ᄀᆞ며 외면치례만 엇져니 엇져니 ᄒᆞ는 모양이라 그 입맛이 썩나도록 ᄃᆡ답을 련히 헌다.

(김) "예 지당합소이다. 졈자느신 좌디로 뎌와 각승을 ᄒᆞ오실 슈ᄀᆞ 잇ᄉᆞ오며 과연 말숨이지 쥭을 졔 아비ᄀᆞ ᄉᆞㅅ도 덧틱에 살아나왓스니 하졍에 감샤ᄒᆞᆫ 품으로 말숨ᄒᆞ오면 한다름에 쒸여라도 와셔 ᄉᆞㅅ도 압헤 빅ᄇᆡ 사례를 ᄒᆞ겟지오마는 지금 분부ᄒᆞ신 말숨과 ᄀᆞᆺ치 고ᄉᆡᆼ격던 졔 아비를 맛나 참아 졋을 ᄯᅥ날 슈ᄀᆞ 잇슴닛ᄀᆞ. 그러치마는 뎌의 일편단심은 ᄉᆞㅅ도를 향ᄒᆞ야 감격ᄒᆞᆫ ᄯᅳᆺ이 필경 엇의ᄉᆡ지 간졀ᄒᆞᆯ 터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리시찰이 다시 말이 업시 웃논에 물실어 노흔 듯이 든든ᄒᆞᆫ 마음으로 한거름 두거름 션초에 집례를 거진 당도ᄒᆞ얏는ᄃᆡ 갓난 어미ᄀᆞ 마죠나아와 기다리다ᄀᆞ 쏘루루 먼져 드러ᄀᆞ는 양을 보고 속마음으로

"뎌 계집이 뎌러케 드러ᄀᆞ 통긔를 ᄒᆞ면 아마 ᄎᆡ호방이라도 마죵을 나오렷다. ᄎᆡ호방이라는 자ᄀᆞ 우ᄆᆡᄒᆞᆫ ᄉᆞ룸이 안이라 경위죠리ᄀᆞ ᄆᆡ오쪽쪽ᄒᆞᆫ 모양이던데 초면 슈작을 무엇이라고 ᄒᆡ야 ᄂᆡ 모양이 창피치 안이홀구. 으ㅣ 응 지금 셰샹은 아모리 실슈ᄒᆞᆫ 일이 잇더ᄅᆡ도 ᄂᆡ 긔운을 쥭지지 말고 언론이 씩씩히야 좀체 놈이 넘보이지를 못ᄒᆞᄂᆞ니라."

이럿틋 마음을 도실너 먹고 그 집 문젼ᄉᆡ지 니르러도 어리친 ᄀᆡ샷기도 ᄂᆡ다보지를 안이ᄒᆞ는지라. 슬몃이 ᄀᆞ통ᄒᆞᆫ ᄉᆡᆼ각이 드러 ᄌᆞ긔에 평ᄉᆡ긱긔ᄃᆡ로 ᄒᆞ면 불호령이 텬동ᄀᆞᆺ치 나오지마는 ᄉᆞᆯ썩ᄉᆞᆯ썩 억지로 참기는 션초 한아의 관계라 스ᄉᆞ로 돌녀 ᄉᆡᆼ각ᄒᆞ기를 소경된 ᄂᆡ 탓ᄒᆞ지 ᄀᆡ쳔(?)너 나물어 무엇ᄒᆞ리 ᄂᆡᄀᆞ 오날 여긔 오기는 소관이 하사라고 좀 참으면 고만될 것을 공연히 힝실을 ᄂᆡᆺ다ᄀᆞ 다 쑨 쥭에 코를 쳣드려 무엇ᄒᆞ리. 그러나 놈의 쇼위가 괘심키는 안인 바ᄀᆞ 안인 즉 이 다음에 언의 모퉁이에셔든지 맛날 날이 잇슬 터이지 ᄒᆞ고 문압헤셔 왓다갓다ᄒᆞ며 동졍을 기ᄃᆡ리는ᄃᆡ 안으로셔 등불빗이 번듯 비취며 신발소리ᄀᆞ 들니더니 오ᄆᆡ불망ᄒᆞ던 션초ᄀᆞ 갓난 어미를 압셰우고 마쥬 나오며

"ᄉᆞㅅ도 안녕히 힝ᄎᆞ히겝시오닛ᄀᆞ."

리시찰이 그 인ᄉᆞ 한 마듸를 드르니 분ᄒᆞ든 마음이 봄눈 스러지듯 ᄒᆞ며 우슴이 것잡을 ᄉᆡ업시 졀노 나온다.

"허허허 허허허 너 잘 잇더냐."

션초ᄀᆞ 압셔 인도를 ᄒᆞ야 후원별당으로 드러ᄀᆞ 이ᄅᆡ목 비단 보료 우에다 안치더니 그 압헤ᄀᆞ 놀아갈 듯이 쪼쿠리고 안져셔 머리를 다쇼곳ᄒᆞ고 공손ᄒᆞᆫ 말로

"황송ᄒᆞ올시다. ᄉᆞㅅ도씌셔 이러케 힝ᄎᆞ를 ᄒᆞ옵시는ᄃᆡ 인ᄉᆞ로 ᄒᆞ옵던지 도리로 ᄒᆞ옵던지 졔 아비가 진시나아와 문안을 ᄒᆞ얏스련마는…… 엇진 일인지 요ᄉᆡ이 우연히 신병이 나셔 ᄭᅩᆷ작을 못ᄒᆞ고 누어 잇슴니다."

리시찰이 ᄌᆞ긔의 ᄒᆞᆫ 짓이 붓그러워 그러턴지 얼골이 슐취ᄒᆞᆫ 것 ᄀᆞᆺ치 취히지며

(리) "ᄂᆡ 엇진지 너의 어룬의 동졍을 못보겟더라. 그것 안이되엿구나. 징셰가 즁ᄒᆞ지나 안이ᄒᆞ냐 약이나 진시 써보지."

(션) "약도 약간 썻담니다마는 동졍이 업슴니다."

(리) "오냐 ᄉᆞ름이 병나기도 혹 례ᄉᆞ이지 셜마 엇더ᄒᆞ겟ᄂᆞ냐. 이리 갓ᄀᆞ히 오너라. 밤낫 보고 십던 얼골을 ᄌᆞ셰히 좀 보게."

(션) "……."

그리자 방문이 열니며 쥬안샹이 드러오ᄂᆞᆫᄃᆡ 썩셩비ᄂᆞᆫ 안이ᄒᆞ얏스되 아담ᄒᆞ고 졍결ᄒᆞ기ᄂᆞᆫ 다시 ᄒᆞᆯ 말 업더라. 아모리 슐 못먹ᄂᆞᆫ 자라도 반ᄀᆞ온 일이 잇거나 ᄉᆡᆼ각던 사ᄅᆞᆷ을 맛나면 한 잔 두 잔 취ᄒᆞᄂᆞᆫ 줄 모르고 먹ᄂᆞᆫ 법인ᄃᆡ 이 날 리시찰로 말ᄒᆞ면 쥬량이 셕(?) 크든 못히도 슌ᄇᆡ ᄎᆞ례에ᄂᆞᆫ 빠지지 안이ᄒᆞᆯ 만ᄒᆞᆫ 쥴 반ᄀᆞ온 일 ᄉᆡᆼ각던 ᄉᆞᄅᆞᆷ을 만난 좌셕이라 억ᄀᆡᄀᆞ 졀로 읏슥읏슥 흥치ᄀᆞ 엇지나던지 부어라 먹자 먹겟다. 부어라 얼근ᄒᆞ게 취ᄒᆞᆫ 판에 션초의 손목을 잡아 압흐로 쓸녀ᄒᆞ니 션초ᄀᆞ 졍ᄉᆡᆨ을 ᄒᆞ며 뒤로 물너 안더니

"이게 웬 망녕이오닛ᄀᆞ. 졈자는 쳐디에."

리시찰이 지ᄌᆡ지삼 션초를 지그럭 ᄃᆡ다ᄀᆞ 골이 버럭 나셔 슐샹을 드ᄉᆞᆨ 미러노으며

(리) "이 ᄋᆡ 션초야 네ᄀᆞ 이리ᄒᆞᆯ 터이면 나다려 오라기ᄂᆞᆫ 무ᄉᆞᆫ 버르쟝인고. 이 슐 한 잔 쥬랴고 불넛던ᄀᆞ ᄂᆡᄀᆞ 슐에 팔녀 단일 터ᄀᆞ. 안이 어ᄂᆞᆯ 어 참 ᄆᆡᆼ랑ᄒᆞ다. "

(션) "잠시 진졍을 ᄒᆞ옵시고 졔 말ᄉᆞᆷ을 드러 봅시오. "

(리) "말이 무ᄉᆞᆫ 말이냐. 길다케 쟝황슈작ᄒᆞᆯ 것이 업다. 먼졋번에도 ᄂᆡᄀᆞ 어림업시 네 쐬병ᄒᆞᄂᆞᆫᄃᆡ 속은 일이 지금ᄭᆞ지 ᄀᆞ통ᄒᆞ거던 또 무ᄉᆞᆫ 얏흔 쐬로 속여넘기랴고"

(션) "왕ᄉᆞᄂᆞᆫ 말삼ᄒᆞ실 것이 업ᄂᆞᆫ 것이 그ᄶᅢ에ᄂᆞᆫ 졔ᄀᆞ 아모죠록 ᄉᆞᄉᆞ도의 말삼을 안이드리랴닛ᄀᆞ 부득이 ᄒᆞ야 쐬병을 ᄒᆞ얏습거니와 오ᄂᆞᆯ이야 엇의ᄀᆞ 일호기로 긔졍을 ᄒᆞ야 말삼ᄒᆞ올리ᄀᆞ 잇슴닛ᄀᆞ. "

리시찰이 션초의 ᄅᆡᆼ락홈을 보고 열화를 불근ᄂᆡ다가 긔졍 안이ᄒᆞ겟노라ᄂᆞᆫ 쇼리에 금방 풀어져셔

"허허 허허 못ᄉᆡᆼ긴 ᄌᆞ식이로구. 혈말이 잇스면 얼풋ᄒᆞᆯ 것이지 무엇을 그리 별으고만 잇단 말이냐."

션초가 얼골빗을 졍ᄃᆡ히 가지고 초마ㅅ자락을 밧삭밧삭 염의며

(션) "이번에 졔 아비를 살녀쥬신 은덕은 태산이 가ᄇᆡ웁고 하히가 얏ᄉᆞ오니 ᄌᆞ식된 도리에 ᄉᆞㅅ도 분부ᄒᆞ신ᄂᆞᆫᄃᆡ ᄃᆡᄒᆞ야 도탕부화(蹈湯赴火)라도 감히 ᄉᆞ양ᄒᆞ오닛가만은 급기 ᄂᆡ외되ᄂᆞᆫ 일에 당ᄒᆞ와ᄂᆞᆫ 인륜의 읏듬되ᄂᆞᆫ 바이온 즉 확실히 밋사올 만ᄒᆞᆫ 증거가 업시는 당장 장하에 죽ᄉᆞ와도 봉힝ᄒᆞᆯ 길이 만무ᄒᆞ옵고 그 디경에 당ᄒᆞ와도 하ᄂᆞᆯᄀᆞᆺᄒᆞᆫ ᄉᆞㅅ도 은덕은 이 몸이 죽ᄉᆞ와셔라도 풀을 ᄆᆡ져 갑흘 터이올시다."

(리) "허허허 그 ᄃᆡ단ᄒᆞᆫ 일을 가지고 말ᄒᆞ기를 어려워 ᄒᆞ얏ᄂᆞ냐. 그리ᄒᆞ야라. 엇더케 ᄒᆞ얏스면 증거가 확실히 되겟ᄂᆞ냐."

(션) "ᄉᆞㅅ도씌옵셔ᄂᆞᆫ 경셩 죤귀ᄒᆞ옵신 량반이시오 져ᄂᆞᆫ 하방 일ᄀᆡ 쳔기가 안이오닛가. 쇼일 삼아 그리시던가 작란삼아 그리시던가 담우에 ᄉᆞᆺ가지 ᄀᆞᆺ치 시렵시 썩거 보시랴ᄂᆞᆫ 것이 볼시 례ᄉᆞ이올시다마는 제가 비록 팔ᄌᆞ가 긔구ᄒᆞ와 기안에 일홈은 잇ᄉᆞ오나 일편단심이 시속 쳔ᄒᆞᆫ 무리와 일반으로 힝실을 음란히 가지지 안이ᄒᆞ고 무론 누구에게던지 한 번 허신을 ᄒᆞᄂᆞᆫ 디경이면 ᄇᆡᆨ년을 의탁ᄒᆞ자ᄂᆞᆫ 작졍이온 즉 오ᄂᆞᆯ밤이라도 ᄉᆞㅅ도씌옵셔 졔 몸을 루츄히 녁이지 안이ᄒᆞ옵실 터이오면 ᄉᆞㅅ도 필젹으로 ᄇᆡᆨ년ᄆᆡᆼ셰를 써주옵시면 즉시 명령ᄃᆡ로 복종ᄒᆞ오리이다."

(리) "이 ᄋᆡ 그러면 혼셔지일체로구나. 어렵지 안치. 지필 가져 오너라. 네 소원ᄃᆡ로 써줄 것이니."

션초가 머리맛에 잇ᄂᆞᆫ 연샹을 닥어 노코 셤셤옥슈로 먹을 쓱쓱 갈더니 쥬지와 붓을 리시찰 압에 노으니 리시찰이 됴희을 집어 두어 쌤은 둘둘 펴셔 셔판 한편에다 걸쳐 졉어 쥐고 쓰윽 잡어당긔더니 다시 셔판에다 밧쳐 들고 붓에 먹을 흠셕 뭇쳐 이리 뎌리 ᄌᆡ이면셔

(리) "이 ᄋᆡ 한문으로 쓰랴 언문으로 쓰랴. "

(션) "한문이고 언문이고 쳐분ᄃᆡ로 ᄒᆞ십시오. "

(리) "이 ᄋᆡ ᄉᆞ연은 "

(션) "ᄉᆞ연도 쳐분ᄃᆡ로 쓰십시오. "

리시찰이 그날밤에ᄂᆞᆫ 우슘이 보로 터졌ᄂᆞᆫ지 검프른 입살이 귀밋ᄉᆡᆨ지 씨여지며 붓에 먹을 다시 뭇치어 슌식간에 써놋ᄂᆞᆫᄃᆡ 문필이라ᄂᆞᆫ 것은 부졍을 아니타ᄂᆞᆫ 법이라. 그 ᄌᆞ격에 글 글시ᄂᆞᆫ 무식지 안이ᄒᆞ야 별로 ᄉᆡᆼ각지 안이ᄒᆞᆫ ᄉᆞ연과 힘도 안이드린 ᄌᆞ획이 능란휘황 ᄒᆞ더라.

"이 ᄋᆡ 이것 보아라. 이만ᄒᆞ면 증거가 되겟ᄂᆞ냐."

션초가 밧아들고 두 세 차례를 보더니 쳑쳑 졉어 싸고 싸셔 의쟝 속에다 깁히 깁히 간슈를 ᄒᆞᆫ 후 리시찰의 소원을 셩취케 ᄒᆞ엿더라. 촌ᄃᆞᆰ이 ᄉᆡ벽을 ᄌᆡ쵹ᄒᆞ노라고 쉴 ᄉᆡ 업시 자지러지게 우ᄂᆞᆫᄃᆡ 쓸 압헤셔 자던 ᄀᆡ가 인젹에 놀ᄂᆞ ᄊᆡ여 집웅이 울니게 짓ᄂᆞᆫ 통에 리시찰이 니러나 두 손으로 두 눈을 썩썩 부뷔며 의복을 부스럭 부스럭 닙더니 션초를 흔들흔들 ᄒᆞ며

"이 ᄋᆡ ᄌᆞᄂᆞ냐. 응"

리시찰은 평ᄉᆡᆼ 못뎍을 달ᄒᆞ얏스니 ᄆᆞᄋᆞᆷ이 푸군ᄒᆞ야 잠을 잣거니와 션초야 처음 뜻을 직희지 못ᄒᆞᆫ 일이 통분도 ᄒᆞ고 이 다음 일힝히갈 것이 심려도 되여 눈ㅅ가이 반반히 지며 잠이 쳔리 만리 다라ᄅᆞᆯ 낫스니 즘즛 눈을 감고 자ᄂᆞᆫ톄 ᄒᆞ야 경션히 굴지 안이ᄒᆞ다가 리시찰의 ᄊᆡ우ᄂᆞᆫ 바ᄅᆞᆷ에 삽붓 이러나 안즈며

(션) "웨 이러케 일즉아니 긔침을 ᄒᆞ심닛가. 더 쥬무시고 잇다가 히나 훨젹 펴지거던 쳔쳔히 이러나셔셔 변변치 못ᄒᆞ나마 조반이나 잡슈시고 가시지오."

(리) "귀ᄐᆡ여 남을 알게 늣게 갈 것 무엇인ᄂᆡ. 일즉안이 슬멋이 가는 것이 올치."

(션) "이 지경된 이상에 남이 알기로 무슨 관계가 잇사와 슬멋이 가신다고 ᄒᆞ셔요."

(리) "네가 그런 리유를 엇지 다 알겟ᄂᆞ냐."

ᄒᆞ고 옷을 다 입고 이러나며

(리) "셥셥히 넉이지 말고 잘 잇거라. ᄂᆡ가 공ᄉᆞ를 인ᄒᆞ야 오날 다른 고을로 가면 아마 ᄉᆞ오일 지쳬가 될 모양이다. 그ᄶᅥᆨ 오면 다시 맛나 우리 장차 지닐 살님ᄒᆞᆯ ᄇᆡ포도 의론을 ᄒᆞ자."

션초 ᄆᆞᄋᆞᆷ에 셥셥ᄒᆞᆫ ᄃᆡ로 ᄒᆞ면 몃 칠 만류라도 ᄒᆞ고 십흐지만은 공사로 엇의를 간다ᄒᆞ닛가 ᄉᆞ셰 부득이 젼송을 ᄒᆞ며 계약ᄒᆞᆫ 일을 다시 졔츌ᄒᆞ야 단단히 뒤을 다져노려고 당쟝 말을 ᄒᆞ려 ᄒᆞᄂᆞᆫᄃᆡ 리시찰이 무엇을 이졋다 ᄊᆡ다른 모양으로

(리) "아ᄎᆞ, 함아ᄒᆞ더면 그ᄃᆡ로 갈 번ᄒᆞ엿군. 이 ᄋᆡ 그 계약셔를 이리 ᄉᆞ내 오너라."

(션) "그것은 웨 내오라고 ᄒᆞ셔요."

(리) "약증셔를 안이ᄒᆞ엿스면 모르거니와 긔왕 ᄒᆞᆫ 이상에 도쟝을 쳐야 확실 증거가 될 터인ᄃᆡ 맛춤 도쟝을 안이넛코 왓구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셔 도장을 쳐셔 곳 내 보내주마."

션초가 아모리 총명ᄒᆞ고 지각이 잇ᄂᆞᆫ 터이라도 죵시 경험업ᄂᆞᆫ 녀ᄌᆞ이라 리시찰의 말을 슌연ᄒᆞᆫ 텬진으로 나오ᄂᆞᆫ 것으로만 밋고 일호 의심업시 ᄉᆞ내여 주며 인ᄉᆞ에 당연ᄒᆞ게 말 ᄒᆞᆫ 마듸를 ᄒᆞᆫ다.

(션) "령감 인졔ᄂᆞᆫ 졔가 ᄃᆡᆨᄉᆞᄅᆞᆷ이 되얏ᄉᆞ온ᄃᆡ 졔 모가 엇져녁에라도 나와셔 뵈왓스련만은 늙을 바탕에 무엇이 그리 붓그러온지 못와 뵈옵고 졔 어른은 신병으로 ᄒᆞ야 호뎡출입을 못ᄒᆞᄂᆞᆫ 탓으로 역시 나와셔 뵈옵지를 못ᄒᆞ오니 령감좌디로 ᄒᆞ나 쏠 ᄌᆞ식에 관계로 ᄒᆞ나 못와 뵈옵ᄂᆞᆫ 졔 부모의 졍황이 엇더타 ᄒᆞ오릿가만은 져되야셔ᄂᆞᆫ 령감 얼골 ᄃᆡᄒᆞᆯ 낫이 업ᄉᆞ오니 이런 ᄉᆞ졍을 용셔ᄒᆞ십시오."

(리) "별말을 다 ᄒᆞᄂᆞᆫ구나. 지금은 총총ᄒᆞ다. 이 다음에 셔로 셜파ᄒᆞ기로 ᄂᆞ질 것 잇ᄂᆞ냐. 쟈ㅣ 나ᄂᆞᆫ 간다. 잘 잇거라. 얼마 안이되면 볼 것이니 내 ᄉᆡᆼ각을 너모 과도히나 말어라. 무얼 내 ᄉᆡᆼ각을 ᄭᅮᆷ에나 ᄒᆞᆯ나구."

(션) "웨 그러케 말슴을 ᄒᆞ셔오"

ᄒᆞ며 리시찰을 ᄃᆡ문밧ᄭᅡ지 젼송ᄒᆞᄂᆞᆫᄃᆡ 리시찰은 웨 그리 급ᄒᆞᆫ지 뒤도 도라보지 안이ᄒᆞ고

힝힝히 가더라.

칙호방은 ᄌᆞ긔의 ᄉᆞ랑ᄒᆞᄂᆞᆫ ᄯᅳᆯ이 그날밤의 ᄉᆡ집가ᄂᆞᆫ 날 밤인 즉 ᄆᆞᅀᆞᆷ에 경ᄉᆞ스러워라도 젼후 범ᄇᆡᆨ 거힝을 련히 신칙ᄒᆞ야 힘자라ᄂᆞᆫ ᄃᆡ로 긔구를 불여볼 것이오. 사외되ᄂᆞᆫ 쟈가 사랑ᄒᆞ야 셔라도 방문이 달토록 나들며 졍답게 슈졉을 ᄒᆞ얏슬 것인ᄃᆡ 늙은 위인이라셔 음침ᄒᆞᆫ ᄯᅳᆺ을 두고 ᄌᆞ긔에 ᄯᅳᆯ을 검박ᄒᆞ려다가 졔 ᄆᆞᅀᆞᆷᄃᆡ로 안이되잇가 ᄌᆞ긔이게 불칙ᄒᆞᆫ 죄명을 억륵으로 씨워 쥭이려 ᄒᆞ던 일도 ᄆᆞᅀᆞᆷ에 얼마즘 통탄ᄒᆞ거던 하물며 ᄌᆞ긔를 무죄 방송ᄒᆞᄂᆞᆫ 것으로 어린 것의 ᄆᆞᅀᆞᆷ을 유인ᄒᆞ야 긔어히 츙욕ᄒᆞᄂᆞᆫ 일이 졀치부심이 되야셔 ᄎᆞ긔 마누라ᄉᆡᆨ지 단속ᄒᆞ야 뎌의 ᄌᆞ락ᄃᆡ로 내버려두고 오거니 가거니 도모지 내다보지도 안이ᄒᆞ얏더라. 이ᄶᅢ 리시찰은 ᄌᆞ긔 ᄉᆞ쳐로 도라오며 심즁에 스ᄉᆞ로 ᄒᆞᄂᆞᆫ 말이라.

"흥 유지면 ᄉᆞ경셩(有志事竟成) 이란 말이 쏙 올타. 졔가 ᄀᆞ장 결심이나 잇ᄂᆞᆫ 체 ᄒᆞ고 엇져니 엇져니 ᄒᆞ더니 인졔도 그ᄶᅡ위 슈작을 남을 ᄃᆡ ᄒᆞ야 짓걸일ᄭᅡ. 어ㅣ 실업에 ᄯᅳᆯ년 내가 셔울셔브터 뎌을 한 번 결연ᄒᆞ자고 ᄆᆞᅀᆞᆷ둔 일이 잇던 터이오. 쏘ᄂᆞᆫ 졔 인물과 ᄌᆡ됴가 하로밤 쇼일거리가 착실ᄒᆞ기에 작난을 실업시 ᄒᆞᆫ 일이지. 뎌ᄒᆞ고 살기ᄂᆞᆫ 내가 계집이 업셔셔 ᄉᆡ골집에ᄂᆞᆫ 마누라가 눈이 십퍼러케 잇고 셔울 집에ᄂᆞᆫ ᄉᆞᆺᄀᆞᆺ치 졂은 쳡이 잇ᄂᆞᆫᄃᆡ 무에 낫바셔 져를 쏘 두어 그나 ᄌᆞ손이 업ᄂᆞᆫ 터이면 일뎜혈육이라도 보려고 어린 계집을 엇ᄂᆞᆫ 것이 혹 례ᄉᆞ지마는 내야 아ᄃᆞᆯ ᄯᅳᆯ이 ᄉᆞᆷ남ᄆᆡ나 되고 손ᄌᆞ가 그득ᄒᆞᆫᄃᆡ 무엇을 ᄒᆞ자고 뎌를 엇어 어ㅣ 우슌일 다보겟구. 졔 아비 놈으로 말ᄒᆞ면 당장 내 슈즁에 죽ᄂᆞᆫ 놈인 즉 무죄 ᄇᆡᆨ방으로 ᄒᆞ야쥰 은덕으로 ᄒᆞᆫᄃᆡ도 내가 왓다면 유공불급ᄒᆞ야 나와볼 터이어ᄂᆞᆯ 언연이 졔 방에 썩 잣바져 잇고 졔 어미년으로 말ᄒᆞ면 불과시 퇴기로 뭇놈을 다 보던 것이 안이쇱게 ᄂᆡ외 올치 졔 ᄯᅳᆯ 하아 ᄂᆡ놋ᄂᆞᆫ 것이 큰 ᄇᆡ부른 흥셩이나 ᄒᆞᄂᆞᆫ 것처럼 응 졔 ᄯᅳᆯ이 무엇인ᄃᆡ 내가 마음에 업셧스면 모르거니와 이 고을 기싱년 하아 임의로 쳐치ᄒᆞ지 못ᄒᆞᆯ가. 너의 년놈의 소위가 괘ㅅ심히도 션초ᄂᆞᆫ 안이다리고 살 것이다. 오냐 계약셔에 도장 ᄶᅥᆨ어 보내기를 잘 기ᄃᆡ려 보아라. 하ᄂᆞᆯ에 잇ᄂᆞᆫ 별ᄯᅡ기보다 좀 더 어려올나."

ᄒᆞ고 그 잇흔날 이럿타 져럿타 한 마듸 긔별 업시 젼라북도로 향히 갓더라.

뎨 오회

슌젼ᄒᆞᆫ 텬진으로 사ᄅᆞᆷ을 ᄌᆞ긔 마음 밋듯 ᄒᆞᄂᆞᆫ 션초는 리시찰 도라간 뒤로 이째나 계약셔ᄅᆞᆯ 보닐가 눈이 감도록 기ᄃᆡ리ᄂᆞᆫᄃᆡ 어언간 히가 지도록 쇼식이 업스니 심즁에 심이 의아ᄒᆞᆫ던지 져의 부모를 향ᄒᆞ야 소경력 ᄉᆞ정를 고ᄒᆞ며

(션) "이 량반이 엇지히셔 아모 긔별이 업슬가요. 그 량반이 년부력강치 안이신 터에 밤에 잠을 편이 못줌으시고 아마 신병이 나셧나 보오. 그러치 안이면 즉시 하인을 보ᄂᆡ마고 금셕 ᄀᆞᆺ치 말ᄉᆞᆷ을 ᄒᆞ얏ᄂᆞᆫᄃᆡ 엇지 엇히셔 잇ᄃᆡᄉᆡ지 긔별이 업스니 갑갑ᄒᆞᆫᄃᆡ 갓난 어멈을 불너 알아보앗스면 됴켓셔요."

(칙) "밋기를 ᄭᅩᆨ 잘 밋ᄂᆞᆫ다. 그가 사ᄅᆞᆷ인 줄노 밋엇더냐. 그 흉계ᄅᆞᆯ 몰낫지 잠ㅅ간 너ᄅᆞᆯ 속이노라고 능쳥스럽게 무엇을 써 쥬고 급히 갈ᄶᅥ에 도로 ᄲᅦ아슬 계교로 도쟝인지 막걸닌지 ᄶᅥᆨ어 쥬마고 가져간 것인ᄃᆡ 네 ᄉᆡᆼ각에ᄂᆞᆫ 도로 보닐 줄로 알고 기다리ᄂᆞᆫ 모양이냐. 이번에 너 욕당ᄒᆞᆫ 일 곳 ᄉᆡᆼ각ᄒᆞ면 이에 신물이 졀로 난다. 이 ᄋᆡ 긔왕 욕당ᄒᆞᆫ 일은 팔ᄌᆞ탓으로 녁이고 그 ᄯᅡ위 인물을 ᄉᆡᆼ각도 말아라. 셜혹 그 위인이 약죠을 직회기로 소용이 무엇이냐."

션초가 ᄌᆞ긔 부친 말에 ᄃᆡᄒᆞ야 무엇이라 명기불연ᄒᆞ야 ᄃᆡ답을 ᄒᆞ려다가 다시 ᄉᆡᆼ각ᄒᆞ기를

"에그 아모 말도 말어야 ᄒᆞ겟다. 아바지게셔 분졍지도에 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이지 그러치 아니면 아즉 압일을 지ᄂᆡ보지시지도 안이ᄒᆞ시고 나의 가장된 분을 뎌다지 단쳐을 들어 말ᄉᆞᆷᄒᆞ실ᄂᆞ구. 그ᄅᆡ로 그러치 안이ᄒᆞ다 만일 분ㅅ김에 말ᄉᆞᆷ을 더 심ᄒᆞ게 ᄒᆞ시면 낫말은 ᄉᆡ가 듯고 밤말은 쥐가 듯ᄂᆞᆫ다ᄂᆞᆫᄃᆡ 령감귀에 혹 드러가면 열흘 길를 하로도 못가셔 내게 향ᄒᆞᄂᆞᆫ 령감의 마음도 셥셥ᄒᆞ야질 터이지."

ᄒᆞ고 자긔 부친에 입을 손다닥으로 막으며

"글셰 웨 이러케 말ᄉᆞᆷ을 ᄒᆞ심닛가. 긔왕 일은 엇지 되얏던지 인졔ᄂᆞᆫ 그 령감이 아바지 사외가 안이오닛가. 사외에 말을 장인되시ᄂᆞᆫ 아바지씌셔 심ᄒᆞ게 ᄒᆞ시면 ᄊᆞᆯ에 ᄉᆞᆯ악션이ᄂᆞᆫ 무엇이 됨닛가. 분ᄒᆞ셔도 츰으시고 갓난 어미에게 좀 알아나 보아 쥬십시오."

(칙) "뎌 ᄌᆞ식이 약고 똑똑ᄒᆞᆫ 쥴 알앗던니 지금 보닛가 아즉 용열ᄒᆞ구나. 령감은 난졍마즐 무슨 령감이고 알아보기ᄂᆞᆫ 무엇을 알아보아 아비에 말이 ᄭᅩᆨ 올으니 가당치 안케 ᄉᆡᆼ각을 말고 진작 이져버려라. 한 일 밀워 열 일을 아ᄂᆞᆫ 법인 즉 두고 볼 것 업시 네게도 결다코 못ᄒᆞᆯ 노릇ᄒᆞᆯ 위인이니라."

(션) "에그 아바지 그러케 ᄒᆞ실 말ᄉᆞᆷ이 안이올시다. 그가 엇더ᄒᆞᆫ ᄌᆞ격이던지 긔왕 한 번 몸을 허락ᄒᆞ얏사온 즉 졔가 죽어도 리씨ᄃᆡᆨ 사ᄅᆞᆷ이온ᄃᆡ 엇지 달면 ᄉᆞᆷ키고 쓰면 ᄇᆡ앗타 금수에 힝위를 ᄒᆞᆫ단 말ᄉᆞᆷ이오닛가."

칙호방이 리시찰 위인을 명약관화로 알고 션초다려 아모됴록 다시 ᄯᅳᆺ을 두지 말고 진즉 달니 변통ᄒᆞ라고 졍ᄉᆡᆨᄒᆞ야 얼마쯤 ᄭᅮ짓다가 졔가 결심을 하도 단단히 ᄒᆞ고 일향 듯지 아니ᄒᆞᄂᆞᆫ 양을 본즉 아모려도 ᄒᆞᆯ 일 업ᄂᆞᆫ지라. 부득이ᄒᆞ야

"응 ᄌᆞ식도 ᄒᆞᆫ 번 쥐면 다시 펼 줄은 도모지 모로지. ᄒᆞᆯ 수 업다 네 팔ᄌᆞ 소관이다."

ᄒᆞ더니 하인을 갓난 어미에게로 보ᄂᆡ여 리시찰의 동졍을 탐지ᄒᆞ야 본즉 리시찰이 죠반을 ᄌᆡ촉ᄒᆞ야 먹고 즉시 써나셔 젼라북도로 갓다ᄒᆞᄂᆞᆫ지라.

칙호방이 혀를 툭툭 차며

(칙) "쟈ㅣ 보아라. 내가 무엇이라더냐. 발셔 젼라북도로 다라낫단다. 고러케 계약셔에 도쟝을 잘 ᄶᅥᆨ어 보ᄂᆡ엿ᄂᆞ냐."

(션) "아마 총망즁에 잇고 그ᄃᆡ로 가신게지오. 쇼양 ᄇᆡ양ᄒᆞᆫ 졂은 사ᄅᆞᆷ 안이고 셜마 ᄇᆡ약ᄒᆞ오릿가. 하회를 기다려 보면 알 것이오니 넘오 과도히 말ᄉᆞᆷ을 마십시오."

(칙) "나인들 너만치 ᄉᆡᆼ각을 못ᄒᆞ겟ᄂᆞ냐. 그가 늙것스나 졀멋스나 ᄉᆞ위되기ᄂᆞᆫ 일반인 즉 너를 위ᄒᆞ야 아모됴록 그 허물을 뒤덥허 가겟지만는 관기모ᄌᆞ면 인언슈ᄌᆡ(觀其眸子人焉瘦

諸)라고 그 목자가 텬하에 간교ᄒᆞ기가 싹이 업고 음셩이 괴상히셔 후분신셰ᄂᆞᆫ 말이 못될나ᄂᆡ가 상셔공부ᄂᆞᆫ 못ᄒᆞ얏다만은 다년 관부 츌입을 ᄒᆞ며 렬인을 만히 ᄒᆞᆫ 탓으로 여합부졀 알겟더라. 그런즉 ᄂᆡ 싱각에ᄂᆞᆫ 열에 아홉은 그가 너를 당장 속여넘긴것 ᄀᆞᆺ고 ᄯᅩᄂᆞᆫ 셜혹 속이지를 안이ᄒᆞ고 신를 직힌ᄃᆡ도 나죵에 필경 됴치 못ᄒᆞᆯ 것이니 아ᄭᅡ 말ᄒᆞᆫ ᄃᆡ로 진작 단염ᄒᆞᄂᆞᆫ 편이 가ᄒᆞ니라."

(션) "에그 아바지 져ᄂᆞᆫ 죽ᄉᆞ와도 그리ᄒᆞᆯ 슈 업슴이다. 그 령감씌셔 금셕ᄀᆞᆺ흔 언약을 져바리ᄂᆞᆫ 디경이면 져ᄂᆞᆫ…… ᄯᅩ 후분 됴치 못ᄒᆞᆫ 것이야 엇지 압을 ᄂᆡ다보난 슈도 업고 셜ᄉᆞ 그 얼줄 알기로 긔왕 몸을 허락ᄒᆞᆫ 이상에 후회ᄒᆞ면 쓸 ᄃᆡ가 잇슴니가."

치호방은 션초의 고집ᄒᆞᄂᆞᆫ 양을 보고 화가 더럭 나셔

"예ㅣ 누가 아ᄂᆞ냐. 네 ᄌᆞ락ᄃᆡ로 ᄒᆞ여라. 잘되야도 네 팔ᄌᆞ오 못 되여도 네 팔ᄌᆞ니라."

ᄒᆞ며 밧갓흐로 나간 뒤에 션초어머니가 쥐죽은 듯이 잇셔 동졍만 보다가 곰곰 싱각ᄒᆞ기를

"ᄌᆞ긔 남편 말ᄃᆡ로 리시찰의 ᄌᆞ격이 깁히 밋지 못ᄒᆞᆯ 위인 ᄀᆞᆺ흐면 ᄌᆞ긔 ᄯᅳᆯ의 집심은 밋고 쓴은 듯 ᄒᆞ야 다시 변통을 못ᄒᆞᆯ 모양이라. ᄯᅳᆯᄌᆞ식일지언뎡 졔 ᄌᆞ격이 남에 밋헤 안이들만 ᄒᆞ닛가 아모됴록 져와 ᄀᆞᆺ흔 싹을 엇어 한이업시 ᄌᆞ미를 보짓더니 쑴결인지 잠결인지 쳔만 뜻밧게 굽도 졋도 못ᄒᆞᆯ 경우를 당ᄒᆞ얏스니 이 일을 엇지ᄒᆞ면 됴탄 말인가"

ᄒᆞ며, 담ᄇᆡㅅᄃᆡ를 톡톡 털어 한 ᄃᆡ를 퓌여 물고 후뎡화원으로 넉이 업시 ᄒᆞᆫ 거름 두 거름 도라가ᄂᆞᆫᄃᆡ 머리가 다 부욱ᄒᆞ고 키가 조고마ᄒᆞᆫ 계집ᄋᆞ히가 각ᄉᆡᆨ풀입을 뜻어 초마 압헤다 싸들고 강동강동 뒤여오며

"어머니 뎌긔 언니가 뒤ㅅ마루에 혼자 안져셔 작구 울기만 ᄒᆞ며 ᄂᆡ가 가닛가 뎌리 가라고 핀잔만 주어요. 나 뭐어ᄒᆞᄂᆞᆫ 그 놈에 언니 진작 죽기나 힛스면 됴켓지."

션초어머니가 갓득이나 심란ᄒᆞᆫᄃᆡ 아모리 쳘모르ᄂᆞᆫ 어린 것이라도 졔 형에게 향ᄒᆞ야 막 맛츰가ᄂᆞᆫ 말로 쥭엇스면 죠켓다고 ᄒᆞᄂᆞᆫ 것을 듯고 분이 와락 나셔

"이년 무엇이야. 형다려 죽엇스면 죠켓다ᄂᆞᆫ 법이 엇의 잇더냐. 그리지 안이히도 심ᄉᆞ가 죠치 못ᄒᆞ야 울기만 ᄒᆞᄂᆞᆫ 형다려 죽으라고 이년 보기 실타. 져리 가거라."

그 ᄋᆞ히ᄂᆞᆫ 뎌의 어머니가 그리ᄒᆞᆯᄉᆞ록 팔에가 ᄆᆡ달녀 응셕을 ᄒᆞ며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나를 작고 쏫기에 무엇을 혼자 쳐먹으려나 ᄒᆞ고 감안감안이 가 슘어 보닛가 언니가 웨 그리난지 의쟝을 열고 의복을 ᄎᆞ례로 ᄂᆡ여 이것도 닙어 보고 한슘 쉬고 뎌것도 닙어 보고 한슘을 쉬여요."

션초 어머니가 그 ᄋᆞ히 대깅이를 툭 쥐여 박으며

"에라 이 년 뎌리 가거라. 듯기 슬타."

ᄒᆞ야 쇼차보ᄂᆡᆫ 뒤에 션초의 쳐소로 슬슬 도라가니 션초가 ᄌᆞ긔 어머니 오ᄂᆞᆫ 양을 보고 흘으던 눈물을 얼풋 씨셔 버리고 텬연ᄒᆞᆫ 모양으로 ᄂᆡ려 마즈며

(션) "어머니 웨 무슨 일에 역졍이 나셧슴닛가. 긔식이 죠치 못ᄒᆞ시니."

(모) "에그 역졍인지 무엇인지 나ᄂᆞᆫ 모르겟다. 내가 너를 엇더케 길은 ᄯᅳᆯ인야 남보다 쒸여나게 잘 되지는 못ᄒᆞᆫ들 텬ᄒᆞ에 몹슬 량반을 맛나셔 네가 뎌 모양으로 속을 샹ᄒᆞ고 울기만 ᄒᆞ니 내 마음이 엇지 죠켓난야. 이 ᄋᆡ 어미가 ᄋᆡ쓰고 공드려 길너셔 ᄐᆡ산ᄀᆞᆺ치 밋고 바라ᄂᆞᆫ 뜻을 싱각ᄒᆞ야셔라도 어졔 아바지 ᄒᆞ시던 말슴과 ᄀᆞᆺ치 팔ᄌᆞ 탓으로 보쌈격근 세음치고 그 량반은 니져바려라. 네 말맛다나 그 량반이 총망즁에 니졋다 ᄒᆞᆯ지라도 벌셔 그 량반 ᄶᅥ나간지가 몃 칠니냐. 쳐음에 너을 맛나지 못ᄒᆞ야 셔들던 품으로 ᄒᆞ면 니져버릴 리도 만무ᄒᆞ고 이ᄶᅢᄉᆡ지 이럿타 아모 긔별이 업단 말니냐."

(션) "어머니 아모 걱졍을 말으십시오. 리시찰 령감이 져다려 말슴ᄒᆞ시기를 공사로 그 잇흔날 급히 ᄶᅥ나시면 오륙일 후에 다시 오셔셔

범빅ᄉᆞ를 구쳐ᄒᆞ시마 ᄒᆞ셧스니 ᄒᆞ회를 기다려 보아 엇더케 ᄒᆞ던지 좌우간 귀졍을 ᄒᆞᆯ 터이오니 아모 념녀 말으십시오. 제가 울기는 언제 울엇다고 이리ᄒᆞ셔요."

(모) "네 얼골을 보다 운 것을 모로며 모란이가 보고 와셔 일으든ᄃᆡ 안이 울엇다고 말을 ᄒᆡ오냐 울지 말라. 너 그리는 양을 보면 내 쇽이 푹푹 상ᄒᆞᆫ다. 너의 아바지 말ᄉᆞᆷ이 야속히셔 그리힛늬."

(션) "안이야요. 공연히 마ᄋᆞᆷ이 슈란히셔 그리 힛셔요. 다시는 울지 안이ᄒᆞᆯ 터이니 아모 걱졍 마르십시오. "

션쵸가 져의 어머니 압헤 됴흔 말로 ᄃᆡ답은 ᄒᆞ엿소나 은근히 삼촌간쟝이 밧작밧작 죄이여 낫이면 ᄒᆡ가 지도록 밤이면 동이 트도록 리시출의 쇼식을 고ᄃᆡᄒᆞ는ᄃᆡ ᄉᆞ 오일이 훌젹 지나륙 칠일이 지나도록 아모 동졍이 업는지라. 궁금ᄒᆞ고 긔막힌 ᄉᆞ졍을 발표ᄒᆞ야 말ᄒᆞ쟈니 부모의 츼망이 두렵고 다만 ᄌᆞ긔 쇽으로 치미러 올으는 화를 억지로 참으며 신음ᄒᆞ는 말이라.

"에그 셰샹에 이런 일도 잇ᄂᆞ. ᄂᆡ가 발셔 몃 ᄎᆞ레를 ᄌᆞ쳐ᄒᆞ야 이 셰샹을 버리고 십것마는 그 량반도 사ᄅᆞᆷ인 즉 죠만간 무슨 긔별이 잇슬 터이지 셜마 모발이 회ㅅ득 회득ᄒᆞᆫ 좌디로 나갓흔 어린 사ᄅᆞᆷ을 쇽일 리가 업슬 듯도 ᄒᆞ고 ᄯᅩ ᄂᆡ가 죽기 곳ᄒᆞ면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 드리는 것인ᄃᆡ 하회도 아직 모르고 경션이 죽엇다난 불효만 될 터이라 ᄒᆞ야 오날ᄭᆞ지 실낫 ᄀᆞᆺ흔 목슘이 부지ᄒᆞ얏더니…… 에구 인제난 ᄂᆡ가 이 목슘을 ᄭᅳᆫ을 ᄯᅴ가 되얏ᄂᆞ 보다 ᄂᆡ가 쳐음 작뎡ᄒᆞᆫ ᄃᆡ로 못ᄒᆞ고 리시출에게 몸을 허락ᄒᆞ기난 부모를 위ᄒᆞ야 사셰 부득이ᄒᆞᆫ 일이어ᄂᆞᆯ 더구ᄂᆞ 종ᄂᆡ 신의를 져바려 이러타 말이 업스니 사ᄅᆞᆷ에 탈을 쓰고 그 ᄃᆡ우를 밧고셔 잠시간인들 엇지 살어 잇슬구."

ᄒᆞ며 눈문이 하염업시 비오듯 ᄒᆞ난ᄃᆡ 갓난 어멈이 불너ᄃᆡᆫ 듯이 드러오더니 긴봉ᄒᆞᆫ 편지 ᄒᆞᆫ 장을 허리춤에셔 ᄂᆡ여 쥬며

"작은 아씨 얼마ᄂᆞ 궁금ᄒᆞ시게 지ᄂᆡ셧슴닛가. 슈의ᄉᆞㅅ도씌셔 인제야 편지를 보ᄂᆡ셧슴니다. 어셔 쩨여 보십시오. 져난 작은 아씨를 위ᄒᆞ야 엇지 답답ᄒᆞ던지 하로도 몃 차례식를 길쳥에 가셔 슈의ᄉᆞㅅ도 문안을 무러도 엇의가 계신지 도모지 모른다고 ᄒᆞ기에 인제 말슴이지 슈의ᄉᆞㅅ도를 향ᄒᆞ야 에그 량반님네는 이러케 경우가 업나 이럴 쥴 아랏더면 나를 육포를 켜도 심부름을 안니ᄒᆞ엿슬걸 셜마 졈자은 터에 한 입으로 두 말를 ᄒᆞ리가 잇스리 ᄒᆞ얏더니 샹말로 쏭누러 갈 ᄯᅴ 다르고 올 ᄯᅴ 다르는 일톄로 한 번 가시더니 이 모양으로 아모 긔별을 안이ᄒᆞ시는 경우도 잇나 ᄒᆞ는 황송ᄒᆞᆫ 말슴도 한 두 번 안이ᄒᆞ얏슴니다. 그러면 그러치 그 ᄉᆞㅅ도씌셔 그러ᄒᆞ실 리가 잇슴닛가. 어셔 편지를 쩨여 보십시오. 인제는 작은 아씨가 됴흐시겟슴니다."

션초가 그 편지를 얼풋 밧아 피봉을 쩨여 들고 차차 나리 보는ᄃᆡ 편지 속에셔 지폐 몃 쟝이 우루루 쏘다지는지라.

"에그 이것이 웬 것이야."

간난 어미가 주엄주엄 집어 셰여 보더니 션초 무릅우에다 노으며

"에그 량반도 찬찬도 ᄒᆞ시지. 아마 아씨다려 요용소치로 위션 아슈신 데 쓰시라고 아는 듯 모로는 듯 이것을 편지 속에다 너어 보내신 것인가 보오이다."

션초가 그 말은 드른 체도 안이ᄒᆞ고 보던 편지를 마져 보다가 얼골빗이 붉으락 푸르락 ᄒᆞ다가 졈졈 노ᄅᆡ지며 손에 들엇던 편지가 셔리마진 나모입이 바ᄅᆞᆷ을 조ᄎᆞ 쩌러지듯 힘이 반뎜도 업시 슬몃시 무릅우에가 쩌러지는ᄃᆡ 뒤밋쳐 션초의 입에셔

"에구ㅣ"

ᄒᆞᆫ슘 한 마듸가 나오더니 그 편지는 박박 씨져버리고 지폐 십원은 빅지로 싸셔 갓는 어미를 주며

"여보게 이것 그 량반에게로 도로 젼ᄒᆞ야 주게."

간난 어미는 션초의 광경을 보고 무식ᄒᆞᆫ 것이 가샹 의ᄉᆞ스럽게 ᄂᆡ심으로 츄측ᄒᆞ기를

"에그 뎌 아씨 보게. 그런 줄 몰낫더니 보장이 어지간치 안케 큰걸. 돈 십원이면 우리는 한 밋쳔을 숨을 것인ᄃᆡ 뎌러케 도로 보닐 졔는 쇼들ᄒᆞ고 투졍ᄒᆞ는 것이 안인가. 엇의 나죵 ᄉᆞᆺ이나 구경ᄒᆞᆯ 겸 도로 갓다가 보내 보겟다."

ᄒᆞ고 돈 넌 봉지ᄅᆞᆯ 밧으며

(간) "이것은 웨 도로 보내심닛가. ᄉᆞᄉᆞ도ᄭᅴ셔 일ᄭᅥᆫ 아씨다려 쓰시라고 보내신 것인ᄃᆡ요ㅣ"

(션) "여러말 말고 갓다 두게. 간난 어미가 다시 말을 못ᄒᆞ고 그 돈을 도로 갓다가 김션달을 주엇더라."

사ᄅᆞᆷ이 ᄆᆡ운 ᄯᅳᆺ을 한 번 먹으면 셰샹만ᄉᆞ에 원통ᄒᆞᆫ 것도 업고 고긔ᄒᆞᆯ 것 앗가올 것이 모다 업는 ?이라 만리 젼졍에 ᄭᅩᆺᄀᆞᆺ흔 년긔도 앗갑지 안이ᄒᆞ고 량친부모의 슬하ᄅᆞᆯ ᄯᅥ나는 것도 고긔치 안이ᄒᆞ고 발근 셰샹을 영결ᄒᆞ는 것도 원통치 안이ᄒᆞ야 평탄ᄒᆞᆫ 낫빗으로 부모의 침쇼에를 단여셔 ᄌᆞ긔 방으로 도라와 압뒤ㅅ문을 텸텸히 닷고 시험ᄒᆞ야 닙어 보던 ᄉᆡ의복을 내여 졍결ᄒᆞ게 닙은 후에 아편은 언의 틈에 쥰비ᄒᆞ야 두엇던지 밤톨만ᄒᆞᆫ 것을 한입에 툭 드려트리고 물을 마셧더라. 텬륜이 심샹치 안인 것이라 그럿턴지 쵀호방 ᄂᆡ외가 모란이ᄅᆞᆯ 압헤다 누이고 한잠을 들냐 말냐 ᄒᆞ야 공연히 마ᄋᆞᆷ이 슈란ᄒᆞ야 션초우는 소리가 들니는 듯 ᄒᆞᆫ지라.

(츈) "령감 잠드셧소. 내 마ᄋᆞᆷ이 무단히 어슈션 산란ᄒᆞ며 잠이 안이오구려."

(쵀) "글셰 내 말이야 나도 잠을 벗노앗는 걸"

(츈) "웨 그런지 션초가 별안간에 보고 십소가셔 불너올가."

(쵀) "글셰 내 마ᄋᆞᆷ도 그러키는 ᄒᆞ지만 고만두지. 그 ᄋᆡ가 웬 망ᄒᆞᆫ 쟈로 ᄒᆡ셔 요사이 시시로 울기만 ᄒᆞ고 잠을 못자더니 오ᄂᆞᆯ은 아마 곤ᄒᆞ던지 초져녁부터 문을 닷고 아모 소리 업는 것을 공연히 ᄭᅵ엿다가 ᄭᅴᆯᄭᅴᆯ ᄋᆞᆷ 울기나 ᄒᆞ면 셩가스러온ᄃᆡ 고만 내버려두지."

쵀호방 ᄂᆡ외가 그 모양으로 슈작을 ᄒᆞ고 그ᄯᅩᆯ의 일로 한 걱졍을 ᄒᆞ는ᄃᆡ 압헤셔 자던 모란이가 별안간에 벌ᄯᅥᆨ 니러나셔 쥬먹으로 ᄯᅡᆼ을 치고 대셩통곡ᄒᆞ며

"에구 아바지 에구 어머니 나는 속졀업시 셰샹을 버렷소. 내가 이 원슈를 갑지 못ᄒᆞ면 언의 ᄯᅥᆨ까지던지 살이 ᄯᅥᆨ지 못ᄒᆞᆯ 터이오 ᄉᆡᆼ젼에 아바지 어머니 두 분ᄭᅴ 효셩을 다ᄒᆞ야 봉양ᄒᆞ려던 마ᄋᆞᆷ과 문필 가무 등 각죵 ᄌᆡ질은 모다 모란이ᄅᆞᆯ 젼ᄒᆞ야 쥬엇ᄉᆞ오니 저의 죽은 것을 슯허 말으시고 모란이에게 ᄌᆞ미를 보ᄋᆞᆸ시소셔"

쵀호방 ᄂᆡ외가 대경소괴ᄒᆞ야 달녀드러 모란의 손발을 ᄭᅩᆨ 붓잡고 흔들흔들ᄒᆞ며

(쵀) "이년 모란아 졍신 찰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츈) "모란아 모란아 나 좀 보아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ᄒᆞᆯᄉᆞ록 모란이는 더 울며

"아바지 져는 이 길로 져의 못ᄒᆞᆯ 노릇ᄒᆞᆫ 리시찰의 원슈를 갑흐러 가오니 소문을 드러보셔셔 리시찰에 무슨 일이 잇다고 ᄒᆞ거던 졔 소위인 쥴로 넉이십시오. 리시찰 졔가 남에게 그 모양으로 젹악을 ᄒᆞ고 아모려면 무ᄉᆞᄒᆞᆯ나구요. ᄌᆞ긔가 나려올 졔는 긔구를 한ᄭᅥᆺ 차리고 억ᄀᆡ바ᄅᆞᆷ으로 왓지마는 올나갈 ᄯᅥ에는 아마 복쟝을 쾅쾅 짓질 터이올시다."

쵀호방이 우두커니 듯다가 어이 업셔셔 마누라다려

"여보게 이 ᄋᆡ가 웬 곡졀인가. 자다가 말고 실셩을 ᄒᆡᆺ스니 문갑을 열고 쳥심환을 내여 오게. 어셔 먹여보셰."

션초 업머니가 쳥심환을 황망히 ᄭᅳ내다가 ᄇᆡᆨ비탕에 풀어 모란의 입에 퍼느으며 ᄋᆡᄅᆞᆯ 무한 쓰는ᄃᆡ 모란은 여젼히 그 모양으로 횡셜슈셜ᄒᆞ더니 날이 졈졈 발가오닛가 졍신을 모로고 혼곤히 느러지는지라. 쵀호방 ᄂᆡ외가 그졔야 마ᄋᆞᆷ을 놋코 역시 잠이 혼곤히 드럿다가 ᄒᆡ가 한나졀은 되야 ᄭᅵ여보니 모란이는 여샹히 ᄭᅴ여단이며 작란을 ᄒᆞ는ᄃᆡ 션초의 동졍이 도모지 업는지라 심즁에 심히 의심이 나셔 ᄂᆡ외 셔로 의론

ᄒᆞ기를

(쵀) "여보게 션초가 그져 안이 니러낫나."

(츈) "글셰요. 엇진 일인지 이ᄯᅢᄉᆞ지 볼 슈가 업소구려."

(칙) "졔 방으로 좀 가보지 필경 또 울고 잇나 보구먼 그러치 안이ᄒᆞ면 효셩이 유명히 잇는 것이 히가 낫이 되도록 어미 아비를 안이와 볼 리가 잇나."

(츈) "내가 가보고 오리다. 뎌것이 또 울고 잇스면 보기 슬혀 엇더케 ᄒᆞᆫ단 말이오."

ᄒᆞ며 션초의 쳐소로 가보니 방문이 그져 쳡쳡히 닷쳐 잇는지라 션초 어머니가 손쟝가락을 쑤부려 졧쳐들고 문셜쥬를 툭툭 울니며

"아가 아가 그져 자늬. 히가 한나졀이 지닛다고만 니러나 아츰밥을 먹어라. 에그 이 ᄋᆡ가 이러케 곤히 잠이 드럿나. 이 ᄋᆡ 아가 고만 이러나거라."

이ᄀᆞᆺ치 쳐음에는 나즉나즉이 ᄭᅵ우다가 나죵에는 문을 와락와락 잡아다리며 소리를 놉히여 크게 불너도 종ᄂᆡ 아모 동졍이 업는지라.

(츈) "에구 령감 이게 웬일이오. 잠ㅅ귀 발긔로 유명ᄒᆞᆫ ᄋᆞ히가 이러케 ᄭᅵ여도 ᄃᆡ답이 업스니 그 안이 심샹치 안이ᄒᆞ오."

(칙) "글셰. 웬 곡졀이란 말인구."

ᄒᆞ며 역시 음셩을 크게 ᄒᆞ야

"션초야 션쵸야 "

션초 어머니가 손ᄯᅡ락에다 침칠을 ᄒᆞ야 문바른 됴희를 ᄇᆡ비작 ᄇᆡ비작 쑬으더니 한편 눈을 드리ᄃᆡ고 한참 보다가 뒤로 펄쩍 쥬져 안즈며

"에구머니 뎌게 웬일인가."

칙호방이 눈이 둥그ᄅᆡ져셔

(칙) "응 웨 그리나. 무슨 일이 잇나."

(츈) "필경 뎌것이 죽엇나 보오."

ᄒᆞ며 두 발ㅅ길로 방문을 박ᄎᆞᄂᆞᆫᄃᆡ 그 문을 례ᄉᆞ날님으로 짠 것이 안인즉 평시ᄀᆞᆺ흐면 여간 녀편네 발ㅅ길 한 두 번에는 안이흘 터이지마는 물론 급ᄒᆞᆫ 디경을 당ᄒᆞ면 ᄲᅮᆫ 긔운이 한층 더 나는 법이라. 문짝이 션초의 어머니 발ㅅ길을 ᄯᅡ라 우루루 덜컥 잡바지며 완ᄌᆞ미다지가 그 바름에 것뭇어 렬파가 되난지라. 두 ᄂᆡ외가 한다름에 ᄲᅱ여 드러가니 션초가 벌셔 언의ᄯᅵ 그 디경이 되얏는지 ᄉᆞ지가 ᄲᅥᆺᄲᅥᆺᄒᆞ게 굿고 젼신이 ᄇᆡᆨ지쟝에 물을 츅이여 싸노은 듯 ᄒᆞᆫ지라 엇더케 긔가 막히던지 피ᄎᆞ에 말 한 마듸 못ᄒᆞ고 물그름히 드려다 보기만 ᄒᆞ다가 한편에셔 울음주머니가 툭 터지며 마조 몸부림을 쌍쌍ᄒᆞ고 방셩대곡을 ᄒᆞᄂᆞᆫᄃᆡ 그 집안 샹하로쇼와 리웃집 남녀친지가 모다 모혀 와셔 그 광경을 보고 흙흙 늣겨가며 눈물 안이내는 사ᄅᆞᆷ이 업는 즁 기즁 친근ᄒᆞᆫ 사ᄅᆞᆷ들은 칙호방 ᄂᆡ외를 붓드러 만류ᄒᆞᆫ다.

"여보십시오. 고만두시오. 암만 울면 쓸 ᄃᆡ 잇슴닛가. 긔왕 이 디경을 당ᄒᆞ신 터에 졍신을 찰이여 졔 몸 감쟝이나 유ᄒᆞᆫ 업시 ᄒᆞ야 쥬시는 일이 올슴니다. 에그 긔막킨 일도 잇지. 쏫갓흔 나에 병이 드러 텬명으로 이 디경이 되엿셔도 부모되신 터에 긔가 막히실 터인ᄃᆡ 뎨일 인물과 ᄌᆡ질이 앗갑지. 여보십시오. 어셔 긋치시고 초종처를 일이나 ᄉᆡᆼ각히 보십시오. 칙호방이 ᄒᆞᆫ숨을 휘ㅣ이 쉬고 니러나 감안히 ᄉᆡᆼ각ᄒᆞᆫ 즉 ᄌᆞ긔 쏠이 ᄌᆞ쳐ᄒᆞ기는 리시찰로 인연ᄒᆞᆫ 것인 쥴은 분명 알겟스나 자셰ᄒᆞᆫ 리유는 알 수 업는지라 졔 손그릇등쇽과 방구셕 ᄉᆞ면을 두로 솝혀 보노라니 아모것도 증거가 업고 다만 웃목에 씨져버린 휴지밧긔 업는지라. 주엄주엄 집어 낫낫치 펴가지고 이리 조각보모듯 맛쳐보니 이곳 리시찰의 편지인ᄃᆡ 그 ᄉᆞ연에

"긴 ᄉᆞ연 후리치고 피ᄎᆞ에 아ᄅᆞᆷ다온 인연을 ᄆᆡᆺ기는 ᄇᆡᆨ년을 히로코져 ᄒᆞᆷ이러니 다시 ᄉᆡᆼ각ᄒᆞᆫ 즉 년긔도 넘오 차등이 지고 ᄂᆞ의 형편으로 말ᄒᆞᆫ ᄃᆡ로 도뎌히 될 수가 업기로 계약셔는 보내지 안이ᄒᆞ며 돈 십원을 보내니 변변치 안으ᄂᆞ 분과 기름이ᄂᆞ 사셔 쓰기 ᄆᆡᆺ으며 이 사ᄅᆞᆷ은 공무ᄂᆞ 분망치 안이ᄒᆞ면 수히 일ᄎᆞ 가셔 옥안을 다시 ᄃᆡ할 듯 대강 긋치노라."

ᄒᆞ얏는지라. 칙호방이 보기를 다 ᄒᆞ고 도로 썩썩 부뷔여 집어 더지고 두 눈이 붉근 뒤집히여 니를 북북 갈고 북편을 ᄇᆞ라보며

"으ㅣ응 셰됴은 사름은 남의 젹악을 이러케 ᄒᆞ고도 무ᄉᆞᄒᆞᆯ가. 내 눈에 흙 드러가기 젼에ᄂᆞᆫ 엇의 좀 두고 볼 걸 여보게 마누라 울지 말게. 그까짓 소견업ᄂᆞᆫ 년 뒤어진ᄃᆡ 무엇이 셜워 운단 말인가. 그 위인이 밋지못ᄒᆞᆯ ᄌᆞ격이니 기다리지도 말고 진작 단념ᄒᆞ라닛가 말을 안이 듯고 고집ᄒᆞ더니 필경 제 몸을 이 모양으로 버려셔 아비 어미 눈에셔 피가 ᄂᆞ오게 ᄒᆡ"

션초 어머니ᄂᆞᆫ 그 말을 드르니 더욱 불샹ᄒᆞ고 원통ᄒᆞ야 자조 긔졀을 ᄒᆞ야 가며 울더라. 션초가 변변치 못ᄒᆞᆫ ᄌᆞ격이라도 그 모양으로 쥭엇스면 소문이 원근에 랑쟈ᄒᆞ려던 하물며 인물도 남다르고 ᄌᆡ질도 남다르고 지조도 남다른 즁 쥭기ᄉᆡᆺ지 남다르게 ᄒᆞᆫ 션초리오. 지여부지간(知與不知間) 그 소문을 듯고 다 한 마듸식은 말을 ᄒᆞᄂᆞᆫᄃᆡ 열이면 열 다 리시찰 욕ᄒᆞᄂᆞᆫ 소리ᄲᅮᆫ인ᄃᆡ 그 즁에 언론이 두 가지로 ᄂᆞ오기ᄂᆞᆫ 본군과 린읍의 기싱들이라 기싱 노릇을 ᄒᆡ도 졔 마음에ᄂᆞᆫ 쥭기보다 실흔 것을 ᄉᆞ셰에 씀싹ᄒᆞ지 못ᄒᆞ야 버셔나지 못ᄒᆞᄂᆞᆫ 계집은 션초의 고결ᄒᆞᆫ 것을 홈모ᄒᆞ야

"에그 마음이 엇지면 그러케 밉고 슨은 듯 ᄒᆞᆫ구. 우리ᄂᆞᆫ 그런 사름에게 비ᄒᆞ면 아모것도 안이지. 아모ᄶᅥ 쥭던지 쥭기ᄂᆞᆫ 일반인ᄃᆡ 무엇이 앗가워셔 이 드러온 일을 ᄒᆞ며 살아 잇노. 아모도 안이 드르니 말이지 리시출인지 누구인지 그것도 량반인가 무식ᄒᆞᆫ 샹사름과 달ᄂᆞ셔 의리도 잇고 톄통도 잇슬 터인ᄃᆡ 졔 ᄌᆞ식이라도 막ᄅᆡ쏠 벌이ᄂᆞ 되ᄂᆞᆫ 사름에게 그 모양으로 젹악을 ᄒᆡ셔 싱목숨을 슨케 ᄒᆞᆫ담."

ᄉᆡ집살이ᄒᆞ기가 슬커나 셔방을 나물ᄒᆞ고 졔 버릇 ᄀᆡ 못쥬어 모야 무디에 쒸여나와 기ᄉᆞᆼ을 ᄌᆞ원ᄒᆞᆫ 것들은 션초의 고집을 비쇼ᄒᆞ야

"어ㅣ 안이 쏜년 졔가 뎌 모양으로 쥭으면 대문에 쥬토칠ᄒᆞᆯ 쥴 알고 쥭은 뎌만 속졀업지. 인싱이 일장츈몽인ᄃᆡ 안이 놀고 무엇ᄒᆞᆯ구. 흥 우리ᄂᆞᆫ 그런 긔회를 맛나지 못ᄒᆡ셔 걱졍이야. 웨 얼넝얼넝히 그 비위를 살살 맛쳐가며 움푹히 쌀아 먹지를 못ᄒᆞ고 되지 못ᄒᆞ게 고집을 ᄒᆞ다가 졔 몸ᄉᆡᆺ지 버릴 곡졀이 무엇이람. 에그 우슈어라."

셔울 ᄉᆡ골 물론ᄒᆞ고 기싱 곳 쥭으면 젼후건 달이 모다 모혀 ᄉᆞᆺ평량ᄌᆞ에 징 장고 호젹 쇼고로 쿵 쾡 ᄂᆡ나누 ᄒᆞ면셔 쥴무지로 신톄를 내가ᄂᆞᆫ 것이 오ᄇᆡᆨ년 유ᄅᆡ지 고풍이 되얏ᄂᆞᆫᄃᆡ 더구ᄂᆞ 션초야 원통이도 죽엇스려니와 원ᄅᆡ 유소문ᄒᆞᆫ 터이라 그 신톄 ᄂᆞ가ᄂᆞᆫᄃᆡ 누가 구경을 안이 가리오. 읍 촌 여부업시 로쇼 남녀가 밧분 일을 졔쳐 놋코 인ᄉᆞ 겸 구경 겸 구름ᄀᆞᆺ치 모혀드럿ᄂᆞᆫᄃᆡ 쵀호방이 그 ᄉᆞᆯ에 향ᄒᆞ야 불샹ᄒᆞ기도 한이 업스니려니와 문견도 업ᄂᆞᆫ 쳐디가 안인 고로 슈의관곽 샹여등을 돈 앗가온 쥴도 모르고 한업시 치례를 ᄒᆞ고 슐과 밥을 흔젼흔젼히 작만ᄒᆞ야 긔구를 부릴ᄃᆡ로 부렷더라."

싱베두건을 눈셥ᄉᆡᆺ지 쑥쑥 눌너 쓴 샹여ㅅ군이 구졍닷쥴을 갈ᄂᆞ 메고 요령쇼리 몃 마듸에 원통ᄒᆞᆫ 신톄가 집을 하직ᄒᆞ고 써ᄂᆞ간다. 사름이 칠십이고 팔십이고 져 살ᄂᆞ를 다 살다가 한명에 병이 드러 쥭더ᄅᆡ도 영결죵텬 써ᄂᆞ가ᄂᆞᆫ 길에셔 더 셜운 것이 업다ᄂᆞᆫᄃᆡ ᄂᆞ이 쳥츈이오 셰샹을 원통히 버린 션초의 샹힝이야 다시 닐너 무엇ᄒᆞ리오. 상두슈번이 요령을 쩽경쩽경 치며

"워호 워호"

소리를 쥬닛가 여러 샹두군이 발을 밀어 니러셔며

"워호 워호"

신산 잡은 ᄃᆡ로 워호 소리를 쥬고 밧으며 가셔 양지 바른 ᄌᆞ좌오향판에다 깁슉히 장ᄉᆞ를 지내고 봉분을 덩그럭케 모아 노은 뒤에 사름은 다 허여져 가고 오즉 뷔인 산(?)이 젹젹ᄒᆞᆫᄃᆡ 달이 황혼이더라.

션초 어머니가 ᄉᆡ로 닙힌 잔듸를 두 손으로 부드등 부드등 뜻으며

"에구 션초야 웨 집을 버리고 예 와 잇ᄂᆞ냐. 세샹에 내가 모질기도 ᄒᆞ지 이것을 예다 버리고 혼ᄌᆞ 집으로 도라가려고 ᄒᆞ니 령감 ᄂᆞᆫ 참아 이것을 버리고 집으로 못가겟스니 여긔다 아조 뭇어를 주고 가오. 혼이 남아 모녀가 셔로

의지를 ᄒᆞ게."

쵀호방은 대범ᄒᆞᆫ 남ᄌᆞ라 좀테ㅅ일에 눈물을 안이내던 터이더니 비죽비죽 마조 울며

"여보게 ᄀᆡᆨ스러온 말 말고 나려 가셰. 셰상에 ᄌᆞ식짜라 죽ᄂᆞᆫ 부모가 엇의 잇던가. 졔가 이러케 쥭은 것이 이 탓 뎌 탓ᄒᆞᆯ 것 업시 쳣ᄌᆡᄂᆞᆫ 졔 팔ᄌᆞㅣ오 둘ᄌᆡᄂᆞᆫ 우리 팔ᄌᆞ이니 고만 울고 집으로 ᄂᆞ려 가셰."

뎨 륙회

칙호방 ᄂᆡ외가 압흘 가리는 눈물을 간신히 억졔ᄒᆞ고 집으로 도라오니 웬갓 것이 모도다 눈에 밟혀 못살 디경이라. 자박자박 ᄌᆞ최가 ᄂᆞᄂᆞᆫ 듯 ᄂᆞᄌᆞᆨᄂᆞᄌᆞᆨ 음셩이 들니ᄂᆞᆫ 듯 연ㅅ상혈합에ᄂᆞᆫ 졔 필젹으로 쓴 편지쪽이 데굴데굴 바느질 그릇에ᄂᆞᆫ 침션비올ㅅ졔 시험ᄒᆞ던 골모 괴불이 ᄃᆡ굴ᄃᆡ굴 탁ᄌᆞ위 만권 셔칙에는 몬지가 켜로 안졌ᄂᆞᆫᄃᆡ 이 갈피 뎌 갈피 질너둔 표지ᄂᆞᆫ 뎌 읽던 흔젹이 완연ᄒᆞᆫ 그 즁에 뎨일 간쟝이 슬슬 녹고 졍신이 아조 업셔지며 가슴이 답답히질 일은 문갑 우에 노혀잇ᄂᆞᆫ 양금이 방즁만 되면 쥴이 졀로 죄이며 똥, 쌍 ᄒᆞᄂᆞᆫ 소리라. 평시ᄀᆞᆺ흐면 그 소리가 일긔가 음음ᄒᆞᆫ 탓으로 복판이 늘며 쥴이 튀ᄂᆞᆫ 것이라ᄒᆞ야 심샹히 드럿스련마는 슈심이 겨워 잠을 못일우고 고싱고싱ᄒᆞᄂᆞᆫ 션초 어머니ᄂᆞᆫ 그 소리날ㅅ졔마다

"에구 뎌 소리가 또 ᄂᆞᄂᆞᆫ구ᄂᆞ. 져것도 심샹치 안이히셔 임쟈를 찻노라고 뎌러케 시시로 우ᄂᆞ보오. 령감 ᄂᆞᄂᆞᆫ 진졍이지 뎌 소리 듯기 실소. 집어다 아궁이에ᄂᆞᆫ 트러너으시오."

모란이가 엽헤 안졋다가 와락 쒸여 들며

(모란) "에그 어머니 그것은 웨 내가 가질 걸."

(모) "에 이 년 네가 그것은 히셔 무엇ᄒᆞ게."

(모란) "에그 요젼에ᄂᆞᆫ 언니가 음률ᄒᆞᆯ 졔마다 그리 ᄀᆞᄅᆞ쳐 쥬어도 금방금방 니져바리겟더니 엇진 일인지 요ᄉᆡᄂᆞᆫ 음률소리가 귀에 지잉ᄒᆞ야 놉고 얏고 되고 느린 가락을 모다 짐작ᄒᆞ겟ᄂᆞᆫᄃᆡ요."

(모) "에라 듯기 실타. 뎌리 가거라. 또 이 년 뉘 가슴에다 목을 박으랴고 음률을 ᄇᆡ랴고."

(모란) "어머니씌셔ᄂᆞᆫ 공연히 뎌리시네. 음률만 ᄇᆡ워 ᄂᆞ도 언니쳐름 기싱노릇을 히야ᄒᆞᆯ 터인ᄃᆡ."

(모) "기싱 비싱이 엇더냐. 이 년 다시 그런 아갈이를 버려 보아라."

됴션 텬지에 졔 힘 아니드리고 남쇽여 먹기로 싱애를 숨는 것들은 소위 무당 판슈라 무당 판슈가 맛ᄂᆞᆫ 사ᄅᆞᆷ마다 졍ᄃᆡᄒᆞ고 당ᄒᆞᄂᆞᆫ 일마다 광명ᄒᆞ면 한아도 쇽여먹지 못ᄒᆞ고 ᄌᆞ고숑모양으로 굴머죽은 지가 이구ᄒᆞ겟지마는 사ᄅᆞᆷ들도 보통 어리셕고 일도 ᄆᆡ양 의심ᄂᆞᆫ 즁 년ᄊᆡ가 마즈려면 텬디도 야릇ᄒᆞᆫ 법이라 션초 죽던 그 ᄃᆞᆯ부터 비한뎜 안이오고 ᄂᆡ리 감으ᄂᆞᆫᄃᆡ 논ㅅ밤이 밧두렁에 셕량만 득 그어ᄃᆡ면 홀홀 탈만치 오곡닙이 다 말ᄂᆞ 드러가니 감을이 넘오 심ᄒᆞ면 로략들이 셔독에 병들기가 십상팔구어ᄂᆞᆯ 무식ᄒᆞᆫ 부녀들이 무당에게도 뭇고 판슈에게도 무르니 뭇ᄂᆞᆫᄃᆡ마다 소지에 우근진으로 의례히 말ᄒᆞ기를 원통히 죽은 션초의 혼이 옥황샹뎨씌 호소ᄒᆞ야 날도 감을게 ᄒᆞ고 병도 단이게 ᄒᆞᆫ다 ᄒᆞᄂᆞᆫ 허탄무거ᄒᆞᆫ 말이 한 입 걸너 두 입 걸너 이 사ᄅᆞᆷ 뎌 사ᄅᆞᆷ 큰 쇼일ㅅ거리 숨아짓거리ᄂᆞᆫ 즁 농군의 집에셔 더욱 앙마구리 쓸듯 ᄒᆞ야 필경 대동이 츄렴을 노아 각ᄉᆡᆨ 과실에 큰 쇼를 잡아 션초의 무덤에 가 졔ᄉᆞ를 졍셩것 지ᄂᆡ야 그 혼을 안유코져 ᄒᆞ더라.

ᄐᆡᆨ일ᄒᆞᆫ 졔일을 당ᄒᆞ야 슈ᄇᆡᆨ명 남녀가 구름ᄀᆞᆺ치 모혀 슐잔을 닷호아 부어 놋코 졔각기 소원을 속으로 암츅ᄒᆞᄂᆞᆫᄃᆡ 엇던 쟈ᄂᆞᆫ

"션초씨여 이 슐을 달게 밧고 아모됴록 오날 밤 ᄂᆡ로 비가 압ᄂᆡ예 시위나도록 퍼부어 우리 논에 물이 말으지 안토록ᄒᆞ야 주소셔"

엇던 쟈ᄂᆞᆫ

"션초씨여 이 슐을 바든 후에 잠귀잡신을 모다 젯쳐쥬어 우리집 우환이 구름것듯 퇴송케ᄒᆞ야 주소셔."

이ᄯᅢ 리시찰은 거졀ᄒᆞᄂᆞᆫ 편지에 돈 십원을 너어 보내고 스ᄉᆞ로 싱간ᄒᆞ기를

"아마 내 편지을 보면 졔 싱각에 어히가 업스렷다. 기실은 어히 업슬 것도 업지. 나를 ᄃᆡᄒᆞ야셔ᄂᆞᆫ ᄀᆞ쟝 지조가 잇ᄂᆞᆫ 듯이 계약셔니 히로를 ᄒᆞᄂᆞ니 ᄒᆞ얏지마는 그게 다 남ᄌᆞ후리ᄂᆞᆫ 졔 힝틔이지 무얼 진심으로야 어린 것이 나갓흔 늙은이와 ᄀᆞᆺ치 살냐고 ᄒᆞᆯ나구. 참말 살기 곳ᄒᆞ면 졔가 안이 졔 쇽지에 물너갈가. 모로면 모로되 편지를 본 뒤에 필경 돈 십원 보ᄂᆡᆫ 것만 대

견ᄒᆞ야 얼마쯤 됴화ᄒᆞᆯ 걸."

거무하에 김션달이 그 돈 십원을 도로 가지고와 쥬며 션초가 밧지를 안이ᄒᆞ고 도로 싸보내더라 ᄒᆞᄂᆞᆫ지라 리시찰이 안이ᄭᅩ온 량반의 ᄆᆞ음이 불ᄯᅳᆫ 치밀어셔 발을 쌍쌍 굴느며

"어ㅣ 버르쟝이 업ᄂᆞᆫ 년 졔년쯤이 다과간에 내가 보ᄂᆡᆫ 것을 외람히 밧지를 안이ᄒᆞ고 도로 보내ㅣ 량반이 괴악ᄒᆞᆫ년 한 번 상관ᄒᆞ고 큰 욕을 보앗군."

김가ᄂᆞᆫ 아모됴록 리시찰의 비위를 맛치노라고

"진노ᄒᆞᄋᆞᆸ실 일이 안이올시다. 소인의 미련ᄒᆞᆫ ᄉᆡᆼ각에ᄂᆞᆫ 션초가 본시 욕심만흔 것으로 ᄉᆞᄉᆞ도 ᄭᅴ셔 갓가히 ᄒᆞᄋᆞᆸ셧스닛가 그 돈 쥬신 것이 졔 ᄆᆞᄋᆞᆷ에 약소히 넉여 도로 밧치면 젼쳔이나 더 쳐분ᄒᆞ실 쥴 알고 소견업시 그리힛나보이다."

리시찰이 그 돈을 젼장에 나갓던 아ᄃᆞᆯ 살아온 것 만치나 대견히 알아셔 한 번을 쳑 졉어 가방에다 너으며

"오냐 고만두어라. 내가 두고 쓰지. 뎌 슬타ᄂᆞᆫ 것을 ᄋᆡᄅᆞᆯ 써쥴 것 무엇 잇늬. 더 쥬어 뎌 더 줄 돈이 잇스면 내가 쌍을 다만 한 마직이라도 더 사셔 젼지ᄌᆞ손ᄒᆞ겟다."

김션달 물너간 뒤에 ᄌᆞ긔 ᄆᆞ음에 무엇이 그리 츙연유득(充然有得)ᄒᆞ던지 바른손으로 ᄇᆡᄅᆞᆯ 쓱쓱 문즈르며 초헌다리ᄅᆞᆯ ᄒᆞ고 누어셔 풍월ㅅ귀를 읇흐더니 잡이 스르르 드러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다가 이마ㅅ젼에 ᄯᅩᆷ을 쓸쓸 흘니고 벌덕 이러나더니 입맛을 쩍쩍 다시며

"응 쑴도 긔샹ᄒᆞ다."

ᄒᆞ고 연ㅅ상에 붓을 집어 먹을 찍더니 머리ㅅ맛벽에다 두 쥴을 가로

'야몽극흉 셔벽대길' (밤쑴 극히 흉ᄒᆞᆫ 즉 벽에 글을 쓰노니 크게 길ᄒᆞ라.)이라 쓴 뒤에 다시 드러눕더니 얼마 안이되야 ᄯᅩ 여전히 ᄯᅢᆷ을 물독에셔 ᄭᅥᆡᄂᆡᆫ 듯이 흘니며 니러나 혼ᄌᆞ 즁얼즁얼 쑴리약이ᄅᆞᆯ ᄒᆞᆫ다.

"어ㅣ 이게 무슨 쑴인가. 쇽담에 맘이 잇셔야 쑴에 ᄇᆡᆫ다ᄂᆞᆫᄃᆡ 내가 작란삼아 뎌ᄅᆞᆯ 한 번 상죵ᄒᆞᆫ 일이지 바늘ᄯᅳᆺ만치나 못니쳐 ᄉᆡᆼ각을 ᄒᆞ기에 펄젹 뵈이나 어ㅣ 요망스러온 것 쑴에 뵈일 터이면 됴흔 낫으로 반갑게 뵈이지를 워 안이ᄒᆞ고 내가 졔게 무슨 못ᄒᆞᆯ 노릇을 힛길ᄂᆡ 머리풀어 산발을 ᄒᆞ고 니ᄅᆞᆯ 아등아등 갈며 요약ᄒᆞᆫ 소리로 내게 이러케 젹악을 ᄒᆞ고 네 신셰가 평안ᄒᆞᆯ 줄 아ᄂᆞ냐 내 혼이 네 머리위로 쥬야쟝텬 도라단이며 네 가ᄉᆞᆷ을 쾅쾅 짓찌며 ᄒᆞᆫ탄ᄒᆞᄂᆞᆫ 양을 보고야 말겟다 ᄒᆞ고 발악발악 울며 덤뷔여 보이노 응 요망스러온지고."

리시찰이 그 쑴을 ᄭᅮ고나셔 입찬 소리로 쟝담은 ᄒᆞ얏지만은 일ᄌᆞ 이후로 공연히 심신이 산란ᄒᆞ야지며 머리ᄯᅳᆺ이 ᄆᆞᄁᆞᄇᆞ볏ᄆᆞᄁᆞᄇᆞ볏ᄒᆞᆫ지라. 다시 잠을 쟈지 못ᄒᆞ고 ᄋᆡᄭᅮ진 담ᄇᆡ만 펄쩍 먹ᄂᆞᆫᄃᆡ 그렁져렁 날이 밝앗더라.

김션달이 슘이 턱에 닷케 오더니 황망ᄒᆞᆫ 말로

(김) "ᄉᆞᄉᆞ도 간밤에 션초가 ᄌᆞ쳐를 ᄒᆞ얏담니다."

(리) "무엇이야 ᄌᆞ쳐를 ᄒᆞ다니 졔가 무슨 곡졀로 ᄌᆞ쳐를 힛단 말이냐. 네가 분명히 드럿ᄂᆞ냐."

(김) "듯다 ᄲᅮᆫ이오닛가. 관비가 가셔 보기ᄉᆡᆼ지ᄒᆞ고 왓담니다."

(리) "이 ᄋᆡ 듯기 슬타. 관비년은 너 엇지 그리 꼭 밋ᄂᆞ냐. 그 년이 역시 그 년이니라. 쥭엇다고 을음장을 ᄒᆞ면 내가 왼눈이나 ᄯᅡᆷ작ᄒᆞᆯ 쥴 알고 실업슨 것들이로구."

(김) "안이올시다. 졔가 ᄌᆞ쳐ᄅᆞᆯ 힛ᄂᆞᆫ지ᄂᆞᆫ 확실히 밋지 못ᄒᆞ겟슴니다마는 살을 마졋ᄂᆞᆫ지 관젹을 ᄒᆞ얏ᄂᆞᆫ지 쥭기ᄂᆞᆫ 뎡녕히 쥭엇길내 렴습졔구ᄅᆞᆯ 작만ᄒᆞᆫ다 관곽을 ᄯᅡᆫ다ᄒᆞᄋᆞᆸ지오"

(리) "참말 쥭엇슬 터이면 네 말맛다나 필경 살을 마졋거나 관젹이 되여 쥭은 것이오 ᄯᅩᄂᆞᆫ 만손 ᄌᆞ쳐를 ᄒᆞ얏다 ᄒᆞ더ᄅᆡ도 졔 손으로 뎌 쥭은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잇ᄂᆞ냐."

그 모양으로 김션달을 ᄃᆡᄒᆞ야셔ᄂᆞᆫ 말을 ᄒᆞ야 놋코 은근히 ᄆᆞᄋᆞᆷ에ᄂᆞᆫ 일샹 ᄭᅥ림ᄒᆞ던 ᄎᆞ에 쟝셩읍 인민들이 감을 과류힝병을 인ᄒᆞ야 션초의

무덤에 졔ᄅᆞᆯ 풍비ᄒᆞ게 지ᄂᆡᆫ다ᄂᆞᆫ 소문을 듯고 렴치됴케 스ᄉᆞ로 ᄉᆡᆼ각ᄒᆞ기를

"내가 졔게 젹원ᄒᆞᆫ 것은 업지마는 졔 ᄆᆞᄋᆞᆷ에ᄂᆞᆫ 얼마쯤 셥셥히ᄂᆞᆫ 녁엿던 것이야 그리기에 죵죵 내게 현몽ᄒᆞᄂᆞᆫ 것이니 졔 귀신을 위로ᄒᆞᆯ 겸 졔지ᄂᆡᄂᆞᆫ 구경도 ᄒᆞᆯ 겸 내가 좀 가보겟다."

ᄒᆞ고 대동이 ᄐᆡᆨ일ᄒᆞᆫ 졔ᄉᆞᄉᆞ날을 당ᄒᆞ야 리시찰이 션초의 무덤으로 ᄇᆡᄉᆞ심됴케 가셔 남녀로 쇼의 축원ᄒᆞᄂᆞᆫ 양을 ᄎᆞ례로 구경ᄒᆞ고 모도다 허여져 간 뒤에 ᄌᆞ긔 역시 슐 한 쟌을 ᄲᅡᆺᄲᅡᆺᄒᆞ게 부어 놋코 글 한구ᄅᆞᆯ 지어 고셩대독ᄒᆞᄂᆞᆫᄃᆡ

츄풍에ᄅᆡ ᄇᆡᆨ발ᄒᆞ야

가을바ᄅᆞᆷ에 ᄇᆡᆨ발이 와셔

락일에 곡쳥샨

ᄯᅥ러지ᄂᆞᆫ 날에 쳥산에셔 울다

가쟝 션초의 혼이 ᄌᆞ긔의 슐을 달게 흠향이나 ᄒᆞᆫ 듯 십어 희ᄉᆡᆨ이 만면ᄒᆞ야 도라왓더라. 그날밤 삼경이 못되야 별안간에 남풍이 슬슬 불며 ᄉᆞ면에셔 검은 구룸이 뭉게뭉게 니러나셔 탄탄대로에 긔초달니듯 ᄒᆞ더니 번ᄀᆡᄂᆞᆫ 번쩍번쩍 텬동은 우루루 우루루 쥬먹갓흔 비ᄉᆞ방울이 우두두 ᄯᅥ러지다가 거미긔에 눈을 못ᄯᅳ게 삼ᄉᆞᄃᆡᄀᆞᆺ치 퍼부어 오니 읍하의 우ᄆᆡᄒᆞᆫ 부녀들은 모다 됴화 츔을 츄며 졔각기 ᄒᆞᆫ 마듸식을 다짓거리기ᄅᆞᆯ

"셰샹에 령검도ᄒᆡ라. 무당판슈라 ᄒᆞᄂᆞᆫ 것이 헷것은 안인게야. 뎜쾌나는ᄃᆡ로 션초혼을 위로ᄒᆞ얏더니 당일ᄂᆡ로 비가 이러케 오지 이번일만 보아도 살아셔낙 쥭어셔나 션초ᄀᆞᆺ치 연ᄒᆞ고 싹싹ᄒᆞᆫ 사ᄅᆞᆷ을 나은 몃 살 안이되얏셔도 처음 보ᄂᆞᆫ 걸. 만일 이번에 인간들이 몽ᄆᆡᄒᆞ야 그양 ᄂᆡᄇᆞ려 두엇더면 언의ᄯᅢᄉᆞᆫ지 감을는지 모를번 ᄒᆞ얏지 인졔 비는 더 바랄것 업시 흡죡ᄒᆞ니 내 집 남의 집을 물론ᄒᆞ고 우환이나 마져 업셔졋스면 그 안이됴흘까."

리시찰이 젹이 신학문에 유의ᄒᆞᆫ 터 ᄀᆞᆺ흐면 그런 소리ᄅᆞᆯ 듯더ᄅᆡ도 비오ᄂᆞᆫ 리치ᄅᆞᆯ 풀어셔

"허허 무식ᄒᆞᆫ 것들이라 할 슈 업고 비가 졔지ᄂᆡᆺ다고 왓슬가 사ᄅᆞᆷ이 근쳔명이 모혀 왓다갓다ᄒᆞᄂᆞᆫ 바ᄅᆞᆷ에 먼지가 공즁으로 올나가 슈증긔를 ᄆᆡᄀᆡᄒᆞ야 비가 온 것이라."

셜명을 ᄒᆞ얏스련마는 이 눈셥만 ᄲᅦ도 쏭이 나올 분네ᄂᆞᆫ 료량ᄒᆞ기를

"흥 어림업ᄂᆞᆫ 것들이로구. 션초의 귀신이 비를 오게 힛슬 터이면 뎌의들 졍셩에 비가 왓슬가 내가 와셔 슐을 부어노코 글을 지엇슨 즉 거긔 감동ᄒᆞ야 비를 오게 ᄒᆞ얏슬 터이지."

그날밤에 아모 긔란업시 잠을 자려ᄒᆞᄂᆞᆫᄃᆡ 눈만 감으면 션초가 여젼히 와셔 머리위로 도라단이며 울고 부르지즈ᄂᆞᆫ지라 ᄒᆞᆯ 일 업시 니러ᄂᆞ 등쵹을 발키고 밤ᄉᆡ기를 기다리ᄂᆞᆫᄃᆡ 동이 트랴 말냐ᄒᆞ야 창밧긔셔 난ᄃᆡ업ᄂᆞᆫ 기침소리가

"에헴 에헴"

나거ᄂᆞᆯ 리시찰은 휘휘ᄒᆞ고 젹젹ᄒᆞ던 ᄎᆞ에 든든ᄒᆞᆫ 마ᄋᆞᆷ이 나던지 대단히 반거워ᄒᆞ며

"거긔 누구 왓ᄂᆞ냐."

기침소리가 긋치며

"예 영문에셔 셔간이 잇셔 왓슴니다."

리시찰이 갈녀간 관출과ᄂᆞᆫ 셔로 셩긔가 통ᄒᆞ야 결젼샹관에 별별 죠화를 다 부렷더니 ᄉᆡ로 나려온 관출과ᄂᆞᆫ 아즉 락락난합ᄒᆞ야 엇지ᄒᆞ면 계졔를 엇어 ᄯᅩ ᄒᆞᆫ 변 슈단을 퓌여볼고 ᄒᆞ던 판이라 영문에셔 셔간이 왓다ᄂᆞᆫ 말을 듯고 한업시 반거워셔 의복도 ᄎᆡ 닙지를 못ᄒᆞ고 니불을 두른ᄎᆡ 니러 안즈며 웃간에셔 자ᄂᆞᆫ 샹노놈을 ᄭᅵ와셔 문을 열고 편지를 밧아드리라 ᄒᆞ얏더라. 샹노가 눈을 부뷔고 부스시 니러ᄂᆞ 문을 막 열고 편지를 밧으려 ᄒᆞᆯ 즈음에 갓두루막이ᄒᆞᆫ ᄉᆞᄅᆞᆷ이 마루 위로 웃젹웃젹 올ᄂᆞ셔며 이 문뎌 문 턱턱 가로막아 셔더니 큼즉ᄒᆞᆫ 봉투 한아를 쥬며

"법부죠회로 령감 잡피셧슴니다."

리시찰이 자긔의 젼후ᄒᆞᆫ 일은 잇고 잡혓다ᄂᆞᆫ 말을 듯더니 슈각이 황망ᄒᆞᆫ 즁 삼십륙게를 쓰고 십으ᄂᆞ 문마다 막혀셔 움치고 쒤 슈가 업ᄂᆞᆫ지라 엇지ᄒᆞᄂᆞᆫ 슈 업셔 그 봉투를 밧아 속폭을 쏩아보며 우두커니 안졋다가

"잡혓스면 가지 ᄂᆡ 죄 업스닛가 아모 겁날것

업다."

ᄒᆞ고 샹노놈다려 셰슈를 노라ᄒᆞ야 소셰를 ᄒᆞᆫ 후 아침밥도 못먹고 그자들에게 ᄊᆞ들녀 영문으로 올ᄂᆞ가 그길로 평리원으로 압샹이 되엿더라. 리시츌 잡혀온 죄ᄂᆞᆫ 막즁국셰를 즁간 환롱ᄒᆞᆫ 죄라. 감옥셔에다 엄밀히 뢰슈ᄒᆞ야 두고 삼 년 동안을 지판ᄒᆞᄂᆞᆫᄃᆡ 셰샹 ᄉᆞ름이 디옥디옥히도 디옥이 별 것이 안이라 이 ᄉᆡᆼ에 잇ᄂᆞᆫ 감옥셔가 곳 디옥이라 그런고로 죄를 범ᄒᆞ고 그 쇽에을 한 번 드러만 가면 살아나올 졔 나온ᄃᆡ도 죽은 목숨과 조곰 다를 것이 업는 법이라. 리시츌이 쳐음에는 가장 쇠가 산톄ᄒᆞ고 큰 소리를 텰장 ᄀᆞᆺ치 쏩아ᄂᆡ다.

"량반이 감옥맛을 안이보면 못쓰ᄂᆞ니라. 감옥 말고 감옥에셔 더ᄒᆞᆫ ᄃᆡ를 드러왓더릭도 ᄂᆡ 죄 업스면 고만이지 겁을 손톱만치라도 ᄂᆡᆯ ᄂᆡ가 안이다."

ᄒᆞ면셔도 뒤는 나든지 은근히 자긔 샹뎐 두 신씨에게 고급을 ᄒᆞ야 일을 무ᄉᆞ타텹ᄒᆞ게 쥬션ᄒᆞ야 달나고 ᄋᆡ걸ᄒᆞᆫ 후에 눈이 감ㅅ도록 반가온 쇼식 듯기를 기ᄃᆡ리ᄂᆞᆫᄃᆡ 하로 잇흘 지나 졈졈 여러 ᄃᆞᆯ이 되도록 시원ᄒᆞᆫ 쇼식은 도모지 업고 ᄉᆞ름은 못당ᄒᆞᆯ 경우가 날로 ᄉᆡᆼ긴다. 그러케 감을던 일긔가 륙월을 잡아들며 무슨 비가 그러케 긋칠 ᄉᆡ 업시 오던지 졍결ᄒᆞᆫ 쳐소에도 습긔가 자연 ᄉᆡᆼ겨셔 의복은 눅눅ᄒᆞ고 긔명은 곰방이가 나ᄂᆞᆫᄃᆡ 더구나 양긔를 밧아보지 못ᄒᆞᄂᆞᆫ 감옥쇽이리오 침침칠야에 비소리ᄂᆞᆫ 주루룩 주루룩 모긔, 빈ᄃᆡ, 벼룩 등물은 먹을 판이ᄂᆞ ᄉᆡᆼ긴 쥴 알고 드리 덤뷔ᄂᆞᆫᄃᆡ 안져도 편치를 안이ᄒᆞᆫ 즁 눈 곳 감으면 션초가 여젼히 옥문밧긔와 도라단이며 원통ᄒᆞᆫ ᄉᆞ셜을 ᄒᆞ여가며 우ᄂᆞᆫ 소리가 두 귀에 완연히 들니니 오려던 잠이 쳔리만리 다라ᄂᆡ며 신셰타령이 부지 즁 ᄂᆞ온다.

"에구 ᄂᆡ 신셰가 엇지 ᄒᆞ다가 이 디경이 되얏슬가. 죄가 잇거던 죽이던지 귀양을 보ᄂᆡ던지 얼풋 쳐판을 ᄒᆞ야쥬거ᄂᆞ 밤낫 지판은 ᄒᆞ야도 ᄉᆞᆺ은 안이ᄂᆡ여 쥬고 이 모양으로 옥구멍에다 너어두니 ᄉᆞ름이 살이 슬슬 ᄂᆞ려 졀로 죽겟지."

이 디경 될 쥴 알앗던면 남과 혐의ᄂᆞ 안이지 엇드면 됴흘 것을 큰 훈공이ᄂᆞ 셰울 줄 알고 잡아 압샹ᄒᆞᆫ 동학당 슈 ᄇᆡᆨ 명을 진작 쥭여 업ᄉᆡ지를 안코 그ᄃᆡ로 가두어 두어셔 이 놈들이 ᄂᆞ를 못먹겟다고 별의살 덤뷔듯 ᄒᆞ며 줌먹질 발길질 입에 못담을 욕셜악담이 물퍼붓듯 ᄒᆞᄂᆞᆫ 즁 죠셕째를 당ᄒᆞ야 먹을 것을 좀 ᄒᆡ드려오면 이 놈도 ᄲᅦ아셔 가고 뎌 놈도 ᄲᅦ아셔 가셔 졍작 ᄂᆞᄂᆞᆫ 다만 몃 슐을 먹어보ᄂᆞᆫ 슈 업스니 당쟝 들피가 ᄂᆞ셔 ᄉᆡᆨ 쥭을 디경이오 그 ᄲᅮᆫ 안이라 밤이 되야 잠을 좀 자랴ᄒᆞ면 고 방졍마즌 션초귀신의 우ᄂᆞᆫ 소리에 실로 숑구히셔 견딜 슈가 업지 ᄂᆡ가 외입은 만히 못힛지마는 그 모양으로 소견업ᄂᆞᆫ 것은 듯고 보ᄂᆞ니 쳐음이야 졔가 규즁에 감초아 잇던 터이 안이오 계집 샹죵ᄒᆞᄂᆞᆫ ᄉᆞ름이 여간 거즌말로 쇽이기가 불시예ᄉᆞ어ᄂᆞᆯ 발셔 졔가 고만 살 팔즈라 즈쳐를 ᄒᆞ고셔 웨 ᄂᆡ게 와셔 셩화를 밧치누 ᄂᆡ가 지금은 횡ᄋᆡᆨ으로 옥쇽에셔 고ᄉᆡᆼ을 ᄒᆞ고 잇스니 ᄒᆞᆯ 슈 업지 죠만간 ᄂᆞ가기 곳ᄒᆞ야 보아라. 금부뒤 쟝님 몃 명만 불너다가 옥츄경을 일헤만 닑어 영영 셰샹 구경을 못ᄒᆞ게 가두워 버릴 터이다.

"그러ᄂᆞ 이네들이 ᄂᆡ일 범연히 쥬션을 ᄒᆞᆯ 리가 만무ᄒᆞᆫ데."

ᄒᆞ며 가슴이 부집죄이듯 밧짝밧짝 타드러가ᄂᆞᆫ ᄎᆞ에 자긔 집으로 무슨 편지가 급히 왓ᄂᆞᆫ지라. 됴흔 긔별이ᄂᆞ 잇ᄂᆞᆫ가 ᄒᆞ야 얼풋 밧아 ᄲᅦ여보니 자긔 큰 아ᄃᆞᆯ이 급ᄒᆞᆫ 관격으로 위ᄐᆡᆨᄒᆞ다ᄂᆞᆫ 병보라 알키가 레ᄉᆞ지 셜마 엇더ᄒᆞ랴 ᄒᆞ얏더니 비몽ᄉᆞ몽간의 션초가 압셔고 동학에 몰녀 쥭은 임씨 모자가 뒤를 셔셔 오더니 소샹 분명히 닐으ᄂᆞᆫ 말이

"네가 우리와 무슴 불공ᄃᆡ쳔지 원슈를 졋길ᄂᆡ 싱목숨을 ᄭᅳᆫ케 ᄒᆞ얏ᄂᆞ냐. 일인 즉 너를 잡아다가 살을 졈졈히 졈혀 간을 ᄂᆡ여 씹고 십다마는 그리고보면 네가 ᄉᆡᆼ젼에 앙화를 못다 밧을 터이기로 네 집 식구만 ᄎᆞ례로 잡아가고 네 몸 한아만 남겨두어 각ᄉᆡᆨ 고초를 당ᄒᆞᆯ 졔마다 지은 죄를 구뷔구뷔 ᄉᆡᆼ각ᄒᆞ게 ᄒᆞᆯ 터이다."

리시찰이 깜짝 놀ᄂᆞ 두 손으로 눈을 이리뎌리 씻고 졍신을 가다듬어도 쎄에 ᄉᆞ모치ᄂᆞᆫ 그 소리가 두 귀에 소상 분명히 들니는 것 ᄀᆞᆺ더라. 거미긔에 곽란으로 알턴 맛아ᄃᆞᆯ의 부음이 오더니 것뭇어셔 둘ㅅᄌᆡ아ᄃᆞᆯ 셋ᄌᆡ아ᄃᆞᆯ의 부음으로 손ᄌᆞ손녀의 변샹 긔별이 련쇽부졀ᄒᆞ야 드러오ᄂᆞᆫ지라. 쳐음에는 원통ᄒᆞᆫ 마음이 ᄂᆞ셔 눈물이 압흘 가리고 ᄒᆞᆫ숨이 것잡을 ᄉᆡ 업시 ᄂᆞ오더니 참쳑도 하여러번 보닛가 졸업ᄉᆡᆼ이 되엿던지 셜우니 원통ᄒᆞ던 마음이 다 엇의로 도망을 ᄒᆞ고 부음드를 ᄶᅥ마다 탄평무ᄉᆞᄒᆞ야

"졔명이 쌀으닛가."

졔가 쥭엇ᄂᆞᆫᄃᆡ ᄉᆡᆼ각히셔 소용이 무엇이냐 졀문 쳐쳡이 잇스니 ᄯᅩ ᄂᆞ으면 자식이지."

ᄒᆞᄂᆞᆫ 독ᄒᆞ고 무졍ᄒᆞ고 ᄆᆡ몰ᄒᆞᆫ ᄯᅳᆺ을 가슴속에다 품고셔 여상히 지ᄂᆡ다가 급긔 자긔 마누라가 여러번 독쳑을 보고 샹심이 되야 신음신음 알타가 세상을 ᄯᅩ 버렷다ᄂᆞᆫ 긔별을 듯더니 그졔ᄂᆞᆫ 몸부림을 쌍쌍ᄒᆞ며 긔가 컥컥 막히게 울다가 옥ᄉᆞ쟝이에게 구박을 ᄌᆞ심ᄒᆞ게 당ᄒᆞ더라.

ᄉᆞᄅᆞᆷ이 궁극ᄒᆞᆫ 디경을 당ᄒᆞ면 뉘우치ᄂᆞᆫ 마음이 졀로 ᄉᆡᆼ기ᄂᆞᆫ 법이라. 리시찰이 웬만ᄒᆞᆫ 사ᄅᆞᆷ ᄀᆞᆺ흐면 그 디경을 당ᄒᆞ얏스니 ᄆᆞᆰ은 낫 고요ᄒᆞᆫ 밤에 ᄌᆞ긔외 젼후의 지은 죄를 ᄎᆞ레로 ᄉᆡᆼ각곳 ᄒᆞ면 뉘우치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나셔

"에구 내가 이 앙화를 밧어 싸지. 수원수구를 ᄒᆞᆯ까마는 찰아리 죄지은 내나 진작 죽여 주엇스면 ᄇᆡᆨ번 샤양을 못ᄒᆞ려니와 ᄋᆡ쑤진 처ᄌᆞ야 무슨 죄가 잇나."

ᄒᆞ야 ᄌᆞ긔 한아 잘못ᄒᆞᆫ 죄로 처ᄌᆞ식의 불상이 세샹을 버린 일을 ᄉᆡᆼ각ᄒᆞ면 머리를 기동에라도 부듸져셔 싸러 죽을 터인ᄃᆡ 그런 회심을 ᄒᆞ기ᄂᆞᆫ 고샤ᄒᆞ고 죵ᄅᆡ 흰소리로 ᄌᆞ긔 조상탓부터 ᄒᆞᆫ다.

"어허 내가 이러케 ᄒᆞ면 내 몸만 해롭지 안이되겟구 우리 산소가 잘못 드럿거나 션셰에 지은 죄가 잇ᄂᆞᆫ 탓으로 ᄌᆞ식들이 모다 이물로 ᄉᆡᆼ겻다가 눈아헤 깜찍스러운 경상을 뵈엿ᄂᆞᆫ 것을 아모 지식업ᄂᆞᆫ 마누라ᄂᆞᆫ 공연히 ᄆᆞᄋᆞᆷ을 샹ᄒᆞ야셔 쳔금ᄀᆞᆺᄒᆞᆫ 몸까지 버렷지

"오냐 칠십에 ᄉᆡᆼ남ᄌᆞ도 ᄒᆞᆫ다는ᄃᆡ 아즉도 ᄂᆡ가 년부력 강ᄒᆞᆫ 즉 언의 쌔던지 이 ᄌᆡ판 ᄉᆞᆺ만 나거던 복셩스러온 규슈에게 후취도 ᄒᆞ려니와 ᄋᆡ나이ᄒᆞᄂᆞᆫ 젹은 마누라가 잇스니 셜마 ᄯᅩ 날 터인 즉 이 다음 소ᄉᆡᆼ아달을 학교에나 보내여 ᄀᆡ화공부를 식여 먹을 버리를 ᄒᆞ게 ᄒᆞ겟다."

리시찰이 당ᄒᆞᆫ 일은 언의 관찰ᄉᆞ와 공젼 건몰ᄒᆞᆫ 샹?으로 ᄌᆡ판 시작이 되엿ᄂᆞᆫᄃᆡ 아모죠록 고ᄉᆡᆼ을 더ᄒᆞ랴고 그러턴지 ᄌᆡ판ᄒᆞᆯ 쌔마다 뎨출ᄒᆞᆯ 증거와 변론을 미리 쥰비ᄒᆞ얏다가 급기 ᄌᆡ판졍에를 나가면 션초와 임씨 모ᄌᆞ가 눈압헤 와셔 울며 폭ᄇᆡᆨᄒᆞᄂᆞᆫ 소리에 졍신이 슈란ᄒᆞ야지며 한 가지 긔억을 못ᄒᆞ고 횡셜슈셜 쥬착업시 말이 나오는 탓으로 그 ᄌᆡ판ᄉᆞᆺ을 진시 못내고 쟝근 삼 년을 내ᄉᆞᆯ럿더라. 그쌔에 리시찰을 지어 부지간에 모도다 고소히셔 한 마듸식 이라도

"에ㅣ 잘코사니 졔가 상던 잘 맛난 탓으로 그만치 부릇되얏스니 엇의ᄉᆡᆼ지 ᄆᆡᄉᆞ를 극력조심ᄒᆞ야도 실수ᄒᆞ기가 십샹팔구어던 본ᄅᆡ 쥬졔 넘고 안이ᄭᅩ은 위인이 그갓치 쇼무긔탄(小無忌憚)ᄒᆞ고 남에 젹약을 ᄒᆞ엿스니 텬도가 엇지 무심ᄒᆞᆯ 리가 잇나. 그 죄벌을 당히 싸지."

이러케 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일반공론이라 과격ᄒᆞ다ᄒᆞᆯ 수 업거니와 젹거니 크거니 험의가 좀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흥 고까짓것 졔가 졔 벌을 밧으려면 아즉도 멀엇지. 아모에 젼ᄌᆡ ᄊᆡ아슨 것과 아모의 젼답 ᄊᆡ아슨 것 이라던지 누구누구를 모함ᄒᆞᆫ 것만히도 뎌만치ᄂᆞᆫ 고ᄉᆡᆼ을 ᄒᆞ고도 남을 터이오 그네 일과 우리의 쇼조ᄂᆞᆫ 다 고만두고 남의 일이라도 말을 ᄒᆞ쟈면 니가 졀로 갈(?)니기ᄂᆞᆫ 졔 동향에 잇ᄂᆞᆫ 임씨의 집에 ᄃᆡᄒᆞ야 ᄇᆡ은망덕으로 멸망을 식혓스니 그 원귀들이 감안히 잇슬리도 업고 그ᄂᆞᆫ 챠치 물론ᄒᆞᆫᄃᆡ도 쟝셩읍 기ᄉᆡᆼ 션초의 일로 말ᄒᆞ면 리시찰 ᄌᆞ긔 소위 학문가의 출신으로 쳘모로ᄂᆞᆫ 계집ᄋᆞ히가 목젼에 노ᄂᆞᆫ 풍졍만 탐ᄒᆞ야 힝실을 부졍히 가질지라도 아모조록

됴흔 도리로 권고를 간졀히 ᄒᆞ야 기과쳔션ᄒᆞ도록 ᄒᆞᄂᆞᆫ 것이 가ᄒᆞ거ᄂᆞᆯ 졔 ᄌᆞ격이 졀등ᄒᆞ고 지조가 비샹ᄒᆞᆫ 션초를 엇의ᄉᆡᆼ지 포쟝은 못ᄒᆡ쥬남아 졔 부형의 업ᄂᆞᆫ 죄를 억지로 씨워서 당쟝 죽일 듯이 위풍을 부리고 뒤로 은근히 소개를 ᄒᆞ야 빅발이 허연쟈가 막ᄂᆡ쏠 ᄀᆞᆺ흔 것을 간통ᄒᆞ고 그남아 약됴를 져ᄇᆞ려 ᄉᆡᆼ션ᄀᆞᆺ흔 것이 쳘텬지 ᄒᆞᆫ을 품고 쥭게 ᄒᆞ얏스니 앙화를 밧지 안코 무엇을 ᄒᆞᆯ고."

ᄒᆞ더라. 그런ᄃᆡ 션초와 임씨모ᄌᆞ가 리시찰 눈에 뵈인 일로 말ᄒᆞ면 아모라도 참말 그 귀신이 잇셔 원슈를 갑흐려고 그리ᄒᆞᆫ 것이라 ᄒᆞᆯ 터이지마는 기실은 그러치 안이ᄒᆞᆫ 것이 죽은 귀신이 잇셔 원슈를 갑흘 것 ᄀᆞᆺ흐면 지금 누구니니 누구니니 ᄒᆞᄂᆞᆫ 소위 ᄌᆡ상들이 한아도 와 셕죵신을 못ᄒᆞ고 참혹히 발셔 이 셰샹을 하직ᄒᆞᆫ지가 오릿슬 터이지마는 유명이 한 번 달나노은 이샹에 그러케 력력ᄒᆞᆯ 수 업ᄂᆞᆫ 것은 뎡ᄒᆞᆫ 리치라 그러나 도젹이 발이 져리다는 일톄로 리시찰이 ᄌᆞ긔 ᄉᆡᆼ각에도 지은 죄가 잇스닛가 공연히 겁이 나며 즁졍이 허히져셔 션초로도 뵈이고 임씨 모ᄌᆞ로도 뵈이ᄂᆞᆫ 즁 션악간 사ᄅᆞᆷ의 뇌라ᄒᆞᄂᆞᆫ 것은 극히 령통ᄒᆞ야 아즉 오지 안이ᄒᆞᆫ 압일을 미리 ᄭᆡ닷ᄂᆞᆫ 일이 잇다금 잇ᄂᆞᆫ고로 ᄌᆞ긔의 참경을 본일브터 샹쳐ᄒᆞᄂᆞᆫ 일ᄉᆡᆼ지 발셔 ᄆᆞ음에 켕겨셔 그 모양으로 션초귀신 임씨모ᄌᆞ귀신이 눈에 현연히 뵈이며 ᄒᆞᄂᆞᆫ 말이 귀에 쇼샹ᄒᆞ얏던 것이러라. 쵀호방이 션초의 참경을 본 이후로 한 가지 고집이 ᄉᆡᆼ겻ᄂᆞᆫᄃᆡ 이 고집은 별것이 안이라

"쏠ᄌᆞ식이라는 것은 반졀이나 ᄭᆡ쳐셔 가간통졍이나 ᄒᆞ면 넉넉ᄒᆞ고 밥이나 짓고 의복이나 ᄭᆡ여ᄆᆡ면 고만이지 한문ㅅᄌᆞᄂᆞᆫ 한ᄌᆞ도 가라칠 일이 안이오 또 기ᄉᆡᆼ으로 말ᄒᆞᆫᄃᆡ도 음률 가무가 변변치 못ᄒᆞᆫ ᄋᆞ히들은 열이면 열이다 후분이 됴화도 ᄌᆡ됴가 남보다 ᄭᆡ여나면 ᄌᆡ승덕박(才勝德薄)ᄒᆞ야 그런지 기기히 팔ᄌᆞ가 긔구ᄒᆞ더라 더ᄒᆞᆯ 말 업시 우리 션초로 보아도 제가 인물이라던지 음률 가무가 변변치 못ᄒᆞ얏더면 리시찰이 그 모양으로 욕심을 내여 의리부동ᄒᆞᆫ 힝위를 힛슬 리가 업셧슬 것이오 또 졔가 글ㅅᄌᆞ를 안이ᄇᆡ와 무식ᄒᆞᆫ 것 ᄀᆞᆺ흐면 의리인지 지조인지 엇지 알어셔 졔 목슘을 쓴을 디경ᄉᆡᆼ지 ᄒᆞ얏슬 리도 업스니 에ㅣ 우리 모란이년은 당초에 아모것도 가라치지 말고 그ᄃᆡ로 내버려 두겟다."

ᄒᆞ야 일졀 아모것도 ᄇᆡ호지를 못ᄒᆞ게 ᄒᆞ것마는 모란이난 ᄆᆡ를 맛고 ᄭᅮ지람을 들어가며 틈틈히 뎌의 일가ㅅ집에 가셔 동량글을 ᄇᆡ화셔 문필이 뎌의 형만 못지안이ᄒᆞ고 음률은 쵀호방 출입ᄒᆞᆫ 동안이면 졔 형 공부ᄒᆞ던 률보를 보아가며 ᄉᆞ습을 은근히 ᄒᆞ야 언의 ᄇᆡ반이던지 막힐 것이 업ᄂᆞᆫ 즁 형뎨의 얼골이 방불ᄒᆞᆫ 것은 흔이 잇ᄂᆞᆫ 일이라. 졔 나히 졈졈 차 갈ᄉᆞ록 들ㅅ덩이 ᄀᆞᆺ치 어엽버 졔 형의 얼골에셔 쏘귀어ᄂᆡᆫ 듯 ᄒᆞ더라. 그리지 안이히도 모란이가 턴륜이 감동히셔 졔 형의 넉드리ᄒᆞ던 소문드른 사ᄅᆞᆷ마다 모란이ᄂᆞᆫ 션초가 다시 왓다고 지목을 ᄒᆞ얏ᄂᆞᆫᄃᆡ 더구ᄂᆞ 인물 ᄌᆡ질이 졔 형과 방불ᄒᆞ니 호ᄉᆞ쟈(好事者)들이 오작 말을 만드러 ᄒᆞ리오.

"에ㅣ 셰샹에 희안ᄒᆞᆫ 일도 잇더라. 쟝셩읍에ᄂᆞᆫ ᄃᆡᄃᆡ로 명기한 아ㅅ식이 의례히 ᄉᆡᆼ기어셔 당년에 유명ᄒᆞ던 명쥬 보패가 ᄎᆞ례로 쥭고 그 뒤를 니어 션초가 ᄉᆡᆼ겨ᄂᆞ셔 쟝셩일군을 흔들흔들 ᄒᆞ다가 몹슬 바ᄅᆞᆷ에 써러진 ᄭᅩᆺ모양으로 하로밤 ᄉᆡ이에 흔젹이 업셔지고 젹막히 뷔인 가지에 셕양이 빗긴 모양이 되얏스니 아모라도 ᄉᆡᆼ각ᄒᆞ기를 인제ᄂᆞᆫ 산쳔도 변ᄒᆞ야져셔 쟝셩읍에 명기가 쓴치려ᄂᆞ보다 ᄒᆞ얏ᄂᆞᆫᄃᆡ 쥭은 션초ᄂᆞᆫ 참 희한ᄒᆞᆫ 일이야 요ᄉᆞ이에 도로 살아낫다는 걸."

모란이 셩식을 ᄌᆞ셰 아ᄂᆞᆫ 사ᄅᆞᆷ은 그런 말을 듯고

"올치 모란이가 졔 형 션초의 계젹을 힛스닛가 뎌러케 말ᄒᆞ기도 용혹무괴이지."

ᄒᆞ야 다시 뭇도 안이ᄒᆞᆯ 터이지마는 밋도 ᄭᅳᆺ도 업시 그 말을 쳐음 듯ᄂᆞᆫ 쟈ᄂᆞᆫ 쥭엇던 ᄉᆞᄅᆞᆷ

이 살아왓다는 말에 대경쇼괴ᄒᆞ야

"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션초가 살아낫다니 쥭은 ᄉᆞᄅᆞᆷ이 도로 ᄉᆞᆯ아ᄂᆞ 그러면 션초가 리시츌을 속이노라고 거즛 쥿엇던 것이로구면 엇더턴지 계집의 쇠라는 것이 긔가 막히더라. 리시찰은 커녕 우리도 그 쇼문을 듯고 쏙 쇽엇는걸."

그ᄃᆡᄉᆞ말 젼ᄒᆞ던 ᄉᆞᄅᆞᆷ도 두 가지 구별이 잇스니 션초의 ᄌᆞ쵸지종을 알고 말ᄒᆞᆫ 자는 션쵸가 리시츌을 속엿ᄂᆞ보다 ᄒᆞ는 의심에 ᄃᆡᄒᆞ야 졍ᄉᆡᆨ을 ᄒᆞ야가며 긔어히 변명을 ᄒᆞ야 쥬러니와 자긔도 남의 젼ᄒᆞ는 것만 듯고 졀인지 즁인지 알지도 못ᄒᆞ며 입이 가뷔엽게 짓거리던 자는 엇의ᄉᆡᆼ지 자긔의 쥬견을 셰우노라고 엇 구슈ᄒᆞ게 얼마쯤 말을 보ᄐᆡ여 ᄒᆞ더다.

뎨 칠회

지극히 어지신 하ᄂᆞ님씌셔ᄂᆞᆫ 호싱지덕(好生之德)을 쥬장ᄒᆞ시ᄂᆞᆫ 터이라 삼 년 동안을 옥구명속에셔 ᄉᆞᄅᆞᆷ은 못당ᄒᆞᆯ 고싱을 다 격던 리시출을 뇌여 ᄂᆞ와 세상구경을 다시 ᄒᆞ게 ᄒᆞ신지라. 그물을 버셔난 새와 일반으로 리시출이 옥문을 ᄂᆞ오니 그ᄯᅢ에ᄂᆞᆫ 이연ᄒᆞᆫ 량심이 잠깐 싱기어셔 스ᄉᆞ로 ᄌᆞ복ᄒᆞᄂᆞᆫ 말이라

"에구 ᄂᆡ가 이번에 고쵸격근 일이 모도다 ᄂᆡ 잘못이지 슈원슈구ᄒᆞᆯ 슈 잇나 임씨집 일로 말ᄒᆞ면 ᄂᆡ가 그 로인의 ᄉᆞ랑하던 은혜를 ᄐᆡ산갓치 지고 만분의 일이라도 갑지ᄂᆞᆫ 못ᄒᆞᆯ지언뎡 ᄂᆡ 요공을 ᄒᆞ자고 죄도 변변치 안은 그 아ᄃᆞᆯ을 ᄉᆞ졍업시 포ᄉᆞᆯᄒᆞ얏스니 엇지ᄒᆞ니 원통치 아니ᄒᆞ며 션쵸로 말ᄒᆞ면 졔가 그쳐럼 고집을 ᄒᆞ니 ᄂᆡ 욕심을 참앗더면 ᄂᆞ도 싱목슘을 ᄉᆞᆫ을 ᄯᅢ에 다시 업ᄂᆞᆫ 원혼을 품엇슬 것이니 일부흠원에 오월비샹(一婦含冤五月飛霜)이라ᄂᆞᆫᄃᆡ ᄂᆡ가 결단이 엇지 ᄂᆞ지안이ᄒᆞ얏슬고."

ᄒᆞ야 ᄀᆞ쟝 회ᄀᆡ한 듯이 일졀 녀ᄉᆡᆨ은 갓가히 안이ᄒᆞ고 점자는 힝ᄐᆡ를 이왕 학ᄌᆞ문하에 단이던 ᄯᅢ와 일반으로 ᄒᆞ니 이ᄂᆞᆫ ᄌᆞ기 마음에 ᄯᅩ한 번 속여볼 작뎡이러라 쇽담에 더 먹자면 것친 계라더니 리시출이 부조유업만히도 ᄌᆞ긔 식구ᄂᆞᆫ 굼지안코 넉넉히 지ᄂᆡ엿슬 것을 아모조록 불안당질을 ᄒᆞ야 장안에 손곱이 가ᄂᆞᆫ 거부장ᄌᆞ가 되야 보자ᄂᆞᆫ 작뎡겸 일ᄉᆡᆨ미인을 한 번 샹종ᄒᆞ자ᄂᆞᆫ 계교로 쳔신만고ᄒᆞ야 삼남시찰을 버러 ᄂᆡ려가셔 일ᄉᆡᆨ도 상관ᄒᆞ얏스려니와 ᄌᆡ물은 엇더케 휩쓰러 모라 올녀왓던지 만일 그 ᄌᆡ물을 굿게 직히기 곳ᄒᆞ면 츙쳥도ᄂᆡ에 큰 ᄌᆞ본가가 되엿슬 터인ᄃᆡ 것칠게 드러온 ᄌᆡ산이 ᄂᆞ갈졔도 것친 것은 당연ᄒᆞᆫ 리치라 리시찰이 자긔 집에를 와셔 그 ᄌᆡ물을 한 푼 써보도 못ᄒᆞ고 젼라감영에셔 바로 셔울로 압상이 되야 삼 년 ᄌᆡ판ᄒᆞᄂᆞᆫ 즁에 집안에 ᄉᆞᄅᆞᆷ도 씨가 업셔지고 ᄌᆡ물도 본ᄅᆡ 잇던 것ᄉᆡ지 보ᄐᆡ여 탕진을 ᄒᆞ얏스니 리시찰이 옥에셔 ᄂᆞ온 후로 본 집이라고는 쑥밧뿐이오 발을 ᄂᆡ드듸여 향ᄒᆞᆯ 곳 업스닛가 ᄒᆞᆯ 일 업시 이왕 소박ᄒᆞ야 버렷던 쳡의 겻방ᄉᆞ리ᄒᆞ고 잇는 곳을 슈쇼문ᄒᆞ야 ᄎᆞ져가셔 비진 ᄉᆞ졍을 ᄒᆞ야 몸을 의지ᄒᆞ고 잇스며 간능시럽게 틈틈이 교졔를 잘ᄒᆞ야 젼빅젼관의 구걸로 근근히 호구를 ᄒᆞ니 ᄌᆞ긔 마음에는 ᄉᆞ력이 훨신 펴인 줄 녁엿던지 지어먹은 마음이 ᄉᆞᄒᆞᆯ을 못가셔 이왕 힝ᄐᆡ가 도로 ᄂᆞ와셔 돈량곳 보면 쇼치ᄂᆞ 대단ᄒᆞᆫ 톄 ᄒᆞ야 친구도 모와 슐도 먹고 계집도 불너 쇼일도 ᄒᆞ더니 하로ᄂᆞᆫ 엇던 친구의 연회에를 갓더니 그 좌셕에 아모판셔 아모ᄃᆡ신 이하로 협판참셔 국쟝 쥬ᄉᆞ가 다수히 회집ᄒᆞ야 반죠뎡이 더 되고 겸ᄒᆞ야 각국 공령ᄉᆞ ᄂᆡ외국 상민도 젹지안이 모혓는지라 항여ᄂᆞ 실슈를 ᄒᆞᆯ가 하야 극히 조심조심ᄒᆞ노라고 먹고 십은 쥬육도 못 먹고 ᄒᆞ고 십은 슈작도 못ᄒᆞ며 한 변 구셕에셔 슙도 크게 못 쉬고 얌잔스럽게 안졋노라니 맛참 여흥으로 기싱의 가무를 보는ᄃᆡ 그 즁 기싱 한아이 ᄌᆞ긔의 얼골을 눈이 쑬어지게 녁여 보거ᄂᆞᆯ ᄌᆞ긔 역시 유심히 본 즉 분명히 알 슈는 업셔도 엇의셔 이왕 만히 보던 인물ᄀᆞ흔지라 으졋이

"이 ᄋᆡ 뎌 기싱 이리 오너라. 네 일홈이 무엇이고. ᄂᆞᄂᆞᆫ 몃 ᄉᆞᆯ이며 ᄉᆡ골은 엇의냐."

한 마ᄃᆡ 무러보고 십지마는 여러 귀즁ᄒᆞᆫ 좌ᄀᆡᆨ들이 엇더케 녁이는지도 알 슈 업고 겻헤 친구를 련비ᄒᆞ야 그 셩명거쥬를 탐지ᄒᆞ고 십으ᄂᆞ 그 ᄉᆞᄅᆞᆷ 못보는 ᄃᆡ는 무슨 힝셰를 ᄒᆞ얏던지 졔법 졍대ᄒᆞᆫ 톄동인 톄 ᄒᆞ던 터에 기싱의 일홈을 ᄌᆞ셰히 무르면 역시 무엇이라고 흉을 볼는지 알 길이 업셔 ᄉᆞᆯ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안져셔 그 기싱만 쏘아보며

"그것 다시 볼ᄉᆞ록 졀모ᄒᆞᆫ 걸. 엇더케 ᄒᆞ면 한 번 죵용히 불너볼구."

ᄒᆞ며 한 입에 ᄉᆞᆯ싹 집어삼커고 십은 마음이 ᄂᆞ셔 은근히 좌불안셕을 ᄒᆞᄂᆞᆫᄃᆡ 그 기싱이 츄던 춤을 즁간에 긋치고 리시찰 안졋ᄂᆞᆫ 압흐로 쑤루루 와셔 웃둑 셧더니 물그럼이 한동안 마죠보는지라 리시찰 ᄉᆡᆼ각에는

"자긔의 풍치가 두목지존쟝칠만 ᄒᆞ야 그 기싱이 뎌러케 와셔 보거니"

십어 한업시 됴흔 즁 도로혀 면구히셔 고ᄀᆡ를 돌녀 쏜ᄃᆡ를 보는 톄 ᄒᆞ는ᄃᆡ 그 기싱이 신ᄂᆡ리는 무당모양으로 쇼리 한 마듸를 버럭 질으더니 리시찰을 향ᄒᆞ야 젼후슈죄를 다흔다

"여보 넘오마오 남의 젹악을 넘오마오 졈ᄌᆞ는 쳐디로 학쟈문하에 츌입을 ᄒᆞ얏다면셔…… 여보 ᄂᆞᄉᆞ갑이ᄂᆞ 좀 ᄒᆞ시오. 귀밋헤 털이 힛득힛득ᄒᆞᆫ 터에 ᄂᆞᄀᆞᆺ치 어린 ᄋᆞ히에게 이다지 원통히 ᄒᆞ여야 가홀가요. 죠뎡에셔 불ᄎᆞ틱용으로 시찰을 보ᄂᆡ실 졔는 아모죠록 ?악ᄒᆞ야 풍속을 괴란케ᄒᆞ는 자는 징치ᄒᆞ고 졍직ᄒᆞ야 샤회에 모범될 만ᄒᆞᆫ 쟈는 포쟝ᄒᆞ라는 뜻인ᄃᆡ 웨 ᄂᆞ와 무슨 불공지슈가 잇길ᄂᆡ 무죄ᄒᆞᆫ 우리 아바지를 동학에 간련이 잇다 모홈을 ᄒᆞ야 옥즁에다 뢰슈ᄒᆞ고 ᄅᆡ일 포살 ᄒᆞ네 각ᄉᆡᆨ으로 위협ᄒᆞᆯ ᄲᅮᆫ 안이라 텬연스럽게 계약셔ᄭᅵ지 ᄒᆞ야 쥬고 급기 강졔로 욕을 뵈인 뒤에는 도쟝 ᄊᆡᆨ어 쥬마고 그 계약셔를 도로 달ᄂᆡ 가더니 인히 ᄇᆡ약을 ᄒᆞ야 ᄂᆡ가 쳘텬지 ᄒᆞᆫ을 품고 이러케 쥭게 ᄒᆞ얏스니 당신 마음에 얼마ᄂᆞ 샹쾌ᄒᆞ시오 ᄂᆡ ᄇᆡᆨ골이 진토가 될지라도 ᄂᆡ 원혼은 그ᄃᆡ로 잇셔 당신 후분이 얼마ᄂᆞ 잘 되ᄂᆞ 보고야 말 터이오 여보 무슨 졍이 그리 ᄲᅡᆺ닷히셔 ᄂᆡ 무덤에 와셔 슐을 부어 놋코 글을 지엇습더닛가 가을 바람에 ᄇᆡᆨ발이 왓다ᄒᆞ니 ᄂᆞ 술아셔 거졀ᄒᆞᆫ 량반이 쥭은 뒤에 무엇 ᄒᆞ려 왓스며 ᄲᅥ러지는 날에 쳥산에셔 운다 ᄒᆞ얏스니 울기는 무엇이 답답히셔 울엇습더닛가. 오날 ᄂᆡ가 이 좌셕에를 불원쳔리ᄒᆞ고 올ᄂᆞ오기는 다름안이라 당신이 시찰로 ᄂᆞ려와 그 탐음무도(?貪無度)ᄒᆞᆫ 힝실을 ᄒᆞ고도 필경 명찰ᄒᆞ게 직분을 다ᄒᆞᆫ 모양으로 셰상이목을 속엿슬 터이기에 이러케 만당귀ᄀᆡᆨ이 모히신 ᄃᆡ에셔 죄상을 공포ᄒᆞ려는 것이오. ᄃᆡ집에 변상이 슈업시 ᄂᆞ고 직산을 탕패ᄒᆞᆫ 것이 무심ᄒᆞᆫ 일인 줄로 녁엿습더닛가. ᄂᆡ ᄒᆞᆫ이 당신 간 곳마다 쏫ᄎᆞ가셔 후분이 얼마ᄂᆞ 잘 되ᄂᆞ 보고야 말 터이오."

ᄒᆞ며 무죄 량반을 비도라 모홈ᄒᆞ야 직물 ᄲᅦ앗던 일을 력력히 들어 슈죄ᄒᆞ는 즁 임씨부인의 양육ᄒᆞᆫ 은혜를 져바리고 쥭마고교로 자라난 그 아ᄃᆞᆯ을 죄업시 포살을 ᄒᆞ야 그 집 고부가 일시에 원통이 셰샹을 바린 일ᄉᆡᆨ지 모조리 공포ᄒᆞ니 그ᄯᅢ 그 좌셕에 참예ᄒᆞᆫ 귀ᄀᆡᆨ 즁 언어를 즉졉으로 통치못ᄒᆞᄂᆞᆫ 외국사ᄅᆞᆷ은 당쟝에ᄂᆞᆫ 아모런 줄 모르고 다만 당황히 넉일 ᄲᅮᆫ이로되 기타 모대신 모협판이하로 평시에 리시찰을 상업지 안케 넉이던 여러 분네들이 그 기싱의 ᄒᆞᄂᆞᆫ 거동을 보고 심히 괴샹ᄒᆞ야 쳐음에ᄂᆞᆫ

"뎌것이 풍병이 잇거나 광징이 드럿나보다."

ᄒᆞ얏더니 ᄎᆞᄎᆞ 그 말을 드르니 무슨 묘ᄆᆡᆨ이 착실히 잇ᄂᆞᆫ 일이라. 각기 련비를 ᄒᆞ야 그 기싱의 ᄅᆡ력을 무른 즉 일홈은 모란이오 ᄉᆡ골은 쟝셩인ᄃᆡ 당시 명기로 셰샹에 일홈이 휜쟈ᄒᆞ던 쵀호방의 쏠 션초의 아오 모란이라 션초가 비록 하방의 잇는 쳐기나 그 품힝과 직화를 모로ᄂᆞᆫ 사ᄅᆞᆷ이 업시 썩 유명ᄒᆞ얏던 탓으로 ᄌᆞ셰ᄒᆞᆫ 곡질은 몰나도 ᄌᆞ쳐ᄒᆞ얏다는 소문은 다 듯고 모다 가셕히 녁이던 터이던이 급기 모란의 일쟝ᄒᆞᄂᆞᆫ 말을 듯고 션초의 불힝이 된 리유를 뎡학히 알겟ᄂᆞᆫ 동시에 리시찰의 죄샹ᄉᆡᆨ지 일일히 알겟스나 한갓 모란의 거동에 ᄃᆡᄒᆞ야 의심될문뎨 한 가지가 되얏ᄂᆞᆫᄃᆡ

"죽은 션초가 솔아나셔 모란이 모습을 쓰고 왓단 말인가 산모란에게 죽은 션초의 넉이 드럿단 말인가 외양은 보면 모란이ᄃᆡ로 잇고 슈작을 드르면 션초가 왓스니 그안이 이샹ᄒᆞᆫ 일인가."

이ᄯᅢ 리시찰은 엇지 긔가 막힌지 아모말도 못ᄒᆞ고 안져 듯기만 ᄒᆞ다가 감안히 ᄉᆡᆼ각을 ᄒᆞᆫ 즉 묵묵히 발명업시 잇다가ᄂᆞᆫ ᄌᆞ긔 과실이 모다 발각되야 일ᄌᆞ반급이라도 다시 엇어 히볼가 ᄒᆞ고 일썬 힝셰를 젹공드려ᄒᆞᆫ 것이 속졀업슬 디경이라 무슨 효험이나 볼 쥴 알고 어엽버ᄒᆞ던 본의업시 졍ᄉᆡᆨ을 ᄒᆞ야 모민을 보며

"이년 이 밋친 년 이 좌셕이 엇던 좌셕으로 알고 얼토당토안인 광언망셜을 이러케 ᄒᆞᄂᆞ냐.

번연히 술아셔 짓것리는 년이 나다려 죽엿느니 마니 응 간밤에 쑴자리가 뒤슝슝ᄒᆞ더니 괴악ᄒᆞᆫ 년의 슈작을 다 듯는다."

ᄒᆞ고 좌상에 ᄌᆞ긔와 친졀ᄒᆞᆫ ᄌᆡ샹을 쳐다보며

"시싱은 오날 이런 소조가 업슴니다. 이런 밋친것이 또 엇의 잇슴닛가. 륜쳑이 업는 말을 함부루 짓거려 조좌즁에 창피케 ᄒᆞ오니 역일 변괴올시다. 소ᄆᆡ 평싱에 눈도 코도 못보던 것이 어셔 와셔 뎌를 죽엿느니 술엿느니 못ᄒᆞᆯ 험담이 업시ᄒᆞ는 모양을 보온 즉 뎌것이 밋친년 곳안이면 필경 동학여당으로 시싱에게 형벌당ᄒᆞᆫ 무엇이 회ᄀᆡ는 ᄒᆞᆯ 쥴 모로고 도로혀 함혐을 ᄒᆞ야 뎌것을 쇠이여 이거죠를 ᄒᆞ도록 ᄒᆞᆫ 것이오니 대감게옵셔 경무ᄉᆞ대감씌 말숨ᄒᆞ오셔 근인을 사문ᄒᆞ야 긔어히 득졍을 ᄒᆞ도록 ᄒᆞ야 쥬옵소셔."

그 말이 쑥 써러지쟈 모란이가 또 소리를 질너 수죄ᄒᆞ는 말이

"여보 간ᄉᆞ도 ᄒᆞ오. 그ᄅᆡ도 나를 몰나본다고 히. 그만치 고싱을 ᄒᆞ고도 넷 버릇이 그져 남엇구려. 누구를 잡아가두고 사문을 ᄒᆞ야 달나구. 이왕에는 셰샹을 속이고 명예를 도젹질ᄒᆞᆫ 탓으로 ᄉᆞ면ᄃᆡ우도 밧고 여간 벼슬도 엇어 힛거니와 ᄂᆡ가 이 모양으로 셜원ᄒᆞ는 것을 목도ᄒᆞ시고야 언으 량반이 당신의 말을 올케 녁여 나다려 무엇이라ᄒᆞᆯ 쥴로 알고 내가 유명이 다른 탓으로 직졉으로 말을 ᄒᆞ는 도리가 업셔셔 ᄂᆡ 아오 모란의 입을 빌어 당신의 죄샹을 이러케 말ᄒᆞ는 것인ᄃᆡ 누구다려 밋친년이니 광언망셜이니 ᄒᆞ오. 궁흉극악ᄒᆞᆫ ᄃᆡ과 더 말ᄒᆞᆯ 것이 업스니 나는 가오."

ᄒᆞ더니 모란이가 뒤로 벌썩 잡바져 인히 긔식을 ᄒᆞ얏는지라. 리시찰과 깁흔 관계 업는 쟈들은 일변 모란의 거동을 괴샹히 넉이고 일변 리시찰의 본ᄉᆡᆨ을 ᄭᆡ다라 검다 쓰다 일언 반ᄉᆞ를 안이ᄒᆞ는ᄃᆡ 기즁 리시찰을 사ᄌᆞ아금니 앗기듯 ᄒᆞ던 신ᄃᆡ신은 멋업는 호령을 ᄂᆡ심에 잔쓱 쥰비ᄒᆞ기를

"어ㅣ 요망ᄒᆞᆫ 년 ᄉᆞ불범졍이어던 엇의셔 이ᄉᆡ짓 버르쟝이를 ᄒᆞ노라고 어ㅣ 암만히도 그ᄃᆡ로 두지 못ᄒᆞ겟구."

ᄒᆞ야 그 자리에셔 슌검을 불너 모란이를 ᄂᆡ야쥬랴 ᄒᆞ다가 신ᄃᆡ신은 본ᄅᆡ 쳔셩이 근신ᄒᆞᆫ 터이라 둥그런 눈을 씀젹씀젹ᄒᆞ며 다시 싱각ᄒᆞ기를

"대범 물건이라는 것이 불평ᄒᆞ면 우ᄂᆞ니 뎌것이 ᄆᆞᆰ은 졍신의 말이라 ᄒᆞᆯ 슈는 업스나 졔ᄯᅳᆫ은 무슨 원통ᄒᆞᆫ 일은 잇기에 뎌 모양으로 울며 ᄉᆞ셜을 ᄒᆞ는 것이니 아모럿턴지 그ᄃᆡ로 ᄂᆡ버려두고 동졍을 더 보리라."

ᄒᆞ고 감안이 안져 모란의 폭빅ᄒᆞ는 말을 력력히 듯더니 모란이가 ᄒᆞ던 말을 다 맛치고 그 자리에 가 쓸어지며 넉을 일는 양을 보고 그날 연회가 술풍경이 되야 ᄅᆡ빈이 흘님흘님 다 헤여져 가는 통에 리시찰은 무안에 취ᄒᆞ야 뎨일 몬져 삼십륙계 즁샹칙을 ᄒᆞ얏더라

당초에 모란이ᄀᆞ 져의 형 죽은 후로 쑴마다 져의 형이 와셔 울며 부탁ᄒᆞ기를

"이 ᄋᆡ 모란아 네가 아모됴록 시셔 ᄀᆞ무 음률 침ᄌᆡ를 나만치 ᄇᆡ화 가지고 교방에 일등이 되야 네 형의 ᄆᆡ져먹엇던 소원ᄃᆡ로 셩취도 ᄒᆞ고 네 형의 쎄에 ᄉᆞ모친 셜원도 ᄒᆞ야다고."

ᄒᆞ니 한 나이라도 젹어셔는 아모 의ᄉᆞ도 못내다가 십오셰가 되야 온갓 지각이 날말ᄒᆞ닛까 ᄌᆞ긔 형이 원억히 셰샹을 ᄇᆞ린 일이 졈졈 유한이 되야 무슨 능력으로 셜분을 상쾌히 ᄒᆞ야주는 도리가 업는지라 쥬ᄉᆞ야탁으로 골몰히 궁리를 ᄒᆞ다가 한ᄀᆞ지 계칙를 내여 셔울셔 다년 기부로 영업ᄒᆞ던 박별감이 다리고 외입을 ᄒᆞ던 기싱은 드려보내고 ᄉᆡ로 기싱을 구ᄒᆞᆯ ᄎᆞ로 나려온 것을 알고 사름을 쇼개ᄒᆞ야 쳥히다가 가기를 ᄌᆞ원ᄒᆞ며 약도ᄒᆞ는 말이라.

"당신이 긔왕 기싱을 구ᄒᆞ려 오셧다 ᄒᆞ니 불필타구로 나를 다려가시오. 내가 당신을 싸라간ᄃᆡ도 츔이라던지 노ᄅᆡ라던지 지어 각ᄉᆡᆨ 음률ᄉᆡ지라도 ᄉᆡ로 ᄇᆡ홀 것이 업슨 즉 부비 한 푼 들 것 업고 다만 내쥬인이 되야 밧갓도량만 ᄒᆞ야주면 내 목뎍 달ᄒᆞ는 날ᄉᆡ지 매챵은 ᄉᆞ양치 안

이ᄒᆞ고 ᄒᆞ려니와 결다코 매음은 안이ᄒᆞᆯ 터이니 그리 알으시고 갓치 ᄀᆞ십시다."

박별감이 그 말을 듯고 ᄉᆡᆼ각ᄒᆞ야 본 즉

"날ㅅ득이를 돈 주고 사다가 ᄉᆡᆼᄆᆡ 길드리는 일톄로 이 삼년 동안을 불쇼한 ᄌᆞ본을 허비ᄒᆞ야 가라치는 것보다 모란을 돈 한 푼 안이주고 ᄃᆡ려다가 가무등쇽을 슈고스럽게 가라칠 여부 업시 그날부터 버러먹는 것이 해롭지 안코 ᄯᅩ는 긔왕 기부노릇을 ᄒᆞ는 터에 뎌러ᄒᆞᆫ 명기를 한 번 다리고 지내는 것이 올커니"

ᄒᆞ야 소원ᄃᆡ로 ᄒᆞ게 ᄒᆞᆷ아. 다짐을 ᄒᆞ고 즉시 교마를 찰여 셔울로 올나와 약방에다 구실을 박앗는ᄃᆡ 박별감이 비록 쳔ᄒᆞᆫ 업은 ᄒᆞᆯ지언뎡 과히 샹업지는 안이ᄒᆞᆫ 쟈이라 모란의 원치안이ᄒᆞ는 ᄆᆡ음을 일졀 식이지 안이ᄒᆞ고 다만 ᄆᆡ챵ᄒᆞ는 노름에만 보내는ᄃᆡ 기ᄉᆡᆼ이 인물만 쏙쏙히도 예셔 오너라 졔셔 오너라 ᄒᆞ거던 함을며 가무가 갓고 음률ᄉᆡᆨ지 셔화ᄉᆡᆨ지 능란ᄒᆞᆫ 모란이리오 날마다 엇지 ᄊᆡ이는지 잠시도 집에 드러안즐 겨를이 업는ᄃᆡ 모란은 일편졍신이 언으 좌셕에셔던지 리시찰곳 맛나면 망신을 한 번 톡톡이 쥴 작뎡인ᄃᆡ 가량 평교긋흐면 일부러라도 한 번 ᄎᆞᄌᆞ가 리시찰을 보고 움파긋흔 주먹으로 볼치를 눈의셔 불이 나게 훔쳐치며

"ᄃᆡᆨ이 내 형을 웨 원통히 죽엿슴ᄂᆞ 법소도 갈 것 업시 내 손에 당쟝 죽어보아라."

ᄒᆞ련마는 남ᄌᆞ도 안이오 녀ᄌᆞ요 녀ᄌᆞ즁에도 쳔기라 그리ᄒᆞ는 수는 업고 다만 좌셕에셔 맛나기만 기ᄃᆡ리는ᄃᆡ 텬힝으로 그날 연회에셔 리시찰을 보고 즉졉으로 그 얼골에다 줌을 빗타가며 슈죄를 ᄒᆞ려다가 ᄉᆡᆼ각ᄒᆞᆫ 즉 그 좌셕에 리시찰의 샹년이 만이 잇는 모양인ᄃᆡ 셧불니 ᄒᆞ다는 망신만 ᄒᆞ겟는 고로 ᄀᆞ쟝 ᄌᆞ긔형의 넉이나 씨운 듯이 일호 고긔업시 ᄒᆞ고 십은 말을 다 ᄒᆞ얏더라. 모란의 그 거죠 한 번이 엇지 그다지 령독ᄒᆞᆫ지 리시찰이 일ᄌᆞ 이 후로 간 곳마다 뎡거가 되야 복직은 키녕 쳥편지 한 쟝 엇어보는 도리가 업스니 돈 한 푼 ᄉᆡᆼ길 곳은 업고 허구ᄒᆞᆫ ᄂᆞᆯ 무엇으로 먹고 닙고 살아가리오 그 즁에 악죵의 쳡은 져의 남편이 벼슬을 단여 돈을 버러드릴 졔는 졔랑탁을 좀 히볼 작뎡으로 입에혀 노릇을 ᄒᆞ며 가진 간특을 다 부리다가 감옥셔 삼 년에 가산을 여지업시 털어 맛치고 다시는 벼살도 못ᄒᆞ고 돈도 못버러드리니 날마다 함박쪽박을 메여 붓치며 포달을 부리는 통에 잘 먹지도 못ᄒᆞ지마는 여간 먹는 것이 살로 한뎜 못가는지라. ᄇᆡ도 곱흐고 ᄌᆞ긔쳡의 박ᄋᆞ지 긁는 것도 귀치안어셔 낫 모로는 집으로 남이 알셰라 모를 셰라 단이며 소ᄆᆡ동량을 ᄒᆞ야가지고 ᄌᆞ긔 집에 드러갈 졔는 ᄀᆞ쟝 누가 보내쥰 모양으로 그 쳡을 속여 안유ᄒᆞ며 근근히 지내더니 하로는 남문안 엇던 골목에를 지나다가 대문이 큼즉ᄒᆞ고 룡마루가 번쥬구러ᄒᆞᆫ 집을 보고 얼골아는 사ᄅᆞᆷ이나 안이보ᄂᆞ 뒤를 흘금흘금 둘너보며 그 집으로 드러가 쳐량ᄒᆞᆫ 말로 산쳔초목이 슬어질만치 ᄋᆡ원ᄒᆞᆫ ᄉᆞ정을 ᄒᆞ며 다쇼간 구걸을 ᄒᆞᆫ다.

"예ㅣ 쏠이 되나 돈이 되ᄂᆞ 젹션 좀 ᄒᆞ십시오. 늙은 부모가 병이 드러 여러 달포ᄌᆡ 위셕ᄒᆞ얏는ᄃᆡ 가셰가 말이 못되야 졀화를 여러째 ᄒᆞ얏사오니 다쇼간 젹션을 ᄒᆞ시면 미음이라도 한 째를 쓸여 봉양ᄒᆞ겟슴니다."

그 집이 공교히 부억문에셔 즁문이 마조 내다뵈이는ᄃᆡ 쥬인이 무엇을 ᄒᆞ러 맛츰 부억에를 나려왓다가 즁뮨밧긔 셧는 걸인을 물ᄉᆞ럼히 내다보다가 혼ᄌᆞ 웃고 안으로 드러오며

"텬리가 무심치는 안이ᄒᆞ다. 졔가 펄경 뎌디경이 되엿군. 우슈워라 늙은 부모가 병이 드럿셔 뎌의 부모가 ᄯᅩ 엇의 잇던ᄀᆞ 량친이 구몰ᄒᆞ야 조고여싱으로 자라낫다는ᄃᆡ 오냐 입맛이 썩 붓게 두둑이 동량을 주어 이 다음에 ᄯᅩ 오는 양을 보겟다."

ᄒᆞ더니 두 쥬문을 덜걱덜걱 열고 쓸코 쓸은 어ᄇᆡᆨ미를 푹푹 퍼셔 붉은 도ᄅᆡ함지로 슈북ᄒᆞ게 담아 ᄋᆞ히하인을 식여 내여보ᄂᆡ더라. 그 집안 쥬인은 별 사ᄅᆞᆷ이 안이라 곳 연회좌셕에셔 리시찰 슈죄ᄒᆞ던 쟝셩명기 모란이니 그 날 그 좌셕에 의긔남ᄌᆞ 한아이 잇셔 션초 모란 형뎨의

릭력을 일일히 듯고 그 졀조를 깁히 흠복ᄒᆞ야 즉시 모란가 빅년을 뢰약ᄒᆞ고 남문안에다 살님을 불치불검ᄒᆞ게 썩 얌젼히 찰엿ᄂᆞᆫᄃᆡ 리시찰이 문젼에 와셔 구걸ᄒᆞᄂᆞᆫ 양을 보고 두 눈이 쑥 솟게 호령을 ᄒᆞ야 내쏫츠려다ᄀᆞ 업는 부모 병 드럿단 말이 하도 우슈워서 다시 싱각ᄒᆞ야 보고 쏠을 후히 쥬어 보ᄂᆡᆫ 것이라 리시찰이 그 쏠을 밧아ᄀᆞ지고 도라오며 혼ᄌᆞ 싱각이라

"에ㅣ 참 그 집이 부쟈도 부쟈려니와 인심도 ᄆᆡ우 됴흔 걸. 그 집 한 집에셔 엇은 것이 열스무집에셔 엇은 것보다 썩 만치안은ᄀᆞ 슈일 후에 또 한 번 다시 ᄀᆞ보겟다."

ᄒᆞ고 몃칠 후에 그 집을 젼위ᄒᆞ야 ᄎᆞᄌᆞᄀᆞ셔 외마루문ᄌᆞ로 구걸을 ᄒᆞ면 또 그러케 만히 쥬지안을 ᄲᅳᆺ 십허셔 림시변통을 ᄒᆞ야

"예ㅣ 쏠말이나 젹션ᄒᆞ십시오 셰 살 먹은 어린 것이 시두를 방쟝ᄒᆞ고나셔 온갓 먹을 것을 찻는ᄃᆡ 가셰가 말이 못되야 죽 한 그릇도 쓸여 주지 못ᄒᆞᆷ니다. 후덕ᄒᆞ신 ᄃᆡ에셔 후히 보조를 ᄒᆞ야 주십시오."

모란이ᄀᆞ 그 다음부터는 구걸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밧게와 소리 곳 질으면 빅ᄉᆞ를 제치고 내다보더니 그 날 리시찰이 또 와셔 구걸ᄒᆞᄂᆞᆫ 양을 보고 동량은 안이주고 하인을 식여 안마당으로 드러오라 ᄒᆞ니 리시찰은 엇진 곡졀인지 알지 못ᄒᆞ고 원릭 후ᄒᆞᆫ 집이닛ᄀᆞ 의ᄎᆞ로 필육이나 량미셤이나 두둑이 주려나보다 ᄒᆞ고 그 하인의 뒤를 ᄯᅡ라 드러ᄀᆞ다ᄀᆞ 마루위를 흘긋 쳐다보니 여화여월ᄒᆞᆫ 졀문 부인이 두렷이 셔 잇는지라 구걸을 ᄒᆞ더릭도 렴치ᄀᆞ 잇는 사ᄅᆞᆷ 깃흐면 황송히도 고기를 푹 슉이고 샹벌간 쳐분만 바랄 터인ᄃᆡ 이는 지각을 엇더케 타고 낫는지 그 즁에도 부졍당ᄒᆞᆫ 싱각이 들기를

"잠시간 보아도 뎌 녀편네ᄀᆞ 썩 잘 싱겻는ᄃᆡ ᄂᆞ를 웨 이러케 졔잡담ᄒᆞ고 불너 드리노…… 거번에 동량을 한함지ᄂᆞ 쥴 ᄲᅢ브터 이샹스럽더니 이번에는 이러케 불너들릴 졔는 필유 곡졀ᄒᆞᆫ 일이로군 동량만 쥬라며는 문밧긔 셰우고라도 넉넉히 쥴 터인ᄃᆡ…… 옛날 리약이에도 ᄂᆞ모양으로 궁ᄒᆞ게 도라단이다ᄀᆞ 쟝ᄀᆞ 잘 들고 ᄌᆡ물도 만히 엇은 일이 잇다더니……아마 내ᄀᆞ 인졔ᄂᆞᆫ 싱수ᄀᆞ ᄂᆞ려ᄂᆞ보다. 집에 잇는 쳡은 늙은 것이 악죵만 시시로 부리고 아모 ᄌᆞ미ᄀᆞ 업것마는 그남아 버리게 되면 당쟝 몸 의탁ᄒᆞᆯ 곳이 업겟길내 마음ᄃᆡ로 못ᄒᆞ얏더니…… 엇의 아모럿턴지 뎨관하회(第觀下回)를 ᄒᆞ야 내게 달도록 ᄒᆞ야보겟다"

ᄒᆞ모 은근히 마음에 됴화ᄒᆞ더니 마루위로셔 그 녀인이 긔침 ᄒᆞᆫ 번을 카악 ᄒᆞ더니 리시찰 얼골이 모닥불 담아 부은 듯이 확근확근 ᄒᆞ야 지난 말이 ᄂᆞ온다.

"녀보소 걸인 보아ᄒᆞ니 ᄉᆞ시륙체ᄀᆞ 멀졍ᄒᆞᆫ 터에 허다못히 인력거를 쓸기로 못살아셔 남의 집으로 도라단이며 업난 부모의 병이 잇ᄂᆞ니 업난 ᄌᆞ식이 시두를 힛ᄂᆞ니 거즛말을 ᄒᆞ여ᄀᆞ며 동량을 ᄒᆞ러단녀 초년에 죄를 지으면 말년에 죄를 밧는 것은 ᄲᅥᆺᄲᅥᆺᄒᆞᆫ 리치어ᄂᆞᆯ 져 디경이 되야셔도 죄를 싱각지 못ᄒᆞᆯᄀᆞ 눈을 들어 내ᄀᆞ 누구인지 ᄌᆞ셰 쳐ᄃᆞ볼지어ᄃᆞ"

리시찰이 그 말을 듯고 만단의심이 ᄂᆞ셔 고기를 들어 쳐ᄃᆞ보고셔 얼골빗이 진당홍물 씨어 언진듯 ᄒᆞ야지며 고기를 ᄃᆞ시 푹 슉이고 한거름에 도주를 ᄒᆞ더라.

긔쟈 왈 소셜이라 ᄒᆞ는 것은 ᄆᆡ양 빙공착영(憑空捉影)으로 인졍에 맛도록 편즙ᄒᆞ야 풍쇽을 교졍ᄒᆞ고 샤회를 경셩ᄒᆞᄂᆞᆫ 것이 뎨일 목뎍인 즁 그와 방불ᄒᆞᆫ 사ᄅᆞᆷ과 방불ᄒᆞᆫ 사실이 잇고 보면 ᄋᆡ독ᄒᆞ시는 렬위부인 신ᄉᆞ의 진진ᄒᆞᆫ ᄌᆞ미가 일층 더 싱길 것이오 그 사ᄅᆞᆷ이 희기ᄒᆞ고 그 ᄉᆞ실을 경계ᄒᆞᄂᆞᆫ 됴흔 영향도 업지안이ᄒᆞᆯ지라. 고로 본긔쟈는 이 쇼셜을 긔록ᄒᆞᆷ이 스ᄉᆞ로 그 ᄌᆞ미와 그 영향이 잇슴을 바ᄅᆞ고 또 바ᄅᆞ노라.